

2011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

- ▣ 회의일시 : 2011. 8. 23 (화)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6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2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3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4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5	종마계획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1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도체찰사교서)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검토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2	분류두공부시연해 권17~19	
3	제왕운기	
4	정몽주 초상 및 함	
5	허전 초상	
6	현종가례진하계병	
7	박사익 초상 및 함	
8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	
9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10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심의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1-04-001

1.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8.12.1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2.25.)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위 사안에 대해 2011년 제2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11.04.14.)의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복장유물 확인 및 김제 금산사 대장전 광배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되었음.
- 본 위원회에 복장유물 현품 및 추가조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본 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11.06.09.)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됨에 30일간 지정 예고(11.06.20~07.1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북유형문화재 제213호(2008.01.04. 지정)
- 명 칭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 수량 : 3구, 발원문 3점, 복장유물 일괄(18건 373점, 목록참조)
- 규격 : 석가여래좌상 높이 147cm, 무릎폭 107.5cm
가섭존자입상 높이 159.5cm
아난존자입상 높이 160cm
- 재질 : 흙, 나무
- 제작연대 : 1650년(효종 1)
- 제작자 : 응매(應梅), 관해(寬海), 천명(天明), 성율(性律), 노원(魯元), 사준(思俊), 뇌인(雷忍) 등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세 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이 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 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세 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동국사는 군산에 있는 일본식 사찰로 근대문화재로 지정 되었을 뿐 아니라 사찰에서 유물관리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지정 가치 있음)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석가여래와 2대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로 구성된 삼존상으로서 원래는 금산사 대장전에 있었던 불상임이 발원문과 사진으로 확인 된다. 150cm가 넘는 대형상으로는 유일한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한 석가여래삼존이며, 165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기록에만 남아 있는 응매의 유일한 작품인 점 그리고 나한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발원문에 기재된 불상과 복장물 등 각종 물목에 시주한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과 1000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기재된 점에서 이 불상 제작에 든 불사의 구성과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 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施主秩과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그리고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성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후기 불상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浩然太湖와 碧巖覺性이 증명법사로 참여하여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화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僧俗의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하여 造成役事를 마친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應梅의 현존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道雨, 熙莊 등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중한 신체, 조용하면서 중후한 상호의 표현,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 등에서 높은 종교적□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장중하면서 선 굵고 중후한 맛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발히 활동했던 응원□인균과의 조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이어서 유파 간의 상호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곧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일괄은 당시의 시대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과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전라북도 군산시 동국사에 있는 소조 석가여래상과 가섭과 아난존자를 협시로 하는 삼존불이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상들의 제작에는 나무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점토를 붙인 것으로 일반적인 소조 불상의 제작기법을 따르고 있다.

삼존상중에 석가여래상에는 발원문은 없으나 가섭과 아난 협시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원래 이 세 상이 順治 7년 1650년(효종 1) 6월에 같이 제작되어 9월 2일에 완성 전라북도 금산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각 존상에서 나온 경전에 찍힌 인장모양이 같고, 발원문에 석가, 가섭, 아난, 시주자 명단이 보이므로 조성시기는 삼존불상 모두 같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에 불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벽봉당 覺性이 증명법사로 기록되었다. 1950년대 후반 당시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모

서진 삼존불을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 중무원장으로 계실 때 동국사 대웅전에 이운 봉안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확실한 기록도 있다.

발원문에 기록된 제작 조각승에는 應梅, 寬海, 性律, 魯元, 思俊, 雪忍등이 언급되었는데 응매는 수화승 覺敏과 함께 1614년에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현재 소실)을 제작하였고 관해는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불좌상과 십육나한을 제작하였으며 성률은 1633년 고창 선운사 대웅전 목조 삼불상을 수화승 무염스님과 같이 조성한 것으로 보아 이 동국사상 제작에 관여한 조각승들은 이미 17세기 전 반부터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들이 모여서 제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석가본존불좌상의 크기는 150cm이고 양쪽의 가섭과 아난존자는 입상으로 160c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상이다. 본존 불상의 조각표현에서는 얼굴이 네모나고 이목구비가 크며 옷주름 표현도 굵고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넘친다. 두 손의 표현 역시 입체감이 있고 자연스럽다. 두 협시상은 모두 합장을 한 자세이나 왼쪽 가섭존자상은 두 손을 왼쪽으로 높이 들어서 역시 생동감이 가득하다. 채색이 좀 지나치게 밝은 감은 있으나 상들의 표현은 옛 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세 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이 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세 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동국사는 군산에 있는 일본식 사찰로 근대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찰에서 유물관리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현상 및 특징

동국사 불상은 본존인 석가여래좌상과 두 협시인 아난과 가섭의 입상으로 구성된 석가여래삼존상이다. 석가여래좌상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여래상의 모습이며, 아난과 가섭은 150cm가 넘는 입상으로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먼저 석가여래좌상은 약간 네모진 얼굴에 무표정한 얼굴 모습으로 각이 진 넓은 어깨와 더불어 다부진 인상을 준다. 어깨를 덮은 편단우견의 대의를 입었으며 굵고 넓은 옷주름과 왼쪽 무릎에는 소매자락이 발을 덮은 모습이다. 아난과 가섭

상은 자세나 얼굴 표정, 옷을 입은 모습 등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합장한 아난상과 달리 가섭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채 두 손을 약간 위로 들어 잡은 모습이며 얼굴 표정 역시 엄숙한 아난과 달리 가섭상은 활짝 웃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 불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을 비롯한 다양한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는 금산사 대장전에 봉안되었던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1910년의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상을 만든 화원은 應梅, 寬海, 性律, 魯元, 思俊, 雷忍이며 그 옆으로 불상과 복장물에 필요한 각종 물목을 자세하게 명시하였으며 천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응매는 1614년 覺敏과 함께 순천 송광사 대웅전의 삼존불상을 제작하였음이 <<조계계산 송광사사고>>에 언급되었으나 작품은 전쟁중 소실되었다. 따라서 동국사 불상은 현존하는 응매의 유일한 불상이 된다. 함께 조각한 관해는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16나한상을 인균과 함께 조각하였으며, 1643년 진주 성전암 목조불상을 제작한 승려이며 성륜은 무염과 함께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의 목조불상을 조성하였다. 이 가운데 관해가 인균과 함께 불상 조성에 참여한 점이 주목된다. 왜냐 하면 군산 동국사 석가여래상의 무릎 밑으로 흘러 내린 물결모양의 주름이라든지 오른쪽 발을 감싼 소매자락의 표현 등은 인균이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불상이나 순천 송광사 광원암 아미타불좌상과도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은 석가여래와 2대제자인 가섭과 아난존자로 구성된 삼존상으로서 원래는 금산사 대장전에 있었던 불상임이 발원문과 사진으로 확인된다. 150cm가 넘는 대형상으로는 유일한 아난과 가섭을 협시로 한 석가여래삼존이며, 1650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연대와 기록에만 남아 있는 응매의 유일한 작품인 점 그리고 나한상의 자연스러운 자세와 표정이 돋보이는 중요한 작품이다. 더불어 발원문에 기재된 불상과 복장물 등 각종 물목에 시주한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된 점과 1000명이 넘는 시주자 이름이 기재된 점에서 이 불상 제작에 든 불사의 구성과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1) 석가여래삼존상

군산 동국사는 1909년 일본인 조동종 승려 錦江禪師 개창한 사찰로, 1956년 6

월 12일 불교전북교당에서 인수하여 동국사로 개명하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 24교구 선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동국사 경내에는 일본식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 등록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원래 금산사 대장전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중무원장으로 재직 하던 1950년대 후반 이곳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가섭과 아난존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順治 7년(孝宗 1, 1650) 6월에 조성불사를 시작하여 9월 2일에 공사를 마쳐 금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불상 조성에는 碧巖覺性(1575-1660)¹⁾과 浩然太浩(1564~1652)²⁾등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양대 문파의 최고승이 참여하여 증명하였고, 彫刻은 應梅를 비롯한 寬海, 天明, 性律, 魯元, 思俊, 雷忍 등 6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施主秩에 따르면, 불상조성에 참여한 僧俗이 무려 1,050여 명에 이르는데, 이것만으로도 당시 불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應梅는 1614년 수화원 覺敏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고, 次畫員 寬海는 1633년 印均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性律은 1633년 수화승 無染과 함께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주자 중 信岡³⁾, 道雨⁴⁾, 雙照⁵⁾, 熙莊⁶⁾ 등은 17세기 중엽 경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다른 유파의 조각승이 주도한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의 구성은 향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上首弟子인 가섭과 아난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듯 가섭은 늙은 비구형으로, 아난은 젊은 비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1) 벽암 각성은 芙蓉靈觀(1485-1571) - 浮休善修(1543-1614)의 법맥을 이었다.

2) 浩然 太浩는 芙蓉靈觀(1485-1571) - 淸虛休靜(1520-1604) - 靜觀一禪(1533-1608)의 법맥을 이었다.

3) 信岡은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회장), 1652년 전북 완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무염),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수화원 도우), 1664년 전남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도우) 등을 제작하였다.

4) 道雨(또는 道祐)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51년 강원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지장보살삼존상(수화원 무염), 1655년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수화원), 1657년 칠곡 송림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등을 제작하였다.

5) 雙照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그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승 道雨) 등을 제작하였다.

6) 熙莊은 1639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청헌), 1646년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4년 경북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수화원),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을 제작하였다.

윤곽을 잡은 다음 흠으로 완성한 목심 소조불상이다.

우선 석가여래상의 머리는 육계와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가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반구형의 정상계주를 갖추었다.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한 얼굴은 양 볼과 턱 선을 두툼하고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코는 높고 큼직하며, 콧방울을 크고 두툼하게 처리하여 중후하면서도 개성적이다. 적당히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시선을 깊이 있게 처리하여 온화하고 자비롭다. 얼굴에서 풍기는 중후함은 1633년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좌상이나 익산 심곡사 아미타여래좌상 등과 유사하다.

착의형식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장의 대의로 걸쳐 입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대의는 두텁게 처리하여 신체의 굴곡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은 한번 가량 날렵하게 반전시켰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선의 강약 변화가 거의 일정한 직□곡선을 사용하였으나 흠으로 빛은 탓인지 부드러우면서 골이 깊어 탄력적이고 입체적이다. 가슴 아래로는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단순화 시킨 군의가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불룩 나온 복부의 곡선이 간취된다. 특히 양쪽 어깨에 표현된 골 깊은 입체적인 Y자형 주름과 역Y자형 주름이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수인은 손가락 마다 미묘한 변화를 주어 잔잔한 운율이 느껴진다.

좌법은 길상좌로 왼쪽 넓적다리에 올린 오른발은 노출하였고 대의자락에 덮인 왼발은 윤곽만을 표현하였는데,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반전하며 내려온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 발가락 위로 드리워진 소맷자락은 잎 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무릎 앞쪽으로 중앙의 넓은八字형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진 부채꼴 주름은 17세기 전□중엽경에 활동한 印均派 작품과 유사하다.

가섭과 아난은 최근의 개칠로 인해 세월이 주는 고고한 맛은 없다. 가섭은 가사장삼을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하고 있으며, 이(齒)를 드러내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이다. 그는 頭陀第一의 수행자답게 수행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얼굴의 주름, 노비구의 노쇠한 骨筋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쥔 다음 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 첫마디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비로자나불의 지권인처럼 지은 이러한 수인은 가섭존자의 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잘생긴 청년 비구형의 아난은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

하였다. 두 손은 모아 합장하였다. 두 상의 주름은 석가불상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입체적이다.

이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 상 양감이 풍부한 중후한 상호,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중한 신체비례와 양감, 부드럽고 입체적인 선묘, 그리고 옷 주름 표현 등에서 17세기 전중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응원□인균과 내지 무염과 불상조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상 조성에 참여한 畫員 가운데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불상 조성에 印均과 함께 작업을 했던 관해와 같은 해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조성에 무염과 함께 작업 했던 性律이 보조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복장유물 (목록참조)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후령통의 내부에 납입된 오보병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물은 1650년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석가여래좌상 후령통

석가모니불상에서는 喉蓋 소실된 원통형의 은제후령통 1점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몸통 네 곳에는 梵字朱書로 四方呪를 적었으며 남면에만 南이라고 朱書하여 정면임을 표시하였다. 오보병 등 후령통 내 납입유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크기는 높이 9.76cm, 지름 4.2cm, 두께 0.07cm이다.

② 가섭존자입상 후령통

후령통은 발견 당시의 모습대로 해포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난존자의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령통은 황초폭자에 쌓인 채 謹封帶紙로 마감되어 있다. 황초폭자의 정면에만 南'이라고 朱書하였다.

현재 크기는 높이 14.8cm, 폭 4.2cm이다.

③ 아난존자입상 후령통

아난존자상에서 발견된 후령통은 喉蓋와 喉身을 모두 갖추고 있다. 喉蓋의 아랫면은 팔엽으로 처리하고, 윗면은 긴 후혈을 갖추고 있다. 喉身の 네 면에는 梵字朱書로 四方呪 阿□摩□羅□詞"를 썼으며, 다시 특별히 南"이라 朱書하여 정면임을 표시하였다. 오보병은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데, 오방색의 보자기에 오보, 오약, 오곡, 오향 등 각종 상징물들을 납입하였다. 납입 물목은 자연 상태에서 많이 부식되고 산실된 상태이다. 이외 후령통 내부에 납입했던 八葉蓋 형태의 양

면원경과 외부에 각 방위별로 오색사로 安立했던 五方鏡(東 方鏡, 南 三角鏡, 西 圓鏡, 北 半月鏡, 中 圓鏡)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관련 유물 이외 백지 79장(80×51.5cm)이 발견되었다.

후령통 크기는 높이 12.0cm, 폭 4.24cm, 두께 4.24cm이며, 재질은 銀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施主秩과 發願文을 통해 정확한 1650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 그리고 분명한 조성주체, 불상 조성에 소요된 시주물목과 수많은 시주자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복장의식 및 사원경제사, 그리고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17세기 조선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浩然太湖와 碧巖覺性이 증명법사로 참여하여 불사를 이끌었고, 이에 화답하듯 천 여 명이 넘는 僧俗의 시주자들이 기쁘게 동참하여 造成役事를 마친 17세기 중엽 경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은 조각승 應梅의 현존하는 유일의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이 무렵 활발히 활약하며 일파를 이루었던 道雨, 熙莊 등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적으로 안정감 있는 장중한 신체, 조용하면서 중후한 상호의 표현, 입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선묘 등에서 높은 종교적□조각적 완성도를 읽을 수 있고, 이 시기 불상의 특징인 평담한 대중적인 미의식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불상에서 보이는 장중하면서 선 굵고 중후한 맛의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발히 활동했던 응원□인균파의 조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것이어서 유파 간의 상호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곧 석가여래삼존상과 복장유물 일괄은 당시의 시대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과 자료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복장유물 가운데 복장전적은 妙法蓮華經과 禪門拈頌集 등 2종 50책이다. 법화경은 萬曆十四年(1586) 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萬曆三十七年(1609) 己酉全羅道歸信寺開板의 간기가 있는 판본이며 각 권이 2~3부 혹은 5~6부(권1과 권5)로 가철 및 낱장 형태로 되어 있어 석가삼존불복장시에 인출되어 납입된 복장용으로 보인다. 그밖에 겉표지가 없는 妙法蓮華經과 禪門拈頌集 판본들도 후쇄본에 속하므로 복장전적에 대한 별도 지정 가치는 없으므로 복장유물 일괄로 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유물 목록

① 석가여래상(본존)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施主秩	종이	1점	1650년경	32.8×290.0	
2	喉玲筒	은	1점	1650년	높이 9.7 폭 4.2 두께 0.076	*喉蓋는 없음.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6책 (권2 3 4 6 7:同書2部, 권5:同書5部)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30~38×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妙法蓮華經 권1	楮紙	6책 (同書6部)	1609년 (광해군 원년)각,[후쇄]	30×38cm	목판본, 사주단변, 8행13자. 흑구,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萬曆三十七年(1609)己酉全羅道歸信寺開板, 가철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1책	17세기	16×25cm	목판본,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본문에 구결 있음. 겉표지 없음.
6	妙法蓮華經 권4~5	楮紙	1책	17세기	16×27cm	목판본, 사주단변, 10행20자. 상하내향흑어미. 선장. 권5는 8장임. 겉표지 없음.
계	6건 26점					

② 가섭존자상(좌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35×113.5	
2	發願文帶	종이	1점	1650년	35.5×4.8	*發願文帶에는 목서로 “此二軀左右補」處尊一「安」”이라고 쓰여 있다.
3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	높이 약14.8 폭 약 4.2	*발견 당시 모습대로 해포하지 않음.
4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권3 6:同書3部,	1586년 (조선 선조	30×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 4: 同書 219)각,[후쇄 部)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 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 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3권1책	17세기	28×17cm	목판본, 사주단면,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겉표지 없 음.
6	禪門拈頌集 권16~18	楮紙	3권1책	17세기	25×17cm	목판본, 좌우쌍면, 무계, 12 행21자. 상하향흑어미. 선장. 겉표지 없음.
7	陀羅尼	종이	163장	조선 시대	28×51	
계	7건 180점					

② 아난존자상(우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29.8×126	
2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경	높이 120 폭 424 두께 0.06	*오방경 : 방경1점, 삼각경1 점, 반월경1점, 원경2점. *양면원경 :가장자리를 엮으 로 접은 형태 1점. *오보병 : 오방색의 보자기 에 방위에 따른 각종 상 징물을 납입하였음. *황초폭자 1점 *각종 직물잔편 등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권1:同 書3部, 권 2 4 6:同書2 部)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部]	권1 2 3 4 6:3 0×20cm 권5 7:30× 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 行20자. 판심제:法 권3말: 萬曆十四年(1586)丙 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 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陀羅尼	종이	75장	조선 시대	28×51	
5	白紙	종이	79장	조선 시대	80×51.5	
계	5건 167점					

□ 석가여래좌상 시주질

施主秩

I.

性閑 比丘」裕戒 比丘」道蹟 比丘」元覺 比丘」一云 比丘」攢靈 比丘」印玉 比丘」海敬 比丘」印玉 比丘」海敬 比丘」鄭厚男 兩」李善男 兩」尹玉男 兩」李斐卧是 兩」金哲金 兩」鄭景方 兩」金一立 兩」金芑文 兩」合眞 兩」

李德景 兩」文希水 兩」文山水 兩」任生己 兩」朱珠巨伊 兩」張秋日 兩」金貴卜 兩」金守男 兩」朴景水 兩」李 之 兩」申春日 兩」李得立 兩」敬淳 比丘」一淳 比丘」張京立 兩」張彦香 兩」趙廷建 兩」李氏 兩」金召史 兩」愛春 兩」鄭德 兩」礼眞 兩」貴仁介 兩」 之介 兩」奉承 兩」申生 兩」礼伊 兩」黃一億 兩」者斤礼 兩」古邑前 兩」梁一介 兩」四順 兩」姜儀 兩」內+ㄱ河 兩」礼終 兩」可玉伊 兩」 德 兩」李 金 兩」白三漢泉兩」柳戒男 兩」白成龍 兩」方彦春 兩」金介伊屎 兩」崔毛里金 兩」夢室 兩」戒香 兩」徐應先 兩」吳永立 兩」李卜立 兩」李京石 兩」任京生 兩」林生 兩」金天江 兩」羅成男 兩」鄭乙承 兩」兪京立 兩」金信白 兩」兪卜 兩」業成 兩」朴天泉 兩」同介 兩」發(?)蘭 兩」金無只 兩」尹玉水 兩」吳氏 兩」金戒卜 兩」彦介 兩」余得男 兩」雲霞 比丘」天海 比丘」玉岑 比丘」信應 比丘」日玉 比丘」敬淳 比丘」天心 比丘」印云 比丘」胡彦 比丘」一學 比丘」尙海 比丘」性堅 比丘」克哲 兩」儀敏 兩」應浩 兩」幸云 兩」應眞 比丘」幸敏 比丘」竺閏 比丘」宝淨 比丘」彦祥 比丘」一玄 比丘」浩敬 比丘」儀輝 比丘」性圭 比丘」戒和 比丘」勝玉 比丘」信元 比丘」裕洽 比丘」應元 比丘」僧連 比丘」德衍 比丘」三男 單身」希善 兩」一生 單身」克淳 比丘」一輝 比丘」戒淨 比丘」一秀 比丘」儀濟 比丘」性云 比丘」性寬 比丘」淨還 比丘」淨禪 比丘」宝衍 比丘」儀寬 比丘」儀尙 比丘」色明 比丘」應和 比丘」敬淳 比丘」尙玄 比丘」靈玉 比丘」惠安 比丘」先贊 比丘」戒淳 比丘」

勝元 比丘」淨祐 比丘」戒信 比丘」雪敏 比丘」信玉 比丘」靑全 比丘」善印 比丘」坦雄 比丘」六軒 比丘」智熙 比丘」學宗 比丘」玉玄 比丘」古塔 比丘」海天 比丘」元俊 比丘」信默 比丘」明學 比丘」印元 比丘」太敏 比丘」

懶玉 比丘」宝軒 比丘」雪嘗 比丘」儀英 比丘」儀侃 比丘」善旭 比丘」一岑 比丘」儀明 比丘」勝海 比丘」濟益 比丘」尙宗 比丘」太尙 比丘」惠能 比丘」三印 比丘」儀安 比丘」元應 比丘」戒还 比丘」勝允 比丘」太俊 比丘」應眞 比丘」明性 比丘」六惠 比丘」印行 比丘」玄戒 比丘」雪和 比丘」灵俊 自熙 比丘」

II.

法奇 比丘」哲熙 比丘」忠彦 比丘」恩允 比丘」信雄 比丘」應玄 比丘」惠熙 比

丘」德明 比丘」仅能 比丘」學敏 比丘」崔生吉 兩」朴彦男 兩」金丁立 兩」金元立 兩」仅介 兩」金貴希 兩」朴仁生 兩」柳仅江 兩」柳承立 兩」柳好生 兩」柳淡伊 兩」柳末男 兩」柳破回 兩」柳龍伊 兩」鄭四仁 單身」李恣龍 兩」高建立 兩」得生 兩」金海卜 兩」難生 兩」艮郎德 兩」金允孫 兩」栗介 兩」金尙吉 兩」金己云 兩」金彦進 兩」金彦立 兩」金山卜 兩」李孫 兩」金元老 兩」張道生 兩」鄭 〇 金 兩」姜卜生 兩」金崧尙 兩」朴芑破只 兩」李加應伊金 兩」柳彦龍 兩」李干兩」朴南 兩」李風己 兩」李一孫 兩」咸生 兩」李莫世 兩」李莫室 兩」先芑生 兩」文彦金 兩」金凌生 兩」金莫金 兩」林芑?卜 兩」周 〇 金 兩」咸尙卜 兩」早+ㄱ介 兩」李愛山 兩」尙礼 兩」全芑金 兩」 〇 之介 兩」忘德只 兩」咸金卜 兩」高人沙里 兩」內+ㄱ代 兩」初生 兩」金南世 兩」欣介 兩」閑卒卜 兩」先平生 兩」盧得龍 兩」金山孫 兩」金生 兩」金戒生 兩」金欣周 兩」金得男 兩」崔立 兩」金萬卜 兩」洪破回 兩」銀玉只 兩」金大生 兩」姜莫室(?) 兩」姜可屎 兩」春月 兩」朴得男 兩」河戒龍 兩」秋立 兩」朴山伊 兩」處玉 比丘」法雲 比丘」信忍 比丘」戒弘 比丘」尙敏 比丘」海日 比丘」智性 比丘」戒摠 比丘」尙元 比丘」尹宝老音金 兩」金仇? 兩」茂德 兩」李各同 兩」鄭一金 兩」玄金 兩」性明 比丘」仅行 比丘」海信 比丘」弘海 比丘」仅淳 比丘」靈俊 比丘」德元 比丘」天學 比丘」學玄 比丘」法浩 比丘」海和 比丘」妙雄 比丘」省斤 比丘」惠日 比丘」敬莊 比丘」印行 比丘」方会 比丘」守天 比丘」弘玉 比丘」道軒 比丘」元覺 比丘」智堅 比丘」忠印 比丘」學連 比丘」彩玉 比丘」智雄 比丘」玄雨 比丘」三玄 比丘」普禪 比丘」四拈 比丘」玉青 比丘」一淳 比丘」善宝 比丘」印玄 比丘」淨水 比丘」六和 比丘」熙彦 比丘」丹宧 比丘」性嘗 比丘」印行 比丘」幸云 比丘」處岑 比丘」海敬 比丘」宋同金 兩」姜德吉 兩」宋永伊 兩」吳五龍 兩」金恣金 兩」金芑同 兩」宋失同 兩」金金 兩」金卜 兩」朴金伊同 兩」崔四卜 兩」黃內+ㄱ同 兩」大祐 比丘」戒安 比丘」善悟」元宧」太和」性尊灵駕」仅均」宧玄」雪玄 比丘」尙雲」雲海」尙安比丘」靈暉比丘」戒和比丘」信訓」自忍比丘」性照」淨安比丘」禪澤」敬仁比丘」弘敏」大立」元熙比丘」敬軒」雷忍」宧尙比丘」智堅」元澤」祖祐比丘」仅文」智珠比丘」寬運」祖明」妙雲」祖还」宧浩」学訓」內+ㄱ代 兩」太全 比丘」敬雪 比丘」青印」双会」敬嘗」草奇」懶罔」守閑」敬哲」学行」雪澄」敬宝」宧見」敬仁」

III.

趙命上 兩主」幸玄 比丘」勝哲比丘」神蹟」元信」勝益」信寬」祖承」敬軒」德和」印英」信罔」道祐」雙照」熙莊」性敏」處淳」道天」天雲」智輝」双日」六虛」坦識」仅悅」双敏」立文」敏玄」道全」雪旭」德允」日雄」戒訓」天罔」思印」灵日」印堅」道安」思允」宗密」學敬」海敬」玄海」太元」道彦」性梅」懶

軒「善海」**灵哲**「太云」戒和」性浩」敬能」戒明」敬特」太岡」六敏」崔二龍 兩」
仅尙」玉淳」玄覺」雪心」太英」太能」道印」信还」溫應云」金莫難」廬山卜」吳
早ㄱ金」李石只」尙金」李天」魯内+ㄱ失」朴大+ㄱ金」金加外」金萬山」粉伊」仇
時男」金應龍」趙千介」金玉立」張應吉」趙白只」朴貴日」朴仇今(?)伊」鄭德生」
金河男」李豆仁」金三男」金石松」金業山」金五男」崔承男」李恣卜」林貴主」李
順鶴」崔和生」金命金」李+云」崔山伊」者斤德」金命貴」道欽」智慈」玄甘」幸
俊」覺日」敏應」雲門」覺元」戒學」德暉」興善」敬林」雪雄」尙均」幸淨」雪
宗」鄭一男」朴失生」崔此芑屎」金愁(?)里金」金末男」金崧金」金者斤金」張連
卜」金卜男」金卜只」鄭永男」鄭太山」李雪男」朴每伊」張軍先」申男」朴末乙
金」五月」德只」徐忠臣」朴尙金」金男金」柳白世」崔愛水」朴去男」戊辰」李成
卜」張奉伊」允伊力」白底ㄱ金」李恣龍」李恣卜」白巨元」李於里金」李恣卜」趙
永世」**礼**信」哭海」李夢龍」金永立」金銀金」李芑卜」朴甘金」申金山」梁?得」梁
氏」梁氏」朴得眞」引勸 朴恣金」柳德金」彦代」終德法」内ㄱ金」莫卜」終介」難
弘」金一男」太林」世和」於今里」崔仁万」重**礼**」金水」朴者斤金」金見」全尙
伊」金命金」金命吉」梁同己」申山水」梁和奉」張吉男」**礼**生」金三正」李希卜」
鄭愛命」金永弘」魯尙男」朴士仁」金**礼**男」朴水日」林夢仁」申天老」朴成立」許
京伊」朴成立」姜春卜」姜訥」趙承吉」朴有青」金龍」金海行」咸日」金玉水」
金士云」朴得立」順伊」黃右只」柳蠟金」朴奉世」金應明」金雪伊」金豆致」金介
沃伊」全愛男」李 金」俞?終」曹二龍」李今」金生男」金岩回」金於伊孫」金太
訓」奉春」張德吉」朴惟宗」金男龍」崧德」金業伊」金善卜」崔愛龍」宋愛先」金
愛承」順小陽」姜愛男」今生」趙愛正」緣香」李夢男」金芑生」鄭聖卜」金完老」
裴應身」鄭順生」梁大斤」朴所乙卜」金完卜」金者斤卜」金云」金士男」金仅生」
金末連」金每**宝**」李先立」朴己卜」早ㄱ介」尹男」白元鶴」金訥+叱**寔**」欣春」仁德
只」金明身」

IV.

李生伊」金得龍」金仅日」張好敏」朴崧男」鄭大浩」金得命」趙波同」梁万立」金
内+ㄱ金 閑同伊」閑者斤山」金守歇」尹先立」徐裴金」崔沙千」曹承文」戒春
伊」崔延白」朴氏」梁得立」裴山金」李卜男」閑流日」朴閑世」朴戒一」李順一」
李生」文?伊男」朴貴金」金**礼**尙」金戒吉」閑挨卜」朴守男」金命金」崔敬立」白山
元」白山命」莫介」李屎同」金戒承」李春男」金業伊」張卜只」李成吉」李者斤
里」莫介」李吉生」李海龍」德只」哭卜龍」哭永先」愛春」張業同」朴凌生」金恣
男」申順男」金龍」李彦男」柳連伊」業男」世和」卍興永」金能守」金太永」朱春
生」李希卜」李京泉」李孝宗」金斤卜」吳承伊」金於屯」金難生」吳惡金」二月」
恣春」徐春」德承伊」金彦希」朴仁卜」金卜龍」**礼**香」金者斤」金山伊」朴屯伊」

朴克成」李太卜」五月」終得」金芑海」鄭月老」金貴承」姜貴延」鄭月老」金貴承」姜貴延」申戒卜」金國生」小陽」金難生」金伊」李承男」李生吉」金京男」金白見」金所卜」愛?」內ㄱ香」於用(?)介」方貴金」金春玉」守歇」洪今金」沈金山」朴德立」申業伊」盧貴德」安德龍」許龍」朴承必」崔戊先」春伊」鄭同」張孔敏」朴龍生」安時?」李一夢」金善立」李一男」宋夢山」四礼」林竺生」金崧生」金氏」金一生」金金伊」梁難金」林得生」回龍」信世」太山」金仁孫」春月」鄭順吉」紅連鶴」天介」崔內+ㄱ億」蔡占伊」林哲伊」實德」金日生」金小難」朴惟生」朴邁金」李戒生」仁香」文春立」金生一」李仇?金」金加音未」金德立」內+ㄱ生」內+ㄱ春」金奉伊」梁戒敏」鄭正立」朴戒日」朴日玉」宋有哲」李愛金」黃忞男」天吉」李永」李其牛金」礼鶴」春伊」任生己」金終生」李男水」吳山眞」崔承仁」朴百連」忘終」朴愛香」金海生」金戊生」文浩學」凌陽」芑應伊」朴得男」金豆應」失」金忞山」崔哲岩」裴巨所是」朴順同」仁山」崔善奉」白春山」朴風年」徐鶴立」黃順吉」金儀龍」蘇卒」李龍立」林一行」全大海」兪卜介」李戒浩」李成男」李二男」林尙」內+ㄱ春」林卜只」洪貴男」金生立」崔貴男」忞介」朴失伊」林得希」南旺只」申大連」徐得承」尹孫」朴道擇」朴成立」金太生」金尙玄」林申生」守代」安善伊」春每」三还」愛还」朴男」奉今」無上介」於里」銀玉」權先」朴者斤山」池永卜」銀河」鄭信良」李揆失」李二男」朴永立」李儀之」奉德只」閑夢吉」林春吉」洪落天」思郎介」李德立」鄭寶雪」朴豆伊間」奉介」營以介」得介」奉春」

1.

鄭云卜」金德吉」愛堂」玉丹」甲辰」崔戒仁」三忍」敏安」玉岡」德灵」双哲」湛珠」信覺」天眼」戒彦」日雄」勝哲」玉林」釋堅」性冷」淨學」明侃」淨悟」元俊」性均」信贊」懷(?)敬」柳丁卜」金命卜」李弘竹」李銀鶴」閑順立」鄭水男」金莫身」朴難卜」金夢水」崔孔伊」忞德只」金男」

2.

金難生」朴山卜」性照」性海」琢瓊」懷俊」勝惠」惠悟」文益」法尙」頓應」思眼」戒雄」思遠」儀浩」天信」戒嘗」海安」雪淳」能贊」法輪」尙能」尙連」靈日」性堅」信悟」天日」儀閑」法閑」慈悟」禪稔」戒安」姜成龍」朴彦方」朴早+ㄱ金」信惠」年水」大儀」守仁」

3.

學澄」草彦」玉林」惠英」印性」一均」海英」海信」惠淨」信冷」信堅」信省」玉玄」元益」鳳七百」李貴仁」四害」金奉山」朴莫金」李磨卜」介伊」馬莫卜」朴生伊」春伊」崔忠立」崔大+ㄱ阿只」崔興泉」金虎邑同」老松伊」凌業」?堂金」奉

希」孫丕万」姜丕孫」

4.

金永男」礼今」朴命信」李承还」種+叱伊同」王小元」守男」李氏」文氏」

□ 아난존자상 발원문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順治七年佛像成造始役於六月訖
功於」 九月初二日金山寺安于敬像」

大德 品月」 浩然堂大師 太浩」 碧峯堂大師 覺性」 證明大德 太浩」 持殿 天明」 畫員
應梅」 畫員 寬海」 畫員 性律」 畫員 魯元」 畫員 思俊」 畫員 雷忍

緣化秩

敬正」 別座 戒日」 德允」 尙琳」 克廉」 敬禪」 士龍」 松竹」 大鳳」 朴貴男 保体」

施主秩

I.

釋迦大施主 安命浩 於市介 兩主」 迦葉大施主 金忞南 兩」 阿難大施主 戒應比丘」
他方佛大施主 裴壽命 兩」 他方佛施主 金武生 兩」 他方佛施主 金大卜 兩」 面金大
施主 崔述男 兩」 体金大施主 金貴山 兩」 泥金大施主 宣戒宗 兩」

金施主 李 氏 單身」 烏金大施主 德允比丘」 烏金大施主 雪仅比丘」 体木大施主 金
任生 兩」 朱紅大施主 尹忞男 兩」 荷葉大施主 是德 兩」 圃團施主 宋 生 兩」 水塗
黃大施主 李太極 兩」 眞粉大施主 全日+ㄱ金 兩」 黃丹大施主 崔丕男 兩」 瑠璃大施
主 蘭花 兩」 腹莊大施主 海淪 兩」 内+ㄱ春 單身」 腹莊大施主 仅彦 兩」 末醬大施
主 金貴坦 兩」 食塩大施主 朴永乞 兩」 鉢物大施主 崔道生 兩」 候靈通施主 金氏粉
兩」 引灯大施主 趙應男 兩」 魚膠施主 羅高公 兩」 三泉施主 金莫難 兩」 生金施主
孫漢金 兩」 金貴密 兩」 果衣布大施主 宝訓比丘」 學元比丘」 青木香施主 吳礼男
兩」 生銀施主 朴終水 兩」 五宝施主 鄭金 兩」 卍府子施主 白丕世 兩」 金施主 姜 文
兩」 雄黃施主 内+ㄱ害 兩」 乳香施主 秋 金」 阿梨施主 李 同 兩」 長衫施主 金千
水 兩」 金於里同 兩」 金施主 林彦春 兩」 奉春 兩」 今伊 兩」 終介 兩」 金施主 徐
万生 兩」 矩淨比丘」 文意比丘」 三杉施主 朴金 兩」 崔良旺 兩」 供養施主 勝雲比
丘」 供養施主 鄭順鶴 兩」 姜京泉 兩」 金忞卜 兩」 大功德主 懷鑑」 大化士 天蹟」

II.

佛奠施主 億代單身」 碍德 兩」 仁介 兩」 屎+叱應介 兩」 水永代 兩」 朴德世 兩」 徐
春鶴 兩」 金氏秋圮 兩」 宝還 兩」 施主 李論 兩」 朴只 灵駕」 何興順 兩」 卍 介

兩」水永介 兩」卍德只 兩」李卍金 兩」徐秋男 兩」崔大仁 兩」今春 兩」林哲生
兩」崔德仁 兩」井任男 兩」鄭生男 兩」卍德只 兩」林愛日 兩」李生 兩」姜思郎
金 兩」金仁龍 兩」朴彥男 兩」金白連 兩」金生 兩」朴京永 兩」莫德只 兩」金應
明 兩」朴順同 兩」腹莊施主 仅彥比丘」智冠比丘」應还比丘」鄭金 兩」灯燭施主
林斤金 兩」李春卜 兩」性元比丘」金發忠兩」朴林 兩」愛日 兩」崔山伊 兩」張春
卜 兩」井日男 兩」金士立 兩」林尙 兩」洪貴男 兩」林卜 兩」內+ㄱ春 兩」朴杖
扶 單身」崔貴南 單身」礼介 兩」安明哲 兩」李希天 單身」黃益水 單身」朱一男
兩」靈雨 比丘」戒元比丘」淡海比丘」去秀伊 兩」春伊 兩」李生 兩」金命金 兩」
良郎金 兩」

III.

佛奠施主 金金卍 應伊 兩」金有信 兩」內+ㄱ今 兩」金日+ㄱ同 兩」金弁金 兩」金
氏戒和 兩」金奉春 兩」朴氏今伊 兩」金青卜 兩」丁承立 兩」劉承男 兩」金一龍
兩」姜思郎金 兩」趙氏單身」京玉 兩」任命難 兩」洪得男 兩」 信浩比丘」印云
比丘」崔京比丘」淨安比丘」李生 兩」

□ 가섭존자발원문

發願文」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我等与衆生 皆共成佛道」順治七年佛像成造始役於六月日
訖功於」九月初二日金山寺安于敬像」

大尊師 品月」浩然堂大師 太浩」碧峯堂大禪師 覺性」證師大德 太浩」天祥」**畫員
應梅」畫員 寬海」持展 天明」畫員 性律」畫員 魯元」畫員 思俊」畫員 雷忍」**

緣化秩」

敬正比丘」別座 戒日比丘」德允比丘」尙琳比丘」克廉比丘」敬禪比丘」士龍單身」
松竹單身」大鳳單身」朴貴男保体」

施主秩」

I.

釋迦大施主 安命胡 於?介 兩主」迦葉大施主 金忞男兩主」阿難大施主 戒應比丘」
他方佛大施主 裴守命兩主」佛像大施主 金武生 兩」佛像大施主 金大卜 兩」面金大
施主 崔述男 兩」体金大施主 金貴山 兩」泥金大施主 宣戒宗 兩」

金施主 李氏 單身」烏金施主 德允比丘」烏金施主 雪仅比丘」体木大施主 金任生
兩」荷葉大施主 氏德 兩」圃團大施主 宋生 兩」水塗黃大施主 李太極 兩」眞粉大
施主 金日+ㄱ金 兩」黃丹大施主 崔芴男 兩」瑠璃大施主 蘭花伊 兩」腹莊大施主
內+ㄱ春 單身」腹莊施主 仅彥比丘」末醬施主 金貴坦 兩」食塩施主 朴永乞 兩」鐵

物施主 崔道生 兩」候靈通大施主 金氏粉伊 兩」候靈通大施主 荷京男 兩」引灯施主 趙應男 兩」魚膠施主 羅高公 兩」三綠施主 金忘難 兩」生金施主 孫漢金 兩」金牙金 兩」金氏戒和 兩」金氏奉春 兩」朴氏今伊 兩」金青卜 兩」清風道人大功德主 懷鑑」清寒幹善道士 天蹟」

II.

茶礼施主 金貴密 兩」果衣布大施主 宝訓比丘」學元比丘」青木香施主 吳礼男 兩」生銀施主 朴終水 兩」俯子施主 白芑世 兩」金施主 姜文伊 兩」雄黃施主 論害伊 兩」乳香施主 秋 金 兩」阿利施主 李住 兩」長衫施主 金天水 兩」施主 戒香單身」金於里同 兩」奉春 兩」今伊 兩」終德 兩」徐万生 兩」矩淨比丘」文意淨 兩」朴金 兩」崔良旺 兩」供養施主 勝云比丘」鄭順鶴 兩」姜敬泉 兩」金忞卜 兩」碍德只 兩」佛奠施主 億伐 單身」仁介 兩」水永代 兩」同介 兩」朴德世 兩」徐春鶴 兩」金氏秩圮 兩」朴伊」河興順 兩」 介 兩」水永介」 德 兩」李 金 兩」徐秋男 兩」崔大仁 兩」今春 兩」林哲生 兩」崔德仁 兩」井任男 兩」丁生男 兩」所乙德只 兩」佛奠施主 金金 伊」丁承立 兩」刘承男」金日龍 兩」

III.

林愛日 兩」李生 兩」姜思郎金 兩」金仁龍 兩」朴彦男 兩」金白連 兩」金生伊」朴京水 兩」莫德只 兩」金應命 兩」朴順因 兩」仅彦 比丘」智寬 比丘」鄭金 兩」應还 比丘」灯燭施主 林斤金 兩」李春卜 兩」性元比丘」金忠發 兩」朴琳 兩」愛日 兩」崔山伊 兩」張春卜 兩」丁日男 兩」金四立 兩」林尙伊 兩」洪貴男 兩」林卜只 兩」内+ㄱ春 兩」崔貴男 兩」朴長扶 兩」安哲命兩」礼介 兩」李希天 兩」黃益守 單身」朱一男 兩」元海 比丘」靈雨 比丘」戒元 比丘」淡海 比丘」巨禿伊 兩」春伊 兩」李生 兩」金命金 兩」良郎金 兩」金有信 兩」内+ㄱ今 兩」礼介 兩」金目+ㄱ同 兩」姜恩郎金 兩」趙氏 單身」敬玉 兩」任命難 兩」洪得男 兩」

IV.

信浩比丘」李生伊 兩」

<붙임>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관련

김제 금산사 대장전 광배에 대한 추가조사 의견서

◇ 추가조사

- 조사대상 : 김제 금산사 대장전 광배
- 조사일시 : 2011. 5. 20(금), 6. 2(목)
- 조사위원 : 최성은, 손영문, 정은우
- 조사내용 : 금산사 광배 높이 223.4cm, 동국사 불상 높이 150cm

□

군산 東國寺 소조석가여래좌상은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서 동국사로 옮겨오기 이전에 현재 금산사 대장전에 있는 목조광배 앞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목조광배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목조광배는 頭光, 身光, 지지대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려한 花紋과 화염문으로 장식된 투각 광배이다. 광배의 하부는 높이 67.5cm의 □□형의 지지대가 있어 그 윗면에 새겨진 흠의 안쪽으로 광배가 꽂혀있는 형식이다.

그런데 이 광배 지지대의 윗면부터 두광 중심까지의 높이는 176cm로서 이 광배 앞에 봉안되었던 불상은 높이 147cm인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보다 약 30~50cm 이상 큰 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산사 대장전 목조광배는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의 原 광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김제 금산사 대장전에 석가여래좌상의 광배는 1910년에 촬영된 사진자료를 통해, 현재 군산 동국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좌상의 광배였음을 알 수 있다. 목조광배의 규격은 전체높이 223.4cm, 폭 191cm이며, 높이 67.5cm의 卍字形 받침대 위에 꽂혀 있다. 목조광배는 세로로 긴 네 개의 판재를 꺾쇠로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두□신광 사이를 뽕개 뽕개 피어오르는 구름문으로 구분하였다. 두□신광의 내면에는 변화무쌍한 연꽃을 투각하고, 외연은 화염문을 새겨 마감하였다.

광배 하부에서 두광의 중심부까지의 높이가 대략 176cm이며, 동국사 불상의 높

이는 147cm이다. 따라서 동국사의 불상의 머리 중심부와 두광의 중심부의 차이가 30cm이상 나기 때문에, 1650년 불상이 제작될 때 함께 제작된 광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상과 일괄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

1. 현상 및 특징

금산사 대장전에 있는 목조 광배는 2m가 넘는 대형으로 두광과 신광 그 경계선에 있는 환조의 雲紋으로 구성되었다. 신광에는 활짝 핀 다양한 연꽃이 피어 있으며 그 외곽선을 따라 작고 정교한 주옥으로 이어지는 문양, 그리고 그 바깥에는 화염문이 힘차게 조각되었다.

조선후기의 목조광배는 남아 있는 작품이 매우 적다. 확실한 기년명 작품으로는 목각탱에 조각된 1675년 대승사 광배와 1684년 용문사 광배 등이 있으며 18세기의 남양주 흥국사 목조광배가 있다. (이외에 봉화 축서사의 목조광배도 조선시대의 사례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연대는 없다.) 이상의 조선후기 17세기의 광배와 대장전 목조광배를 비교해 보면 위가 뾰족한 신광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광과 신광으로 이루어진 대장전의 광배와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며 중간의 구름문양 역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두광과 신광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두광 부분에 불상의 머리 부분이 위치해야 하지만 현재의 광배에 불상을 봉안할 경우 불상 크기인 150cm와 2m가 넘는 광배와는 약 30-40cm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금산사 대장전 광배는 두광과 신광 그리고 구름문양이 서로 ㄷ자 꺾쇠로 연결되어 있고 두광과 신광의 문양이라든지 화염문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원래의 신광 윗부분에 어느 시기에 두광과 구름문양을 만들어 조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1910년의 유리원판을 통해 동국사 석가여래좌상의 원래 광배로 추정되었던 현재의 금산사 대장전 광배는 무엇보다도 크기에서 동국사 석가불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함.

2.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9.0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3.11.)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나온 사안임.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3차 회의(11.06.09)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6.20~07.1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 소재지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
- 수 량 : 3구, 복장유물 일괄(67건 77점)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112.2cm 무릎 폭 79.6cm
약사여래 높이 103.3cm 무릎 폭 75.8cm
아미타여래 높이 105cm 무릎폭 70.0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06년(선조 39), 중수개금 1883년(고종 20)
- 제작자 : 증명 석준비구(證明 釋俊比丘), 상화원 각민비구(上畵圓 覺敏比丘),
각심비구(覺心比丘), 행사비구(幸思比丘), 휴일비구(休一比丘)
덕장비구(德岑比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공주동학사 대웅전에 모셔진 삼불좌상은 중앙의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석가의 왼쪽에는 약사여래(약함 없음)가 오른쪽에는 아미타여래가 모셔져 있는 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세 불상이 모두 100cm가 조금 넘으며 본존 불이 약간 크며 개금의 상태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행하는 삼불좌상의 도상을 보여준다. 세 불상의 불상 발원문을 통하여 상의 연대가 1606년으로 밝혀진 것은 임진왜란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佛事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을 알려준다. 더욱이 발원문에 보이는 대표 조각승 覺敏은 동학사상을 조성한 후 1614년 송광사 삼존불상 제작에 조각승 幸思행사와 같이 참여하였으나 이 송광사 불상이 6.25전쟁 중에 불 타 버려서 양식적으로 상을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1648년에는 해남의 도장사 석가불상과 보살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조각승으로 활동한 시기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동학사 불사상조성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불상들의 상호는 서로 유사하며 가늘고 길게 옆으로 올라간 눈이나 작은 입술의 미소 짓는 이쁘장한 표정이 특징적이다. 특히 불신의 표현에서 어깨가 넓고 네모지며 약간 긴 허리의 표현이 그 이전 시기의 조선초기로부터 이어오는 양식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의의 주름이나 생동감 있는 손가락의 표현에도 비교적 사실감이 강조되었고 상 전체 비례에 균형감이 있다. 이 삼불상은 16세기의 조선시대 초기의 불상양식을 17세기 초로 이어주는 상으로 17세기 초, 중반에 활약한 조각승 중에는 현진이나 청허보다도 좀 더 이른 시기에 활동하여 조선시대 초기 불상양식의 계보를 알려주는 귀중한 상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 중□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釋俊, 覺敏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1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화승들의 활동과 교류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16세기 조각전통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새롭게 대두된 대중적인 미의식도 반영하고 있고, 석준이나 각민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각승들이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상적으로 임진왜란 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정확히 보여주며, 발원문에 정확한 존상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이후 전개될 석가여래삼불상 도상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6년에 제작된 상으로 覺敏. 幸思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다. 발원문을 통해 대웅전에 석가, 미타, 약사불이라는 기록을 통해 정확한 존명이 밝혀졌으며 석가를 주존으로 하는 삼세불 형식으로서 가장 이른 기년명불상이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전체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비례감은 16세기부터 유행했던 특징이며, 긴 신체 비례에 낮은 무릎, 수직과 수평으로 획일화된 옷주름의 표현기법은 17세기 전반경의 작품에 보이는 특징이다.

따라서 동학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그 예가 드문 1606년의 작품이라는 희소성,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도상 및 양식적 특징을 지닌 보편성, 보존상태라든지 조형적 우수성 그리고 『功德主 孝寧大君』 목서가 적힌 『地裝菩薩本願經』을 비롯한 76건의 중요 복장물 등을 갖춘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공주동학사 대웅전에 모셔진 삼불좌상은 중앙의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석가의 왼쪽에는 약사여래(약함 없음)가 오른쪽에는 아미타여래가 모셔져 있는 석가여래삼불좌상이다. 세 불상이 모두 100cm가 조금 넘으며 본존불이 약간 크며 개금의 상태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행하는 삼불좌상의 도상을 보여준다. 세 불상의 불상 발원문을 통하여 상의 연대가 1606년으로 밝혀진 것은 임진왜란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佛事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을 알려준다. 더욱이 발원문에 보이는 대표 조각승 覺敏은 동학사상을 조성한 후 1614년 송광사 삼존불상제작에 조각승 幸思행사와 같이 참여하였으나 이 송광사 불상이 6.25전쟁 중에 불 타 버려서 양식적으로 상을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1648년에는 해남의 도장사 석가불상과 보살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조각승으로 활동한 시기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동학사 불사상조성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불상들의 상호는 서로 유사하며 가늘고 길게 옆으로 올라간 눈이나 작은 입술의 미소 짓는 이쁘장한 표정이 특징적이다. 특히 불신의 표현에서 어깨가 넓고 네모지며 약간 긴 허리의 표현이 그 이전 시기의 조선초기로부터 이어오는 양식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의의 주름이나 생동감 있는 손가락의 표현에도 비교적 사실감이 강조되었고 상 전체 비례에 균형감이 있다. 이 삼불 상은 16세기의 조선시대 초기의 불상양식을 17세기 초로 이어주는 상으로 17세기 초, 중반에 활약한 조각승 중에는 현진이나 청허보다도 좀 더 이른시기에 활동하여 조선시대 초기 불상양식의 계보를 알려주는 귀중한 상이다.

○ 문헌자료

*불상복장원문 있음

萬曆三十四年丙午(1606년) 忠淸道公州鷄龍山」靑林寺大雄殿佛像釋迦藥師彌陀極樂殿彌陀」四尊乙巳孟冬爲始丙午季春畢造初二三點眼永六」이 기록에서 동학사가 원래는 청림사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고 상 조성은 그 전해 이른 겨울에 시작하여 1606년 늦은 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 1883년과 1957년의 중수개금기 있음. 1883년 개금 중수 시에는 이미 현재의 사찰명인 동학사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忠淸右道公州鷄龍山東鶴寺大雄殿三尊佛像東方藥師如來改金重修奉安願文」光緒九年癸未五月二十一日)

* 복장물 중에는 1405년 간행 妙法蓮華經 등 다양한 전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내용 및 특징

① 釋迦如來三佛坐像

공주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불상은 사바세계의 교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동방 만월세계의 약사여래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상 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적 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 크게 유행한 형식으로 이 불상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삼불좌상에서는 改金 전 2010년 8월 11일에서 8월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사전 복장조사에서 불상의 조성 및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발원문과 불상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 法舍利로 납입된 경전류, 그리고 시주자의 소원이 담겨있는 유물 등 다양한 복장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은 세종류가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은 三佛像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약사불상에서는 1883년의 중수발원문이, 아미타불상에서는 1957년의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들 발원문은 조성 이후 진행된 중수 과정을 중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불좌상은 萬曆 34年 丙午(1606년, 宣祖 39) 公州 鷄龍山 靑林寺 大雄殿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불상으로, 造成役事는 乙巳年(1605) 초겨울(孟冬)에 시작하여 이듬해 늦은 봄(季春)에 일을 마쳤다. 불상조성에는 수많은 평범한 신도와 승려들의 시주로 불상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釋俊⁷⁾의 證明 아래 上畫員 覺敏⁸⁾, 覺心, 幸思,⁹⁾ 休一, 德岑 등 5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1883년 개금 중수에는 19세기 후반에 크게 활약한 화승 善律, 若效 등이 참여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쳐 입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육계와 머리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은 頭部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구형의 정상계주를 조각하였고, 머리칼은 나발로 여백 없이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시선을 처리하였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두덩 사이로 새긴 반개한 가는 눈은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얼굴은 날렵한 턱과 절제된 양감으로 인해 17세기 중□후반의 불상에 비해 가름하고 정돈된 느낌인데, 이러한 특징

7) 釋俊은 1599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을 개금하였고, 1600년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 재건에 참여한 승려화원이다.

8) 각민은 161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9) 행사는 161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수화승 각민)과 1648년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수화승 해심) 제작에 참여하였다.

은 이 불상이 조선 전기와 후기 불상을 연결하는 가운데 지점에 있는 불상임을 시사한다. 좌우 협시불상 역시 석가불상의 상호표현과 거의 같다. 다만 석가여래의 고요하고 엄숙한 얼굴에 비해 좌우협시 불상의 상호는 좀더 경쾌하고 생동적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삼불상의 착의형식은 조선후기 석가여래삼불형식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듯이 본존 석가여래는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드리운 변형의 편단우견, 좌우 협시불상은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이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골의 깊이 변화가 없는 비교적 변화가 없는 직선의 선묘를 위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힘이 들어간 곡선도 간혹 사용하고 있다. 三佛 모두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은 수평의 군의자락이 표현되었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사실적이다. 무릎 앞쪽에는 긴 대롱모양의 주름 좌우로 수평의 3단 주름이 펼쳐져 있다. 좌우 측면과 배면에는 주름을 새기지 않았으나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된 佛衣 속에 건장하면서도 부드러운 佛身の 실루엣을 느낄 수 있다. 비록 간결한 직선 위주의 선묘지만 경직되지 않고 신체와 유기적으로 잘 밀착되어 율동적이다.

수인은 석가여래는 항마촉지인을, 좌우협시 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양 손을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손은 대체로 두툼고 손가락은 짧은 편이다.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댄 손짓은 꺾인 모습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삼불상은 머리와 상□하체 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비교적 조화로운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석가모니불상의 비대칭적 어깨표현이라든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수인 등은 결점이다. 비례 면에서 보면, 이 삼불좌상은 장대한 신체에 비해 얼굴은 작고 무릎은 넓고 낮은 편이어서 큰 상이 아님에도 장대한 느낌이다. 이는 예배자로 하여금 높은 불단 위에 앉은 불상이 보다 장엄하고 장대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불상은 절제된 듯 고요하고 차분한 好男形의 얼굴, 오른쪽 어깨로 수직의 3단 주름, 자연스럽게 접은 수평의 승각기, 그리고 무릎 좌우에 표현된 수평의 3단 주름, 왼쪽 팔꿈치 측면에 율동적으로 표현된 ∩형의 주름, 그리고 발목 아래로 대롱 모양의 띠 주름을 길게 드리우고 그 좌우로 수평의 주름, 무릎을 낮추고 어깨를 건장하게 표현하여 예배자의 시선이 얼굴에 집중되도록 의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이 삼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논산 쌍계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17세기 초)이나 군산 상주사 석가여래삼불좌상(17세기 초), 그리고 이 보다 약간 늦은 익산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14년)이나 김제 귀신사 비로자나삼불좌상(1626-1633년경) 등 17세기 초□전반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이 삼불상의 1606년이라는 제작시기를 통해 볼 때 17세기 불상의 양식형성은 물론 나아가 조선후기 불상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불

상으로 평가된다.

② 腹藏遺物

삼불상의 복장에서는 후령통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전적, 다라니, 공양물 등이 발견되었다.

전적을 제외해서 살펴보면, 釋迦如來坐像에서는 후령통, 斧鉞形의 장식편, 발원문, 銅鏡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은 황초폭자에 싸여 있는 상태이며 남면에만 범자를 적어 정면임을 표시하였다. 부월형의 장식편은 똑같이 제작한 두 편을 고정틀을 대고 못으로 고정하였는데, 한쪽면의 고정틀은 사라진 상태이다. 표면은 화문을, 외연에는 聯珠文을 타출하였다.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바늘집의 형태와 유사하다. 銅鏡은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손잡이 하부에는 구멍을 뚫었다. 거울의 뒷면 중앙의 “卍”字를 중심으로 6字의 “六字大明王眞言”을 양각하였다.

좌협시 약사여래좌상에서는 발원문, 후령통, 동경, 구슬, 황색비단 1필, 黑色紬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은 황초폭자로 싸 후 다시 다라니 여러 장으로 감쌌고, 동경은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후면에는 꼭지가 달려 있는 동심원문 사이사이에 “整衣冠尊瞻示”라고 양각하였다.

우협시 아미타여래좌상에서는 후령통, 1606년의 <造成發願文>, 비단 1匹, 흑색 바탕에 주서로 五輪種字를 적은 직물편, 구슬 5점이 발견되었다. 1957년 이루어진 <개금불사연기문> 도 함께 발견되었다.

위의 복장유물 일괄은 1606년 불상의 제작 당시와 1883년 중수 개금 시에 봉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석가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판종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후령통	동	1점	1606년	11×4	*황초폭자에 싸여 있고 남쪽만에 남쪽을 나타내는 범자를 주서로 썼음
2	발원문	종이	1점	1606년	29×176.	필사
3	장식편	금동	1점	조선후기	6.5×8.3×1.8	*斧鉞모양의 장식편
4	동경	동	1점	조선후기	5.6×3.5×1	*만자와 육자대명왕진언을 양각함.
5	묘법연화경 권제6~7	목판본	1책	1555년	36.2×24.8	선장, 앞뒤 표지와 본문 몇장이 결락되었음. 을해자본계. 광덕사
6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시대	32.1×20.8	선장, 전후 표지 일실, 대자본계, 8행 13자.
7	불설장수멸죄호계	목판본	1첩	1415	31.4×225.3	절첩장, 현존유일본, 약사불

	동자다라니경					에 후반부 있음. 훼손이 심함.
8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65년	29.2×16.7	가철, 앞뒤 표지 없고, 거의 해책 상태임, 복천사.
9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4.7×22	가철, 마지막2~3장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음, 서대사.
10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세기 후반	25.6×16.1	가철, 표지 전후 일부 일실. 소자본.
11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6.5×24	선장, 앞뒤의 표지가 없고, 권7의 말미가 결락되었으며, 권제5 낱장을 여기에 통합시켜야 함. 갑인자본계.
12	묘법연화경 권2~3	목판본	1책	1555년	35.9×25	선장, 앞뒤의 표지 없음, 을해자본계, 광덕사.
13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65년	32.5×19	가철, 복천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14	묘법연화경 권6~7	목판본	1책	1405년	27.8×15.8	가철, 안심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성달생본계, 권6은 1~6장이 결락됨.
15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전기	36×21.2	가철, 전후 표지 일실, 권3의 52~68장만 있음. 권3은 1~51장은 약사불에 있음. 갑인자본계.
총 15건 15점						

② 약사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개금중수봉안원문	종이	1	1883년	51×58.5	필사.
2	후령통 일괄		1	1606년	5.8×4	황초폭자로 싼 후령통과 발원문을 범자다라니 여러장으로 감싸고 청색끈으로 묶음.
3	銅鏡	동	1	조선후기	19×11.2×0.5	*뒷면에 “整衣冠尊瞻視”라는 명문을 양각함.
4	黃色紬	명주	1	조선시대	39.5×487.5	
5	黑色紬	명주	1	조선시대	7×4×3	
6	구슬류	옥, 수정	6	조선시대	1.0~2.5	
7	봉함목	나무	1	조선시대	11.7×14×3	*목서로 “左”라고 적고, 주서다라니를 적었음
8	목재편	나무	1	조선시대	10.5×4.5×3.5	*목서로 “東”이라고 적었음. 왼쪽 손목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왼손을 지지하던 지지목으로 추정됨.
9	묘법연화경 권1~2	목판본	1책	14세기 후반	27.7×16.8	가철, 표지 후반 일부 일실.
10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세기	27.8×16.7	가철, 앞뒤 표지는 없고, 앞

						부분의 결락이 있음.
11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05년	28.1×16.8	선장, 안심사, 전후 표지 일실, 성달생본계.
12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경	목판본	1첩	1415년	31.5×846.6	절첩장, 현존 유일본, 석가불에 전반부 있음.
13	범망경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 제10권 하	필사본	1책	16세기	31×18	전후 표지 일실, 증도가 합철.
14	삼경합부	목판본	1책	15세기	28.6×17.3	금강반야바라밀경 외에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 보현행원품과 대불정수능엄신주를 합철한 1책임.금사사
15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24년	26.6×16	선장, 안심사, 전후 표지 일실.
16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77년	28.2×19.5	선장, 화암사, 전후 표지 일실, 성달생본계.
17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539년	28.8×17.4	선장, 심원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화암사본계.
18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7년	34.8×20.5	선장, 보광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19	묘법연화경 권2	목판본	1책	13세기 후반	28.5×846.2	절첩장, 표지 전반 일부 일실, 접장본.
20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65년	24.6×15.3	가철, 대불정능엄신주, 금강경,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편, 불설아미타경 순으로 제책됨. 장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음.
21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금사경	1첩	15세기	22.1×290.4	접장본, 배면 은사경.
22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	36×25	선장, 광덕사, 전후 표지 일실, 을해자본계.
23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38.1×21.9	선장, 무량사, 전후 표지 일실, 갑인자본계.
2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1×22.1	선장, 전후 표지 일실, 갑인자본계.
26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70년	32.4×20.4	선장, 전후 표지 일실, 대자본.
27	묘법연화경 권3	목판본	1책	1537년	36.3×21.9	선장, 보광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총 27건 31점						

③ 아미타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조성발원문	종이	1	1606년	27.2×214.7	필사
2	개금중수봉안원문	종이	1	1883년	49.3×56.9	필사
3	후령통일괄	동	1	1606년	8.3×4.6	*내부에 오보병, 양면원경,

		비단				심주 등이 남아 있음.
4	소색주	명주	1	조선시대	24.8×269	
5	직물편	비단	3	조선시대	백색 : 14.3×8.6 흑색 11.6×6.5 적색 19.5×8.2	*흑색 직물편에는 주서로 오륜중자를 적었음. *적색 직물편은 적색과 감 색을 바느질로 겹쳐붙였음.
6	구슬류	옥 수정	5	조선시대	0.7~2.5	*붉은색 구슬 2점 *수정구슬 2점
7	봉합목	나무	1	조선시대	10.5×4.5×3.5	*목서로 “阿彌陀佛”이라고 적음
8	금강반야바라밀경	목판본	1책	1387년	24.3×14.3	가철, 강인부, 전후 표지 일 실, 천로해본, 6~30장 존재.
9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2×22.3	가철,
10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4×21	가철, 권3은 1~2장 결락.
11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51	28×17.7	가철, 전후 표지 일실, 명빈 김씨발원.
12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전기	27×16.4	가철,
13	대방광불화엄경입 불사의해탈경계보 현행원품	목판본	1첩	14세기	22.8×14.8	선장, 전후 표지 일실, 현존 유일본, 석가불에 전반부 있 음.
14	제경합부	목판본	1책	1563년	25.1×16	포배장, 전후 표지, 감로사, 梅竹軒 발문.
15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4세기 후반	26.8×16	선장, 표지 후반 일부 일실, 소자본.
16	금광명경 권1	목판본	1첩	14세기	30×228.7	절첩장, 후반부 일실. 1~4장 존재.
17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다라니경	목판본	1첩	1378년	30.1×159.2	절첩장, 전후 표지 1첩, 1~3 장 존재.
18	범망경노사나불설 보살십지계품 제10 권 하	목판본	1책	14세기	25.5×15	선장, 표지 전반 일부 일실.
19	오등 권6	목활자본	1책	15세기	29.6×19.4	가철, 표지 전반 일부 일실, 현존 유일본.
20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4.7×22.1	선장, 서대사, 전후 표지 일 실, 갑인자본계.
21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05년	27.5×15	선장, 안심사, 성달생본(원 간본).
22	화엄신중	목판본	1책	1462년	27.6×19.9	선장, 화암사, 전후 표지 일 실, <사미수계문> 필사 합 철
23	금강반야바라밀경	목판본	1책	14세기	15.5×21.5	선장.
24	묘법연화경 권1	목판본	1책	15세기	26.3×14.8	가철, 표지 전후 일부 일실, 화암사본계.
25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62년	26×16.5	가철, 화암사, 전후 표지 일 실.
총 25건 31집						

< 감사석가여래삼불좌상 조성발원문(아미타) >

維萬曆三十四年丙午二月日忠清道公州雞龍山青林寺大雄殿佛像釋迦藥師彌陀極樂殿
彌陀」四尊乙巳孟冬爲始丙午季春畢造初二三點安水六」安遊也」眞如性無盡故無量
壽佛今在西方極樂世界衣食」宮殿隨念郎至受諸快樂十方衆生信心念佛往生極」樂世
界七宝池中便生蓮花永脫六道輪廻之苦趣」速證九品蓮臺之上坐隨身公案同證彌陀度
濟迷倫」供登覺岸願同念佛人盡生極樂國見佛了生死與」佛度一切」

王妣殿下壽齊年」

主上殿下壽萬歲 于戈永息國民安」

世子底下壽千秋」

1.

金大施主 金仲世 兩主」金大施主 朴仁壽 兩主」金大施主 印天比丘」 柳德均 兩
主」太雄 比丘」白舜山 兩主」朴平水 兩主」高德還 兩主」烏金大施主 裴春鶴兩
主」金施主 靈正 比丘」智淨 比丘」李叔番兩主」文鳳林兩主」崔同全兩主」金金伊
同兩主」朴根玉兩主」喉靈桶大施主 壹閑比丘」魚膠大施主 尹進世兩主」黃金施主
孫介同 兩主」柳無作 兩主」 尹進福 兩主」宝俊 兩主」愁己里代保体」李福希 兩
主」金彦? 兩主」龍之 保体」林舜礼兩主」李豐伊兩主」李進卜兩主」柳德仁兩主」
金貴男兩主」熙印 比丘」朴莫實比丘」崔終石兩主」宋今山兩主」韓氏玉之保体」李
氏者斤介保体」林大鳳兩主」朱恣致兩主」柳應壽兩主」徐實夢兩主」行修 比丘」暉
鑑 比丘」吳成兩主」徐茂同兩主」高孟傑兩主」柳春兩主」金素(?)兩主」李氏玉代保
体」金永水兩主」

奉事 吳尙孝兩位」奉事 吳天壽兩位」白希壽兩主」朴季男兩主」崔夫希兩主」朴恩
福兩主」金性山兩主」金春兩主」朴彦世兩主」朴 孫兩主」金彦旺兩主」李必連兩
主」李彦弼兩主」李希連兩主」金弼兩主」李萬亨兩主」金彦唱兩主」崔今春兩主」
空默 比丘」德修 比丘」春代 保体」鄭彦孫兩主」金代汗保体」正(?)玉比丘」白於里
介兩主」梁世訓兩主」玉代保体」金永水兩主」車仁福兩主」徐安旺兩主」金仁壽兩
主」宋彦壽兩主」朴氏水介保体」李忠元兩主」金希春兩主」姜彭壽兩主」金今閑兩
主」金京會兩主」金仁男兩主」金希男兩主」揚彦京兩主」柳千年兩主」雪印比丘」
金加應伊金兩主」高末賢兩主」金銀鉄兩主」順非保体」姜二男保体」勝仁比丘」玉
眞比丘」妙眞比丘」崇默 比丘」德和比丘」灯荅 比丘」天暉比丘」姜氏延花保体」勝
密比丘」天惻(?)比丘」一如比丘」

2.

金季文兩主」李彦石兩主」鄭賢貴兩主」李就兩主」金叔連兩主」李信介兩主」申莫
斤兩主」彦今保体」春風保体」朴氏保体」林仁義兩主」孫方小兩主」房?斗兩主」宝

雲比丘」慈雲比丘」孫貴希兩主」朴同兩主」崔寶連兩主」柳大生兩主」柳福均兩主」韓凡伊兩主」韓永水兩主」李白男兩主」李孫兩主」張春己兩主」金水影兩主」金劉水兩主」何芑礼兩主」徐允良兩主」張終必兩主」金億終兩主」金莫孫兩主」李天鶴兩主」徐貴根兩主」朴豐年兩主」金云兩主」金氏虫巨之保体」允今保体」全唱壽兩主」李東卜兩主」裴忞終兩主」金芑同兩主」金永眞兩主」李希男兩主」韓億孫兩主」金芑德兩主」李億龍兩主」吳京还兩主」金應獐兩主」金善伊兩主」郭己元兩主」金有眞兩主」趙鶴兩主」張氏丹伊保体」朴内+ㄱ补兩主」金氏挨勿里兩主」許氏女上介兩主」金氏夢男保体」李奉己兩主」姜守連兩主」姜欣同兩主」陳内心兩主」崔士憲兩主」智默比丘」陣礼元兩主」道成比丘」尹齡金兩主」金世洪兩主」鄭春己兩主」全内+ㄱ金兩主」羅命卜兩主」朴卜只兩主」羅夢同兩主」梁世号兩主」道訓比丘」成伊兩主」金傑保体」尹終世兩主」趙鶴龍兩主」金氏忞今保体」郭彦弼兩主」金仲己兩主」金山伊兩主」弘正比丘」金玄(?)孫兩主」崇隱比丘」朴於屯兩主」金春立保体」尹春世兩主」默宗比丘」正吟比丘」水澄比丘」柳泉兩主」守臥比丘」崔云傑兩主」宋自全兩主」李龍兩主」崔億孫兩主」金連兩主」崔玄云兩主」姜閑老保体」智崇比丘」莫知保体」李一男兩主」金忞同兩主」法祥灵駕」印正灵加(=駕)」性軒灵駕」徐己光灵加(=駕)」通彦比丘」林舜質(?)兩主」金繼金兩主」惠衍比丘」眞覺比丘」騰雲比丘」盧貞?保体」金春兩主」李白辰兩主」朴劉沙里兩主」金牛仏里兩主」李丐音石兩主」戒淳比丘」朴漢兩主」

3.

姜龜華兩主」姜敏華兩主」姜龍華兩主」山代保体」李堅兩主」朴興男兩主」雲花保体」全雲(?)水兩主」李洪兩主」韓凡兩主」孫億壽兩主」金江阿之兩主」李同兩主」鄭生保体」張健兩主」金俊金兩主」峻節保体」柳守連兩主」羅命卜兩主」金春山兩主」李終己兩主」申貴孫兩主」申貴石兩主」大殊比丘」宋和比丘」三月保体」李芑?兩主」丁應心兩主」姜彦京兩主」六月保体」宋京邦(?)兩主」林氏春代兩主」學靈比丘」李万壽兩主」貴之保体」金億卜兩主」?春保体」高彦旺兩主」今伊保体」申銀水兩主」安萬山兩主」張七同兩主」李古同兩主」李未兩主」雄俊保体」崔内+ㄱ必兩主」柳大平兩主」鄭芑德兩主」姜莫善兩主」李終京兩主」朴福只兩主」小裴忞終兩主」大裴忞終兩主」高末还兩主」柳乙生兩主」李介同兩主」朴貴卜兩主」姜難水兩主」茶閑元兩主」李思郎(?)兩主」金同兩主」朴文亨兩主」金永立保体」朴介兩主」金士文兩主」太全比丘」金全兩主」金善閑兩主」張文希兩主」金貴閑兩主」金石只兩主」沈忠世兩主」茶官兩主」吳淨兩主」宋仁京兩主」朴賢卜兩主」夢男保体」李閑進兩主」李貴進兩主」金注兩主」金士孫兩主」卍代保体」金仇音方兩主」姜天昌兩主」申業孫兩主」孫氏好(?)伊保体」緣化秩」

幹善大化主 普淨比丘」

烏金勸化 淨林比丘」

水六勸化 靈敏比丘」

別座 太雄」

供養主 靈會比丘」?祥比丘」 宝雲比丘」

負役雜事」

弘圭比丘」 一閑比丘」 季生保体」

畫員秩」 證明 釋俊比丘」 上畫員 覺敏比丘」 覺心比丘」 幸思比丘」 休一比丘」 德岑比丘」 持殿 天暉比丘」

<약사여래개금중수봉안원문>

忠淸右道公州鷄龍山東鶴寺大雄殿三尊佛像東方藥師如來改金重修奉安願文>

光緒九年癸未正月二十一日 遺教弟子時會大衆老少比丘大小檀越助緣良工等共發虔誠嚴」淨道改金重修謹恭奉安伏願奉安之後 國祚如盤石永固千年寺運若長江流注」無窮兼此大小結緣隨喜同參者生〃世〃在〃處〃常逢 諸佛恒修善業速成佛果」廣度一切同登解脫共入涅槃」

1.

證明比丘 常經」 會主比丘 應聰」 誦呪比丘 瑞印」 性罕」 持殿比丘 奉仁」 金魚比丘 善律」 若效」 尙悅」 印文」 法融」 似訥」 供養主比丘 泰湖」 學俊」 造餅比丘 智英」 慧安」 應玄」 熟頭比丘 寬俊」 敬華」

2.

炙色沙彌 戒雄」 泰欣」 妙欣」 別供比丘 在權」 性侑」 鍾頭比丘 性和」 化主比丘 道一」 普云」

3.

大施主」 比丘尼 道淨」 永周」 戒性」 法慧」 允學 等」 比丘尼 敬典」 大恩」 比丘尼 尙玉」 尙仁」 尙德」 德眞」 淸信女曹氏大悲華」

<아미타불개금중수봉안원문>

忠淸右道公州鷄龍山東鶴寺大雄殿阿彌陀佛聖像改金重修奉安願文>

光緒九年癸未正月二十一日 遺教弟子時會大衆老少比丘大小檀越助緣良工化士別座等共發誠心嚴淨道場」改金重修謹恭奉安伏願奉安之後 國祚如盤石永固千萬年寺運若大河長流注無窮然後願大小結緣隨」喜同參者生〃世〃在〃處〃常逢 諸佛恒修善業速成佛果廣度一切同登解脫共入涅槃往生蓮台九品之大願矣」

1.

證明比丘 常經」會主比丘 應聰」誦呪比丘 瑞印」性罕」持殿比丘 奉仁」金魚比丘 善律」若效」尙悅」印文」法融」似訥」供養主比丘 泰湖」學俊」造餅比丘 智英」慧安」應玄」熟頭比丘 寬俊」敬華」

2.

炙色沙彌 戒雄」泰欣」妙欣」○○比丘 在權」性侑」鍾頭比丘 性和」化主比丘 道一」普云」

3.

大施主秩」比丘尼 道淨」永周」○○」法○」允學 等」比○尼 敬典」大恩」比丘尼 尙玉」尙仁」尙德」德眞」淸信女大悲華曹氏」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釋俊, 覺敏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1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화승들의 활동과 교류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16세기 조각전통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새롭게 대두된 대중적인 미의식도 반영하고 있고, 석준이나 각민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각승들이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상적으로 임진왜란 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정확히 보여주며, 발원문에 정확한 존상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이후 전개될 석가여래삼불상 도상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현상 및 특징

동학사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7권 공주목에 계룡산 東學寺라는 사명이 적혀 있다. 그런데 본 불상의 발원문에서 忠淸道 公州 鷄龍山 靑林寺라는 사명이 적혀 있어 동학사의 이전 이름으로 추정된다.

현재 동학사에는 원래의 대웅전인 삼성각(충청남도 문화재자료 57호)과 고려시

대의 삼층석탑(충청남도 문화재자료 58호) 그리고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제작된 다수의 불화들이 남아 있다.

동학사 대웅전의 불상은 석가, 아미타, 약사불로 이루어진 석가삼세불상으로서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도상이다. 석가불은 다소 큰 편이며 양측의 두 여래인 아미타와 약사불상은 이에 비해 다소 작은 크기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조선후기 삼세불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본존불은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린 항마촉지인과 왼손은 무릎 위에 놓은 상태로 엄지와 검지를 결한 항마촉지인의 석가여래불이다. 얼굴은 신체에 비해 작은 편이며 이마가 넓고 턱으로 올수록 좁은 형상에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각이 진 어깨는 넓고 당당한 모습이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으로 걸친 변형 편단 우견식이며, 밋밋한 가슴에는 수평의 승각기가 있으며 그 밑으로 볼록 튀어 나온 배가 인상적이다. 무릎은 낮고 신체에 비해 좁은 편이며 다소 각이 진 모습인데, 사선과 수평으로 흘러내린 동일한 간격의 옷주름이 새겨져 있다.

양측의 아미타와 약사불상은 다소 작은 규모에 수인만 반대일 뿐 본존불과 거의 같은 모습이며 대의 속에 편삼을 입은 착의법에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삼세불상의 가장 일반적인 대의 착의 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동학사 삼세불상은 작은 얼굴에 당당하고 넓은 어깨와 이에 비해 다소 좁고 낮은 무릎의 비례감이 특징이며 전체적으로 당당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작은 얼굴과 이에 비해 크고 사각이 진 신체적 특징은 조선전기 16세기 불상의 특징으로 기림사 삼세불상이라든지 1579년의 경주 왕룡사원 소조여래좌상 등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유사한 불상은 1614년에 제작된 전라북도 익산 송림사 보광전의 목조여래좌상이다. 작은 얼굴에 당당한 어깨, 낮고 사각진 무릎 등에서 유사하며 전체적인 비례라든지 수직으로 흘러내린 옷주름, 수인 형태 까지도 비슷하다. 1619년의 서천 봉서사 아미타여래좌상도 비례면에서 같은 구성을 보이는 작품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는 萬曆34년 이라는 제작시기는 물론 忠淸道 公州 鷄龍山 靑林寺라는 사찰 명 그리고 證明은 釋俊, 上畫圓은 覺敏, 覺心, 幸思, 休一, 德岑比丘 등이 적혀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수화승 각민과 행사는 현재는 없어진 1614년 송광사 삼존불상을 제작한 조각가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 작품을 통해 작품의 경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06년에 제작된 상으로 覺敏. 幸思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다. 발원문을 통해 대웅전에 석가, 미타, 약사불이라는 기록을 통

해 정확한 존명이 밝혀졌으며 석가를 주존으로 하는 삼세불 형식으로서는 가장 이른 기년명불상이다. 신체에 비해 얼굴이 작으며 전체가 사각형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비례감은 16세기부터 유행했던 특징이며, 긴 신체 비례에 낮은 무릎, 수직과 수평으로 획일화된 옷주름의 표현기법은 17세기 전반경의 작품에 보이는 특징이다.

따라서 동학사 목조석가삼세불좌상은 그 예가 드문 1606년의 작품이라는 희소성,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도상 및 양식적 특징을 지닌 보편성, 보존상태라든지 조형적 우수성 그리고 “大功德主 孝寧大君” 목서가 적힌 地裝菩薩本願經을 비롯한 76건의 중요 복장물 등을 갖춘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함.

3.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9.0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3.17,03.18.)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11.06.09)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6.20~07.1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 소재지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불교중앙박물관 위탁보관)
- 수 량 : 일괄(7종 8책)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
- 판 중 : 별첨 참조
- 형 식 : 별첨 참조
- 제작연대 : 13세기~17세기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동학사 삼불상에서 발견된 56책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간사본이다. 이 중에서 희귀성, 온전성, 완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된 육경합부(2책),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 등 2종 3책과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불조삼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체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제6, 묘법연화경(언해) 권제2,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등 5종 5책, 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종 1책 등 모두 8종 9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므로 **뽕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으로 일괄 지정하고, 나머지 47책은 **뽕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유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지정 가치 있음)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발견된 불경류는 모두 56책이다. 이 중에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와 권6의 2책,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체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6, 『육경합부』, 『묘법연화경』(언해)권2,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불조삼경』,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등 7종 8책은 고려말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들로서 희귀본 또는 귀중본에 속한다. 불교사 서지학 중세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일괄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동학사 삼세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은 대부분 고려 말에서 조선전기 사이에 간행된 불교전적이다. 주목되는 특징은 법화경과 육경합부 판본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존 유일본이 4점 이상으로 조사되며, 보물급 금속활자본 국역본도 2점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 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은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불상(석가모니불좌상, 약사불좌상,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서들이다. 석가불좌상에서는 13책, 약사불좌상에서는 20책, 아미타불좌상에서는 23책 등 모두 56책이 발견되었다. 이들을 관종별로 구분해보면 목판본 51책, 금속활자(을해자)본 2책, 목활자본 1책, 사본(사경) 2책 등이다.

아미타불상의 발원문에 따르면, 『1605년 10월에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과 극락전의 아미타불 등 4구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06년 3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당시 임진왜란(1592~1598)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새로 불서를 간행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래서 복장할 대상의 불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간인본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삼불상에서 발견된 간인본 불서들은 고려 중 후기부터 조선초기, 늦어도 임진왜란 이전에 간인된 것이었고, 사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후 삼불상은 1883년과 1957년 등 두 차례 개금중수가 있었으나 불서들은 그대로 잘 보존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은 표지나 내용이 찢겨나간 것들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쥐가 갉아먹거나 좀 벌레 때문에 훼손이 심한 것들도 있다. 그 중에서는 표지는 없으나 원문이나 내용의 손상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 몇몇은 개별로도 국가문화재급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도 있다. 이들 불서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묘법연화경 목판본이 많다. 곧 석가불좌상의 11책, 약사불좌상의 12책, 아미타불좌상의 9책 등 모두 32책이다. 이중에서 간행시기가 남아있는 간본으로는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6종(간년; 1405, 1470, 1477, 1493, 1537, 1539) 6책,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2종(1405, 1536) 2책, 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4종(1405, 1536, 1555, 1565) 7책이 있다. 이 책들은 동일한 판본이 한 불상 또는 다른 불상에 나누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동일한 판본, 동일한 권수의 복본이 있기도 하다. 이 중에는 소자본 묘법연화경도 있다.

둘째, 약사불좌상과 석가모니불좌상에서 각각 1책씩 발견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6 등 2책은 금속활자(을해자) 인본으로 국가문화재급이다. 이 인본은 상부 난외에 한글로 적어 놓은 곳이 적지 않아 당시 한글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셋째,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제6은 1461(세조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경도감본이다. 이 판본의

영본들도 보물 762호, 764호 등 수 건이 지정되어 있다.

넷째,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제6(1461)과 묘법연화경(언해) 권제2 그리고 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6 등 3책은 校正”印이 찍혀 있다. 이 3책은 귀중한 불서인데다 校正”印까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불서이다.

다섯째,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1378)는 원재정공권(1333~1382)이 발문을 지은 목판본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불조삼경(1384) 역시 서문과 발문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문화재급이다. 조선초기본으로 “大功德主 孝寧大君”라는 목서가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그리고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된 육경합부(1424)도 소중한 책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고려본으로 추정되는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제1~2와 묘법연화경 권제2 및 금광명경 권제1,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금강반야바라밀경 2종(1245, 1387),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목활자본 [五燈] 권6, 조선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감지금니묘법연화경,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1415), 화엄신중(1517) 등도 희귀한 전적 문화재로 볼 수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동학사 삼불상에서 발견된 56책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간사본이다. 이 중에서 희귀성, 온전성, 완질여부 등을 고려하여 약사불좌상에서 발견된 육경합부(2책),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 등 2종 3책과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불조삼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언해) 권제6, 묘법연화경(언해) 권제2,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등 5종 5책, 석가모니불좌상에서 발견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1종 1책 등 모두 7종 8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므로 팽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으로 일괄 지정하고, 나머지 47책은 팽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유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

명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		
수량 /규 격	2권2책 / 37.7×25.2cm	판종	활자본(을해자)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고정지	조성연대	1455~1468년(세조년간)
현상	앞뒤 표지가 없고, 권4은 152장, 권6은 117장인데 제1~3장 하단부 일부와 제117장의 전면 1~2행과 후면 卷末題에 부분적인 손실이 있고 그 외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四周單邊, 半郭; 26.8×20cm. 有界, 半葉 大字 9行16字, 中字 9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圓覺經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당나라 永徽年間(650~655)에 북인도의 승려 佛陀多羅가 한역하였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圓覺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에서는 지눌이 중시하여 널리 유포되었으며, 조선 초부터는 승려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세조년간(1455~1468)에 乙亥字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殘存本은 권4와 권6의 2권2책으로 零本이다. 권두제는 大字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란 경명이 있고, 이어 다음 행에 中字로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라 하여 찬술자를 밝히고 있다. 본문은 9행 16자로 大□中□小字가 모두 사용되었고 구결이 목서되어 있다. 권말에는 音釋이 수록되었으며, 권수제 상단에는 교정 필한 校正'이란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印經紙도 세조년간 간행본에서 많이 보이는 저지와 고정지가 혼합된 종이가 사용되었다. 북장품이라 앞뒤 표지는 없으며, 권4는 본문이 완전하고 권6은 제1~3장과 제117장이 일부 손실이 있으나 비교적 상태는 양호하다.		
지정가치	이 『圓覺經』 권4, 권6은 세조년간(1455~1468)에 인출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 대□중□소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조선전기의 불경판본과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귀중한 판본이며, 권수제 상단에는 校正'이란 印記가 있어 서지학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인출본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희귀본에 속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2.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六

명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6		
수량 /규 격	1권1책(권6) / 32.5×23.3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62년(세조 8)
현상	앞뒤 표지 없고 권6은 제1~115장으로 본문이 缺張없이 완전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四周雙邊, 반곽 21.7×18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楞嚴經		
내용 및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언해본은 당나라 般刺蜜帝가		

특징	<p>번역하고 송나라의 戒環이 해설한 註解本에 信眉의 도움을 받아 韓繼禧□金守濫 등이 國譯한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전10권 가운데 권6의 1권1책이다. 흔히 『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 『楞嚴經』 등으로 略稱하기도 한다.</p> <p>한글에는 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권수서명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을 확인케 한다. 조선전기 불경판본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p> <p>이와 동일본으로 국보 제212호는 완질이며, 보물 764호(권2~4, 6~10), 765호(권1,4), 등이 지정되어 있다.</p>
지정가치	<p>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언해본은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권6의 1권1책이다. 본문이 완전하고 권수제 상단에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이 주목된다. 동일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p>

3. 육경합부(六經合部)

명칭	육경합부(六經合部)		
수량 /규 격	1책 / 26×16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24년(세종 6)
현상	앞뒤 표지가 없고, 본문은 얼룩져있으나 缺張없이 완전하며,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p>四周單邊, 반곽 20×12.7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p> <p>金剛般若波羅蜜經末 :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p> <p>觀世音菩薩禮文末 : 永樂甲辰六月日…成達生跋</p> <p>발 문 : 永樂甲辰(세종6, 1424)六月日 平安道都觀察黜陟使 兼 平安府尹成達生 跋. 同願 信玄, 刻手 尙聰</p>		
내용 및 특징	<p>육경합부는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末 등 6개경의 합편을 이른다. 권말의 성달생 발문에 의하면 금강경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대승경전으로 초학들이 반드시 먼저 독송하여야 하는데, 일찍이 崔斯立이 필서하여 새긴 판본이 해가 오래되어 글자가 닳고 이지러져 배우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평안도 도관찰출척사 겸 평양부윤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도인 佛明이 이것의 필서를 요청하고 信玄이 또한 함께 발원하매, 위로는 주상전하의 수만세와 태종대왕의 증득성불 그리고 다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仙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그 금강경을 필서하였다. 그리고 이어 아미타경□보현행원품□관세음보살보문품□수능엄신수□관세음보살예문을 차례로 필서하여 합쳐 一部를 이루었다. 이것을 세종6년(1424) 6월 전라도 안심사에서 각수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것이 초각판이며, 바로 이 판본은 그중의 1부가 전래된 것이다. 그 개관지와 개판사찰은 금강경의 말미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어 豐壤郡夫人 趙氏□咸羅郡夫人 南宮氏□故金氏 등의 시</p>		

	<p>주질이 있다.</p> <p>약사불과 아미타불의 복장에서 나온 육경합부의 판종은 다양한데, 그 대부분이 後刊의 번각본이다. 이 판본은 書口가 약간 훼손되었으나 본문은 결장 없이 완전하다. 드물게 볼 수 있는 판본이며, 또한 그 판각과 인쇄의 품격이 특출하게 돋보이는 독자적 판본이다.</p>
지정가치	<p>이 육경합부는 1424년(세종 6)에 전라도 安心寺에서 刻手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초각판이다. 권말의 성달생의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불교사 및 불서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p>

4.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명칭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수량 /규 격	1권1책(권2) / 31.9×23.2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63년
현상	앞뒤 표지가 없으며, 권2의 본문은 제174~266장 까지 있으며, 권말에 音釋이 수록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하다.		
서지사항	四周雙邊, 반곽 21.5×18.1cm, 有界, 半葉 9行17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法華經		
내용 및 특징	<p>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一如가 집주한 것에 세조9년(1463) 9월 刊經都監에서 왕명을 받들어 국역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전 7권 가운데 권2에 해당하는 1권1책이다. 권두제 없이 妙法蓮華經信解品第四'를 시작으로 경문이 이어지고 본문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었다. 경전의 본문은 후반부 제174~266장까지 일부만이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다. 권2 권말제에 이어 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조선전기 불경 판본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p> <p>이와 동일본이 보물 1010-2호(권1,4), 제1140호(권3上·下)로 지정되어 있다.</p>		
지정가치	<p>묘법연화경 언해본 권2은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이 잘 갖추어 있어서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일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p>		

5.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명칭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수량 /규 격	1첩 / 28.5×876.5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折帖裝 / 저지	조성연대	1378년(고려 우왕4)刻, 조선초기 인출
현상	표지는 紺色인데 표제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표제의 금서로 쓴 앞		

	글자가 보이지 않으며 본문에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상하간 18.7cm, 無界, 全葉 30行17字, 無魚尾 관심제 : 長 表題 : □□長壽滅罪經 권말 : 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
내용 및 특징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석가세존이 무수보살에게 중생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다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불법에 귀의하면 죄를 면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음을 설한 내용이다. 이 판본은 권말의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경의 완본 권수제 다음에는 佛陀波利 奉詔譯임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일반 중생에게는 가장 절실한 경전이므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간행되어 판종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1378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앞표지에는 금니로 〇〇長壽滅罪經"이라고 제명을 적어 놓았다. 1장의 행자수는 30행 17자이며,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장수표시 윗부분에는 이 경을 약칭하는 長"이라는 제명을 새겨 놓았다. 권말에는 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와 같이 1378년에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다. 前別將 許珍, 奉善大夫典農副正, 開城郡夫人 王氏등이 동원자로 참여한 사실 역시 이 시기에 간행된 사실을 보여준다. 판식, 서체, 지질, 장정 등으로 판단하면 1378년경에 판각되어 조선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정가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본으로 권말에는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어 간행과정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알려지지 않는 유일본이다. 불교사 및 판본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6. 불조삼경 佛祖三經

명칭	불조삼경 佛祖三經		
수량 /규 격	1책 / 26.7×16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384년(고려 우왕10)
현상	표지는 없으며 益大가 1286년에 쓴 발문 1장이 결락되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반곽 21.6×14.9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관심제 : 四十二章, 遺教, 瀋山 序文 : 至元丙戌(1346)....德異 敍. 佛說四十二章經 末 : 白雲子悟, 返源, 志喜		

	<p>志建, 志林. 德善海經, 志善, 省宗, 祐勤, 松莊, 甘磨從, 每莊, 依德四年 金加勿 元滿 金得富 李元忠 道心 檢校中郎將 金文孟. 莊恩臺, 小口 金洪 漢鄉 加伊俸加</p> <p>跋 文 : ○ 釋志峯與志道覺溫施主金氏曰大難者重刊佛祖三經來請予跋.....青龍 甲子(1384)十月日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 李穡(1328~1396)跋. ○[丙戌(1286)比丘益大 跋]</p>
내용 및 특징	<p>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瀉山警策의 合綴本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중국 후한 때 인도사람 迦葉摩騰·竺法蘭이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에 전한 불경으로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간명하게 설명한 경전이며, 佛遺教經은 姚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瀉山警策은 중국 瀉仰宗의 祖師인 靈祐의 저술로 범어록이며, 선사의 어록에 해당된다.</p> <p>이 책은 권수에 蒙山和尚 德異의 序文과 卷末에 益大가 쓴 발문이 같은 1286년인 것을 보면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德異序와 益大跋文이 그대로 판각되어서 1384년에 重刊한 판본임을 李穡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p> <p>佛祖三經은 1361년에 전주 圓巖寺에서 行心の 발원과 法空과 尹善이 함께 간행한(보물 제694호)판본과 1384년의 이색 발문이 있는 판본(보물 제695호, 제1224호)과 그리고 이색 발문과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판본(보물 제1224-2호, 범어사소장)등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사본은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보물 제1224-2호와 동일본이다.</p>
지정가치	<p>불조삼경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편찬한 것이다. 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益大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간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본이다. 뿐만아니라 러말선초의 선종사 연구 및 판본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p>

7.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명칭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수량 /규 격	1권1첩(권하) / 31.3×722.1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절첩장 / 저지	조성연대	15세기
현상	앞뒤 표지는 상지인데 훼손되어 일부 결락되었다. 표제는 없고, 본문은 완전하며, 17장으로 연결된 절첩식이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左右雙邊, 전곽 22.4×55.2cm. 有界, 全葉 25行17字, 無魚尾 관심제 : 地下 卷末 墨書 : 大功德主 孝寧大君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 性		

	照
내용 및 특징	<p>地藏菩薩本願經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 방법을 다룬 경전으로 줄여서 地藏經이라고 하며,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이다.</p> <p>이 地藏經은 上 中 下 3권 가운데 下卷에 해당하는 1첩으로 畧本이다. 상하에 변란과 계선이 있고 한 면에 5행씩 절첩하였으며, 17장으로 연결되어 있다.</p> <p>권말에는 釋音이 있고 끝에 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 이란 출처기록이 있다. 난외에는 목서로 大功德主에 孝寧大君(1396~1486)과 하단에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는 性照 등이 기록되어 있어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p>
지정가치	<p>地藏菩薩本願經은 상중하 전 3권중 卷下로서 1권 1첩이다. 권말 목서에 大功德主가 孝寧大君으로 보아 왕실발원으로 보이며,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 보물 제933호보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귀중본에 속하는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p>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은 고려말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들로서 희귀본 또는 귀중본에 속한다. 지정대상 7종 8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서명	수량	연대	크기 (세로×가로)	비고
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六	2권 2책	세 조 년 간 (1455~1468)	37.7×25.2cm	을해자본, “校正”印
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六	1권 1책	1462년 (세조 8)	32.5×23.3cm	목판본 간경도감본. 校正
3	六經合部	1책	1424년 (세종 6)	26×16cm	목판본. 金剛經末: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觀世音菩薩禮文末:永樂甲辰(1424)六月日…成達生跋
4	妙法蓮華經 (諺解) 卷二	1책	1463년 (세조 9)	31.9×23.cm	목판본. 간경도감본. 校正
5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1책	1378년(고려 우왕4)刻, 조 선초기 인출	28.5×876.5cm	목판본, 절첩장. 권말: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
6	佛祖三經	1책	1384년(고려 우왕10)	26.7×16cm	목판본. 권말:靑龍甲子(1384)十月日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三重大匡韓山府

					院君李穡跋.
7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1권 1책	15세기	31.3×722.1cm	목판본. 절첩장,
계 7종 8책					

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

- 수 량 : 2권2책(권4, 권6)
- 규 격 : 37.7×25.2cm
- 재 질 : 楮紙 藁精紙
- 판 종 : 活字本(乙亥字)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세조년간(1455~1468)
- 현 상 : 앞뒤 표지가 없고, 권4은 152장, 권6은 117장인데 제1~3장 하단부 일부와 제117장의 전면 1~2행과 후면 卷末題가 부분적인 손실이 있고 그 외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 四周單邊, 半郭; 26.8×20cm. 有界, 半葉 大字 9行16字, 中字 9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圓覺經

○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은 당나라 永徽年間(650~655)에 북인도의 승려 佛陀多羅가 한역하였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圓覺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에서는 지눌이 중시하여 널리 유포되었으며, 조선 초부터는 승려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세조년간(1455~1468)에 乙亥字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殘存本은 권4와 권6의 2권2책으로 零本이다. 권두제는 大字로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이란 경명이 있고, 이어 다음 행에 中字로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라 하여 찬술자를 밝히고 있다. 본문은 9행 16자로 大□中□小字가 모두 사용되었고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권말에는 音釋이 수록되었으며, 권수제 상단에는 교정 필한 校正'이란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印經紙도 세조년간 간행본에서 많이 보이는 저지와 고정지가 혼합된 종이가 사용되었다. 북장품이라 앞뒤 표지는 없으며, 권4는 본문이 완전하고 권6은 제1~3장과 제117장이 일부 손실이 있으나 비교적 상태는 양호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圓覺經』 권4, 권6은 세조년간(1455~1468)에 인출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

대□중□소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조선전기의 불경판본과 금속활자 및 인쇄기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판본이며, 권수제 상단에는 校正'이란 印記가 있어 서지학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인출본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희귀본에 속한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2.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六

- 수 량 : 1권1책(권6)
- 규 격 : 32.5×23.3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1462년(세조 8)
- 현 상 : 앞뒤 표지 없고 권6은 제1~115장으로 본문이 缺張없이 완전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서지사항 : 四周雙邊, 반곽 21.7×18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관심제 : 楞嚴經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언해본은 당나라 般刺蜜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戒環이 해설한 註解本에 信眉의 도움을 받아 韓繼禧□金守溫 등이 國譯한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전10권 가운데 권6의 1권1책이다. 흔히 『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 『楞嚴經』 등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한글에는 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권수서명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을 확인케 한다. 조선전기 불경판본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목판본이다.

이와 동일본으로 국보 제212호는 완질이며, 보물 764호(권2~4, 6~10), 765호(권1,4),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언해본은 1462년(세조 8)에 간

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권6의 1권1책이다. 본문이 완전하고 권수제 상단에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이 주목된다. 동일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3. 육경합부(六經合部)

- 수 량 : 1책
- 규 격 : 26×16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1424년(세종 6)
- 현 상 : 앞뒤 표지가 없고, 본문은 얼룩져있으나 缺張없이 완전하며,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 四周單邊, 반곽 20×12.7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金剛般若波羅蜜經末 :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觀世音菩薩禮文末 : 永樂甲辰六月日…成達生跋

발 문 : 永樂甲辰(세종6, 1424)六月日 平安道都觀察黜陟使 兼 平安府尹成達生 跋.

同願 信玄, 刻手 尙聰

○ 내용 및 특징

육경합부는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등 6개 경의 합편을 이룬다. 권말의 성달생 발문에 의하면 금강경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대승경전으로 초학들이 반드시 먼저 독송하여야 하는데, 일찍이 崔斯立이 필서하여 새긴 판본이 해가 오래되어 글자가 닳고 이지러져 배우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자기가 평안도 도관찰출척사 겸 평양부윤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도인 佛明이 이것의 필서를 요청하고 信玄이 또한 함께 발원하며, 위로는 주상전하의 수만세와 태종대왕의 증득성불 그리고 다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仙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그 금강경을 필서하였다. 그리고 이어 당대의 사람들이 숭상하는 아미타경□보현행원품□관세음보살보문품□수능엄신수□관세음보살예문을 차례로 필서하여 합쳐 一部를 이루었다. 이것을 세종6년(1424) 6월 전라도 안심사에서 각수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것이 초각판이며, 바로 이 판

본은 그중의 1부가 전래된 것이다. 그 개관지와 개관사찰은 금강경의 말미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어 豊壤郡夫人 趙氏□咸羅郡夫人 南宮氏□故金氏 등의 시주질이 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복장에서 나온 육경합부의 판종은 다양한데, 그 대부분이 後刊의 번각본이다. 이 판본은 畵口가 약간 훼손되었으나 본문은 결장 없이 완전하다. 드물게 볼 수 있는 판본이며, 또한 그 판각과 인쇄의 품격이 특출하게 돋보이는 독자적 판본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육경합부는 1424년(세종 6)에 전라도 安心寺에서 刻手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것이 초각판이며, 바로 이 판본은 그중의 1부가 전래된 것이다. 권말에 성달생의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불교사 및 불서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4.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 수 량 : 1권1책(권2)
- 규 격 : 31.9×23.2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1463년
- 현 상 : 앞뒤 표지가 없으며, 권2의 본문은 제174~266장 까지 있으며, 권말 제 말에 音釋이 수록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하다.
서지사향 : 四周雙邊, 반곽 21.5×18.1cm, 有界, 半葉 9行17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 : 法華經

○ 내용 및 특징

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一如가 집주한 것에 세조9년(1463) 9월 刊經都監에서 왕명을 받들어 국역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전 7권 가운데 권2에 해당하는 1권1책이다. 권두제 없이 妙法蓮華經信解品第四'를 시작으로 경문이 이어지고 본문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었다. 경전의 본문은 후반부 제174~266장까지 일부만이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다. 권2 권말제에 이어 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조선전기 불경판본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1010-2호 (권1,4), 제1140호(권3上·下)로 지정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묘법연화경 언해본 권2은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이 잘 갖추어 있어서 중세 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일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아-04>

- 수 량 : 1첩
- 규 격 : 28.5×876.5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折帖裝
- 조성연대 : 1378년(고려 우왕4)刻, 조선초기 인출
- 현 상 : 표지는 紺色인데 표제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표제의 금서로 쓴 앞글자가 보이지 않으며 본문에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 上下單邊, 상하간 18.7cm, 無界, 全葉 30行17字, 無魚尾

판심제 : 長

表題 : □□長壽滅罪經

권말 : 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

○ 내용 및 특징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석가세존이 무수보살에게 중생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다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불법에 귀의하면 죄를 면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음을 설한 내용이다.

이 판본은 권말의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경의 완본 권수제 다음에는 佛陀波利 奉詔譯임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일반

중생에게는 가장 절실한 경전이므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간행되어 판종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1378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앞표지에는 금니로 “〇〇長壽滅罪經”이라고 제명을 적어 놓았다. 1장의 행자수는 30행 17자이며,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장수표시 윗부분에는 이 경을 약칭하는 “長”이라는 제명을 새겨 놓았다. 권말에는 “睿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와 같이 1378년에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다. 前別將 許玘, 奉善大夫典農副正, 開城郡夫人 王氏 등이 동원자로 참여한 사실 역시 이 시기에 간행된 사실을 보여준다. 판식, 서체, 지질, 장정 등으로 판단하면 1378년경에 판각되어 조선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본으로 권말에는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어 간행과정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알려지지 않는 유일본이다. 불교사 및 판본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6. 불조삼경 佛祖三經

- 수 량 : 1책
- 규 격 : 26.7×16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線裝
- 조성연대 : 1384년(고려 우왕10)
- 현 상 : 표지는 없으며 益大가 1286년에 쓴 발문 1장이 결락되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 上下單邊, 반곽 21.6×14.9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관심제 : 四十二章, 遺教, 瀉山

序文 : 至元丙戌(1346)....德異 敍.

佛說四十二章經 末 : 白雲子悟, 返源, 志喜

志建, 志林. 德善海經, 志善,

省宗, 祐勤, 松莊, 甘磨從, 每莊, 依德四年

金加勿 元滿 金得富 李元忠 道心

檢校中郎將 金文孟. 莊恩臺, 小□

金洪 漢鄉 加伊俸加

- 跋 文 : ○ 釋志峯與志道覺溫施主金氏曰大難者重刊佛祖三經來請予跋.....青龍甲子(1384)十月日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 三重大匡韓山府院君李穡(1328~1396)跋.
-[丙戌(1286) 比丘益大 跋]

○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瀉山警策의 合綴本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중국 후한 때 인도사람 迦葉摩騰·竺法蘭이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에 전한 불경으로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간명하게 설명한 경전이며, 佛遺教經은 姚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瀉山警策은 중국 瀉仰宗의 祖師인 靈祐의 저술로 법어록이며, 선사의 어록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수에 蒙山和尚 德異의 序文과 卷末에 益大가 쓴 발문이 같은 1286년 인 것을 보면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德異序와 益大跋文이 그대로 판각되어서 1384년에 重刊한 판본임을 李穡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은 1361년에 전주 圓巖寺에서 行心の 발원과 法空과 尹善이 함께 간행한(보물 제694호)판본과 1384년의 이색 발문이 있는 판본(보물 제695호, 제1224호)과 그리고 이색 발문과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판본(보물 제1224-2호, 범어사소장)등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사본은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보물 제1224-2호와 동일본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편찬한 것이다. 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益大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간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본이다. 뿐만아니라 려말선초의 선종사 연구 및 판본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7.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 수 량 : 1권1첩(권하)
- 규 격 : 31.3×722.1cm
- 재 질 : 楮紙
- 판 종 : 木版本

- 형 식 : 折帖裝
- 조성연대 : 15세기
- 현 상 : 앞뒤 표지는 상지인데 훼손되어 일부 결락되었다. 표제는 없고, 본문은 완전하며, 17장으로 연결된 절첩식이다.
서지사향 : 上下單邊, 左右雙邊, 전곽 22.4×55.2cm. 有界, 全葉 25行17字, 無魚尾
관심제 : 地下
卷末 墨書 : 大功德主 孝寧大君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 性照

○ 내용 및 특징

地藏菩薩本願經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 방법을 다룬 경전으로 줄여서 地藏經이라고 하며,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이다.

이 地藏經은 上 中 下 3권 가운데 下卷에 해당하는 1첩으로 零本이다. 상하에 변란과 계선이 있고 한 면에 5행씩 절첩하였으며, 17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권말에는 釋音이 있고 끝에 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 이란 출처기록이 있다. 난외에는 목서로 大功德主에 孝寧大君(1396~1486)과 하단에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는 性照 등이 기록되어 있어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地藏菩薩本願經은 상중하 전 3권중 卷下로서 1권 1첩이다. 권말 목서에 大功德主가 孝寧大君으로 보아 왕실발원으로 보이며,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 보물 제933호보다 시기적으로도 빠르며, 비교적 희귀한 자료로서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

대전 동학사 소유의 삼세여래좌상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은 아래의 목록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석가모니불좌상>

서명	판종	수량	간행처	연대	현상	비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6	금속 활자본	1책	교서관	1461	전후 표지 일실	을해자

<약사불좌상>

서명	판종	수량	간행처	연대	현상	비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	금속 활자본	1책	교서관	1461	전후 표지 일실	을해자
육경합부	목판본	2책	안심사	1424	전후 표지 일실	원간본

<아미타불좌상>

서명	판종	수량	간행처	연대	현상	비고
대불정...수능엄경 언해 권6	목판본	1책	간경도감	1462	전후 표지 일실	校正 날인
묘 법 연 화 경 언해 권2	목판본	1책	간경도감	1463	전후 표지 일실	간경도감언해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목판본	2책	미상	1378	전후표지, 1책(4장)	현존 유일본, 圓齋 戊午 跋文
불조삼경	목판본	1책	왕실	1384	표지 일실	有界本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목판본	1책	왕실	15세기	전후 표지	효령대군 공덕주 1340년 東學社刊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동학사 삼세불에서 수습된 복장전적은 대부분 고려 말에서 조선전기 사이에 간행된 불교전적이다. 주목되는 특징은 법화경과 육경합부 판본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존 유일본이 4점 이상으로 조사되며, 보물급 금속활자본 국역본도 2점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 한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함.

4.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가. 심의사항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1.03.1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4.21)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11.06.09.)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6.20~07.1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강원유형문화재 제143호(2003.04.25. 지정)
- 명 칭 :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 수 량 : 3구
- 규 격 : 목조아미타불좌상 높이 164cm, 무릎 폭 114cm
목조관음보살좌상 높이 147cm, 무릎 폭 95cm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2cm, 무릎 폭 91cm
- 재 질 : 목조
- 제작연대 : 1651년(효종 2)

○ 제작자 : 무염(無染), 도우(道祐), 덕명(德明), 처상(處常), 성잠(性岑), 원철(元哲), 도래(道來), 민기(敏奇), 의신(義信), 영봉(靈峰), 처인(處印), 일상(日詳)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복장유물은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중에서 조성연대와 조성자를 알 수 있는 불상으로 매우 주목된다. 본존인 아미타불상의 바닥에 묵서명이 남아있고,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는 조성 당시의 축원문이 확인되어 삼존불상이 무염 화사에 의해 조선시대 1651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보살상의 보관이 후보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조각사의 기준작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4cm 높이의 대형 불상으로서, 당당한 체구에 안정된 비례, 유려한 조각 수준을 보여준다.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좌상과 대세지보살좌상은 크기가 본존상보다 조금 작지만, 양식적으로는 유사하다. 다만 법의 표현과 수인 등 형식적으로는 대세지보살좌상이 본존상과 유사하지만, 조각의 깊이감 등 조각 수법은 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다.

삼존상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다. 형식적인 표현이나 조각 기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염 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염파 조각승들이 불상 조성에 있어서 작업을 분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축원문」에는 무염이 道祐와 海心を 비롯한 열 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이 불사에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풍악산, 오대산, 보개산, 묘향산, 천관산, 태백산, 오봉산의 고승대덕들이 증명법사로 이름이 확인된다. 특히 이 가운데 팔도도총섭이었던 지리산의 碧巖覺性(1575~1660) 스님의 이름도 있다.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무염이 제작에 참여한 불상은 고창 선운사 목조비로자나삼불상(1633년)을 비롯해서 勝一과 道祐 등과 함께 제작한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삼세불좌상(1635년), 제자 해심과 함께 참여한 해남 도장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8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완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52년), 제자 해심 등과 함께 참여한 고창 문수사 지장보살상(1653년)과 영광 불갑사 명부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1656년) 등이 전해오고 있어 무염파 조각승들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무염과 조각승들이 신흥사 불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다.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651년에 강원도에서 조성된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조각 수준이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조성 시기가 확실하다. 또한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일반 신도들과 승려들, 조각승들이 기록된 복장 축원문이 전해오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이 불상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각승 무염과 그의 제자들이 강원도에 와서 조성한 것으로 당시 조각승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따라서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이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지정 가치 있음)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각승 無染이 제작한 작품이다. 164cm에 이르는 장대한 크기, 1651년 이라는 제작연대는 물론 우수한 조각수법과 부드러운 옷주름 등 무염의 최고 전성기에 제작된 상으로 판단된다. 넓은 무릎에서 오는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와 둥근 얼굴에 살찐 모습의 이중 턱선 그리고 넓은 띠 모양의 옷자락과 무릎의 좀밀한 수평 주름 등은 무염의 특징이지만 17세기중엽 이후 많은 조각승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비록 복장물의 일부는 없어졌지만 17세기중엽경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판단되는 조형성과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乾鳳寺本末事蹟』의「深谷寺事蹟」에 의하면, 신흥사는 신라 眞德여왕 6년(652) 慈藏律師가 창건하여 香城寺라 하였다. 孝昭王 7년(698)에 소실되어 3년 뒤인 701년에 義湘大師가 옛터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중창하여 禪定寺로 개칭하였으며, 조선 仁祖 20년(1642) 화재로 인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인조 22년(1644)부터 3년 동안 靈西, 蓮玉, 惠元 스님께서 중창하여 神興寺라고 하였다. 지금의 사명인 新興寺은 1994년에 개칭된 것이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봉안되어 있는 極樂寶殿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으나, 원래는 조선시대 인조 때인 1644년부터 1646년 사이에 중창된 건물이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도1)도 불상 밑바닥에 쓰여진 목서명과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축원문을 통하여 인조 25년(1647) 극락보전이 완성된 후, 그 속에 봉안하기 위하여 새로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밑바닥에는 順治辛卯八月 日畫員無染이라는 목서명이 있고,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 축원문에는 順治八年八月十九日畫員無染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들 기록은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효종 2년인 1651년에 조각승 무염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극락보전의 높직한 불단위에 다시 각각의 목조팔각대좌를 마련하고 그 위에 봉안되어 있다. 중앙의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왼쪽[向右]에 관세음보살좌상이, 오른쪽[向左]에 대세지보살좌상이 결가부좌한 채 협시하고 있다. 이들 삼존상들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조각 수준도 매우 우수하다.

○ 내용 및 특징

(1) 木造阿彌陀佛坐像

삼존상 중 본존불인 아미타불좌상(도2)은 높이 164cm로서, 17세기에 조성된 목조불상으로는 대형에 속한다. 전체적인 비례가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어깨와 무

를 폭이 넓고 몸통이 두터워 당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양어깨는 양감이 풍부한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머리와 肉髻와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머리 위에는 원통형의 頂上髻珠가 표현되었고 머리 정면에는 반달형의 중앙 계주가 새겨져 있다. 살이 도톰하게 처리된 양 뺨과 다문 입의 끝부분에서 부드러우면서도 다부진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인중은 짧은 편이다. 이마에서 곧바로 튀어나온 콧날의 윗부분이 돌출한 표현, 턱 아래에 弧線을 음각하여 양감을 표현한 점,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깃의 끝이 부드러운 V자형을 이룬 표현, 옷주름이 예리하고 힘있게 새겨진 점 등은 無染派 불상의 특징이다. 手印은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무릎 위에 내려 놓은 다음, 양 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아미타불의 說法印(혹은 中品中生印)을 결하고 있다. 착의법은 大衣가 양쪽 어깨를 덮은 通肩형식으로서 가슴이 넓게 드러난 상태이며, 內衣는 수평으로 접혀 있다. 대의가 흘러내려 양 무릎을 덮었고, 八字형으로 뻗어난 좌우대칭형 옷주름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었다.

불상은 안정된 신체 비례와 유려한 옷주름 표현, 다부진 입, 도톰한 뺨 양발 사이에 표현된 八字형의 대칭적 옷주름 처리 등에서 17세기 목조불상의 양식적인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비록 이 불상에서 복장물은 이미 없어졌으나, 불상의 밑바닥에 쓰여 있는 가로와 세로로 墨書名이 남아 있어서 조성시기와 조성자를 알려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도3).

香山普賢寺 □□次雪嶽山 神興寺佛相造成也 【가로목서명】

順治八年辛卯八月化主靈瑞 畫員無染謹封 【세로목서명】

따라서 불상은 순치8년인 조선 효종 2년(1651년) 무염화사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불상의 양식적인 특징과 일치된다. 또한 함께 발원되어 조성된 좌협시보살상인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축원문에서도 같은 해에 무염화사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서 불상의 목서명과 그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木造觀音菩薩坐像

아미타불상의 좌측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도4)은 아미타불상과 유사한 조각 수법과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안정된 비례와 단아한 모습, 유려한 옷주름 처리 등 조각 수준은 매우 높다. 상투[寶髻]가 높고 양쪽 어깨 위에 드리운 두발은 복잡하여 땅아 놓았다. 寶冠은 근래 後補된 것이다. 상호와 수인, 착의 형식은 본존인 아미타불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조각이 보다 입체적이고, 내의의 윗부분이 본존상과 달리 주름형으로 표현되었다. 수인은 대세지보살과 반대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무릎에 내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중지와 검지를 맞댄 설법인을 결하였다. 두 손가락 사이에 보주가 표현된 것은 17세기 불상의 특징의 하나이다.

(3) 木造大勢至菩薩坐像

아미타불상의 우측[向左]에 봉안된 목조대세지보살좌상(도5)은 상호와 수인이 본존인 아미타불상과 같다. 안정된 비례와 단정한 모습은 본존상과 관음보살상과 유사하지만, 조각의 깊이가 관음보살상에 비해 얇은 편이다. 보관은 후보된 것이며, 상투(도6)가 높고 양쪽 어깨 위에 드리운 두발은 목조관음보살좌상보다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통견 형식으로 법의를 착용하였으며, 옷주름도 자연스럽게 단정하게 처리하였다. 내의 윗부분이 주름형이 아닌 斜線으로 접힌 점은 좌협시보살상과 구별된다.

(4) 腹藏遺物

신흥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의 복장유물은 2002년에 조계종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강원도지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때에 확인되었다.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도7)은 여러 번에 걸쳐 훼손되어 원래의 상태를 알 수 없지만, 축원문(1651년)과 記文(1720년)을 비롯하여 각종 씨앗, 喉鈴筒, 嘉靖三十六年(1557년) 金剛山表訓寺開板銘 목활자본 佛書 등이 발견되었다.

복장 유물을 통하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이 조각승 무염스님에 의해 1651년(순치8년, 효종 2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원문」에는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의 조성발원문이 부기되어 있어서 같은 해인 1651년에 아미타삼존불상과 함께 명부전의 존상들도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아미타불상 바닥의 묵서명과 그 내용이 일치된다. 축원문(도8)과 기문의 다음과 같다.

【祝願文 1枚】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腹藏安莊卍祝願 朝鮮國王李壽萬歲
王妃殿下張氏壽萬歲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世子邸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諸宮 宗室各安寧文武百僚忠 輔禮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各先亡父母往西方 見佛聞法悟無生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李成立 兩主 洪汝伯 兩主 李夢立 兩主 比丘 雙應
沈男 兩主 女苒終 保体 金光世 兩主 供養大施主李忝連 兩主 韓業 兩主
姜莫男 兩主 金永立 兩主 女加也之 兩主 崔大陽 兩主 女愛□兩主
(...이하 사진상 판독불가)

【記文 1枚】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腹 藏安藏記文 眞佛無形假形像歸依求願似
 顛倒取像凡夫何處憑不可向空 興敬禮故須借像表眞像如祈雨
 者作草龍禱之眞龍降雨□假 像而敬卽眞佛垂應斷無疑安
 用眞佛爲分別法身無相乃卽相 求真見眞身然卽造像大檀越執
 務緣化隨喜助喊緣給侍供饋者享世 遐齡增福壽臨命終時無障礙面
 見彼佛大慈父金色光中蒙受記 九品蓮臺任意遊永離五湯堪忍
 苦如彼薩陀大士身速還穢土世界 中和光同塵度有情示教利喜
 提接引同入彌陀大道場無餘涅 盤成正覺諸施檀越開刊于后 朝鮮國王李壽萬歲
 王殿下金氏壽萬歲 世子殿邸下李壽萬歲 國泰民安法輪轉常殿
 諸宮宗室各安寧 文武百僚忠輔禮 本道監司杜□盡忠良(…이하 사진상 관독불가)

【佛經 1冊】

현재 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속에 보관되어 있어 책명을 알 수 없으나, 수년전 복장을 열었을 때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책의 뒷장에 嘉靖三十六年二月日 金剛山表訓寺開板'이란 기록이 있어 조선 명종 12년(1557)년에 표훈사에서 복각된 불경을 인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其他 腹藏遺物】

기타 복장유물 역시 현재 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데, 후령통 1점, 梵字陀羅尼 1매, 각종 씨앗과 보자기(7점) 등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복장유물은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중에서 조성연대와 조성자를 알 수 있는 불상으로 매우 주목된다. 본존인 아미타불상의 바닥에 묵서명이 남아있고,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는 조성 당시의 축원문이 확인되어 삼존불상이 무염 화사에 의해 조선시대 1651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보살상의 보관이 후보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조각사의 기준작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4cm 높이의 대형 불상으로서, 당당한 체구에 안정된 비례, 유려한 조각 수준을 보여준다. 좌우 협시인 관음보살좌상과 대세지보살좌상은 크기가 본존상보다 조금 작지만, 양식적으로는 유사하다. 다만 법의 표현과 수인 등 형식적으로는 대세지보살좌상이 본존상과 유사하지만, 조각의 깊이감 등 조각 수법은 관음보살좌상과 유사하다.

삼존상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같다. 형식적인 표현이

나 조각 기법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염 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무염과 조각승들이 불상 조성에 있어서 작업을 분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관음보살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축원문」에는 무염이 道祐와 海心을 비롯한 열 명의 조각승을 이끌고 이 불사에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풍악산, 오대산, 보개산, 묘향산, 천관산, 태백산, 오봉산의 고승대덕들이 증명법사로 이름이 확인된다. 특히 이 가운데 팔도도총섭이었던 지리산의 碧巖覺性(1575~1660) 스님의 이름도 있다.

현존하는 불상 가운데 무염이 제작에 참여한 불상은 고창 선운사 목조비로자나삼불상(1633년)을 비롯해서 勝一과 道祐 등과 함께 제작한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의 삼세불좌상(1635년), 제자 해심과 함께 참여한 해남 도장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48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50년), 완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불좌상(1652년), 제자 해심 등과 함께 참여한 고창 문수사 지장보살상(1653년)과 영광 불갑사 명부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오백나한상(1656년) 등이 전해오고 있어 무염과 조각승들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무염과 조각승들이 신흥사 불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다.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시대 1651년에 강원도에서 조성된 대표적인 불상으로서 조각 수준이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조성 시기가 확실하다. 또한 불상 조성에 참여한 일반 신도들과 승려들, 조각승들이 기록된 복장축원문이 전해오고 있어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이 불상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각승 무염과 그의 제자들이 강원도에 와서 조성한 것으로 당시 조각승들의 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도 높여준다. 따라서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도 1. 신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도2. 목조아미타불좌상



도 3. 목조아미타불좌상 바닥 묵서명



도 4. 목조관음보살좌상



도 5. 목조대세지보살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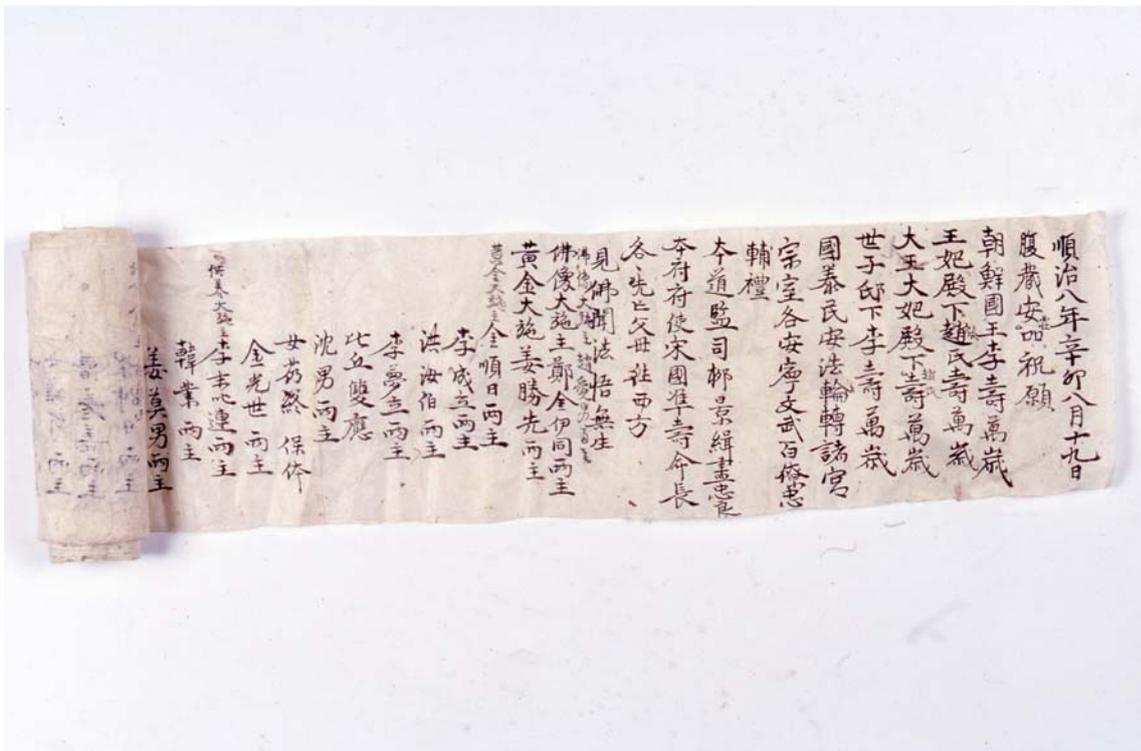
도 6.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두상



도 7.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도 8. 목조관음보살좌상 축원문



□

○ 현 상

2002년 문화재청과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에서 실시한 불교문화재일제조사 과정에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장 내에서 불상의 「腹藏安莊嚴祝願文」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불상은 순치 8년 辛卯(1651, 효종 2) 8월 19일에 복장이 안장되었다. 복장안장 의식이 곧 불상조각의 완성 후 개금과 점안을 포함한 마무리 의식으로 여겨지므로 조성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불상의 바닥 면에 적힌 묵서명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불상의 바닥 면에는 墨書로 香山普賢寺 造佛次雪岳山 新興寺佛像造成也”와 위치를 달리 하여 順治八年辛卯八月日化主 靈瑞 畫員無染勤封”이라 적고 있다. 즉 이 기록은 순치 8년 신묘해(1651, 효종 2)에 화원 無染이 불상을 조성하여 복장까지 안장한 후 남긴 기록으로 보인다. 한편 복장유물은 조사 후 재복장 되었다고 한다.

복장안장원문을 통해 이 삼존상은 금강산, 오대산, 보개산, 묘향산, 지리산, 오대산 등 명산대찰의 고승대덕들이 증명법사로 이름을 올렸고, 조각은 무염을 비롯한 道雨 등 無染派 조각승들이 제작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사찰 불사의 재건에 앞장섰던 智異山의 碧巖覺性과 전라도 일원에서 크게 활약했던 화승 무염이 신홍사 불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¹⁰⁾ 無染은 이 불상 이외에도 碧巖覺性이 주도한 몇몇 사찰의 불사에서 불상조각을 맡고 있어 이러한 인연이 신홍사 불상조성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 내용 및 특징

신홍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아미타불을 主尊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전통적인 아미타삼존형식을 보여준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높은 수미단 위에 다시 부정형의 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머리와 육계를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은 頭部에는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골 위로 눈썹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오뚝한 콧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미간 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한 돌출코이나 콧날은 길고 부드럽고 사실적이다. 양 미간아래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듯 표현한 돌출코는 17세기 불상에서 자주 확인된다.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 중생을 굽어보듯 고요하게 반개한 눈매를 표

10) 조각승 무염은 고창 선운사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1633년)을 비롯하여 전남 영광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좌상(1635년), 해남 도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8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불좌상(1650년),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52년), 고창 문수사 지장보살상(1653년)과 영광 불갑사 명부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1654년), 완주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오백나한상 등 주로 전라도 일원에서 그가 제작한 상이 확인되고 있다.

현하였다. 상하 폭이 긴 얼굴은 팽창한 뺨, 복주머니처럼 잡힌 입술주머니, 두툼한 귀 등 얼굴에는 전반적으로 양감이 강조되어 중후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이는 세장한 형태의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1635년) 등의 전반기 작품에 비해 보다 양감이 강조되고 중후해진 느낌이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군의를 입었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곡선이 드러난다. 특이한 점은 착의법에서 이 시기 불상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옷자락을 드리우지 않은 이중착의법이다. 佛身에 걸친 佛衣는 두텁지 않고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 중지와 약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체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였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한차례 반전시킨 못짓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름들은 대부분 생략한 반면, 하체는 무릎 위로는 오른발가락을 덮어 내린 짧고 날카로운 잎형 주름이, 발가락 주변으로는 신축성 있는 세 가닥의 單線 주름을 새겼고, 무릎 앞쪽으로는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수평에 가까운 일정한 골깊이를 가진 세밀한 주름을 새기고 둥글게 감아 올린 두 가닥의 주름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무릎 앞쪽으로 표현된 세밀한 수평의 융기선 주름은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과 조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협시상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머리는 끝을 달팽이 모양으로 만 높고 가는 寶鬘를 가지고 있고 근래에 새로 만들어 씌운 보관을 쓰고 있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이중착의법으로 걸쳤고, 부정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으나 좌우 손의 위치를 달리 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우협시 대세지보살상은 세부 표현에서 본존불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좌협시 관음보살상의 본존이나 대세지보살상의 상호에 비해 양감이 덜 강조되어 다소 가름한 느낌이고,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낸 군의 주름이라든지, 씨실 날실처럼 엮은 보발의 표현, 비스듬히 무릎 앞으로 펼친 주름과 큼직한 잎형 주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록 이 삼존상이 수화원 무염의 주도하에 조각되었지만, 대체로 불상제작이 다수의 화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므로 참여한 조각승의 조각적 역량과 취향에 따라 동시에 조성한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이 상 이외에도 이 시기에 조성된 삼존불상에서 더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문명대,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新興寺) 목아미타삼존불상」, 『강좌미술사』 2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3.

○ 기 타(소장 경위 등, 없을 경우 생략)

【祝願文 1枚】

順治八年辛卯八月十九日 / 腹藏安莊卍祝願 / 朝鮮國王李壽萬歲 / 王妃殿下張氏壽萬歲 / 大王大妃殿下趙氏壽萬歲 / 世子低下李壽萬歲 / 國泰民安法輪轉諸宮 / 宗室各安寧文武百僚忠 / 輔禮 / 本道監司柳景緝盡忠良 / 本府府使宋國準壽命長 / 各先亡父母往西方 / 見佛聞法悟無生 / 佛像大施主趙愛男 兩主 / 佛像大施主鄭金伊同 兩主 / 黃金大施主姜勝先 兩主 / 黃金大施主金順日 兩主 / 李成立 兩主 / 洪汝伯 兩主 / 李夢立 兩主 / 比丘 雙應 / 沈男 兩主 / 女苒終 保体 / 金光世 兩主 / 供養大施主李忞連 兩主 / 韓業 兩主 / 姜莫男 兩主 / 金永立 兩主 / 女如也之 兩主 / 崔大陽 兩主 / 女愛□兩主(…이하 사진상 판독불가)

【記文 1枚】

康熙五十九年庚子五月十日佛像腹 / 藏安藏記文 / 眞佛無形假形像歸依求願似 / 顛倒取像凡夫何處憑不可向空 / 興敬禮故須借像表眞像如祈雨 / 者作草龍禱之眞龍降雨□假 / 像而敬卽眞佛垂應斷無疑安 / 用眞佛爲分別法身無相乃卽相 / 求真見眞身然卽造像大檀越執務緣化隨喜助喊緣給侍供饋者享世 / 遐齡增福壽臨命終時無障礙面 / 見彼佛大慈父金色光中蒙受記 / 九品蓮臺任意遊永離五湯堪忍 / 苦如彼薩陀大士身速還穢土世界 / 中和光同塵度有情示教利喜 / 提接引同入彌陀大道場無餘涅 / 盤成正覺諸施檀越開刊于后 / 朝鮮國王李壽萬歲 / 王殿下金氏壽萬歲 / 世子殿邸下李壽萬歲 / 國泰民安法輪轉常殿 / 諸宮宗室各安寧 / 文武百僚忠輔禮 / 本道監司杜□盡忠良(…이하 사진상 판독불가)
→ 복장인 축원문과 기문은 다시 꺼내볼 수 없어 남아있는 사진자료로 판독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 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이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 현상 및 특징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본존불인 아미타를 중심으로 관음과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불로서 두 보살상은 본존불에 비해 약간 작은 크기이다. 세 구 모두 넓은 어깨와 무릎으로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를 보인다.

본존불상은 아미타불로서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결한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불룩할 정도로 살이 많은 얼굴에는 부운 듯한 눈과 턱 선에 반달형을 긋고 돌출시켜 이중 턱을 만들었다. 매우 근엄하면서도 미소 짓는 입술에서 자비로운 모습이 강조되었다. 나발 사이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보인다. 넓은 가슴에는 수평으로 가로 지른 승각기가 있으며 그 밑을 불룩하게 처리하여 살찐 신체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좌협시 관음보살좌상과 우협시 대세지보살상은 전체적으로 본존불과 유사하지만 보살의 성격에 맞게 보계와 보발을 표현하였으며, 승각기는 주름을 잡아 달리 표현하였다. 유난히 가늘고 높은 보계가 특징이며 머리카락을 엇갈려 끈 어깨위의 보발도 작은 편이다. 두 보살상의 보관은 모두 후보이다.

이 삼존불상은 1954년 미군이 촬영한 당시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여 원래의 모습이 잘 남아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살상의 보관은 여래의 머리에 씌워 하나는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져 새로 만들어 씌웠다. 관음보살상에서는 복장축원문이 발견되어 順治八年 辛卯(1651년)에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존불상의 복장물은 없어진 상태이지만 바닥면에 順治8年 辛卯와 畫圓 無染"이라 쓰여 있어 관음상에서 나온 내용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염은 1633년 고창선운사 목조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삼세불상(1635년),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상(1650년) 등 1656년 까지

활동한 조선후기 17세기전반기의 대표적인 화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불상은 무염의 작품 중에서도 힘이 넘치면서도 부드러운 조각수법을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각승 無染이 제작한 작품이다. 164cm에 이르는 장대한 크기, 1651년 이라는 제작연대는 물론 우수한 조각수법과 부드러운 옷주름 등 무염의 최고 전성기에 제작된 상으로 판단된다. 넓은 무릎에서 오는 조화롭고 안정감 있는 신체 비례와 둥근 얼굴에 살쥎 모습의 이중 턱선 그리고 넓은 띠 모양의 옷자락과 무릎의 조밀한 수평 주름 등은 무염의 특징이지만 17세기 중엽 이후 많은 조각승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비록 복장물의 일부는 없어졌지만 17세기중엽경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판단되는 조형성과 가치를 지닌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함.

5.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가. 심의사항

“총마계회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 “총마계회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4.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5.11.)를 실시한 결과 보물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나온 사안임.
- “총마계회도”는 현지조사자 3인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문화재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3차 회의(’11.06.09.)에서 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30일간 지정 예고(’11.06.20~07.19.)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61호(2003.10.04. 지정)
- 명 칭 :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 소유자(관리자) : 밀양박씨지산경수공파중중
-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790
- 수 량 : 1폭
- 규 격 : 축자 146.0×77cm,
표제: 7.5×68.4cm
그림: 55.2×68.4cm
좌목: 34.1×68.4cm
- 재 질 : 종이·비단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591년(선조 24)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총마계회도>는 필자미상이지만, 16세기말 계획도로서 제작동기와 제작연대가 분명하며, 최초의 소유자인 박지수로부터 가문 내에서 420년간이나 줄곧 소중하게 보관되어온 문화재이다.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하여 박락부분과 퇴색된 부위가 있지만, 2008년 보존처리(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할 때에도 가능한 한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수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제작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6세기말 족자형식 상황에 대해 앞으로 복원시 하나의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6세기 당시의 관청계획- 더욱이 사헌부같은 중앙관청-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조선 중기 계획도의 양식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회화사적 의미도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단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면, 현재의 제목인 <화순총마계회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를 <총마계회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16세기 계획도로서 제작연대와 소유자가 분명함.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회도>는 시문에 적힌 간기와 좌목에 기록된 인물들의 활동연대에 근거하여 1591년 8월에 만든 것이 입증된다. 이미 지정 받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획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하지만 소유자가 밝혀진 사례는 드물다.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는 이 계획도가 전승되어 온 경위와 제작배경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며, 관련 문헌자료와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2. 소장 및 전승경위를 알 수 있음.

충효사 소장 <총마계회도>는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후 <총마계회도>는 박지수의 관직 임명장인 교지(敎旨) 등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 가장(家藏) 유물로 전승되었다. 박지수의 충절을 기리고자 1598년(선조 31) 지역 유림들이 건의하여 충효사(忠孝祠)를 건립하였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복원하여 박지수와 그의 아들 박천수를 향사하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990년대까지 충효사에 소장되어 왔으며, 현재는 밀양박씨 문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1591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 약 420년 동안 후손가를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3. 16세기후반기 서울의 중앙관청에서 시행된 계획관행과 계획도의 제작배

경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총마계회도>는 사헌부의 감찰직 신임관원이 치르는 신고식 관행인 신참례의 실체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1591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총마계회도> 2점의 소유자인 안동출신 이정회(李庭檜)의 「연보」와 그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를 통해 입증되는 사실이다. 또한 1591년 전반기 사헌부의 신참례시에 신임 감찰이 준비해야할 필수 지침물로 계회도를 제작하였고, 박지수가 소유한 <총마계회도>도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4. 산수와 점경인물의 묘사는 정확한 16세기 양식을 보여줌.

<총마계회도>의 화법은 조선초기에 유행한 안건파(安堅派) 화풍의 한 요소인 산의 골격과 굴곡을 짧은 선과 터치로 처리하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여흔이 보인다. 점경인물의 묘사 또한 소략하지만, 17세기초 의궤(儀軌)의 반차도에 보이는 간략한 묘사방식과 유사하여 16세기 후반기 화풍의 일면을 담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그림 가운데 몇 점에 불과한 기년작(紀年作) 회화에 포함되는 사례로서 조선조 전반기 회화의 양식사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

5. 계회도의 장황(粧黃)이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16세기 족자본 회화의 장황 복원의 기준 형식을 제공함.

<총마계회도>는 장황을 바꾸거나 그림에 가필(加筆)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특히 계회도의 상하단에 붙인 남색(藍色)의 회장과 황색 비단, 좌우에 좁게 덧댄 남색비단 등은 16세기후반기 계회도 장황의 일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계회도로 알려진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사헌부 감찰 계회도인 <이십삼상대회도(二十三霜臺會圖)> (1487년 작)와도 장황형식이 같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십삼상대회도>는 상단의 남색 회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하단의 회장과 황색비단 등은 <총마계회도>의 장황과 동일한 형식임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16세기 계회도의 대부분이 후대에 개장된 족자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총마계회도>는 이를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회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계회도 가운데 1591년의 제작시기와 능주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소유한 계회도로서 지금까지 약 420년간의 전승경위가 분명히 파악되는 자료이다. 또한 계회의 실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이 확인되고, 그림의 화풍과 족자의 장황형식에 있어서도 희소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790 충효사의 밀양 박씨 문중 종회(박영숙) 소장 <화순 총마계획도>는 1591년 제작된 사헌부 감찰 24인의 계획도로서 제작시기가 확실하고 제작연대가 오래된 작품이다. <화순 총마계획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문인계획도 제작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관청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계획도로 제작하는 등, 계획도 제작 방식의 특수한 예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계획도의 변천양상을 살피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같은 해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 두 점의 <총마계획도>가 있지만, 이들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아울러 산수와 건물, 인물 등을 섬세하고도 능숙하게 표현하여 일반적인 기록화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 또는 양식화되는 경향을 넘어서는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총마계획도>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룩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1월에 걸친 성공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작품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완벽한 보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화순 총마계획도>는 조선시대 16세기의 제도사□사회사□문화사 등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뛰어난 예술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현재 忠孝祠에 소장되어 있는 <총마계획도>는 1591년(선조24) 8월 사헌부 감찰 24명의 계획을 그린 계획도로서, 전남 화순 출신의 朴枝樹(1562-1593)가 계획에 참여하여 받은 작품이다. 원래는 이 계획에 참여했던 사헌부 감찰 24명 전원이 기념으로 한 점씩 나누어 가졌을 것이지만, 현재는 이 작품만이 전해온다.

총마는 사헌부의 별칭으로서 총마계획은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 끼리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가진 계획인 同官契會에 속한다. 이러한 동관계회는 16세기에 가장 유행한 계획이었다.

사헌부에서의 총마계획은 新任官員들이 들어 왔을 때 시행된 新參禮를 위한 모임이었다. 사헌부감찰을 지낸 바 있는 李庭檜(1542-1613)의 『松澗日記』에 의하면 신입관원 10명이 들어올 때 마다 계획을 열고 계획도를 제작하여 사헌부 전원에게 分給하였는데, 그 비용은 신입관원들이 분담하였다고 한다. 이 계획은 근무한지 약 5개월 만에 강원도 횡성으로 발령 받아 사헌부를 떠나게 되는데, 그가 사헌부에 있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두 차례 즉 2월과 윤5월에 계획이 열렸으며, 계획도가 제작되어 받았다고 한다. 바로 이 2월과 윤3월에 각각 그려진 계획도 두 점이 호림박물관에 전해오고 있다.

현재 화순군 충효사에 있는 이 <총마계획도>는 이정회가 떠난 이후 사헌부에 배속된 신입관원들의 계획이 있던 1591년 8월의 계획을 그린 것이다.(첨부자료1, 윤진영 작성)

이 <총마계획도>의 최초 소유자인 박지수는 화순군 도암면 출신의 인물로서, 1580년(선조13) 무과 병과 제22인으로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와중에 왕자와 대군 등의 함경북도 피난길을 호위한 임무를 맡았으나, 회령부에서 왜적을 만나 사흘간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중상을 입고 1593년 2월 13일 졸하였다. 그의 家奴가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부인 魯氏 역시 남편의 뒤를 이어 자진했으며, 이를 지켜본 노비 역시 자진하여 ‘門三節’이 배출되었다고 회자될 정도로 충절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면 이제 충효사 소장 계획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체형식은 標題, 그림, 詩文, 座目 등 4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6세기 계획도의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준다.

표제란 계획도의 제목이다. 족자의 상단에 주선으로 칸을 구획한 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驄馬契會圖>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총마는 사헌부의 별칭으로서, 후한 때 桓典이라는 인물이 侍御史가 되어 항상 총마(푸른 빛을 띤 푸른 말)를 타고 다녔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표제 아래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엔 계획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헌부 청사의 전경이 그려져 있다. 사헌부는 광화문 앞 육조거리의 왼편에 예조, 중추부 다음에 있었다. 이 그림엔 사헌부 청사의 정문이 제법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 그 앞에 나귀를 타고 늦게 도착한 관원일행과 이를 맞이하는 인물들이 점경인물화처럼 그려져 있다. 크기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 각 인물들은 생동감있게 묘사되어 있어, 이 총마계획도를 그린 화가의 기량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청사의 본청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운무에 쌓인 듯 살짝 지붕 만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청사 뒤 편에 보이는 산은 현재 청와대 뒤쪽의 북악산 처럼 생겼는데, 실제 산을 實景적으로 묘사했다기 보다는 뒤편에 산이 펼쳐져 있음을 가상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같은 해, 같은 장소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산과 같은 해 2월에 그려진 호림박물관 소장의 다른 <총마계획도>의 산은 형태도 다르고 묘법 또한 판이하게 나타나 있다. 즉 이 총마계획도의 산은 부드러운 윤곽처리에다 短線點皴을 찍어 온화하게 표현한데 반하여, 2월의 계획을 그린 <총마계획도>에서는 산의 형상만이 아니라, 필묵의 명암 대조가 심하며 필치 또한 상당히 거칠어서 조선중기 산수화에서 크게 유행했던 명대 浙派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 아래에는 시문이 쓰여 있는데, 이 면은 빈 칸으로 남겨 두었다가 계획도를 받은 당사자가 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총마계획도>에 적혀 있는 시는 이 계획도를 소유했던 박지수가 쓴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은 宣祖에게서 받은 御製詩(도판)로서, 현재 충효사 사당 안에는 이 어제시와 함께 박지수가 지은 답시를 편액으로 만들어 揭安해 놓고 있다.

어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霜臺凜凜直臣風 사헌부의 늠름하고 곧은 신하의 기풍은
 玉立群賢政在公 지조있는 어진 선비들 공무에 열중케 하네
 柱後惠文猶整多 기둥 뒤의 문양은 해태로 장식한 것 같고
 殿中御史舊乘驄 전중어사(감찰)의 모습 예전처럼 총마를 탔구나
 威分漢栢傳平管 위엄은 한나라 사헌부의 평관을 이었고
 步近唐星繞紫宮 가까이엔 당나라 벼슬아치가 임금을 모신 듯
 同地同官又同好 같은 땅에서 같은 벼슬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鮫綃不惜寫鴛鴻 역사에 크고 작게 기록해도 아깝지 않겠네

시문의 말미에는 辛卯 仲秋月'(『朝鮮史料集眞』참조)이라 쓰여 있는데, 이 계획도의 최초 소유자인 박지수가 1593년에 사망한 사실을 근거로 제작시기를 추정해보면, 辛卯年秋日'은 곧 1591년 8월이 된다.

계획도의 가장 아래 부분에 좌목이 있는데, 좌목에는 당시 계획에 참여한 인물들을 品階, 現在 官職, 姓名, 字, 本貫을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 이름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계획도에서 좌목은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1591년 8월 당시 사헌부 監察

의 정원은 모두 24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좌목은 다음과 같다.

(첨부자료 1) 충효사 소장 <驄馬契會圖> 좌목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鐵堅 子久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仁英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夢祚 景休 本全州
父彰善大夫行豐陽令 春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元景遇 亨之 本原州
父別瓦署別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彦輔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思騫 孝伯 本全州
父通訓大夫行江西縣令 淑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汝溫 景粹 本廣州
父嘉善大夫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 潤德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潛 子昭 本高靈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迪順副尉 世貞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久洵 而信 本全州
父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 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南嶽 仲秀 本宜寧
[父]贈忠積德補祚功臣嘉善大夫工曹參判宜春君行折衡將軍忠佐衛副護軍 仁錫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張智賢 明叔 本求禮
[父]嘉善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 弼武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調 和甫 本星州
(父)通訓大夫行軍器寺主簿 思誠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慶祿 季應 本全義
父承議郎行 光陵參奉 恬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枝樹 茂仲 本密陽
(父兼司僕)禦侮將軍前行龍驤衛副司猛 億瑞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洪汝誠 士眞 本陽南
父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 閻

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 李蘧 彦尙 本新平
父奉正大夫行軍資監奉事 世純

通德郎行司憲府監察 李亨 夏卿 本星州

父忠順衛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英毅
 通德郎行司憲府監察 宋悌 友叔 本南陽
 父幼學 承周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 卍+甲 懼夫 本全州
 父通訓大夫行古阜郡守 元旭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麒壽 靈老 本德恩
 父忠順衛 亨孫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夢瑞 應士 本金浦
 父學生 好仁
 承議郎司憲府監察 鄭德麒 子仁 [本草]溪
 父通訓大夫行金城縣令 景禮
 承議郎司憲府監察 許進廷 敬甫 本河陽
 父宣略將軍忠順衛 瑄
 [承]訓郎司憲府監察 鄭應聖 時仲 本迎日
 [父]秉節校尉行忠武衛副司勇 靈
 [承]議郎司憲府監察 申之悌 順甫 本鵝州
 [父]學生 夢得
 [宣]教郎守司憲府監察 徐 灑 玄紀 本大丘
 [父]學生 嶮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총마계회도>는 필자미상이지만, 16세기말 계회도로서 제작동기와 제작연대가 분명하며, 최초의 소유자인 박지수로부터 가문 내에서 420년간이나 줄곧 소중하게 보관되어온 문화재이다. 비록 오랜 세월로 인하여 박락부분과 퇴색된 부위가 있지만, 2008년 보존처리(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할 때에도 가능한 한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수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제작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6세기말 족자형식 상황에 대해 앞으로 복원시 하나의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16세기 당시의 관청계회-더욱이 사헌부같은 중앙관청-의 관행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인 동시에, 조선 중기 계회도의 양식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회화사적 의미도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단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면, 현재의 제목인 <화순총마계회도>(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를 <총마계회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 현 상

<총마계회도>는 16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계회도의 일반 형식인 표제(標題), 그림, 시문,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계회도의 제목으로서 족자의 상단에 붉은색 선으로 구획한 뒤 驄馬契會圖(총마계회도) 여섯 글자를 예서(隸書)로 썼다. 총마(驄馬)는 사헌부의 감찰을 부르는 별칭이다.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라는 사람이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는데 항상 총마를 타고 다녔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외에도 사헌부 감찰은 서릿발 같은 기강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쌍대(霜臺)라는 별칭을 썼고, 감찰들의 계회도를 쌍대계회도라 쓰기도 하였다.

<총마계회도>의 그림은 화면 가운데 솟아 오른 봉우리를 중심으로 사헌부의 청사를 좌우대칭형으로 배치하였다. 산을 묘사한 부분은 짙은 선을 반복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을 사용한 16세기 산수양식을 보여준다. 사헌부의 청사는 정문과 지붕만을 그린 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여 간결하게 그렸다.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해야 하는 관계로 그림은 가급적 간략하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계회도에서 시문은 대부분 계회도의 소유자가 직접 썼다. 다른 사람이 쓴 경우는 자호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총마계회도>의 7언시 마지막에 쓴 辛卯仲秋日(신묘중추일)은 이 계회도의 소유자가 쓴 것으로 추측된다. 신묘(辛卯)년의 중추일(仲秋日)은 1591년(선조 24) 8월에 해당하며, 계회도의 제작 시기도 이때로 파악된다.

좌목에 기록된 인물은 모두 24인데, 당시 사헌부 감찰의 정원 수와 같다. 개인마다 품계·현 관직·이름·자(字)·본관을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 이름을 간략히 적었다.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계회도로서는 드물게 종이에 그렸다. 그림과 시문 원편에 부분적인 박락이 있고, 좌목의 원편 상단에는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판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림은 세로로 심하게 접힌 흔적이 3곳 있고, 주름이 여러 군데 있다. 족자 상하단의 나무를 분리한 채 접은 흔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림과 글씨의 전체를 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08년도에 보존처리를 하였는데 계회도 상·하단의 남청색 회장(回粧)과 황색 비단을 보수하여 장황함으로써 원래의 족자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축의 하단 뒷면에는 密陽朴氏古蹟淨隱(밀양박씨고적정은)이라 적혀 있다. 수리하기 전 족자의 뒷편에 붙어 있던 별지(別紙)를 수리한 족자의 뒷면에 옮겨 붙인 것이다. 정은(淨隱)은 정은공 박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총마계획도>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축자 크기 : 세로 146.0cm, 가로 77cm

-표제 크기 : 세로 7.5cm, 가로 68.4cm

-그림 크기 : 세로 55.2cm, 가로 68.4cm

-좌목 크기 : 세로 34.1cm, 가로 68.4cm

○ 내용 및 특징

-기록 및 기념물로서의 기능

<총마계획도>는 사헌부 감찰 24인이 참여한 계획을 기념하여 그린 것으로 당시 감찰의 정원수에 맞추어 24개의 축이 제작되었고, 한 사람당 한 점씩 분급되었다. 계획도의 구성요소를 보면, 육하원칙이 모두 기록된 완벽한 기록물의 기능을 하였다. 이 <총마계획도>의 경우 연제'에 해당하는 계획과 계획도의 제작시기는 시문의 간기를 통해 알 수 있고, 누가'에 해당하는 참석자는 좌목에 적었다. 무엇'에 해당하는 설명은 계획라는 말이 대변한다. 어디에서'와 어떻게'는 그림 속의 사헌부 청사와 이곳을 장소로 하여 이루어진 계획 장면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왜'에 해당하는 계획의 동기는 시문이나 발문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총마계획도>는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 24인이 사헌부 청사에서 계획을 가졌는데, 친목과 단합을 위한 계획였고, 이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물이자 기념물로 제작된 것이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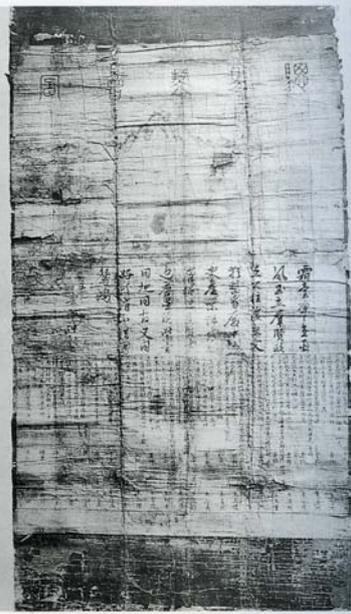
<총마계획도>의 그림은 사헌부 청사를 그린 것이다. 이는 훗날 계획도의 소유자 자신이 근무했던 장소와 공간을 기억하고, 관직 경력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사헌부 청사는 지금의 서울시 세종로의 정부중앙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 있었다. 그림 속의 사헌부 청사는 정문을 자세히 그렸고, 그 앞에서 나귀를 타고 오는 인물 등을 점경(點景)으로 그렸다. 청사의 본청은 안개에 싸인 듯 한 분위기로 지붕만을 그린 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였다. 사헌부 청사를 그린 것은 계획이 열린 장소가 바로 청사 내부였음을 말해준다. 청사 뒤편의 산은 실경에서는 볼 수 없는 가상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헌부의 엄정한 기강을 암시하듯 그림 가운데의 봉우리를 기준으로 좌우대칭을 이룬 권위적인 형상으로 구성하였다. 계획도는 주로 화원이나 직업화가에게 주문하여 제작하였다. 화가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계획도의 소유자 박지수(朴枝樹)

이 계획도를 최초 소유했던 인물은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박지수(朴枝樹, 1562~1594)라는 인물이다. 박지수는 1580년(선조 13)에 무과 병과(丙科) 제22인으로 급제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의 와중에 왕자와 대군 등의 함경북도 피난길을 호위한 임무를 맡았으나 회령부에서 왜적을 만나 사흘 동안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이내 순국하였다고 전한다. 박지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전인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계획에 참여하였고, 이를 기념한 계획도 한 점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계획도를 집안 후손들이 보존하여 지금까지 전해내려 온 것이다.

〈총마계획도〉의 제작 배경

1591년 사헌부의 감찰직 24명 전원이 참여한 계획은 계획의 종류 가운데 동관계회(同官契會)에 속한다. 동관계회는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원들끼리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가진 계획이며, 16세기에 가장 유행한 계획의 형태이다. 현존하는 총마계획도는 호림박물관에 2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 1591년 2월과 윤5월에 제작된 것이다. 충효사 소장 〈총마계획도〉의 제작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호림박물관 소장 총마계획도 2점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p>충효사 소장 <총마계획도> 1591년 8월</p>	<p>호림박물관 소장 <총마계획도> 1591년 2월</p>	<p>호림박물관 소장 <총마계획도> 1591년 윤3월 (축을 첩으로 개장한 상태)</p>

호림박물관의 〈총마계획도〉는 안동 출신의 이정희(李庭檜, 1542~1613)가 소유했던 계획도이다. 1591년 2월 작은 계획도의 구성이 거의 같은 형식이다. 계획도 중단에 시문을 적는 방식도 동일하다. 1591년 윤3월 작은 후대에 족자를 첩으로

개장한 상태로 전하고 있지만, 원래의 형식은 앞의 사례와 동일하다.

이정회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에 의하면, 사헌부에서의 총마계회는 신임 관원들이 들어왔을 때의 신고식 관행으로 시행된 신참례를 위한 모임이었고, 이때 신임관원들이 감찰의 정원수만큼 계획도를 제작하여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¹¹⁾

이정회는 영남의 명문가인 진성이씨(眞城李氏) 가문의 대종손으로서 27세에 천거로 관직에 나갔으며, 사헌부의 감찰로 근무한 것은 50세 때인 1591년 5개월 정도이다(『松澗先祖實記』, 「年譜」 참조). 이정회의 「연보」에는 계획의 시행일자와 계획도에 기록된 좌목, 시문을 옮겨 적어 놓았다.

이정회가 1590년(선조 23) 12월에 사헌부 감찰에 낙점된 이후 1591년 2월 4일의 총마계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살필 수 있는 단서는 『송간일기』에 나타나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정회는 1590년(선조 23) 12월 22일 사헌부 감찰에 낙점되었다. 이후 그의 일기에는 관직 임용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와 비공식적인 관행을 치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즉, 공식적인 절차는 감찰에 낙점된 이후, 왕에게 올리는 숙배(肅拜)와 신원조회인 서경(署經)을 거쳤고, 비공식적인 관행으로는 사헌부에 배속된 이후 치른 허참(許參)과 면신(免新)이라는 신참례(新參禮)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91년 1월 17일 이정회는 관직임용 절차에 따른 신원조회인 서경을 마쳤다. 이후 같은 해 1월 19일에 신임관원이 치르는 첫 번째 신고식 관행인 허참례를 행하였다. 허참례는 성대한 주찬을 마련하여 신임관원이 선배관원들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허참 후 보름 뒤에 신참(新參)을 면하게 한다'는 면신례'를 행하였는데, 허참례와 면신례를 합쳐 신참례라 불렀다. 이정회는 1월 19일 이후 정확히 보름 뒤인 2월 4일에 면신례를 가졌다. 이때 이정회를 비롯한 신임관원 10명이 비용을 들여 계획도를 제작하였고, 선배관원들에게 하나씩 분급한 뒤 자신들도 한 점씩 소유하였다. 계획도는 신참례 때 신임관원들이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회가 참여한 계획도는 같은 해 윤3월 10일에 또 한 차례 시행되었다. 이때는 이정회의 다음으로 사헌부에 배속된 후배 신임감찰들이 준비한 신고식 절차에 따른 계획도였다. 이때에도 계획도를 만들었는데 이정회가 받은 계획도는 신임감찰이 선배관원들에게 올린 것이다.

이정회는 두 차례의 계획도에 참여하는 등 사헌부에 근무한지 약 5개월만인 1591년 5월 1일 강원도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발령을 받아 사헌부를 떠났다.¹²⁾ 그가

11) 윤진영, 「松澗 李庭檜(1542~1612) 所有의 同官契會圖」, 『美術史學研究』 230(韓國美術史學會, 2001. 6), pp. 39~66.

떠난 이후 사헌부에 배속된 신입관원들의 계획이 1591년 8월에 있었고, 이 계획에 신입감찰로 참여한 사람이 바로 약관 30세의 박지수였다. 현 충효사 소장 <총마 계획도>의 최초 소유자이다.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획도>에 기록된 좌목을 1591년 2월과 윤3월에 제작한 호림박물관 소장의 <驄馬契會圖> 좌목과 비교해 보면(좌목1, 2, 3), 한 차례 계획이 있을 때 마다 10명의 관원이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이를 통하여 사헌부에 새로 배속된 관원들의 신고식 관행인 신참례는 신입감찰이 10명 단위로 모였을 때 이루어졌으며, 계획도는 10명의 신입관원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하였음을 알게 된다. 계획도가 어떤 계기로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되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박지수가 분급 받은 <총마계획도>는 『조선사료집진 朝鮮史料集眞』 제2집(조선사편수회, 1937)에 도판으로 소개되었다. 당시의 소장자는 전남 화순군 박동윤(朴潤東)씨로 되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1591년 사헌부에서는 2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세 차례의 계획이 있었고, 각각 계획도가 제작되었다. 2월에 제작된 계획도는 이정회와 함께 임명된 신입관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것이고, 윤3월의 계획도는 이정회가 새로 배속된 후배 감찰들에게서 받은 것이며, 8월의 계획도는 이정회가 황성현감으로 떠나고 난 뒤 그 자리에 신입감찰로 온 박지수 등이 제작한 것이 된다. 매년 계획 때 마다 24개의 축이 제작되었으므로 약 7개월 사이에 세 차례라면 모두 70여개의 계획축이 제작된 셈이 된다.

16세기 후반기의 신참례와 계획도의 제작관행은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였으나, 신입관원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 계획도를 제작하고, 신고식 준비를 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폐지해야 할 관행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왕명으로 신참례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신참례는 각 관청마다 뿌리 깊은 관행으로 존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를 감찰하여야 할 사헌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신참례는 사헌부 감찰의 엄정한 기강과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관행이었고, 계획도는 감찰직에 대한 자부심과 연계되어 서로의 만남에 대한 기념이자 기록물로 제작되었다.

16세기의 신참례와 계획도 제작에 관한 사실을 알려준 이정회의 계획도와 『송간일기』의 기록은 16세기 후반기 서울 중앙관청에서의 계획도 제작 관행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이다.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획도> 또한 사헌부 내에서 치러진 신입관원들의 신참례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이러한 계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관행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주요 자료이다.

12) 『古文書集成41』-安東周村眞城李氏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p. 17의 告身 참조.

—충효사 소장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의 시

霜臺凜凜直臣風 / 玉立群賢政在公 / 柱後惠文猶整豸 / 殿中御史舊乘驄
威分漢栢傳平管 / 步近唐星繞紫宮 / 同地同官又同好 / 蛟綃不惜寫鴛鴻

—좌목 1. 충효사 소장 1591년 8월 작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좌목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鐵堅 子久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仁英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夢祚 景休 本全州
父彰善大夫行豐陽令 春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元景遇 享之 本原州
父別瓦署別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彥輔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思騫 孝伯 本全州
父通訓大夫行江西縣令 淑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汝溫 景粹 本廣州
父嘉善大夫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 潤德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潛 子昭 本高靈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迪順副尉 世貞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久洵 而信 本全州
父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 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南巖 仲秀 本宜寧
[父]贈忠積德補祚功臣嘉善大夫工曹參判宜春君行折衡將軍忠佐衛副護軍 仁錫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張智賢 明叔 本求禮
[父]嘉善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 弼武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調 和甫 本星州
(父)通訓大夫行軍器寺主簿 思誠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慶祿 季應 本全義
父承議郎行 光陵參奉 恬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枝樹 茂仲 本密陽
(父兼司僕)禦侮將軍前行龍驤衛副司猛 億瑞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洪汝誠 士眞 本陽南
父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 閔
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 李遠 彥尙 本新平
父奉正大夫行軍資監奉事 世純
通德郎行司憲府監察 李亨 夏卿 本星州
父忠順衛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英毅

通德郎行司憲府監察 宋悌 友叔 本南陽
 父幼學 承周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 卍 懼夫 本全州
 父通訓大夫行古阜郡守 元旭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麒壽 靈老 本德恩
 父忠順衛 亨孫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夢瑞 應士 本金浦
 父學生 好仁
 承議郎司憲府監察 鄭德麒 子仁 [本草]溪
 父通訓大夫行金城縣令 景禮
 承議郎司憲府監察 許進廷 敬甫 本河陽
 父宣略將軍忠順衛 瑄
 [承]訓郎司憲府監察 鄭應聖 時仲 本迎日
 [父]秉節校尉行忠武衛副司勇 靈
 [承]議郎司憲府監察 申之悌 順甫 本鵝州
 [父]學生 夢得
 [宣]教郎守司憲府監察 徐湑 玄紀 本大丘
 [父]學生 嶮

좌목 2. 호림박물관 소장 1591년 2월 작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좌목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鐵堅 子久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仁英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祥 景休 本全州
 父彰善大夫行豐陽令 春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許光佑 懋伯 本金海
 父醫書習讀官通訓大夫 守貞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壽 瑞卿 本遂安
 父通訓大夫行朔州都護府使 謹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金磁 南仲 本清道
 父忠順衛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直 弼良
 中直大夫行司憲府監察 金秀淵 惟精 本光州
 父成均生員 永純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朴譚 子昭 本高靈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迪順副尉 世貞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庭檜 景直 本眞寶
 父將仕郎箕子殿參奉 希顏

奉列大夫行司憲府監察 張智賢 明叔 本求禮
 父嘉善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 弼武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亨男 仲達 本慶州
 父奉列大夫行恩津縣監 光福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趙應祿 景綏 本豐壤
 父承議郎行青丹道察訪 德期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柳錫輔 汝翼 本晉州
 父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從善
 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 洪汝誠 壬眞 本南陽
 父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 閔
 通德郎行司憲府監察 李亨 夏卿 本星州
 父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吳毅
 通德郎行司憲府監察 張迥 近夫 本豐德
 父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 士重
 通善郎行司憲府監察 李禪 仲質 本固城
 父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 澤
 奉直郎行司憲府監察 俞濯 汝新 本昌原
 父奉直郎行厚陵參奉 必弘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 慎夫 本全州
 父通訓大夫行古阜郡守 元旭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河弘秀 叔任 本晉州
 父學生 瓘
 奉直郎行司憲府監察 金義儉 仲約 本白川
 父學生 英
 奉訓郎行司憲府監察 李士郁 文仲 本慶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左衛副司果 秀幹
 承議郎司憲府監察 柳寅吉 敬休 本文化
 父從仕郎前行穆靖殿參奉 瀉
 承訓郎司憲府監察 李文□ 馨夫 本新平
 父秉節校尉 遇
 生父通政大夫行黃州牧使 遽(?)
 宣教郎守司憲府監察 李安謙 子益 本德水
 父成均進士 洞

좌목 3. 호림박물관 소장 1591년 윤3월 작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좌목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鐵堅 子久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仁英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夢祥 景休 本全州
父彰善大夫行豐陽令 春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思騫 孝伯 本全州
父通訓大夫行江西縣令 淑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權成己 誠之 本安東
父通仕郎 克仁
中直大夫行司憲府監察 金秀淵 惟精 本光州
父成均生員 永純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潛 子昭 本高靈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迪順副尉 世貞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南巖 仲秀 本宜寧
父贈純忠積德輔祚功臣嘉善大夫工曹判書宜春君行折衝將軍副護軍 仁錫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庭檜 景直 本眞寶
父將仕郎箕子殿參奉 希顏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慶祿 季應 本全義
父承議郎行光陵參奉 恬
奉列大夫行司憲府監察 李調 和甫 本星州
父通訓大夫行軍器寺主簿 思誠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久洵 而信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 鑾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亨男 仲達 本慶州
父奉列大夫行恩津縣監 光福
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 洪汝誠 壬眞 本南陽
父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 閔
通德郎行司憲府監察 李亨 夏卿 本星州
父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英毅
通德郎行司憲府監察 宋悌 本南陽
父幼學 承周
承訓郎司憲府監察 李文筌 馨夫 本新平
父秉節校尉 遇
生父折衝將軍行龍驤衛大護軍 遽(?)
奉直郎行司憲府監察 俞濯 汝新 本昌原
父奉直郎行厚陵參奉 必弘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 慎夫 本全州
父通訓大夫行古阜郡守 元旭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河弘秀 叔任 本晉州

父學生 瓘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壽俊 台徵 本全義

父嘉善大夫咸鏡北道兵馬節度使兼鏡城都護府使 濟臣

承議郎司憲府監察 柳寅吉 敬休 本文化

父從仕郎前行穆靖殿參奉 瀉

□□□司憲府監察 申之悌 順甫 本鵝州

父□生 夢得

承議郎司憲府監察 許進廷 敬甫 本河陽

父宣略將軍忠順衛 渲

宣敎郎守司憲府監察 李安謙 子益 本德水 / 父成均進士 洞

(표 1) 1591년 2월 ~ 8월, 사헌부 감찰의 관직이동 현황

구 분	1591년 2월 4일	1591년 윤3월 10일	1591년 8월
1591. 2. 4 驄馬契會 座目	이철건(李鐵堅)	이철건(李鐵堅)	이철건(李鐵堅)
	이몽상(李夢祥)	이몽상(李夢祥)	이몽상(李夢祥)
	허광우(許光佑)		
	이사수(李獅壽)		
	김 자(金 磁)		
	김수연(金秀淵)	김수연(金秀淵)	
	박 잠(朴 潛)	박 잠(朴 潛)	박 잠(朴 潛)
	이정희(李庭檜)	이정희(李庭檜)	
	장지현(張智賢)		
	이형남(李亨男)	이형남(李亨男)	
	조응록(趙應祿)		
	유석보(柳錫輔)		
	홍여성(洪汝誠)	홍여성(洪汝誠)	홍여성(洪汝誠)
	이 향(李 享)	이 향(李 享)	이 향(李 享)
	장 형(張 迥)		
	이 제(李 磾)		
	유 탁(兪 濯)	유 탁(兪 濯)	
	이 갑(李†+甲)	이 갑(李†+甲)	이 갑(李†+甲)
	하홍수(河弘秀)	하홍수(河弘秀)	
	김의검(金義儉)		
이사옥(李土郁)			
유인길(柳寅吉)	유인길(柳寅吉)		
이문진(李文筌)	이문진(李文筌)		
이안겸(李安謙)	이안겸(李安謙)		
1591. 閏3. 10 驄馬契會 新任官員		이사건(李思騫)	이사건(李思騫)
		권성이(權成已)	
		남 찰(南 截)	남 찰(南 截)
		이경록(李慶祿)	이경록(李慶祿)
		이 조(李 調)	이 조(李 調)
		이구순(李久洵)	이구순(李久洵)
		송 제(宋 悌)	송 제(宋 悌)
		이수준(李壽俊)	
		신지제(申之悌)	신지제(申之悌)
	허진정(許進廷)	허진정(許進廷)	
1591. 8 驄馬契會 新任官員			원경우(元景遇)
			이여온(李汝溫)
			장지현(張智賢)
			박지수(朴枝樹)
			이 원(李 遠)
			이기수(李麒壽)
			이몽서(李夢瑞)
			정덕기(鄭德麒)
		정응성(鄭應聖)	
		서 성(徐 渚)	

○ 기타

충효사 소장 <총마계회도>는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유물 명칭이 화순총마계회도(和順驄馬契會圖)로 되어 있다. 지역명 '화순'을 앞에 붙여 화순의 총마계회도임을 명시하고자 한 의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확한 유물명칭으로는 "총마계회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1. 16세기 계획도로서 제작연대와 소유자가 분명함.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회도>는 시문에 적힌 간기와 좌목에 기록된 인물들의 활동연대에 근거하여 1591년 8월에 만든 것이 입증된다. 이미 지정 받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획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하지만 소유자가 밝혀진 사례는 드물다.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는 이 계획도가 전승되어 온 경위와 제작배경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며, 관련 문헌자료와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2. 소장 및 전승경위를 알 수 있음.

충효사 소장 <총마계회도>는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후 <총마계회도>는 박지수의 관직 임명장인 교지(教旨) 등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 가장(家藏) 유물로 전승되었다. 박지수의 충절을 기리고자 1598년(선조 31) 지역 유림들이 건의하여 충효사(忠孝祠)를 건립하였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복원하여 박지수와 그의 아들 박천수를 향사하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990년대까지 충효사에 소장되어 왔으며, 현재는 밀양박씨 문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1591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 약 420년 동안 후손가를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3. 16세기 후반기 서울의 중앙관청에서 시행된 계획관행과 계획도의 제작배경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총마계회도>는 사헌부의 감찰직 신임관원이 치르는 신고식 관행인 신참례의 실체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1591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총마계회도> 2점의 소유자인 안동출신 이정희(李庭檜)의 「연보」와 그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를 통해 입증되는 사실이다. 또한 1591년 전반기 사헌부의 신참례시에 신임 감찰이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물로 계획도를 제작하였고, 박지수가 소유한 <총마계회도>도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을 밝

힐 수 있었다.

4. 산수와 점경인물의 묘사는 정확한 16세기 양식을 보여줌.

<총마계회도>의 화법은 조선초기에 유행한 안견파(安堅派) 화풍의 한 요소인 산의 골격과 굴곡을 짧은 선과 터치로 처리하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여흔이 보인다. 점경인물의 묘사 또한 소략하지만, 17세기초 의궤(儀軌)의 반차도에 보이는 간략한 묘사방식과 유사하여 16세기 후반기 화풍의 일면을 담고 있다. <총마계회도>는 16세기 그림 가운데 몇 점에 불과한 기년작(紀年作) 회화에 포함되는 사례로서 조선조 전반기 회화의 양식사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

5. 계회도의 장황(粧黃)이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16세기 족자본 회화의 장황 복원의 기준 형식을 제공함.

<총마계회도>는 장황을 바꾸거나 그림에 가필(加筆)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특히 계회도의 상하단에 붙인 남색(藍色)의 회장과 황색 비단, 좌우에 좁게 덧댄 남색비단 등은 16세기후반기 계회도 장황의 일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계회도로 알려진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사헌부 감찰 계회도인 <이십삼상대회도(二十三霜臺會圖)> (1487년 작)와도 장황형식이 같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십삼상대회도>는 상단의 남색 회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하단의 회장과 황색비단 등은 <총마계회도>의 장황과 동일한 형식임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16세기 계회도의 대부분이 후대에 개장된 족자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총마계회도>는 이를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회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계회도 가운데 1591년의 제작시기와 능주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소유한 계회도로서 지금까지 약 420년간의 전승경위가 분명히 파악되는 자료이다. 또한 계회의 실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이 확인되고, 그림의 화풍과 족자의 장황형식에 있어서도 희소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현 상

<화순 총마계회도>는 1591년(선조 24) 8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24명이 계회를 갖고 이를 기념하여 만든 계회도(契會圖)로서 전남 화순 출신의 박지수(朴

枝樹, 1562-1593)가 참여하여 받은 그림이다.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1호 (2003. 10. 4)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790 소재 밀양 박씨 (密陽 朴氏) 충효사(忠孝祠)에 소장되어 있다.

계회도는 문인들의 계회광경을 그린 기록화이다.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문인계회는 만 70세 이상의 원로사대부로 구성된 기로회(耆老會)와 동갑이나 관아(官衙)의 동료들로 이루어진 문인계회(文人契會)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계회도는 계회의 개념과 기록을 목적으로 화공을 시켜 참가자의 수만큼 제작하여 보관하였다. 특히 계회의 장면뿐만 아니라 계회의 명칭을 적은 표제(標題), 좌목(座目) 등이 있어 제작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참가자의 면면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크다.

족자(簇子) 형식의 계회도는 대체로 계회의 명칭과 계회장면을 그린 그림부분, 참석자들의 명단 등을 적은 좌목(座目)의 3단 형식으로 된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순 총마계회도>는 표제·그림·시문(詩文)·좌목의 4단으로 구성된 16세기 계회도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되어있다. 계회도의 표제는 대개 가장 상단(上端)에 주선(朱線)으로 칸을 구획한 뒤 전서(篆書)로 쓰는데, <화순 총마계회도> 역시 전서로 驄馬契會圖라 써져 있다. 총마(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백마)는 사헌부(司憲府)의 별칭으로서,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라는 사람이 시어사(侍御史)가 되어 항상 총마를 타고 다녔던 데서 생겨난 단어이다. 환전이 엄정(嚴正)하였으므로, 당시의 간인배(奸人輩)들이 항상 총마어사(驄馬御史)를 두려워하여 기피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하였다.(『後漢書』, 「桓典傳」)

<화순 총마계회도>는 1937년에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간행한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제2집에 도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당시의 소장자는 전남 화순군 박윤동(朴潤東) 씨로 되어 있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박락되고 훼손된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깊게 접힌 흔적이 여럿 있는 등 보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 의한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1월에 걸친 보존처리를 통해 작품의 원형을 확인하고 보다 완벽한 보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존처리 작업에 의해 작품은 성공적으로 보수(補修)되면서도 족자의 상하 회장(回裝)과 네 변(邊)의 비단, 색상, 비례 등은 제작 당시의 표장(表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계회도에 별도의 시문을 쓰도록 구획한 면에는 계회도를 분급(分給) 받은 당사자가 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화면 중단의 시는 이 계회도의 주인인 박지수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霜臺凜凜直臣風	사헌부의 늠름하고 곧은 신하의 위풍은
玉立群賢政在公	지조 있는 어진 선비들 공무에 열중케 하네
柱後惠文猶整芻	기둥 뒤의 문양은 해태로 장식한 것 같고
殿中御史舊乘驄	전중의 어사 모습 예전처럼 총마를 탔구나
威分漢栢傳平管	위엄은 한나라 사헌부의 평관을 이었고
步近唐星繞紫宮	가까이엔 당나라 벼슬아치가 임금을 모신 듯
同地同官又同好	같은 땅에서 같은 벼슬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鮫綃不惜寫鴛鴻	역사에 크고 작게 기록해도 아깝지 않겠네
辛卯仲秋日	신묘년 중추일

<화순 총마계회도>의 제작 시기는 계회도의 중단에 적힌 칠언(七言) 시의 마지막에 쓰인 “辛卯仲秋日”이라는 글씨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계회도를 분급 받아 최초로 소유하였던 박지수가 1593년에 졸(卒)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辛卯仲秋日”은 1591년(선조 24) 8월이다. 따라서 <화순 총마계회도>는 박지수의 나이 29세 때인 이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의 계회에 참석한 인물은 하단의 좌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좌목란에는 품계(品階)·현 관직·이름·자(字)·본관을 차례로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이름을 간략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참석자의 면면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1591년 당시 사헌부 감찰의 정원은 24명이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충효사 소장 <화순 총마계회도> 좌목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鐵堅 子久 本全州
 父忠義衛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仁英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夢祚 景休 本全州
 父彰善大夫行豐陽令 春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元景遇 享之 本原州
 父別瓦署別提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 彦輔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思騫 孝伯 本全州
 父通訓大夫行江西縣令 淑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李汝溫 景粹 本廣州
 父嘉善大夫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兼寧邊大都護府使 潤德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潛 子昭 本高靈

父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迪順副尉 世貞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久洵 而信 本全州

父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果 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南嶽 仲秀 本宜寧

[父]贈忠積德補祚功臣嘉善大夫工曹參判宜春君行折衡將軍忠佐衛副護軍 仁錫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張智賢 明叔 本求禮

[父]嘉善大夫慶尙左道兵馬節度使 弼武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調 和甫 本星州

(父)通訓大夫行軍器寺主簿 思誠

奉正大夫行司憲府監察 李慶祿 季應 本全義

父承議郎行 光陵參奉 恬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朴枝樹 茂仲 本密陽

(父兼司僕)禦侮將軍前行龍驤衛副司猛 億瑞

朝散大夫行司憲府監察 洪汝誠 士眞 本陽南

父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彰信校尉忠武衛副司直 閔

朝奉大夫行司憲府監察 李蕙 彦尙 本新平

父奉正大夫行軍資監奉事 世純

通德郎行司憲府監察 李亨 夏卿 本星州

父忠順衛彰信校尉行忠武衛副司正 英毅

通德郎行司憲府監察 宋悌 友叔 本南陽

父幼學 承周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 卍 懼夫 本全州

父通訓大夫行古阜郡守 元旭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麒壽 靈老 本德恩

父忠順衛 亨孫

奉直郎行司憲府監察 李夢瑞 應士 本金浦

父學生 好仁

承議郎司憲府監察 鄭德麒 子仁 [本草]溪

父通訓大夫行金城縣令 景禮

承議郎司憲府監察 許進廷 敬甫 本河陽

父宣略將軍忠順衛 瑄

[承]訓郎司憲府監察 鄭應聖 時仲 本迎日

[父]秉節校尉行忠武衛副司勇 霍

[承]議郎司憲府監察 申之悌 順甫 本鵝州

[父]學生 夢得

[宣]教郎守司憲府監察 徐滄 玄紀 本大丘

[父]學生 嶮

○ 내용 및 특징

사헌부는 고려□조선시대에 언론□사법□감찰의 역할을 하던 국립기관으로서 헌부(憲府), 대성(臺省), 상대(霜臺), 오대(烏臺), 백부(柏府)라고도 하였다. 사간원(司諫院)과 함께 대간(臺諫) 또는 양사(兩司)라고 하였고, 대간과 홍문관은 삼사(三司), 대간과 형조(刑曹)는 삼성(三省)이라 불렸다. 원칙적으로 사헌부의 업무는 정치의 옳고 그름을 살피고, 백관(百官)의 잘못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며,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왕에 대한 간쟁(諫諍)을 하였고,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등의 핵심기관과 함께 입법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법기관으로서 각종의 금령(禁令)을 집행하고, 백관을 규찰하여 기강을 확립하며,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문(鞫問)을 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사헌부는 정궁(正宮)인 경복궁(景福宮)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 앞 육조(六曹)거리 곧, 지금의 서울시 세종로의 세종문화회관과 정부중앙청사 사이에 있었다.

<화순 총마계회도>는 종이에 수묵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화원(畫員)이나 직업화가에 의해 주문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화가의 이름을 알 수 없다. 작자를 알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계회도 들과 같은 경향이다. 화면의 가운데에 우뚝 솟은 산 아래에 널찍이 자리 잡은 사헌부가 안개 속에 그려져 있다. 사헌부 관아 뒤편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산은 실제의 경치가 아닌 가상의 모습이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느낌의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사헌부를 묘사한 것은 사헌부의 막중한 책무와 엄정한 권위와 권력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산의 윤곽선을 중심으로 곳곳에 진한 먹으로 짙고 간결하게 표현된 단선점준(單線點皴)은 조선 초기에 유행한 안견파(安堅派) 산수화풍의 반영으로서 이 작품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안개가 자욱 깔린 사이에 좌우로 널찍이 펼쳐진 사헌부 청사의 반쯤 열린 정문이 보이고, 그 앞에서 나귀를 타고 늦게 도착하는 관원(官員) 일행과 정중히 무릎 꿇고 이들을 맞이하는 세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다. 안개에 싸인 청사의 본청은 지붕만을 그린 뒤 생략하였고 사헌부의 주위를 에워싸듯 고목들을 표현하여 사헌부 전체의 규모를 암시한 것도 추상(秋霜)과 같은 사헌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사헌부의 건물 배치 등을 일일이 그리지 않고 안개로 가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역시 사헌부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계회도에 사헌부

청사를 그린 것은 계획이 사헌부 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의 계획도가 참가자들의 근무지를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화순 총마계획도>와 호림박물관 소장 두 점의 <총마계획도>는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일반적인 문인계획도의 경우 대체로 정형화된 표현으로 그려지곤 하는데 비하여 <화순 총마계획도>에서는 비록 정형화되었지만 주산의 엄격하고도 정제된 모습, 상세하게 그려진 사헌부 관아의 정문, 암시적인 고목, 고줄(古拙)한 듯 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인물묘사는 작품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화순 총마계획도>는 기록화의 하나라는 계획도의 본령(本領)에 충실하면서도,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현재 알려진 세 점의 <총마계획도> 가운데 <화순 총마계획도>가 가장 수준 높은 예술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한 세 점의 <총마계획도>의 제작시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관청에 소속된 관료들끼리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가진 동관계획(同官契會)은 16세기에 가장 유행한 계획의 형태로서, 1591년 사헌부의 감찰직 24명 전원이 참여한 계획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화순 총마계획도>의 보다 구체적인 제작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해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 1591년 2월과 윤3월의 <총마계획도> 2점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호림박물관에 소장의 두 <총마계획도>는 당시 두 계획에 모두 참석한 안동 출신으로 퇴계(退溪) 문하에서 수학한 이정희(李庭檜: 1542-1613)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헌부에서의 총마계획은 신입관원들이 들어왔을 때 시행된 신참례(新參禮: 신고식)를 위한 모임이었고, 이때 신입관원들이 감찰의 정원수만큼 계획도를 제작하여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희는 1590년(선조 23) 12월 22일 감찰에 낙점되었고, 이듬해인 1591년 1월 17일에 신원조회인 서경(署經)을 마쳤다. 이후 1591년(선조 24) 1월 19일에 신입관원이 치르는 첫 번째 신고식 관행인 허참례(許參禮)를 행하였다. 허참례는 성대한 주찬을 마련하여 신입관원이 선배관원들을 대접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허참 후 보름 뒤에 신참(新參)을 면하게 한다'는 면신례(免新禮)'를 행하였는데, 허참례와 면신례를 합쳐 신참례라 불렀다. 이정희는 정확히 보름 뒤인 2월 4일에 면신례를 가졌다. 이때 이정희를 비롯한 신입관원 10명이 비용을 들여 계획도를 제작하였고, 선배관원들에게 하나씩 분급한 뒤 자신들도 한 점씩 소유하였다. 계획도는 신참례 때 신입관원들이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희가 참여한 계획은 같은 해 윤3월 10일에 또 한 차례 시행되었다. 이때는 이정희의 다음으로 사헌부에 배속된 후배 신임관원들이 준비한 계획였다. 이때에도 계획도를 만들었는데 이정희가 받은 계획도는 신임관원이 선배관원들에게 분급한 것이다. 이정희는 두 차례의 계획에 참여하는 등 사헌부에 근무한지 약 5개월만인 1591년 5월 1일 강원도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발령을 받아 사헌부를 떠났다. 그가 떠난 이후 사헌부에 배속된 신임관원들의 계획이 1591년 8월에 있었고, 이 계획에 신임관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충효사 소장 <화순 총마계획도>의 소유자인 박지수이다.

충효사 소장의 <총마계획도>에 기록된 좌목을 1591년 2월과 윤3월에 제작한 호림박물관 소장의 <총마계획도> 좌목과 비교해 보면, 한 차례 계획이 있을 때 마다 10명의 관원이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첨부자료. 표 참조) 이를 통하여 사헌부에 새로 배속된 관원들의 신고식 관행인 면신(免新)은 10명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계획도는 10명의 신임관원들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분급(分給)하였음을 알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1591년 사헌부에서는 2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세 차례의 계획과 계획도의 제작이 있었다. 2월에 제작된 계획도는 이정희와 함께 임명된 신임관원들이 제작한 것이고, 윤3월의 계획도는 이정희가 새로 배속된 후배관원들에게서 받은 것이며, 8월의 계획도는 이정희가 떠나고 난 뒤 신임관원으로 온 박지수 등이 제작한 것이 된다. 16세기 후반기의 이러한 신참례와 계획도의 제작관행은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였으나, 신임관원이 과도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상당한 병폐로 지적되었다. 왕명으로 신참례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금지조치가 내려졌지만, 각 관청마다 암암리에 존속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행태를 감찰하여야 할 사헌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은 폐단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16세기의 신참례와 계획도 제작에 관한 사실을 알려준 이정희의 계획도와 『송간일기』의 기록은 16세기 후반기 서울 중앙관청에서의 계획도 제작 관행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이다. 충효사 소장의 <화순 총마계획도> 또한 사헌부 내의 관행으로 치러졌던 신임관원들의 신참례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윤진영, 「송간 이정희(1542-1612) 소유의 동관계회도」, 『미술사학연구』 231, 2001. 6 참조)

[첨부자료] 1591년 2월 ~ 8월, 사헌부 감찰의 관직이동 현황

구 분	1591년 2월 4일	1591년 윤3월 10일	1591년 7월
1591. 2. 4 驄馬契會 座目	이철건(李鐵堅)	이철건(李鐵堅)	이철건(李鐵堅)
	이몽상(李夢祥)	이몽상(李夢祥)	이몽상(李夢祥)
	허광우(許光佑)		
	이사수(李獅壽)		
	김 자(金 磁)		
	김수연(金秀淵)	김수연(金秀淵)	
	박 잠(朴 潛)	박 잠(朴 潛)	박 잠(朴 潛)
	이정회(李庭檜)	이정회(李庭檜)	
	장지현(張智賢)		
	이형남(李亨男)	이형남(李亨男)	
	조응록(趙應祿)		
	유석보(柳錫輔)		
	홍여성(洪汝誠)	홍여성(洪汝誠)	홍여성(洪汝誠)
	이 향(李 享)	이 향(李 享)	이 향(李 享)
	장 형(張 迥)		
	이 제(李 禪)		
	유 탁(兪 濯)	유 탁(兪 濯)	
	이 갑(李†+甲)	이 갑(李†+甲)	이 갑(李†+甲)
	하홍수(河弘秀)	하홍수(河弘秀)	
	김의검(金義儉)		
	이사옥(李士郁)		
유인길(柳寅吉)	유인길(柳寅吉)		
이문전(李文筌)	이문전(李文筌)		
이안겸(李安謙)	이안겸(李安謙)		
1591. 閏3. 10 驄馬契會 新任官員		이사건(李思騫)	이사건(李思騫)
		권성이(權成己)	
		남 찰(南 嶽)	남 찰(南 嶽)
		이경록(李慶祿)	이경록(李慶祿)
		이 조(李 調)	이 조(李 調)
		이구순(李久洵)	이구순(李久洵)
		송 제(宋 悌)	송 제(宋 悌)
		이수준(李壽俊)	
		신지제(申之悌)	신지제(申之悌)
	허진정(許進廷)	허진정(許進廷)	
1591. 7 驄馬契會 新任官員			원경우(元景遇)
			이여온(李汝溫)
			장지현(張智賢)
			박지수(朴枝樹)
			이 원(李 遠)
			이기수(李麒壽)
			이몽서(李夢瑞)
			정덕기(鄭德麒)
			정응성(鄭應聖)
		서 성(徐 滄)	

○ 문헌자료

화순 충효사 밀양 박씨가에는 <화순 총마계회도>를 분급받은 박지수의 무과 급제 홍패(紅牌) 교지(教旨) 1매, 박지수의 처 노(魯) 씨의 증직 교지 3매(焚黃紙 포함), 능주(綾州) 유학(幼學) 박신환(朴信煥) 등이 암행어사에게 박지수 등의 순절을 포양(褒揚)해 달라고 청원하는 상서문(上書文) 1장 등 고문서 5장이 있다. 이들 5장의 고문서는 박지수와 그의 처와 관련된 일괄문서라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 기 타

<총마계회도>는 화순군 도암면 출신의 박지수가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계회에 참여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계회도를 제작한 뒤 본인에게 분급(分給)되어 소유하게 된 것을 집안 후손들이 보존하여 지금까지 전해내려 온 것이다. 박지수는 1580년(선조 13)에 무과(武科)의 병과(丙科) 제22인으로 급제하였다. 무과 급제 후 사헌부 감찰에 오른 박지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義州)로 몽진(蒙塵)을 갔을 때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장계군(長溪君) 등의 호위 임무를 맡았는데 회령부에서 왜적과 만나 사흘 동안 혈전을 벌이다 1592년에 전사하였다. 박지수의 노복이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에 돌아오자 부인 노(魯) 씨가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고, 이 광경을 지켜본 노비 근춘(斤春) 역시 자결하였는데 이에 일문삼절(一門三節)'이 배출되었다고 회자되며 이들의 충절이 높이 평가되었다. 박지수의 충절을 기리고자 지역유림들에 의하여 충효사(忠孝祀)가 건립되었으며,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879년 복원되었다. 1924년 충효단(忠孝壇)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립되었고, 1955년 충효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1년 7월 22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전남 화순군 도암면 벽지리 790 충효사의 밀양 박씨 문중 종회(박영숙) 소장 <화순 총마계회도>는 1591년 제작된 사헌부 감찰 24인의 계회도로서 제작시기가 확실하고 제작연대가 오래된 작품이다. <화순 총마계회도>는 지금까지 알려진 문인계회도 제작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관청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계회도로 제작하는 등, 계회도 제작 방식의 특수한 예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계회도의 변천양상을 살피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같은 해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 두 점의 <총마계회도>가 있지만, 이들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아울러 산수와 건물, 인물 등을 섬세하고도 능숙하게 표현하여 일반적인 기록화에서 볼 수 있는 정형화 또는 양식화되는 경향을 넘어서는 뛰어난 예술성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총마계회도> 가운데 가장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룩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1월에서 2006년 11월에 걸친 성공적인 보존처리를 통해 작품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완벽한 보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화순 총마계회도>는 조선시대 16세기의 제도사□사회사□문화사 등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뛰어난 예술작품으로서,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함.

II.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안건번호 동산 2011-04-006

1.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 중 도체찰사교서의 보존처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물 소장자 유영하로부터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 중 “도체찰사교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하고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는 것임.
- ※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체찰사교서” 및 황국공신록훈교서의 영인본을 제작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유물의 오염 및 격임 등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상문화재 : 보물 제460호 유성룡 종가 유물 - 도체찰사교서
- 신청인 : 개인소장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위탁보관 중)
- 수량 : 1매
- 크기 : 세로 77.7m 가로 109.3cm
- 재질 : 저지(楮紙)
- 제작연대 : 1592년(선조 25)

라. 보존상태

- 전반적으로 얼룩이 있으며 상단부의 오염은 특히 심한 편임
- 두껍게 배접되어 꺾임이 발생하였고 뒷면의 갈색산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일부 수정된 글씨와 교서 가장자리의 금박 테두리는 수정, 보수가 필요함.

마. 보존처리 계획

- 사전조사
 - 유물의 크기, 색, 형태, 상태 등을 촬영하고 조사함.
 - 앞면, 뒤면 디지털 촬영을 실시함.
 - 본지의 지질조사를 위해 염색 현미경관찰을 실시하고 종이두께, 평량(조밀도), 발촉수, 체인라인의 간격, 색도측정 등을 실시함.
 - 전 수리 부분(배접, 결손부 메움, 색맞춤)을 파악함.
- 클리닝
 - 이물질 제거하고 먹번짐 테스트를 거친 후 클리닝을 함.
 - 전 수리 시에 덧붙여진 배접지 등을 제거함.
- 꺾임보강 : 가배접을 통하여 꺾임을 보강함.
- 마무리
 - 전체 크기를 맞추어 마무리하고, 보존처리 기록을 한지에 목서로 기록하여 뒷면에 부착함.
 - 보존처리 기록은 유물명, 소장처, 수리기간, 수리자 등 4개의 내용으로 하고, 그 크기는 유물의 크기 및 형태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작함.
 - 부착방법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함.
- 보관상자 제작
 - 유물의 크기를 바탕으로 굵게말이축과 보관 상자를 제작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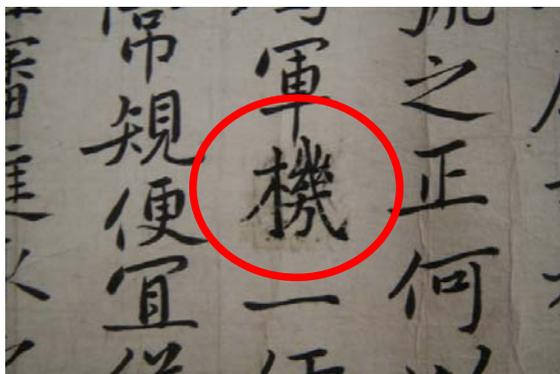
도체찰사교서 앞면



꺾임



상단 얼룩과 테두리



수정된 글씨



뒷면 갈색 산화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1-04-007

1.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襄陽 洛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및 舍利莊嚴具 一括)

가. 검토사항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원도지사로부터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4.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1.06.09)에서 검토사항으로 부의되었으나,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의('11.07.21)에 부의, 가결되었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양양 낙산사 사리탑 : 강원 유형문화재 제75호(1982.11.3. 지정)
 - 사리비 및 사리장엄구 : 비지정
- 명 칭 :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襄陽 洛山寺 海水觀音空中舍利塔□碑 및 舍利莊嚴具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
- 수량 : 사리탑 1기, 사리비 1기, 사리장엄구 일괄(7종 37점)
- 규격 : 공중사리탑 높이 335cm, 사리비 높이 215cm, 사리장엄구(붙임참조)
- 재질 : 석, 금속, 종이, 유리, 직물 등
- 형식 : 공중사리탑 각 부분의 평면을 팔각으로 하여 조선 전기와 중기에 걸쳐 조성된 승탑 양식을 지닌 사리탑
해수관음공중사리비 자연암반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을 얹어 마무리한 조선 중기 이후 양식을 따른 석비
- 조성연대 : 공중사리탑 1692년(숙종 18)
해수관음공중사리비 1694년(숙종 20)
사리장엄구 일괄 1692년 이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일급의 석조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건립의 절대연대가 1692년으로 밝혀져 비슷한 시기의 승탑을 비롯한 관련 석조물의 편년에 소중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둘째, 매우 드물게 현존하는 이른바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예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셋째 양식적으로나 세부에 있어서나 조선시대 왕릉의 장명등과 유사성이 다분하여 양자 사이의 교류 관계, 나아가 절집 석조물과 그 밖의 석조물의 양식적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비는 그 자체만으로는 조선후기 석비의 일반적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중사리탑과 그 안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와 아울러 생각한다면 이 비의 가치는 배가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불사리를 모시려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일관 유물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문의 내용이 사리장엄구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공중사리탑, 공중사리비, 사리장엄구가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공중사리탑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인위적인 손상 없이 처음 매납된 상태 그대로 수습되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사리병—금합—은합—동합의 순으로 매납용 사리기를 제작하여 그 안에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적인 사리 장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써 주목에 값한다. 또한 사리장엄구의 일부로 수습된 비단 보자기 11점은 그 양호한 상태, 색채의 선명성, 무늬의 다양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직물사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들 세 가지 유물, 즉 공중사리탑과 공중사리비와 사리장엄구 일괄은 관련 유물 가운데 어느 하나 결실되지 않고 고스란히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관련 유물이 갖추어진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은 낱알의 유물이 지니는 가치도 적지 않지만 함께 보존되고 관리될 때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들 유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의 사리장엄구는 석탑, 승탑에서 발견되지만 고려시대에 비해 사리 장엄 방식이 단순해지면서 埋納 되는 사리기의 종류와 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사리를 담은 사리병은 유리 대신 수정□옥□호박으로 만들어지며 간혹 뚜껑이 달린 원통형의 鑰製 喉鈴筒을 쓰기도 한다. 사리기의 형태는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매우 다양해지지만 뚜껑이 있는 원형 내지 원통형 합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으며 그 바깥 상자도 백자를 사용한 예가 많다.

이러한 조선시대 사리기 가운데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에서 발견된 사리기는 다음과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리공은 사리탑의 球形 탑신석 안에 설치된 깊이 17cm, 지름 23.0cm 정도의 크기를 지닌 사리공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상황을 보면 가장 바깥의 靑銅製 舍利 外盒 안쪽으로 여러 색깔의 비단을 4겹으로 싸고 다시 그 안에는 연분홍색 비단 3매로 짠 銀銅盒을 두었으며 은동합 내부에 吉祥文과 卍字文의 무늬로 짠 두겹의 비단보로 짠 뒤 다라니로 金銅盒을 싸고 가장 안쪽에 붉은색 舍利壺가 안치되어 있었다. 마지막 이 유리호 안에 흰색 명주솜을 이용하여 乳白色 사리 1과를 봉안한 모습이였다. 이러한 상태를 통해 당시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도 유리호를 가장 안쪽에 넣고 金→銀→靑銅을 재질로 하여 크기를 줄여가면서 중첩시키는 고대 사리 장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사리기의 외형은 크기와 높이만 다른 뿐 거의 일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靑銅盒에만 단순한 同心圓이 장식되고 나머지 銀銅盒, 金銅盒에는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리기는 은제나 금제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제에 금과 은을 도금함으로써 사리장엄의 의례는 그

대로 따르되 값비싼 금은 대신 청동으로 대체한 새로운 사리기 조성 방법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 사리기의 바깥쪽 동제 외합에는 한지에 朱書로 쓰인 4매로 된 조성기가 들어있었는데, 첫장에는 康熙三十一年의 기년이 있어 이 사리기가 1692년에 시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19매로 된 다양한 梵字 眞言도 함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목서명을 통해 앞서의 사리장엄구가 1692년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릇의 형태로 보아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하여 사리탑 안에 넣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비슷한 시기인 조선시대 17세기에 해당되는 사리장엄구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奉印寺 釋迦世尊 浮屠의 사리장엄구가 비교될 수 있다. 이 사리장엄구는 감색 비단보자기로 싸여진 팔중 사리기로 구성되었고 보자기에 필사된 글과 은제합에 쓰여진 명문에서 왕실에서 발원하여 봉안된 사리구임을 알 수 있다. 6개의 내합은 은제 및 유제합이고 가장 바깥의 합만 대리석제인데, 뚜껑은 결실되었다. 특히 은제합의 뚜껑에는 菱花文 안에 용을 시문하였고 합의 바닥에는 1620년 국왕 光海君의 왕세자에 대한 壽福昌盛을 기원하는 발원문과 年紀가 있으며 이는 석가세존 부도탑비의 탑 제작 연대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리 장엄의 형식과 의례를 따르고 있는 점에서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구는 봉인사 석가세존 사리구와 함께 제작년대를 알 수 있는 조선시대 사리장엄 연구에 귀중한 일례로서 높게 평가된다. 다만 사리기의 형태가 조금 단순화 되었고 특히 은제와 순금을 쓰는 대신 銀銅과 金銅이란 조금은 저렴한 재료를 이용한 것은 왕실 발원의 사리기가 아니라는 신분적 차이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질의 차이를 떠나서 단정한 형태와 청동합의 제작기술 등 당시 금속공예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는 동시에 유리의 제작도 상당히 수준 높은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청동합의 완전치 못한 상황이나 은동과 금동합에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 파손된 유리호의 현상이 감안하여 볼 때 이 사리기를 단독으로 보물로 지정하는 것보다 함께 발견된 목서명, 보자기 등의 여러 유물을 함께 묶어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 유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는 조성연대가 확실하며 봉안이후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사리탑에 사리가 봉안된 형식을 알 수 있다. 보자기는 장엄구의 크기에 따라 보자기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리구의 봉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자기의 한쪽 모퉁이에 끈이 달려있는데 이러한 끈 달린 보자기가 조사된 예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 섬유류 유물이 장기간 보존되기 어려운 자연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낙산사 사리장엄구의 보자기는 비교적 상태가 좋고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장엄의식에 보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보자기의 형태를 알 수 있어 민속적, 복식사적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의 보자기는 일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낙산사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발원문을 통해 1692년에 탑의 건립과 함께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어 조선후기 사리장엄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리장엄구들은 전통적인 법식에 따라 동합-은합-금합-사리호 순의 4겹 차림으로 되어 있다. 사리장엄구는 표면에 장엄이 전혀 없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공예사적으로나 미술사적인 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조로움을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 겹보자기로 감싸 보완하였고, 불복장 의식을 사리장엄 의식에 접목시켜 마무리한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사리탑이 1692년이라는 절대 연대를 가진 승탑 형태의 사리탑으로써 造塔 기록이 부족한 조선후기 승탑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한편 사리탑의 건립사유를 적은 사리탑비도 현존하는데, 탑비는 자연석 기단 위에 방형의 비신과 구름문을 중첩한 머릿돌을 놓은 단순한 형태를 띤다. 이로써 낙산사해수관음공중사리탑은 사리장엄구와 사리탑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리장엄 의식의 일단면을 또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사리장엄구 일괄은 사리탑□비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명칭은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로 하면 적당할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1.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팔각당형(八角堂形) 승탑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下臺石), 중대석(中臺石), 상대석(上臺石)으로 구성된 기단부에는 안상, 태극, 연꽃잎 등의 무늬가 장식되고 탑신부는 구형(球形)의 몸체와 팔각 옥개석(屋蓋石)으로, 상륜부(相輪部)는 길고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사리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특히 이 사리탑은 인근에 세워져 있는 탑비에 의하면 조선 숙종 9년(1683)에 흥련암에서 도금불사를 하던 중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지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어서 이에 석겸(釋謙) 등이 탑을 짓고 사리를 봉안하는 데 9년이 걸렸다는 조성기가 기록되어 있음.
3. 따라서 이 사리탑은 조선 숙종 18년(1692)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석조문화재에 나타나는 문화 예술적 특징의 기준치가 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이미 1982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바 있음.
4. 또한 사리탑비는 2년 뒤인 1694년에 세워졌는데 글씨는 춘천부사를 지내고 훗날 형조판서까지 오른 조선시대 문신이며 서예로도 이름을 얻은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의 작품인 동시에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중요한 조성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음.
5. 그 후 2006년 4월에 이 사리탑의 보수공사 도중 탑신부 안에서 금, 은, 동합 등 각종 사리기와 비단보자기, 사리봉안기 등의 지직류 등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고 사리탑비와 일치하는 사리봉안문이 확인되어 동 사리탑, 탑비 그리고 사리장엄구 등 일련의 문화유산이 매우 높은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이 재평가된 바 있음.
6. 이에 낙산사 공중사리탑, 비 및 사리장엄구 등 일련의 유물은 1987년에 지정된 보물 제 928호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의 예에 따라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보존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 (지정 가치 있음)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원위치에 최초 건립시의 원형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기단부-탑신부-상륜부 등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인근에 세워진 海水觀音空中舍利碑와 한 쌍으로 건립된 석조물로 海水觀音空中舍利碑文에 의하면 1683년 흥련암에서 개금 불사를 모실 때 서기가 가득하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는데, 유리와 같이 광채가 서린 불사리를 얻어 이를 봉안하기 위하여 1692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불사리를 봉안한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드물게 부도(승탑) 양식이 채용되었다는 점은 한국석조미술사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李玄錫이 海水觀音空中舍利碑는 1694년 5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空中舍利塔의 구체적인 건립 시기와 연기를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어 학술적으로 중요한 석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사리장엄구 일괄 유물들은 조선후기 금속공예품의 제작 기법과 수준, 사리봉안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직물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

으로 보아 襄陽 洛山寺 空中舍利塔과 舍利碑 및 舍利莊嚴具 일괄 유물은 미술사, 복식사, 공예사, 서지학, 불교 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낙산사는 예로부터 관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혀 온 천혜의 경승지이자 『삼국유사』에 연기설화가 실려 전하는 유서 깊은 관음신앙지이다. 강원도 양양군에 소재하는 낙산사는 양양읍내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속초 방향으로 약 6km를 지나면 길 오른편으로 전개되는 양양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다. 이 낙산사의 경내지에서 중심 영역을 벗어난 해안 쪽 산비탈의 중간 지점, 남동쪽으로 의상대가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망망한 동해의 수평선이 펼쳐지는 산자락에 공중사리탑이 자리잡고 있다.

1953년 이곳을 답사했을 때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언이 있을 만치 이 공중사리탑은 반듯하지 않은 상태를 오래 지속해 왔으나 각부의 부재에는 별 이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 지역을 뒤덮은 큰 산불로 말미암아 주위의 나무들이 불타면서 사리탑 또한 몸돌 일부가 손상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낙산사에서는 손상된 부분의 보존처리와 기울어진 탑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해체보수 및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현재는 이런 일련의 작업이 끝나 사리탑은 기울어져 있던 모습이 반듯하게 바로잡혔고, 표면을 오염시켰던 이끼류와 산불로 말미암은 그을음 따위가 모두 제거되어 사리탑으로서의 기능과 격조를 회복하였다.

2006년의 해체보수 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4월 28일 오전 사리탑 몸돌의 윗면 가운데 뚫린 지름 23cm 깊이 17cm 크기의 원형 사리공에서 사리탑을 건립할 때 납입한 사리장엄구 일괄을 수습하였다. 금속, 직물, 지류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리장엄구 일괄은 모두 9건 4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5월 현재 보존처리를 끝낸 이들 사리장엄구 일괄 가운데 비단 보자기 11점과 문서 일괄은 낙산사에 직접 보존 관리할 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양양 오산리에 있는 선사

유적박물관에 위탁보관되어 있으며, 나머지 동합 은합 금합 사리호는 낙산사에서 보존하고 있다.

사리장엄구가 발굴된 공중사리탑의 건립에 관한 내력을 담고 있는 금석문 자료가 해수관음공중사리비海水觀音空中舍利碑이다. 비는 공중사리탑이 서 있는 산자락의 아래 해안과 근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 지점은 낙산사에서 홍련암紅蓮庵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바닷가 구비 길 가운데 바다 쪽으로 가장 돌출한 곳이다. 비는 자연암반을 받침돌로 삼아 몸돌을 세우고, 그 위에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모습의 비머리를 얹어 마무리하였다. 이미 세워진 지 삼백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지만, 비머리와 몸돌 일부에 이끼가 덮인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손상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1. 공중사리탑은 장대석을 두르고 그 안쪽에 잔디를 심어 마련한 정방형 탑구塔區의 한가운데에서 산 쪽으로 조금 치우친 자리에 서 있다. 크게 보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는 다시 지대석 하대석 중대석·상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부재는 모두 각각 하나의 석재로 다듬어 만들었다. 탑신부는 몸돌과 지붕돌로 되어 있으며, 이들 또한 각각 하나의 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상륜부는 하나의 석재를 다듬어 복발 보륜 보주를 나타내었다. 아래에서부터 공중사리탑의 세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대석은 2매의 장방형 판석을 나란히 깔아 정방형이 되도록 하였다. 지대석의 표면에는 아무런 무늬도 없다.

하대석은 평면이 팔각을 이루고 있다. 하대석에는 상하 2단으로 무늬가 도드라져 있다. 하단에는 마치 구족반의 상다리처럼 팔모의 모서리마다 상다리 무늬를 돌을새김한 뒤 그 안쪽으로는 운각을 화려하게 아로새겼다. 운각 안쪽 한가운데는 회오리바람처럼 휘도는 삼태극 무늬를 새긴 뒤 주변을 깎아내어 무늬를 도드라지게 하였다. 부드럽게 휘어지며 위로 갈수록 폭이 줄어드는 상단에는 복련을 새겼다. 복련의 연꽃잎은 각 면의 중앙에 1장씩, 모서리마다 1장씩 도합 16장이 배열되어 있다. 연꽃잎의 끝 부분은 양쪽에서 고사리순처럼 안으로 도르르 말린 모습으로 처리되었다. 하대석 윗면의 중앙에는 팔각의 중대석 킴대가 1단으로 마련되어 있다.

중대석 또한 평면이 팔각형이다. 무늬는 모서리마다 9개로 이루어진 연주문을 수직으로 세워 기둥으로 삼고, 이 기둥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띠를 도드라지게 새긴 뒤 그 안쪽에 마치 굵은 줄을 엮어 매듭을 맺는 듯한 모습을 돌을새김하였다. 연주문 기둥을 중심으로 이웃한 두 면의 무늬들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상대석 역시 평면이 팔각을 이루고 있되 폭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조금씩 커진다. 상대석의 무늬도 하대석처럼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단에는 양련이 새겨져 있는데, 하대석의 복련과 마찬가지로 각 면의 가운데와 모서리마다 각각 1장씩 모두 16장의 연꽃잎이 나란히 돌아가며 배열되어 있다. 상단에는 위와 아래에 띠처럼 횡대를 돌리고, 모서리마다 5개로 이루어진 연주문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마련된 네모진 틀 안에는 한가운데 풍혈무늬를 하나씩 새기고, 그 풍혈무늬 안에 범어梵語 한 글자씩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상대석 위에 놓인 몸돌은 공처럼 둥근 구형의 돌을 상단과 하단만 잘라 놓은 듯한, 달리 표현하자면 북을 옆으로 누여 놓은 듯한 모습이다. 하단부에 돌아가며 얇게 새긴 8장 연꽃잎을 제외하면 몸돌에 그 밖의 다른 무늬는 없다. 몸돌은 산불 때의 피해로 말미암은 듯 군데군데 표면이 박락된 곳이 보인다.

지붕돌도 그 평면은 팔각이어서 대체적인 모습은 팔모지붕 형태이다. 지붕돌의 밑면에는 몸돌 상단과 접하는 부분을 따라 원형의 띠가 한 줄 돌아가고 있으며, 이곳에서 처마귀로 이어지는 방사상의 돌을새김 띠가 고른 간격으로 8줄 양각되어 있다. 지붕돌의 처마는 처마귀로 갈수록 가볍게 들려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반전이 심하지 않고 처마의 두께도 알맞아 지붕돌은 둔중하지도, 너무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다. 낙수면은 밋밋하게 다듬어 처리하였고, 귀마루는 선도 입체도 아니어서 선명하지 않다. 지붕돌의 상단부는 귀마루에 중심이 일치하도록 8장 연꽃잎을 배열한 복련을 새기고, 그 위에 한 줄 연주문을 돌려 마무리하였다. 이 연주문이 상륜부 복발의 받침 구실을 함으로써 지붕돌과 상륜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하나의 돌을 다듬어 만든 상륜부는 아래서부터 차례로 복발, 그 위에 보륜, 다시 그 위에 보주가 놓인 형태이다. 이들 각 부분은 모두 연주문 꺾임대에 받쳐진 모습인데, 특히 복발과 보주는 그 하부에 8장 양련을 돌려 장식한 점이 이채롭다. 상륜부는 기단부나 탑신부에 비할 때 부피가 지나치게 큰 편이어서, 사리탑 전체의 비례와 균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모습의 공중사리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첫째, 불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면서도 그 기본 형태는 고려 말기 이후 등장한 일련의 승탑과 흡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은 법주사 복천암 수암화상탑(보물 제1416호)과 학조등곡화상탑(보물 제1418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공중사리탑은 이들에 비해 장식성이 증가하였지만 기본 형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한쪽은 승탑이고 다른 한쪽은 불사리탑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양식적으로는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공중사리탑은 일종의 승탑형 사리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공중사리탑은 갈래가 전혀 다른 왕릉의 장명등과 양식적으로 닮아 있다는 점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1698년 이전에 조성된 조선시대 왕릉의 장명등은 각 부의 평면이 팔각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공중사리탑의 몸돌을 팔각 화사석으로 대체하면 그것이 곧 왕릉 장명등의 하나라고 해도 좋을 만치 양자 사이에 친연성이 높다. 상륜부가 다른 부분에 비해 과도한 점, 상륜부에 보이는 연주문 받침, 기단부의 상대석과 중대석에 나타나는 연주문 귀기둥과 풍혈무늬 장식, 하대석에 보이는 상다리 모습의 표현 등은 세부에 보이는 양자 사이의 양식적 유사성이다. 이와 같은 현상, 즉 왕릉의 장명등과 공중사리탑이 보여주는 양식과 세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중사리탑만의 독자성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상대석의 풍혈무늬 안에 새겨진 범자이다. 이 점은 비슷한 예를 좀체로 찾기 어려운 공중사리탑만의 특색으로 지목할 수 있다. 하대석의 삼태극 무늬 역시 흔치 않은 장식이다. 특히 그것이 석조물의 하대석에 새겨지는 경우는 이 공중사리탑의 예를 제외하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2. 해수관음공중사리비는 양식적으로는 조선후기 유행한 석비 양식에서 그다지 벗어나 있지 않으며 조각 또한 일반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다. 비의 핵심이 되는 비신에는 앞면과 뒷면, 정면에서 보아 우측면에 비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정면에는 그 상단에 <海水觀音空中舍利碑銘>이라 전서로 새기고, 그 아래 서문序文과 비명碑銘을 새겼다. 뒷면에는 발원문과 산중질山中秩, 공사 관계자 명단 등이 새겨져 있으며, 우측면의 내용은 비를 세울 당시가 아니라 추후에 새겨 넣은 일종의 추기追記이다.

비의 앞면에 새겨진 내용에 의해 비문을 짓고 전서와 해서의 글씨를 쓴 사람이 이현석李玄錫(1647~1703)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본관이 전주로, 『지봉유설』의 저자이자 실학자로 유명한 이수광李睟光의 증손이다. 호는 유재游齋 또는 수춘거사壽春居士를 썼으며,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다. 숙종대에 과거에 올라 삼사의 벼슬을 두루 역임하고 형조판서에까지 올랐던 문신관료였던 그는 글씨에도 뛰어나 당대에 명필로 불렸다. 이 비문은 그가 춘천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짓고 쓴 것이다.

비문 내용에 의해 1683년 관음상을 개금할 때 공중에서 떨어진 사리 1과顆를 얻었다는 사실, 이 사리를 모시기 위한 사리탑 건립을 추진하여 1692년 완공을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 1694년 세워졌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2006년 4월 공중사리탑 안에서 사리장엄구의 일부로 발굴

된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비는 공중사리탑 조성의 연장선상에서 건립되어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물증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배가되었다.

3. 사리장엄구는 사리 1과顆가 담겨 있던 반투명 호박 사리호琥珀舍利壺(높이 3.0cm 입지름 1.2cm 밑지름 2.2cm), 사리호를 넣었던 금합金盒(높이 6.0cm 지름 4.7cm), 금합을 넣었던 은합銀盒(높이 9.0cm 지름 8.2cm), 은합을 넣었던 동합銅盒(높이 12.5cm 지름 15.2cm)과 동합 안에서 발견된 문서 일괄, 이들을 감쌌던 11매의 비단 보자기, 그리고 청색 유리편 1점과 금속편 1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일괄은 4장으로 이루어진 사리탑 조탑 시주질造塔施主秩(높이 27.5cm 길이 222cm) 1건, 사리탑 조성 당시의 낙산사 대중질大衆秩(높이 8.4cm 길이 56.9cm) 1매, 다양한 크기에 여러 진언을 쓴 백지 주서 진언白紙朱書眞言 19매로 이루어져 있다.

사리장엄구의 발견 현장에 입회했던 분들에 따르면 이들 사리장엄구 일괄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납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동합은 한 벌의 비단 보자기에 싸여 사리공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은합은 네 벌의 비단 보자기로 감싸이고 세 벌의 비단 보자기에 고여져 동합 안에 담겨 있었고, 금합은 두 벌의 비단 보자기에 싸여 은합 안에 들어 있었으며, 사리호는 한 벌 비단 보자기에 싸여 금합 안에 놓여 있었고, 문서 일괄은 동합 안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사리장엄구의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가장 바깥에서 공기와 직접 접하는 동합을 찢던 보자기는 부식이 진행되어 삭아 부스러져 있었으며, 청동합은 뚜껑이 그 상면에 놓인 지붕돌에 눌러 찌그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 밖의 유물들은 동합 뚜껑이 찌그러지면서 생긴 틈으로 외기外氣에 노출된 부분이 변색된 비단 보자기 일부를 제외하면 매우 상태가 좋았다고 전한다.

이들 사리장엄구 일괄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탑시주질과 11점의 보자기이다. 조탑시주질의 내용을 통해 사리장엄구와 공중사리탑의 조성 시기가 1692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중사리비의 내용 또한 신빙성이 반증되었다. 보자기 11점은 그 양호한 보존 상태와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직물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추가하게 되었다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 문헌자료

이현석, 유명조선국강원도낙산사해수관음공중사리비명병서

정영호,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장엄에 대하여> 『문화사학』 제25호, 한국문화사학회, 2006

낙산사,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2009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예술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일급의 석조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 건립의 절대 연대가 1692년으로 밝혀져 비슷한 시기의 승탑을 비롯한 관련 석조물의 편년에 소중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둘째, 매우 드물게 현존하는 이른바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예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셋째 양식적으로나 세부에 있어서나 조선시대 왕릉의 장명등과 유사성이 다분하여 양자 사이의 교류 관계, 나아가 절집 석조물과 그 밖의 석조물의 양식적인 영향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비는 그 자체만으로는 조선후기 석비의 일반적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중사리탑과 그 안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와 아울러 생각한다면 이 비의 가치는 배가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불사리를 모시려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일관 유물일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문의 내용이 사리장엄구의 일부를 이루는 문서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공중사리탑, 공중사리비, 사리장엄구가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공중사리탑에서 수습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인위적인 손상 없이 처음 매납된 상태 그대로 수습되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 접어들 무렵까지도 사리병—금합—은합—동합의 순으로 매납용 사리기를 제작하여 그 안에 사리를 안치하는 전통적인 사리 장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써 주목에 값한다. 또한 사리장엄구의 일부로 수습된 비단 보자기 11점은 그 양호한 상태, 색채의 선명성, 무늬의 다양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직물사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들 세 가지 유물, 즉 공중사리탑과 공중사리비와 사리장엄구 일괄은 관련 유물 가운데 어느 하나 결실되지 않고 고스란히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관련 유물이 갖추어진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은 낱알의 유물이 지니는 가치도 적지 않지만 함께 보존되고 관리될 때 그 의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들 유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

○ 내용 및 특징

낙산사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일괄 사리기는 조선 중기 사리장엄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리기는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청동제합 → 은동합 → 금동합 → 유리제 사리호 순의 4중으로 중첩 구성되었다. 우선 바깥쪽 청동합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기는 높이 12.5cm, 직경 15.2cm로서 위,아래로 모를 죽인 원통형을 이루고 있으며 발견 당시 뚜껑부분이 찌그러져 현재도 뚜껑이 덮이지 않는다. 직립된 구연을 지닌 뚜껑은 중앙에 동심원문을 음각시켰으며 측면에도 일조의 동심원을 돌렸다. 몸체의 구연부의 상부 쪽의 폭을 줄여 이 부분에 뚜껑이 덮히도록 턱을 형성하였으며 다른 문양은 전혀 시문되지 않았다. 내부에 들어있던 높이 9.0cm, 직경 8.2cm의 은동합은 그 무게로 보아 동체에 은도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동합과 유사한 외형이지만 뚜껑의 상부가 더 납작하게 처리되고 마찬가지로 직립 구연을 지녔다. 몸체의 구연에는 짧은 턱을 두어 뚜껑 받침을 만들었으며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형태이다. 내부에 들어간 높이 6.0cm, 직경 4.7cm의 금동합 역시 크기가 줄인 유사한 형태이지만 앞서의 작품들보다 직경보다 동체가 높아 세장한 느낌이다. 짧은 턱 위로 뚜껑이 덮히는 형식은 동일하며 역시 문양은 전혀 시문되지 않았다. 가장 내부에 안치되었던 사리호는 붉은 색을 띤 유리제로서 둥근 호형에 중앙에 구멍을 뚫고 그 위로 납작한 단추형 뚜껑이 덮혀 도두라지게 올려놓은 모습을 취하였다. 이 사리호는 현재 많은 균열이 보여 열악한 실정이다. 내부에는 불사리 유백색 사리 1과가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시리공 주위에서 금속제 편과 유리 그릇의 단편으로 보이는 조각 2점이 함께 매납되어 있었다.

□

○ 수량(사리장엄구) : 일괄(9종 43점)

- (1) 舍利 1과
- (2) 金製舍利盒 1점
- (3) 銀製舍利盒 1점
- (4) 銅製舍利盒 1점
- (5) 琥珀舍利壺 1점
- (6) 白紙朱砂文書 5장
- (7) 白紙朱砂書 諸眞言 19장
- (8) 錦緞 12점
- (9) 其他 2점(유리편 1, 금속편 1)

○ 현 상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 가운데 보자기는 모두 12점으로 紋緞이나 織金과 같은 고급직물로 지었으며 장엄구를 싸거나 고이는데 사용되었다. 사리장엄구는 외부에서부터 청동합→은합→금합→호박사리호의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보자기가 사용된 현상을 살펴보면 먼저 청동합보로 청동합을 썼으며, 청동합의 안에는 바닥에 4점의 보자기를 접어놓고 그 위에 4점의 보자기(은합보)로 차례대로 싼 은합을 안치하였다. 은합의 안에는 2점의 보자기(금합보)에 싸여있는 금합을 봉안하였다.

가장 곁에 청동합을 싼 청동합보는 문단으로 지은 홀보자기인데 보존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剝落된 부분이 많으며 끈도 잘려져 있어 원래의 길이를 알 수 없다. 보자기의 크기는 63×62.5cm로 12점의 보자기 가운데 가장 크다.

청동합 내의 은합을 고이는데 사용된 보자기 4점(은합고임 1~4) 가운데 은합고임 4만 제외하고 모두 홀으로 지었으며 끈이 달려있다. 크기는 20.5×20.5cm, 34.2×33.8cm, 22.3×21.7cm, 31×30.5cm로 4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은합은 4점의 보자기로 겹겹이 썼는데 바깥에서부터 은합보4→은합보3→은합보2→은합보1의 순서로 썼다. 제일 안에 싼 은합보1의 크기는 25.2×25.2cm이며 나머지는 30~31cm로 비슷한 크기의 보자기가 사용되었다. 4점 모두 겹보자기인데 은합보2에만 끈이 달려있지 않다.

은합의 안에는 2점의 보자기로 싸인 금합이 봉안되어 있는데 바깥에서부터 금합보2→금합보1의 순서로 싸여있다. 금합보2는 홀 보자기이며 크기가 22.2×22.8cm이고, 금합보1은 겹보자기이며 크기는 16.3×16.3cm로 곁의 보자기보다 크기가 작다.

사리장엄구 가운데 가장 안에 안치된 사리호는 18.5×18.5cm 규격의 홀 보자기로 싸여졌다.

보자기의 보존상태는 청동합보가 가장 좋지 않으나 보존처리를 한 후라 형태는 파악할 수 있으며, 은합고임4도 剝落된 곳이 많으나 역시 보존처리를 하여 보강한 상태이다. 나머지 10점은 곳곳에 색이 바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본래의 색상도 유지하고 있다.



<도 1> 사리장엄구에 사용된 보자기
(은합에 싸인 보자기를 풀고 있다.)



<도 2> 금합보
(금합에 싸인 보자기를 풀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내용>

사리기를 싼 보자기는 모두 12점이며 청동합을 싼 청동합보 1점, 은합을 고이는데 사용된 은합고임보 4점, 은합보 4점, 금합보 2점, 그리고 사리호보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합보는 홀으로 제작되었고, 은합고임보는 3점이 홀보자기이고 1점만이 겹보자기이다. 은합을 싼 은합보자기는 모두 겹으로 지었으며, 금합보 2점 중 1점은 홀보자기이다. 은합보4와 은합고임4의 2점을 제외하고 모두 한쪽 모서리에 길게 끈이 달려있다.

보자기의 크기는 안쪽의 장엄구를 싼 것이 대체로 작으며 바깥쪽의 장엄구를 싼 보자기의 크기가 커서 청동합보가 63×62.5cm로 가장 크다.

보자기의 재질은 紋緞과 織金의 고급 견직물이 사용되었다. 문단은 繡子織으로 제작한 견직물의 일종으로 무늬가 施紋되어있는 직물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보자기에는 주로 鳳凰, 龍, 蓮花蔓草紋, 寶紋 등의 길상무늬가 주를 이룬다. 직금은 重組織의 직물로 金銀絲로 무늬를 시문하는 최고급의 직물이다.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보자기 가운데 은합보3과 은합고임1이 직금인데 능직의 바닥조직에 능직으로 무늬를 시문한 織金綾이다. 은합보3은 地紋인 사합여의 형태의 구름무늬 위에 撚金絲를 사용하여 喜와 卍을 시문하였다. 은합고임1의 地紋은 한 쌍의 봉황이 마주 보며 주위에는 보상화와 卍자가 여백을 채우고 있는 무늬이며, 봉황이 마주보는 곳에 撚金絲로 喜자를 시문한 화려한 직물이다.

보자기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특징>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는 조성된 연대가 확실하며 봉안이후 유물의 손상이 전혀 없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2006년 낙산사에서 사리장엄구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조사할 당시의 상황을 사진과 비디오 자료로 남겨놓아 장엄구의 복장 순서, 종류 등을 알 수 있으며 보자기도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의 가운데 보자기 12점은 모두 견직물로 제작되었으며, 장엄구의 크기에 따라 보자기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리구의 봉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자기는 군데군데 변색되거나 바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직물의 본래 색상을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근간 탑이나 불상에서 복장유물이 꾸준히 조사되고 있으나 끈이 달려있는 보자기는 많지 않은데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보자기는 10점에 한 줄로 된 끈이 달려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복장 보자기 가운데 끈이 달린 것은 수국사 아미타불의 복장 보자기 3점(1562)이 있는데 한쪽 모퉁이에 반으로 접은 가는 끈이 달려있다.

겹보자기는 대체로 좋은 직물로 만든 면을 겹으로 하며, 끈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끈을 달린 면이 겹으로 보고 있다. 보자기에 물건을 쌀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자기의 안에다 물건을 놓고 보자기의 겹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싸게 되는데 낙산사의 보자기 가운데 은합보 1과 2, 은합고임1~3의 5점은 보자기의 안쪽이 겹으로 드러나도록 장엄구를 썼다. 은합고임1~3은 홀보자기이므로 가장자리의 바느질한 부분이 겹에서 보인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 보자기는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색상, 직조기법 등 직물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17세기의 직물문화를 알 수 있으며 종교적인 용도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보자기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문헌자료

박윤미, 2008, 「수국사 불복장 섬유류에 관한 고찰」, 『강좌미술사』 31호, 한국 불교미술사학회, pp.177-203

○ 기 타

2005년 4월 5일 낙산사의 큰 화재로 주위의 수목이 전소되면서 경내 空中舍利塔(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이 영향을 받아 각부 石材에 다소 손상이 보이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보존수리를 진행하였다.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기울어진 사리탑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옥개석을 해체하던 중 탑신석 상면 중앙의 圓形 舍利孔(직경 23cm, 깊이 17cm)내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를 수습하여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보존처리

를 의뢰하였다. 보존처리작업이 완료된 사리장엄구 가운데 비단보자기와 白紙朱砂文書 등은 완전한 보관을 위하여 인근의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수장고에 위탁 보관하고 있으며, 금속제 사리기와 호박사리병 및 사리 1과는 낙산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는 조성연대가 확실하며 봉안이후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사리탑에 사리가 봉안된 형식을 알 수 있다. 보자기는 장엄구의 크기에 따라 보자기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리구의 봉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자기의 한쪽 모퉁이에 끈이 달려있는데 이러한 끈 달린 보자기가 조사된 예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이 섬유류 유물이 장기간 보존되기 어려운 자연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낙산사 사리장엄구의 보자기는 비교적 상태가 좋고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직물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불교의 장엄의식에 보자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 보자기의 형태를 알 수 있어 민속적, 복식사적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낙산사 공중사리탑 사리장엄구의 보자기는 일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 현 상

2005년 4월 5일 낙산사의 큰 화재로 주위의 수목이 전소되면서 이 공중사리탑도 영향을 받아 표면에 다소 손상을 입었다. 공중사리탑에 대한 보수는 2006년 4월 28일에 실시되었는데, 지붕들을 해체하던 중 球形 탑신석 상면에 마련된 깊이 17.0cm 지름 23.0cm 크기의 원통형 사리공 내에서 노란색 비단보자기(황초폭자)에 쌓여 있던 사리장엄구 일괄이 발견되었다.

사리장엄구의 구성은 탑신석에 마련된 원통형의 사리석함, 동함, 은동함, 금동함, 호박제로 만든 사리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견 당시 사리함들은 각기의 비단보자기에 싸여 보호되고 있었고, 비단보자기들은 다른 지류문화재와 함께 모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존처리를 마친 상태이다. 호박제 사리호 안에는 흰색 명주솜으로 감싼 유백색의 사리 1과가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별도 보관중이다. 특히 동제사리함 내에는 사리탑조성발원문과 함께 불상복장 체진언이 납입되었다. <사리탑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들 사리장엄구들은 康熙 31년 壬申(1692, 숙종

18)혜에 납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사리장엄구의 가장 바깥 쪽에 위치한 동제외합은 높이 12.5cm 지름 15.2cm로 지름이 넓은 납작한 주발형태를 띤다. 뚜껑은 발견당시부터 찌그러져 있었고, 상면 중심에는 圓文을 얇게 돈을새김하고 측면에는 음각선을 돌렸다. 몸통 부분에는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표면에 단조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주물기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제외합 안에 납입된 은제합은 높이 9.0cm 지름 8.2cm로 길쭉한 주발형태이다. 은빛을 띠지만 재료의 강도가 단단한 것으로 볼 때 동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한 것으로 보인다. 동제외합과 마찬가지로 사리합의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문양이 없으며 오돌토돌한 미세한 단조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방짜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은제합 내에 납입된 금제합은 높이 6.0cm 지름 4.7cm로 은제합을 약간 축소해 놓은 듯 거의 같은 모습이다. 언뜻 표면의 색깔이 찬연한 금빛을 띠어 순금제로 보이지만, 몸체의 강도가 단단하여 동에 수은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한 금동제로 보인다. 표면에는 아무런 장식문양이 없으며 은합과 마찬가지로 방짜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붉은빛을 띠는 호박제 사리호는 향아리 형태로 꼭지가 달린 뚜껑이 있고, 발견 당시 명주 솜 위에 사리1과를 안치하였다고 한다.

동제합의 찌그러진 뚜껑과 표면 전반에 푸르스름하게 낀 청동 녹, 사리호 표면에 미세하게 가 있는 실금을 제외하면 사리장엄구의 보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동제합 내에서는 조성발원문(1장)과 眞言□種子(20매) 등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은 탑을 조성한 시기와 王室 삼전하의 수명장수와 나라의 태평을 축원을 시작으로 조탑에 참여한 대중과 시주자들을 명단을 朱書로 기록하고 法界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것을 서원하며 마무리하였다. 이 조성발원문을 통해 康熙 31年 壬申(1692)에 탑이 건립되었고 사리장엄구도 이 때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진언과 종자들은 직사각형의 종이에 주서로 내려 썼고, 漢字로 제목을 먼저 적고 줄을 바꿔 범자로 내용을 적었다. 대부분 『조상경』 불상복장과 관련된 것들이다. 납입된 진언과 종자를 정리하면, <五寶眞言, 五藥眞言>, <五時花眞言>, <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 <五香眞言>, <五傘[蓋]眞言>, <眞心種子>, <五菩提樹葉眞言>, <五輪種子>, <如來眞實相觀想眞言>, <東方瑪瑙寶瓶眞言, 南方摩尼寶瓶眞言>, <准提九字眞言, 能消定業呪>, <簡次外書四方眞言>, <五穀眞言, 五吉祥草眞言>, <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 <秘密悉地, 入悉地, 出悉地>, <五色絲眞言, 五黃

眞言>, <五色絲眞言>, <列金剛王如來>, <西方[珊瑚]寶瓶眞言, 北方琉璃寶瓶眞言>, <中方水晶寶瓶眞言> 등 20매이다.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사리호	호박	1	1692년경	높이 3.0 입지름 1.2 밑지름 2.2	*사리호 내 명주솜 위에 사리1과를 안치하였으나, 지금은 별도 보관 중이다.
2	금동합	금동	1	1692년경	높이 6.0 지름 4.7	*뚜껑은 발견당시부터 찌그러져 있었음.
3	은동합	동(수은아말감)	1	1692년경	높이 9.0 지름 8.2	
4	동합	동	1	1692년경	높이 12.5 지름 15.2	
5	사리탑조성발원문	종이	1	1692년	폭27.5 길이 222.0	*4장이 연결되어 발견되었으나 보존처리 과정에서 4장으로 분리하여 보관중이다.
6	제진언	종이	20	1692년경	26.3~28× 8.5~11	1매에 1또는 2~3진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7	보자기	비단	12	1692년경		
계	7건 37점					

○ 문헌자료

김창균, 「낙산사 공중사리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에 대한 고찰」,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소장문화재 포럼-』, 2009.

박상국,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사리신앙과 봉안 문서」,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소장문화재 포럼-』, 2009.

○ 기 타

숙종 18년(1692) 寫, 白紙 朱砂 書, 낱장 4장으로 되어 있다. 처음 나올 때는 이어져 있었는데, 상하 폭이 27.5cm이고 길이가 222cm에 71명의 시주자 명단이 세로로 필사되어 있다. 지금은 4매가 각각 분리되어, ①27×57cm, ②27.5×56cm, ③26.6×56.6cm, ④ 28×58.2cm로 되어 있다.

①

康熙三十一年龍集壬申(1692)六月初十日

奉祝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天下泰平法輪轉
施主崔來泰
施主芳名于后
供養兼普施大施主金有福
供養兼普施大施主比丘祖訓
供養兼普施大施主比丘德贊
鉢物大施主 金得京
供養兼普施大施主金氏月眸
普施施主崔氏究芝
普施施主李氏日介屎
供養施主李氏有德
供養施主比丘 七浩
普施施主 金愛龍
供養施主 張義演
普施施主 安進發
普施施主 崔萬峻
普施施主 李貞田

②

供養施主 比丘 自悟
普施施主 李斗益
普施施主 崔承立
供養施主 馬推悅
米醬施主 金先立
米醬施主 李武龍
普施施主 李承立
普施施主 李還龍
供養施主 李臥龍
供養施主 金得仁
普施施主 李香日

供養施主 比丘 玄侃
供養施主 比丘 德悅
普施施主 金天伊
普施施主 李**宝**(寶)易
普施施主 李萬順
供養施主 吳論奉
供養施主 比丘 雙勒
供養施主 比丘 六臧
供養施主 李萬吉
供養施主 李泰植
供養施主 李泰吉
普施施主 黃稀吉
普施施主 吳道承

③

普施施主 李**鋏**
食鹽(鹽)施主 梁萬雄
比丘 性峻 李奉日 金世俊 林氏壬辰 崔麩暹
鋏(鐵)物施主金男
施主
方武立
比丘 筌蘭
比丘 法曇
比丘 德徹
斗天
敬岑冲順
普施施主 金戒承
性憐
朴千世
供養施主 蔡驗金
尹以賢
施主

尹重賢

金起賢

金天立

崔應尙

比丘厚宗

普施施主李日賢

④

供養施主朴日龍

刻字比丘義澄

施主 李喜安 朴已立

普施施主 林泰奉

普施施主李時韓

明心保体(體)

炭來往李奉立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2) 洛山寺 大衆秩(8.4×56.9cm)

山中碩德

玄輪 法坦 懷靈 覺方 戒憲 信仁 斗莫 妙根 慧機 一眞 義能 義的

持殿 救淑 德玲

道人秩

勝悅 守日 法雷 故(歸)岩 釋含 戒察

姜例善 趙應龍 金永善 居士信目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汝衆生皆共成佛道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낙산사 공중사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발원문을 통해 1692년에 탑의 건립과 함께 납입되었음을 알 수 있어 조선후기 사리장엄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사리장엄구들은 전통적인 법식에 따라 동합-은합-금합-사리호 순의 4겹 차림으로 되어 있다. 사리장엄구는 표면에 장엄이 전혀 없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어 공예사적으로나 미술사적인 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조로움을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 겹보자기로 감싸 보완하였고, 불복장 의식을 사리장엄 의식에 접목시켜 마무리한 사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사리탑이 1692년이라는 절대연대를 가진 승탑 형태의 사리탑으로써 造塔 기록이 부족한 조선후기 승탑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한편 사리탑의 건립사유를 적은 사리탑비도 현존하는데, 탑비는 자연석 기단 위에 방형의 비신과 구름문을 중첩한 머릿돌을 놓은 단순한 형태를 띤다. 이로써 낙산사해수관음공중사리탑은 사리장엄구와 사리탑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리장엄의식의 일단면을 또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사리장엄구 일괄은 사리탑□비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명칭은 “향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로 하면 적당할 듯하다.

□

1.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팔각당형(八角堂形) 승탑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하대석(下臺石), 중대석(中臺石), 상대석(上臺石)으로 구성된 기단부에는 안상, 태극, 연꽃잎 등의 무늬가 장식되고 탑신부는 구형(球形)의 몸체와 팔각 옥개석(屋蓋石)으로, 상륜부(相輪部)는 길고 큼직하게 구성되어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사리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특히 이 사리탑은 인근에 세워져 있는 탑비에 의하면 조선 숙종 9년(1683)에 흥련암에서 도금불사를 하던 중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지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어서 이에 석겸(釋謙) 등이 탑을 짓고 사리를 봉안하는 데 9년이 걸렸다는 조성기가 기록되어 있음.

3. 따라서 이 사리탑은 조선 숙종 18년(1692)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의 석조문화재에 나타나는 문화 예술적 특징의 기준치가 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이미 1982년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된 바 있음.

4. 또한 사리탑비는 2년 뒤인 1694년에 세워졌는데 글씨는 춘천부사를 지내고 훗날 형조판서까지 오른 조선시대 문신이며 서예로도 이름을 얻은 이현석(李玄錫, 1647~1703)의 작품인 동시에 낙산사 공중사리탑의 중요한 조성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음.

5. 그 후 2006년 4월에 이 사리탑의 보수공사 도중 탑신부 안에서 금, 은, 동합 등 각종 사리기와 비단보자기, 사리봉안기 등의 지직류 등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고 사리탑비와 일치하는 사리봉안문이 확인되어 동 사리탑, 탑비 그리고 사리장엄구 등 일련의 문화유산이 매우 높은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음이 재평가된 바 있음.

6. 이에 낙산사 공중사리탑, 비 및 사리장엄구 등 일련의 유물은 1987년에 지정된 보물 제 928호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 및 사리장엄구의 예에 따라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보존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

○ 현 상

1.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소재하고 있는 낙산사 경내의 해수관음상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동남쪽 능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수관음상의 정면 일직선상에 세워져 있다. 그 위치로 보아 낙산사의 전체적인 지형과 동해바다를 고려하여 현 위치에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의 경사면을 일정한 넓이로 깎아 대지를 조성한 후 사리탑이 건립되었으며, 기단부-탑신부-상륜부가 결실이나 큰 훼손없이 최초 건립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 사리탑은 낙산사가 2005년 4월 동해안 일대에 번진 커다란 산불로 대부분 소실되는 비운을 당했을 때 화마를 겪기도 했다. 당시 산불은 낙산사 경내의 전각과 동종 등 사찰 가람 대부분을 소실시키고, 흥련암 50m 정도의 언덕까지 불길이 번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다행히 흥련암까지는 화마가 번지지 않았다. 또한 사리탑은 산불로 화마를 입어 약간의 균열이 생겼지만 파손이나 훼손까지는 이르지 못해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사리탑은 산불이 나기전부터 옥개석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도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큰 산불 이후 낙산사 중창 및 주변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리탑도 보수 정비가 실시되었는데, 2006년 4월 28일 오전 9시 30분경 사리탑을 보수하기 위하여 해체하던 중 탑신석 상부에 마련된 원형 사리공에서 사리를 비롯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인근에 세워져 있는 海水觀音空中舍利碑와 연관된 사리탑으로 비문에 의하여 조성 경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화마를 입기 전 모습



화마를 입은 직후 모습



보수 정비된 모습

2. 海水觀音空中舍利碑는 관음상을 모신 법당의 중건 사실과 사리탑을 건립하게 된 연기를 기록한 석비로 동해바다와 인접하여 있는 흥련암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왼쪽 편에 바다를 향해 세워져 있다. 현재 자연석을 대석으로 삼아 비신을 삽입 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비신은 일부 훼손과 이끼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최초 건립 당시의 모습을 완연하게 유지하고 있다. 비신의 앞면, 뒷면, 측면에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비신 앞면은 비명과 관련 사실 기록이 잘 남아있고, 후면과 측면에는 후원자와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각자되었다. 비신 상부에는 전체적인 형태가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 蓋石이 올려져 있는데, 화형을 이루고 있어 연화문을 형상화시켜 치석한 것으로 보인다. 개석의 좌우를 넓게 하여 말린 형태로 치석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여의두문 형상을 이루고 있다.



3. 舍利莊嚴具는 2006년 4월 28일 오전 사리탑의 보수 정비를 위한 해체 과정에서 옥개석을 들어 올린 후 원구형 탑신석 상부에 마련된 원형 사리공에서 발견 수습된 것이다. 사리장엄구는 사리탑 조성과 함께 봉안된 것으로 3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였다. 또한 사리를 비롯한 장엄구 일체가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의례에 따라 봉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최초 봉안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리장엄구는 총 9종 42점으로 사리 1과, 금제사리합 1점, 은제사리합 1점, 동제사리합 1점, 호박사리호 1점, 백지주사문서 5장, 백지주사서와 체진언 19장, 청색 유리편 1점, 금속편 1점 등 다양한 유물들이 봉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리장엄구를 감싸고 있었던 보자기 등 다양한 직물류가 수습되었는데, 직물들의 유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문양이 화려하여 당대의 직물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되었다.



○ 내용 및 특징

1. 洛山寺 空中舍利塔은 원위치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가 완연하게 보존되고 있다. 기단부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이 차례대로 결구되었는데, 1석으로 치석된 하대석은 평면 팔각으로 각 면에 2중의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 태극문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상면의 각 변과 모서리에 1판씩 도합 16판의 단엽 伏蓮을 장식하였는데 연판의 끝부분을 양쪽에 고사리문으로 장식하였다. 중대석은 상하부에 받침대와 괴임대를 마련하고 각 면의 모서리에 연주문 기둥을 돌을새김으로 세워 사각형으로 구획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면석부에는 여러 가닥의 돌을대가 말린 형태를 이룬 기하학적인 문양을 표현하였다. 기하학적인 문양은 원형을 말린 형태를 이루고 있어 옷감에 수를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상대석은 1석으로 치석된 평면 팔각형으로 하부에는 16엽의 양련문이 표현되고, 상부는 탑신석을 받치기 위하여 높고 넓게 마련되었다. 상대석 상부는 상하부에는 괴임대를 마련했으며, 모서리에는 연주문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4엽형의 안상을 새긴 후 범자 1자씩을 음각했다. 범자는 총 8자인데 六字大明王眞言과 淨法界眞言을 새겨 부처님에 대한 귀의와 함께 사리에 대한 신앙심과 신성함을 표현하였다.

탑신석은 상하부가 일정한 너비로 절단된 원구형으로 가운데가 볼록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하부에는 선조로 연화문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화문형 장식이 있다. 탑신석 상부에는 원형의 사리공을 시공하여 사리장엄구를 봉안하였다. 옥개석은 하부의 탑신석과 맞닿는 부분에 1단의 원형 받침단을 마련하고 모서리에는 추녀를 번안 표현한 돌을대가 처마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다. 처마부는 일정한 높이로 치석하였으며, 모서리 합각부는 살짝 들어올려 반전을 이루게 하여 전체적으로 경쾌한 이미지를 주도록 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했고, 합각부는 뾰족하게 치석하여 마루부가 형성되도록 했다. 옥개석 상부에는 8엽의 복련문을 장식하여 화려한 인상을 주도록 했으며, 그 위에 원형 연주문을 돌려 상륜부의 받침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상륜부는 하부에 연화문이 장식된 원형 복발형 대석을 마련한 후 연주문과 원형 받침대를 차례대로 마련한 후 다시 연주문을 새기고 연화문이 감싼 보주석을 올려 마무리하였다.

사리탑은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장엄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연화문 표현 기법과 기하학적인 문양의 구성, 안상의 표현기법, 범자문 음각, 상륜부의 구성 등이 조선후기 성행한 표현 기법과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불사리를 봉안한 조형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도(승탑) 양식을 채용한 보기도문 사례에 속한다. 부도 양식을 채용한 불사리탑은 고려말기 건립된 범주사 세존사리

탑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건립된 회암사지 사리탑,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 건봉사 치아사리탑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위 부도형 불사리탑이 조선시대 들어와 건립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리신앙의 성행에 따라 불사리탑의 건립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었고, 깨달은 승려의 경우 부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佛格과 僧格의 일치 인식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낙산사 공중사리탑은 조성 연유와 시기를 전해주는 사리탑비가 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海水觀音空中舍利碑는 조선후기 성행한 석비 양식을 보이고 있다. 조선후기는 묘비, 신도비, 사적비 등 무덤과 사찰관련 석비의 건립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석비 양식이 적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대석-비신-개석을 올리는 간략화된 양식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 낙산사 海水觀音空中舍利碑도 간략화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조선후기 일반화된 석비 양식을 보이고 있다. 대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자연석을 활용하여 비신을 고정시켰으며, 비신은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명문을 정연하게 음각하였다. 비신 앞면 상부에는 전서로 비명을 좌서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정자체로 정연하게 명문을 새겼다. 蓋石은 독특한 형식으로 치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화형을 이루고 있으며, 좌우를 넓게 하면서 말린 형태로 치석하여 여의두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碑文에 의하면 공중사리탑비는 1694년 조선후기 문신이었던 李玄錫(1647-1703년)이 지었다. 李玄錫은 본관은 全州, 호는 游齋 또는 壽春居士로 불교계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芝峯類說』을 지은 유명한 실학자 李睟光의 증손이며, 李尙揆의 아들이다. 그리고 비문은 내용상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었는데, ① 낙산사가 자리한 關東지방의 勝景(我東…八景) ② 낙산사의 寺格, 관음신앙에 얽힌 영험(而洛山寺…有靑雀飛鳴焉) ③ 공중에서 사리가 나타난 이적(後六十五年癸亥…乃於翌歲癸酉夏) ④ 사리영험에 대한 의견(踰大嶺…遂以斯說 應謙之請) ⑤ 공중사리탑 건립에 대한 찬미(仍系以銘曰)이다. 비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洛山寺觀音空中舍利碑銘并序」

我東 以山水勝 名天下 而嶺東爲一國之最 嶺東稱八景而 洛山寺尤著聞 譚者 或以冠之 前輩之敘述備矣

寺之靈跡甚棠 而觀音窟極奇詭 義相元曉輩所云 親拜眞身者也 而龍珠翠鳥之異 文士名禪之記 固有不可誣者云 窟前有觀音像妥奉之殿 重建於萬曆己未 上樑日 有靑雀飛鳴焉

後六十五年癸亥 又以金像蠟那改塗而新之 于時祥光價氣 馥郁盈室 一顆明珠 自空而

隕于卓 淨如琉璃 寶輝晶瞬 緇徒咸聚而歎曰 此窟之有此祥 古已再 而今三之 豈不休哉 比丘釋謙等 發大願 造石塔 據窟之頂 以藏神珠 越九年工始訖 乃於翌歲癸酉夏 踰大嶺 走數百里 乞銘於壽春居士 居士讀記而一笑 佛其靈 怪矣哉 夫佛之爲異端也 今不待辨說而明 然其長亦有不可沒也 余嘗妄謂佛氏 夷狄之聖者也 彼其生於左衽之鄉 心切救世之願 憫其殘暴相屠也 則教之以慈悲不殺 憐其貪婪自私也 則喻之以舍己濟衆 惻其憑生營求也 則導之以空寂清虛 其救世之意也 迺其俗褊塞蠢愚 不可以言語曉也 強悍跋扈 不可以理義勉也 必有驚世絕倫之行 神異譎怪之術 使之恐動而駭惑也 然後我之教可假而行也 是以特操則出家辟粒 光華則色相眩滅 而頑兇悖肆之流 始乃敬我如神明 依我如父母 匍匐而歸之矣 其爲術也太苦 而其心亦勤矣 倘使進乎中國 卽其道未必然也 韓子惜 其不幸而不出於三代之前 眞知言也 以茲論之 詎非夷狄之聖者歟 至若借其緒餘 以誑誘華夏之民 此自其徒之失 而非佛氏之本旨 是則其教其法 縱於吾人無底用 而其救世之意 亦宜知道者攸怨也 或曰 子言亦通 第其所稱舍利者 豈君子之可語也哉 曰 此亦一理也 昔有女子繫情船上賈 意不遂而病死 火其屍 當心得青瑩珠 隱然有乘船樣 其父異而收之 商客後至 聞而請見 淚滴而珠銷 此非誕也 心神之結而精氣自聚也 人之腸胃不產石 而病有石瘕石淋 惡氣叢而成石 秀氣鍾而成珠 顧何二致哉 況學禪者澄心息慮 聚精會神 一游天君於虛明靜潔之域 其蘊蓄而爲奇珍也 曷足訝焉 客點頭而退 遂以斯說 應謙之請

仍系以銘曰

佛本無言 現珠著玄 珠亦藏光 借文以宣 文之懼泯 畫石壽傳 珠耶石耶 誰幻誰眞 辭乎道乎 奚主奚賓 於焉得之 衆罔有神

嘉善大夫江原道防禦使春川都護府使李玄錫撰并書篆 甲戌五月日立

海水觀音空中舍利碑의 비문에 의하면 1683년 홍련암에서 개금 불사를 모실 때 서기가 가득하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떨어졌는데, 유리와 같이 광채가 났다고 한다. 이에 釋謙 등이 대원을 발하여 탑을 쌓고 神珠를 간직했다고 한다. 따라서 1683년 사리가 출현하여 모셨으며, 사리탑의 건조는 1692년에 이루어졌으며, 1694년 사리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海水觀音空中舍利碑는 공중사리탑과 함께 한 쌍으로 건립된 석비로 공중사리탑의 조성 연유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 공중사리탑과 함께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舍利莊嚴具는 사리 1과, 금제사리합 1점, 은제사리합 1점, 동제사리합 1점, 호박사리호 1점, 백지주사문서 5장, 백지주사서와 체진언 19장, 청색 유리편 1점, 금속편 1점 등 총 9종 42점으로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또한 사리장엄구를 감싸고 있었던 보자기 등 다양한 직물류가 수습되었다. 금제사리합 안에는 비단 1점으

로 싼 紫朱色 琉璃製 圓形의 舍利壺를 놓고 그 안에 불사리 1과를 흰색 명주 솜 보료 위에 봉안하였다. 그리고 은제사리합 안에는 두 겹의 푸르고 누런 색색의 길상문과 卍자 등 여러 가지 무늬를 장식한 비단으로 싼 원형의 금제합을 안치하고 주변에 다라니가 있다. 동제사리합은 청록의 녹이 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한지에 붉은 글씨로 쓴 緣記, 곧 발원문이 수습되었다. 발원문은 1692년에 지은 것으로 크기는 너비 27.5cm, 길이 222cm이다. 주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康熙三十一年龍集壬申六月初十日

奉 祝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天下泰平法輪轉

施主 崔來泰

施主 芳名于后.....

이와 같이 사리장엄구도 발원문에 의하여 구체적인 조성 시기를 알 수 있고, 함께 수습된 직물류는 복식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문헌자료(없을 경우 생략)

「洛山寺觀音空中舍利碑」

鄭永鎬, 「洛山寺 空中舍利塔의 舍利莊嚴에 대하여」, 『文化史學』 25호, 한국문화사학회, 2006.

申大鉉, 「洛山寺 空中舍利塔을 통해 본 空中舍利塔의 건립 문제 및 舍利莊嚴 고찰」, 『文化史學』 27호, 한국문화사학회, 2007.

낙산사, 『낙산사 화재 4주년 회고와 전망』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붙임>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의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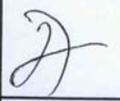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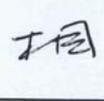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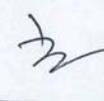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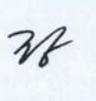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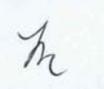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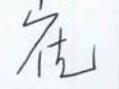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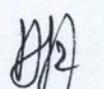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	檢 討 事 項
의결연월일 2011년 7월 21일	

37. 양양 낙산사 공중사리탑·사리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보물 지정

◦ 가 결

의결정족사항	출석(9명), 찬성(9명), 반대(명), 기권(명) / 제척 등 (명)
공개 여부	공 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제1호 <input type="checkbox"/> 제2호 <input type="checkbox"/> 제3호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4호 (사유 :)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의2(회의록의 비공개)	

《특기사항》

幹 事	委員長 朴彦坤	李相弼	金慶彪	朴耕立	張錫河	徐萬哲
						
書 記	鄭惠燐 (眞明)	金奉建	崔聖銀	鄭明燮	洪升在	
						

2.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七~十九)

가. 검토사항

분류두공부시언해 권 17~19”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5.27)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5.1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七~十九)
- 소유자(관리자)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수 량 : 3권 1책(111장)
- 규 격 : 세로 27.5 × 가로 18.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중 : 금속활자본 을해자(金屬活字本 乙亥字)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489년(성종 20) 이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중국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成宗 20(1489)년 以前에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屬活字本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國語史 研究資料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初期 正音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翻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表現과 15세기 國語構文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學術的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이미 2008년 1월-2월의 1개월간에 걸쳐 脫酸處理와 알칼리액 도포 등을 통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나, 다시금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중국 당나라 시인 杜甫(712~770)의 시집을 조선 성종의 명으로 柳允謙 등이 한글로 번역하고 편차하여 乙亥字로 인출된 전 25권 가운데 권17~19의 3권1책이다. 권17의 앞부분에 일부 손상되어 있고 補字가 섞여 있기는하지만 그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또한 시문에 능한 학자들이 국역에 참여하여 당시의 국어사 및 한시번역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권차가 다른 동일본 권13(보물 제1051-1호, 경기도박물관, 1990년 지정), 권11~12(보물 제1051-2호,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년 지정), 권21(보물 제1051-3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년 지정) 등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권17~19도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杜詩諺解』는 1481년(성종 12)에 성종의 명으로 柳允謙 등이 杜甫의 詩를 언해하여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언해 당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수많은 전거를 참고하여 번역한 책으로 당대의 뛰어난 학문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해진 언해 문장도 수려하여 문자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자료에는 15세기에 주로 많이 간행된 불경언해 자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國語史 研究資料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으로 우리말 表記法과 음운, 文法 및 어휘사 등에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翻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表現과 15세기 國語 構文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學術的 가치도 매우 높다.

이 자료와 동일한 版本들인 卷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卷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卷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등이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토지박물관 소장본인 『杜詩諺解』 卷 17 18 19는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과 卷次가 다를 뿐만 아니라, 國語史와 文學 및 문헌학 研究에도 귀중한 資料이다.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중국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성종 20년(1489) 이전에 乙亥字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한글의 쓰임에 있다. 그 간행시점이 15세기이므로 그 당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인쇄사적으로도 금속활자인 을해자 뿐만 아니라 을해자 한글 금속활자의 쓰임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에 쓰인 한글 금속활자의 실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는 국어사 연구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으로 한글 창제 이후 최초의 시가 언해서로서 의미가 크며, 번역문학 및 국어사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諺解文에는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의 한시번역의 연구에는 물론 국어학의 연구에도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되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7·18·19 / 杜甫(712~770) 著 ; 柳允謙(1420~?) 等受命諺解. — 金屬活字(乙亥字)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20(1489) 以前 刊行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3×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5×22.0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杜詩

卷首題: 分類杜工部詩

卷末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內容: 一卷17. 鳥(古詩; 鳳凰臺 朱鳳行 杜鵑 杜鵑行 杜鵑行 義鵑行 呀鵑行 王兵馬使二角鷹·見王監兵馬使說近山有白黑二鷹羅者久取竟未能得王以爲毛骨有異他鷹恐臘後春生鶩飛避暖勁翮思秋之甚眇不可見請余賦詩二首 催宗文樹雞柵 등 11首, 律詩; 縛雞行 雞 歸鷺 燕子來舟中作 雙燕 鸚鵡 子規 百舌 白鳧行 歸鴈二首 歸鴈 孤鴈 歸鴈 官池春鴈二首 舟前小鵝兒 得房公池鵝 鷓鴣 花鴨 鷗 등 21首), 獸(古詩; 遣興二首 沙苑行 瘦馬行 驄馬行 高都護驄馬行 李鄴縣丈人胡馬行 惜別行送劉僕射判官 등 8首, 律詩; 秦州雜詩一首 玉腕騮 房兵曹胡馬 病馬 鬣 猿 從人覓小胡孫許寄 등 7首), 蟲(律詩; 促織 螢火·見螢火 등 3首), 魚(律詩; 黃魚 白小 등 2首). 一卷18. 花(古詩; 歎庭前甘菊花 江頭五詠二首見鳥門 丁香 麗春 등 3首, 律詩; 梔子·風雨看舟前落花戲爲新句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 江梅 早花 花底 江畔獨步尋花七絕句 등 13首), 草(古詩; 除草 1首, 律詩; 庭草·蒹葭 등 2首), 竹(律詩;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從韋二明府續處覓絲竹三數叢 苦竹 등 3首), 木(古詩; 古佰行 四松 病佰 病橘 枯櫻 枯柟 海棕行 7首, 律詩; 柳邊 高柟 嚴鄭公堦下新松得霑字 憑韋少府班覓松樹子栽 憑何十一少府邕覓檀木數百栽 樹閒 惡樹 등 7首). 一卷19. 投贈(古詩;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1首, 律詩; 贈韋左相二十韻 上韋左丞丈濟 遣悶奉呈嚴公二十韻 奉贈鮮于京兆二十韻 奉贈太常張卿垺二十韻 敬贈鄭諫議十韻 등 6首), 寄簡上(古詩; 寄韓諫議註 暮秋枉裴道州手札率爾遣興寄遞呈蘇渙侍

御 蘇大侍御訪江浦賦八韻記異 寄裴施州 鄭典設自施州歸 寄薛三郎中璩 ·
奉贈射洪李四丈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貽華陽柳少府 投簡成華兩縣諸子 ·
贈鄭十八賁 贈衛八處士 贈蘇徯 君不見簡蘇徯 贈李白 戲贈鄭廣文兼贈蘇
司業 戲贈二友 등 17首)

狀態: 多數張에 磨滅 汚損 切斷이 있음

保存處理: 2008年 1月-2月(1個月間, 脫酸處理 알칼리액 도포 등)

□ 現狀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弘文館의 典翰이던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成宗 20(1489)년 以前에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金屬活字本이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亭子洞 217번지의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의 소유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3cm 가로 14.6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22.0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의 보존상태는 多數張에 걸쳐 磨滅 및 切斷된 부분이 있으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에 의해 維持 管理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2월의 1개월간에 걸쳐 脫酸處理와 알칼리액 도포 등을 통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弘文館 典翰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여 25권으로 編次한 뒤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金屬活字本이다. 杜詩의 諺解는 成宗 12(1481)년 10월부터 시작하여¹³⁾ 늦어도 成宗 20(1489)년 이전에 완료되었던 듯하며, 乙亥字로의 刊行도 編次가 완료된 成宗 20(1489)년 以前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杜詩가 諺解되기 시작한 것은 世宗朝부터였다. 定宗朝에는 이른바 「杜詩三百選」이 편찬된 바¹⁴⁾ 있으며, 世宗 25(1443)년 4월에는 杜詩의 本文과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年 10月 26(壬申)日條.

御書講 講訖 侍讀官李昌臣啓曰 詞章 雖若不關於治國 中朝使臣 如張寧·祈順輩出來 則必與唱和 詞章不可視爲餘事 而不習之也 杜詩 詩家之祖 前司成柳允謙 傳受其父方善 頗精熟 請令年少文臣受業 上曰 可.

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定宗 2年 8月 4(丙申)日條.

御經筵 同知事李詹進曰 頃上欲覽古詩 爲人君者 亦不可不習也 昔漢高祖製大風歌 武帝製秋風詞 下及于隋煬帝 亦好詞章

극히 필요한 註釋을 언해하기 위한 原典의 편찬을 위하여 中外에서 杜詩에 대한 諸家의 註解를 구입하도록 下命¹⁵⁾하고 이른바 「纂註分類杜詩」가 편찬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檜巖寺의 주지인 卍雨(1357-?)에게 杜詩의 註解에 관하여 질의한 바¹⁶⁾도 있었다. 그러나 동년(1443) 7월에 가뭄이 들자 闕內에서 술(酒)의 사용을 금지한 것을 비롯하여 杜詩의 諺解事業도 중지¹⁷⁾시키고 말았다. 이어서 世祖朝에 이르러 세조 13(1467)년 6월에 문신 107인을 간택하여 「杜詩」 등을 나누어 주고 기한 내에 읽도록¹⁸⁾ 하는 등 杜詩에 대한 諺解事業의 필요성이 성숙됨으로써 마침내 成宗朝에 이르러 본격적인 杜詩의 諺解事業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杜詩의 諺解事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성종 12(1481)년 10월부터이다. 성종 12(1481)년 12월에 曹偉(1454~1503)가 쓴 <杜詩序>에 의하면 왕이 柳允謙(1420~?) 등에게 杜詩의 諺解를 下命함에 이를 寫成하고 繕寫하여 進奉하자, 왕이 자신에게 序文을 쓰도록 下命하였다¹⁹⁾는 기록을 통하여 종래 杜詩의 諺解事業은 성종 12(1481)년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동년(1481)에 金訥(1448-1492)이 쓴 <翻譯杜詩序>에는 몇 달이 걸려 제1권의 번역이 완성되어 繕寫하여 進奉하자 왕이 친히 翻譯을 검토한 후에 全體의 翻譯을 완료할 것을 下命하고 본인에게는 序文을 짓도록 下命하였다²⁰⁾는 기록이 있다. 金訥의

然忌上人之才 故殺薛道衡·王冑·鄭鼎 抄杜詩百首 蓋倣詩之三百篇也 乞於經筵并觀之.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25年 4月 21(丙午)日條.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 時 令集賢殿參校杜詩諸家註釋 會粹爲一故 求購之.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25年 4月 27(壬子)日條.

命檜巖住持僧卍雨移住興天寺 仍賜衣 令禮賓供三品之廩 卍雨及見李穡·李崇仁 得聞論詩 稍知詩學 今註杜詩 欲以質疑也.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25年 7月 18(辛未)日條.

上謂承政院曰 久旱不雨 無異於丙辰 天災至此 爲之奈何 畜穀之術 不可不慮 今請停治平要監撰集文臣供億 然累年所撰一朝停罷 事竟不成 誠爲不可 至如杜詩修撰等事 可罷也 然在公在私 食於國則一也 唯酒之糜穀不費 自今宮中勿許用酒 予若因病服藥之時則用之 此外雖冬月 不許進酒 闕內用酒 亦皆停斷 其他一應可減省者 其議啓之.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3年 6月 22(乙卯)日條.

傳于禮曹曰 今所揀文臣百七人 分授易·易學啓蒙·禮記·周禮·左傳·綱目·宋元節要·杜詩·李白·東坡·莊子·老子·列子 立期畢讀.

19) 曹偉 著, 「梅溪先生文集」, 卷4. 序. 「杜詩序」條.

詩自風騷而下盛稱李杜 然其元氣渾茫辭語艱澁 故箋註雖多 而人愈病其難曉 成化辛丑秋 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 若曰 杜詩 諸家之註詳矣 然會箋 繁而失之謬 須溪 簡而失之略 衆說紛紜 互相牴牾 不可不研覈而一 爾其纂之 於是 廣摭諸註 芟繁釐枉 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 逐節略疏 以便考閱 又以諺語譯其意旨 向之所謂艱澁者 一覽瞭然 書成 繕寫以進 命臣序 臣竊惟 詩道之關於世教也大矣 上而郊廟之作 歌詠盛德 下而民俗之謠 美刺時政者 皆足以感發懲創人之善惡 此孔子所以刪定三百篇 有無邪之訓也 詩至六朝 極爲浮靡 三百篇之音墜地 子美生於盛唐 能抉剔障塞 振起頽風 沈鬱頓挫 力去淫艷華靡之習 至於亂離奔竄之際 傷時愛君之言 出於至誠 忠憤激烈 足以聳動百世 其所以感發懲創人者 實與三百篇相爲表裏 而指事陳實 號稱詩史 則豈後世朝風詠月 刻削性情者之所可擬議耶 然則聖上之留意是詩者 亦孔子刪定三百篇之意 其嘉惠來學 挽回詩道也至矣 噫 三百篇 一刪於孔子 而大明於朱氏之輯註 今是詩也 又因聖上而發揮焉 學詩者 苟能模範乎此 臻無邪之域 以抵三百篇之藩垣 則豈徒制作之妙 高出百代而已耶 我聖上溫柔敦厚之教 亦將陶冶一世 其有補於風化也 爲如何哉 成化十七年十二月上澣 承訓郎弘文館修撰 知製教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承文院校檢臣曹偉 謹序.

20) 金訥 著, 「顏樂堂集」, 卷2. 雜著. 「翻譯杜詩序」條.

惟上之十二年月日 召侍臣若曰 詩發於性情 關於風教 其善與惡 皆足以勸懲人 大哉 詩之教也 三百以降 惟唐最盛 而杜子美之作爲首 上薄風雅 下該沈宋 集諸家之所長而大成焉 詩至於子美 可謂至矣 而詞嚴義密 世之學者患不能通 夫不能通其辭 而能通其訣者 未之有也 其譯以諺語 開發蘊奧 使人得而知之 於是 臣某等受命 分門類聚 一依舊本 雜采先儒之語 逐

<飜譯杜詩序>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성종 12(1481)년까지 杜詩의 諺解事業은 전체 25권 중 제1권이 완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종 13(1482)년 7월에 가뭄이 극심하여 副提學 柳允謙 등이 救荒을 위한 經費 마련책의 일환으로 「杜詩諺解」 등의 編纂과 刊行事業을 정지할 것을 청하여 允許됨으로써 중단²¹⁾되고 말았다. 그 뒤 「杜詩諺解」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내용은 기록의 미비로 분명하지 않으나, 「成宗實錄」의 성종 20(1489)년 8월에 日本國 使臣에게 「杜詩」를 下賜한 기록²²⁾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分類杜工部詩諺解」의 편찬과 간행은 늦어도 성종 20(1489)년 8월 이전에 완료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본문의 체제는 대개 漢詩 原文을 2句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雙行으로 註釋과 諺解를 달고 있다. 漢詩의 原文에는 口訣이 달려 있지 않으며 原文과 諺解門의 모든 漢字에는 漢字音이 달려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諺解文獻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註釋文에는 한글로 口訣이 달려 있다. 당시의 口訣書나 諺解書와 마찬가지로 이들 口訣에는 傍點을 表記하지 않았으나 註釋에 國語文章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만 傍點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杜詩諺解」는 正音을 창제한 이후 최초의 詩歌諺解書로서 독특할 뿐만 아니라, 杜甫의 詩 1,451수와 타인의 詩 16수를 합하여 총 1,467수를 諺解한 상당한 분량에 이르고 있어 國語史 研究資料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이다.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初期 正音의 특징을

句略疏 問亦附以己意 又以諺字譯其辭 俚語解其義 向之疑者釋 室者通 子美之詩 至是無餘蘊矣 凡閱幾月 第一卷先成 繕寫投進 以稟睿裁 上賜覽曰 可令卒事 仍命臣序之 臣於子美之詩 函芬矣 滅裂矣 何能措一辭於其間哉 然得罪詞林 不敢以不能爲解 則謹拜手稽首 謾言曰 臣竊觀子美博極群書 馳騁古今 以個儻之才 懷匡濟之志 而值干戈亂離之際 漂泊秦隴夔夔之間 羈旅艱難 忠憤激烈 山川之流峙 草木之榮悴 禽鳥之飛躍 千彙萬狀 可喜可愕 凡接於耳而寓於目者 雜然有動於心 一於詩焉發之 上自朝廷治亂之跡 下至閭巷細碎之故 咸包括而無遺 觀麗人行 則知寵嬖之盛 而明皇之侈心蠱惑於內 讀兵車行 則知防戍之久 而明皇之驕兵窮黷於外 北征書 一代之事業 而與雅頌相表裏 八哀紀 諸賢之出處 而與傳表相上下 謂之詩史 不亦可乎 而其愛君愛國之誠 充積於中 而發見於詠嘆之餘者 自不容掩 使後之人 有以感發而興起焉 此所以羽翼乎三百篇 而爲萬代之宗師也 然一語而破無盡之書 一字而含無涯之味 雖老師宿儒 有不能得其門而入 況室家之好耶 觀於八陣圖一詩 待子瞻之夢而後定 則其他蓋可知也 恭惟主上殿下潛心聖學 日御經筵 六經諸史 靡不畢究 又能留意於詩道有關世教 而特命詞臣 首譯子美之集 而千載不傳之祕 一朝瞭然如指諸掌 使人人皆得造其堂而嗜其藏也 噫 子美之詩晦而不明者 歷千有餘年而後 大顯于今 豈非是詩之顯晦 與世道升降 而殿下所以復掩前古 卓冠百王 振起詩道 挽回世教之幾 亦可因是以仰窺萬一也 學者於是乎章句以綱之 註解以紀之 諷詠以挹其膏馥 涵濡以探其闢奧 而必以稷契許其身 而以一飯不忘君爲其心 則子美庶幾可學 而辭語之妙 聲律之工 特其緒餘爾 將見廣載之歌 大雅之作 黼黻王道 賁飾太平 而大鳴國家之盛者 于焉輩出矣 何其盛也 若夫馳騫於風雲月露之狀 而求工於片言隻字之間而已 則其學子美亦淺矣 豈聖上所以開示學者之意耶.

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3年 7月 6(癸酉)日條.

弘文館副提學柳允謙等上劄子曰 臣等伏見聖上 留意經史 孜孜靡違 凡在見聞 莫不欣慶 但今年之旱 無異去年 連歲飢饉 近古未有 方務救荒之不暇 而如四傳·春秋·綱目新增·文翰類選·杜詩·李白詩·唐·學口訣 皆設局 而供億隨之 若論一日之費 則些少 積日計之 則乃活飢民之若干資 恐非今日之急務也 且綱目 朱文公一從春秋書法 片言隻字 皆寓褒貶 摭採諸儒之論 參酌而附 皆有深意存焉 誠千萬世之大典 不能贊一辭者也 今雖附入諸論 不無詳略重複之病 伏惟聖鑑停罷 臣等心有所懷 不能默默 傳曰 爾等豈以我之好學爲非哉 只爲供億之費耳 今從爾等之言停之 仍傳曰 前日命撰綱目新增者 以諸書汗漫 不能遍覽 故欲摭取諸論 以爲一書耳 撰後予獨覽之 勿頒于外.

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0年 8月 26(辛亥)日條.

禮曹啓曰 本國使臣求書冊 只與論語·孟子何如 傳曰 醫方所以活人也 今客人所索多 而只許此書 無乃不可乎 如得效方·東坡·杜詩·黃山谷·詩學大成等冊許之, 無乃可乎.

보여주고 있으며,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翻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과 15세기 國語構文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분량이 방대한 만큼이나 그에 따른 다양한 語彙를 보여주고 있다.

「杜詩諺解」는 通文館에서 1954~59년에 卷7 8 15 16 20 21 22 23 24 25 등을 영인한 바 있고 世宗大王記念事業會에서 1976~78년에 권10 11 14 15를 각각 영인한 바 있으며, 國語學會에서 1971년에 嘉藍 李秉岐(1891~1968)의 소장본 권6을 「國語學資料選集Ⅱ」에 影印한 바 있다. 한편 이들 影印本을 모아 1983년에 弘文閣에서 再影印한 影印本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杜詩諺解」는 전25권 중 권6 7 8 10 11 14 15 16 20 21 22 23 24 25 등 14권이며, 권1 2 3 4 5 9 12 13 17 18 19 등 11권은 알려지지 않았다.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卷17에는 鳥門 獸門 蟲門 魚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鳥門에는 <鳳凰臺> <朱鳳行> <杜鵑> <杜鵑行> <杜鵑行> <義鵑行> <呀鵑行> <王兵馬使二角鷹> <見王監兵馬使說近山有白黑二鷹羅者久取竟未能得王以爲毛骨有異他鷹恐臘後春生鶩飛避暖勁翮思秋之甚眇不可見請余賦詩二首> <催宗文樹雞柵 등 古詩 11首와 <縛雞行> <雞> <歸鶩> <燕子來舟中作> <雙燕> <鸚鵡> <子規> <百舌> <白鳧行> <歸鴈二首> <歸鴈> <孤鴈> <歸鴈> <官池春鴈二首> <舟前小鵝兒> <得房公池鵝> <鸚鵡> <花鴨> <鷗> 등 律詩 21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獸門에는 <遣興二首> <沙苑行> <瘦馬行> <驄馬行> <高都護驄馬行> <李鄴縣丈人胡馬行> <惜別行送劉僕射判官> 등 古詩 8首와 <秦州雜詩一首> <玉腕騮> <房兵曹胡馬> <病馬> <麕> <猿> <從人覓小胡孫許寄> 등 律詩 7首가 수록되어 있다. 蟲門에는 <促織> <螢火> <見螢火> 등 律詩 3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魚門에는 <黃魚> <白小> 등 律詩 2首가 수록되어 있다. 卷18에는 花門 草門 竹門 木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花門에는 <歎庭前甘菊花> <江頭五詠二首見鳥門> <丁香> <麗春> 등 古詩 3首와 <梔子> <風雨看舟前落花戲爲新句>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 <江梅> <早花> <花底> <江畔獨步尋花七絕句> 등 律詩 13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草門에는 <除草>의 古詩 1首와 <庭草> <蒹葭> 등 律詩 2首가 수록되어 있다. 竹門에는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從韋二明府續處覓籜竹三數叢> <苦竹> 등 律詩 3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木門에는 <古栢行> <四松> <病栢> <病橘> <枯櫟> <枯柟> <海棕行> 등 古詩 7首와 <柳邊> <高柟> <嚴鄭公堦下新松得霑字> <憑韋少府班覓松樹子栽> <憑何十一少府邕覓檜木數百栽> <樹閒> <惡樹> 등 律詩 7首가 수록되어 있다. 卷19에는 投贈門과 寄簡門(上)이 수록되어 있다. 投贈門에는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의 古詩 1首와 <贈韋左相二十韻> <上韋左丞丈濟> <遣悶奉呈嚴公二十韻> <奉贈鮮于京兆二十韻> <奉贈太常張卿垺二十韻> <敬贈鄭諫議十韻> 등 律詩 6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寄簡門(上)에는

<寄韓諫議註> <暮秋枉裴道州手札率爾遣興寄遞呈蘇渙侍御> <蘇大侍御訪江浦賦八韻記異> <寄裴施州> <鄭典設自施州歸> <寄薛三郎中璩> <奉贈射洪李四丈>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貽華陽柳少府> <投簡成華兩縣諸子> <贈鄭十八賁> <贈衛八處士> <贈蘇僎> <君不見簡蘇僎> <贈李白> <戲贈鄭廣文兼贈蘇司業> <戲贈二友> 등 古詩 17首가 수록되어 있다.

□ 特徵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전체 25권 중 권17·18·19의 3권 1책으로 乙亥字의 金屬活字本이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의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3cm 가로 14.6cm 内外이다. 界線이 있으며, 行字數는 8行 17字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22.0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多數張에 걸쳐 磨滅과 汚損 및 切斷된 부분이 있으며, 補字도 섞여 있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調査本과 동일한 版本으로 추정되는 권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1990), 권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2001), 권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2004) 등의 傳本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의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學術的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중국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成宗 20(1489)년 以前에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屬活字本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國語史 研究資料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初期 正音의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翻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表現과 15세기 國語構文의 여러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學術的 價

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이미 2008년 1월-2월의 1개월간에 걸쳐 脫酸處理와 알칼리액 도포 등을 통한 보존처리를 완료하였으나, 다시금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 및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근거 기준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版本으로 추정되는 권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1990), 권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2001), 권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2004) 등이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7·18·19는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제1051-1/3의 卷11~13 21과는 卷次가 다를 뿐만 아니라, 國語史 및 國語學 研究의 귀중한 文獻資料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書誌學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傳本이 드문 貴重本이다.

○ 문헌자료

杜甫 著, 柳允謙 等受命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7·18·19. 金屬活字(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 20(1489) 以前 刊行 推定]. 土地博物館 所藏本.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 編, <「分類杜工部詩諺解」 國家指定申請書 關聯書類>. 城南 : 土地博物館, 2008. (千惠鳳 辛承云 宋日基 諸教授의 調査內容)

杜甫 著, 柳允謙 等受命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3. 金屬活字(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 20(1489) 以前 刊行 推定]. 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所藏本.

杜甫 著, 柳允謙 等受命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12. 金屬活字(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 20(1489) 以前 刊行 推定]. 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所藏本.

杜甫 著, 柳允謙 等受命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 卷21. 金屬活字(乙亥字)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 20(1489) 以前 刊行 推定]. 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http://www.memorykorea.go.kr/>> 分類杜工部詩諺解'

○ 기 타

□ 其他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는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亭子洞 217번지의 韓國土地公社 土地博物館의 소유이며, 일찍이 購入을 통하여 收藏 管理해 오고 있다. 調査本「分類杜工部詩諺解」의 보존상태는 多數張에 걸쳐 磨滅과 汚損 및 切斷된 부분이 있으나, 2008년 1월~2월의 1개월간에 걸쳐 脫酸處理와 알칼리액 도포 등을 통한 보존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나. 그러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再補修와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 현 상

표지는 개장되었고 권17 앞부분 일부에 손상이 있다.

서지사항 :

杜甫(712~770) 著, 柳允謙(1420~?) 等受命 諺解.

乙亥字本. [成宗 20(1489) 以前].

3卷1冊. 四周單邊, 半郭 22×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楮紙. 線裝

表題: 杜詩

卷首題: 分類杜工部詩

卷末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 내용 및 특징 :

이 『分類杜工部詩諺解』는 당나라의 시인 杜甫(712-770)의 漢詩를 조선 성종 때 弘文館 典翰 柳允謙 등이 왕명으로 번역하여 엮어서 乙亥字로 인출된 전 25권 가운데 권17~19의 3권1책이며, 『杜詩諺解』로 널리 알려져 있다.

杜詩의 諺解 시기는 初印本の 曹偉(1454~1503)가 쓴 序文에 따르면 성종 12년(1481) 가을에 착수하여 그해 12월에 마치고 繕寫하여 올렸는데 그 다음해인 13년(1482) 7월의 筭子에 의하면 가뭄이 심하여 杜詩를 비롯한 다른 서적의 간인을 정지하고 그 비용으로 가뭄에 충당하자고 건의하였으니, 이 책의 편찬과 간행은 늦춰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成宗實錄』의 성종 20(1489)년 8월에 日本國 使臣에게 『杜詩』를 下賜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성종 20(1489)년 8월 이전에는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제는 杜詩 원문을 2句씩 中字로 실고, 주석문과 시의 언해를 雙行의 小字로

신고서 주석문과 본문 언해는 白圈으로 구분하였다. 내용은 주제 별로 분류하여 卷17은 鳥, 獸, 蟲, 魚 卷18은 花, 草, 竹, 木 卷19은 投贈, 寄簡 上 등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소재의 古詩와 律詩가 수록되었다.

이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성종대에 시문에 능한 학자들이 국역에 참여하여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등이 다른 한시를 능가하는 국어 한시로서 당시의 국어사 및 한시번역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을해자로 인출한 이 책의 초인본은 전25권 중 20권이 알려져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다. 이 권17~19의 印本은 補字가 섞여있고 권17의 일부 책장에 파손과 훼손이 있지만 그 전본이 희귀한 귀중본에 속한다. 권차가 다르지만 동일본으로 권13(보물 제1051-1호, 경기도박물관, 1990년 지정), 권11~12(보물 제1051-2호,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년 지정), 권21(보물 제1051-3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년 지정) 등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중국 당나라 시인 杜甫(712~770)의 시집을 조선 성종의 명으로 柳允謙 등이 한글로 번역하고 편차하여 乙亥字로 인출된 전 25권 가운데 권17~19의 3권1책이다. 권17의 앞부분에 일부 손상되어 있고 補字가 섞여 있기는하지만 그 傳本이 희귀한 귀중본이다.

또한 시문에 능한 학자들이 국역에 참여하여 당시의 국어사 및 한시번역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권차가 다른 동일본 권13(보물 제1051-1호, 경기도박물관, 1990년 지정), 권11~12(보물 제1051-2호,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년 지정), 권21(보물 제1051-3호,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년 지정) 등이 이미 지정되어 있으므로 권17~19도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문헌자료

杜甫 著, 柳允謙 等受命諺解,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7~19. [成宗 20(1489) 以前]. 土地博物館 所藏本.

千惠鳳 辛承云 宋日基,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7~19 국가지정신청서調查資料, 서울, 2008.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90 지정편)』, 서울, 1991.

□

○ 현 상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7 18 19 3卷1冊 27.5×22.0cm.

金屬活字本(乙亥字)

杜甫(712-770) 著 ; 柳允謙(1420-?) 等受命 諺解.

1481년(成宗 12) 刊行.

四周單邊, 半葉匡郭 : 18.3×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楮紙. 線裝本(改裝).

卷首題: 分類杜工部詩

表題: 杜詩

卷末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狀態: 多數張에 磨滅 汚損 切斷이 있음

토지박물관 소장본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1481년(成宗 12)에 乙亥字로 간행한 金屬活字本이다. 3권 1책본으로 冊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22.0cm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이는 종이도 사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결락된 부분은 보사되어 있다. 현재 보존상태는 多數張에 걸쳐 磨滅 및 切斷된 부분이 있어 補修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杜詩諺解』는 1481년(성종 12)에 성종의 명으로 柳允謙(1420~?) 등이 당나라 시인 杜甫(712~770)의 詩를 언해하여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권수제는 分類杜工部詩'인데, 언해가 되어 있으므로 흔히 줄여서 '두시언해'라 부른다. 서명의 分類'는 詩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편찬한 데서, 杜工部'는 두보가 工部員外郎의 벼슬을 한 데서 각각 유래한다. 世宗 때에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纂註分類杜詩』를 원전으로 하여 그 본문과 극히 필요한 주석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언해한 것이다. 이 책의 편찬 경위는 현전하는 重刊本 두시언해 卷1 앞에 실려 전하는 曹偉의 序文에 보인다. 그에 따르면 1481년 가을에 성종이 유윤겸 등에게 명하여 언해가 시작되었고, 책이 이루어지자 자기에게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한다. 서문을 쓴 일자가 1481년 12월이므로 이 때에 언해본의 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25권 19책(또는 17책)의 거질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世宗

代에서부터 杜詩에 대한 註解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文臣들 사이에 杜詩에 대한 공부 있었기 때문이다.

전질 25卷 가운데 卷1, 2, 4를 제외한 22권이公私의 도서관 및 개인 소장으로 현전한다. 현전 초간본들은 대개 낙장이 있거나 지질과 착목이 좋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卷17,18,19 1책도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하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卷6,7은 지질과 인면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글자를 옳고 내고 종이를 붙여 같은 활자로 補印한 교정본이다. 『杜詩諺解』 본문의 체재는 대개 한시 원문을 2구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쌍행으로 주석과 언해를 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한시 원문에는 구결이 달려 있지 않으며 원문과 언해문의 모든 한자에는 한자음이 달려 있지 않다. 이 시기에 간행된 다른 언해 문헌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석문에는 한글로 구결이 달려 있다. 당시의 구결서나 언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구결에는 방점을 표기하지 않았으나 插秧 모심 기라'(7:36b)와 같이 주석에 국어 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만은 방점 표기가 나타난다. 『杜詩諺解』는 한글 창제 이후 최초의 시가 언해서로서 독특할 뿐만 아니라, 杜甫의 詩 1,451수와 타인의 시 16수를 합하여 총 1,467수를 언해한 것이므로 분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사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현재 동일한 版本으로 추정되는 卷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卷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卷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등의 傳本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杜詩諺解』는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學術的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杜詩諺解』는 1481년(성종 12)에 성종의 명으로 柳允謙 등이 杜甫의 詩를 언해하여 을해자로 간행한 책이다. 언해 당시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수많은 전거를 참고하여 번역한 책으로 당대의 뛰어난 학문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언해된 언해 문장도 수려하여 문자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하는 작품이다. 이 자료에는 15세기에 주로 많이 간행된 불경언해 자료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들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 책은 國語史 研究資料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文獻으로 우리말 表記法과 음운, 文法 및 어휘사 등에서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韻文인 漢詩 原文을 逐字的으로 간략히 國語文章으로 翻譯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表現과 15세기 國語 構文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諺解에 참여한 학자들이 詩에 능통한 인물

들이라 당시의 漢詩翻譯의 연구에는 물론 國語學의 研究에도 귀중한 文獻資料로 學術的 가치도 매우 높다.

이 자료와 동일한 版本들인 卷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卷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卷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등이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토지박물관 소장본인 『杜詩諺解』 卷17·18·19는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보물들과 卷次가 다를 뿐만 아니라, 國語史와 文學 및 문헌학 研究에도 귀중한 資料이다.

□

○ 현 상

1. 書誌記述사항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7·18·19 / 杜甫(712~770) 著 ; 柳允謙(1420~?) 等受命 諺解 金屬活字本(乙亥字)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成宗 20(1489) 以前 刊行 推定].

3卷1冊 : 四周單邊, 半郭 18.3×14.6cm, 有界, 8行17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 27.5×22.0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杜詩

卷首題: 分類杜工部詩

卷末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內容: 一卷17. 鳥(古詩; 鳳凰臺 朱鳳行 杜鵑 杜鵑行 杜鵑行 義鵑行 呀鵑行 王兵馬使二角鷹 見王監兵馬使說近山有白黑二鷹羅者久取竟未能得王以爲毛骨有異他鷹恐臘後春生 鸞 飛避暖勁 翮 思秋之甚 眇 不可見 請余賦詩二首 催宗文樹雞柵 等 11首, 律詩; 縛雞行 雞 歸鷺 燕子來舟中作 雙燕 鸚鵡 子規 百舌 白鳥行 歸鴈二首 歸鴈 孤鴈 歸鴈 官池春鴈二首 舟前小鵝兒 得房公池鵝 鷓鴣 花鴨 鷗 等 21首), 獸(古詩; 遣興二首 沙苑行 瘦馬行 驄馬行 高都護驄馬行 李鄴縣丈人胡馬行 惜別行送劉僕射判官 等 8首, 律詩; 秦州雜詩一首 玉腕驪 房兵曹胡馬 病馬 麕 猿 從人覓小胡孫許寄 等 7首), 蟲(律詩; 促織 螢火 見螢火 等 3首), 魚(律詩; 黃魚 白小 等 2首). 一卷18. 花(古詩; 歎庭前甘菊花 江頭五詠二首見烏門 丁香 麗春 等 3首, 律詩; 梔子 風雨看舟前落花戲爲新句 和裴迪登蜀州東亭送客逢早梅相憶見寄 江梅 早花 花底 江畔獨步尋花七絕句 等 13首), 草(古詩; 除草 1首, 律詩; 庭草 蒹葭 等 2首), 竹(律詩;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從韋二明府續處覓 籜 竹三數叢 苦竹 等 3首), 木(古詩; 古佰行 四松 病佰 病橋

枯櫻 枯桷 海棕行 7首, 律詩; 柳邊 高桷 嚴鄭公堦下新松得霑字 憑韋少府班覓松樹子 栽 憑何十一少府邕覓檜木數百栽 樹間 惡樹 등 7首). 一卷19. 投贈(古詩;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1首, 律詩; 贈韋左相二十韻 上韋左丞丈濟 遣悶奉呈嚴公二十韻 奉贈鮮于京兆二十韻 奉贈太常張卿垺二十韻 敬贈鄭諫議十韻 등 6首), 寄簡上(古詩; 寄韓諫議註 暮秋枉裴道州手札率爾遣興寄遞呈蘇渙侍御 蘇大侍御訪江浦賦八韻記異 寄裴施州 鄭典設自施州歸 寄薛三郎中璩 奉贈射洪李四丈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貽華陽柳少府 投簡成華兩縣諸子 贈鄭十八賁 贈衛八處士 贈蘇徯 君不見簡蘇徯 贈李白 戲贈鄭廣文兼贈蘇司業 戲贈二友 등 17首)

狀態: 多數張에 磨滅 汚損 切斷이 있음

保存處理: 2008年 1月-2月(1個月間, 脫酸處理 알칼리액 도포 등)

2. 現狀 :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 는 弘文館의 典翰이던 柳允謙(1420~?) 등이 王명을 받들어 중국 당나라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成宗 20년(1489) 이전에 乙亥字의 금속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3cm 가로 14.6cm 내외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22.0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권17의 첫장과 권19의 마지막장 등 多數張에 磨滅, 汚損, 切斷이 있다. 분량은 권17 40장, 권18 23장 및 권19 48장의 3권 1책으로 모두 111장이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물관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있다. 소장기관에서 2008년 1월부터 2월까지 1개월에 걸쳐서 탈산처리, 알칼리액 도포 등의 보존처리를 하였다.

○ 내용 및 특징

이 책은 成宗 12년(1481)에 王명으로 柳允謙(1420~?) 등이 당나라 시인 杜甫(712~770)의 詩를 언해하여 금속활자인 을해자와 을해자 한글자로 간행한 책이다. 두보는 자가 子美, 호가 少陵이다. 尙書工部員外郎이라는 벼슬을 역임하여 杜工部라고도 불리었기 때문에 이 책의 서명도 두공부의 시를 분류하였다는 의미의 『分類杜工部詩』가 된 것이다. 두보는 李白과 함께 중국 시인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며, 오언율시, 칠언율시의 완성자이다. 권수제는 『分類杜工部詩』인데, 흔히 『杜詩諺解』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언해가 되어 있으므로 『分類杜工部詩諺解』로 서명을 정할 수 있다.

杜詩의 간행은 조선초에 송나라 魯晞이 編次하고, 蔡夢弼이 會箋한 『杜工部草

堂詩箋』이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세종 13년(1431)에 密陽에서 번각 간행된 것이 있으며, 이후에도 갑진자 병자자, 갑인자 등의 금속활자로 인쇄한 『纂註分類杜詩』가 편찬, 간행되었다. 이외에도 虞集의 『虞註杜律』, 조방의 『類選杜詩五言律』, 범곽의 『杜工部詩范德機批選』, 단복의 『讀杜詩愚得』, 유진용의 『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 『須溪先生批點杜工部七言律詩』, 邵寶 集註의 『杜少陵先生詩集註抄』 등 조선시대 국내에서 간행된 두시와 관련된 서책의 종수는 매우 다양하다.

이 책의 편찬과 관련된 기록은 동일 판본으로는 전하지 않으나 후대에 중간된 목판본 권1 앞에 실려 전하는 曹偉(1454~1503)의 서문과 실록의 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481년 가을에 성종이 유윤겸 등에게 명하여 언해가 시작되었고, 책이 이루어지자 1481년 12월에 조위가 서문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을해자 초간본은 전체 25권 가운데 권1, 2, 4를 제외한 22권이 국내 각급 도서관 및 개인 소장으로 흩어져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전 초간본들은 각 권 별로 대개 결락이 있는 것이 많은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박물관 소장본은 빠진 장수가 없이 권 17, 18, 19의 내용이 모두 전한다. 다만 종이의 마멸이 있고 일부 인쇄된 글자가 흐려 보여서 전체적으로 보존처리를 한 상태이다.

본문의 체재는 대개 한시 원문을 2구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쌍행으로 주석과 언해를 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주석문에는 한글로 구결이 달려 있다. 방점표시는 주석에 국어 문장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표기하였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卷17에는 鳥門, 獸門, 蟲門, 魚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鳥門에는 古詩 11수와 律詩 21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獸門에는 고시 8수와 율시 7수가 수록되어 있다. 蟲門에는 율시 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魚門에는 율시 2수가 수록되어 있다.

卷18에는 花門, 草門, 竹門, 木門 등이 수록되어 있다. 花門에는 고시 3수와 율시 1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草門에는 고시 1수와 율시 2수가 수록되어 있다. 竹門에는 율시 3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木門에는 고시 7수와 율시 7수가 수록되어 있다.

卷19에는 投贈門과 寄簡門(上)이 수록되어 있다. 投贈門에는 고시 1수와 율시 6수가 수록되어 있으며, 寄簡門(上)에는 고시 17수가 수록되어 있다.

□ 特徵 :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 는 전체 25권 중 권17·18·19의 3권 1책으로 乙亥字의 금속활자본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의 크기는 세로 18.3cm 가로 14.6cm 内外이다.

界線이 있으며, 行字數는 8行 17字이고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白口이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22.0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多數張에 걸쳐 磨滅과 汚損 및 切斷된 부분이 있으며, 補字가 섞여서 인쇄한 것도 있다.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며 동일한 금속활자인 본인 권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1990), 권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2001), 권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2004) 등이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는 한글을 창제한 이후 간행된 최초의 詩歌諺解書로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諺解한 분량이 많아 국어사 연구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연구를 위하여 새로운 권차가 발견될 때마다 영인보급될 만큼 중요성을 지니는 책이다. 통문관에서 1954~59년에 걸쳐서 卷 7, 8, 15, 16, 20, 21, 22, 23, 24, 25 등을 영인한 바 있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76~78년에 권10, 11, 14, 15를 각각 영인한 바 있으며, 國語學會에서 1971년에 嘉藍 李秉岐(1891-1968)의 소장본 권6을 『國語學資料選集Ⅱ』에 影印한 바 있다. 이들 영인본을 모아 1983년에 再影印한 책도 널리 유포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柳允謙(1420~?) 등이 王命을 받들어 중국 唐朝의 大詩人인 杜甫(712~770)의 詩를 諺解하고 編次하여 成宗 20년(1489) 이전에 乙亥字의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이 책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한글의 쓰임에 있다. 그 간행시점이 15세기이므로 그 당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인쇄사적으로도 금속활자인 을해자 뿐만 아니라 을해자 한글 금속활자의 쓰임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에 쓰인 한글 금속활자의 실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는 국어사 연구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으로 한글 창제 이후 최초의 시가 언해서로서 의미가 크며, 번역문학 및 국어사 자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諺解文에는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의 한시번역의 연구에는 물론 국어학의 연구에도 귀중한 문헌자료로 활용되는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版本인 권13(보물 제1051-1호, 京畿道博物館, 1990), 권11~12(보물 제1051-2호, 啓明大學校圖書館, 2001), 권21(보물 제1051-3호, 淸州古印刷博物館, 2004) 등이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7·18·19는 이미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보물 제1051-1/3의 卷11-13 21과는 卷次가 다르다. 국문학, 국어사 및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될 뿐만 아니라, 그 전례가 드문 귀중본이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3. 제왕운기(帝王韻紀)

가. 검토사항

“제왕운기”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왕운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7.3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5.1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제왕운기(帝王韻紀)
- 소유자(관리자) : 개인소장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22.8 × 가로 17.3 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 1360년(공민왕 9) 판각, 조선초 인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調査本「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1287)년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敍詠한 上下 2卷의 歷史著述로 恭愍王 9(1360)년 경에 版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朝鮮時代 初期에 印

出한 것으로 推定되는 木版本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帝王韻紀』는 元朝의 干涉 아래에서 성장한 民族意識에 기인하여 三國時代 이전의 上古史를 우리 歷史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歷史的인 意義가 至大할 뿐 아니라, 古代史研究의 文獻資料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長體로 歷史를 敍詠한 詠史詩는 歌辭文學의 元初적 형태로 고대의 小說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同時代의 李奎報의 『東明王篇』, <歷代歌>와 함께 國文學研究의 文獻資料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本 『帝王韻紀』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지정 가치 있음)

『帝王韻紀』는 고려 문신인 李承休(1224~1300)가 중국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오언시와 칠언시의 韻文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1360년(고려 공민왕 9)에 경주에서 간행되어 러말선초에 인출된 판본으로 서 발문 후제 간기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저술동기 및 간행과정과 간행에 참여한 체원이 밝혀져 있어서 서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고대사 및 역사연구 문헌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본문에는 避諱大字가 있고, 판식에 계선과 어미가 없는 등 고려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귀중본이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제 418호, 보물 제895호, 보물 제1091호로 지정되어 있는 3종에는 결락된 장이 있는데 한솔종이박물관 소장본은 결락된 장이 없이 완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보물)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기술한 歷史著述이다.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1360년(恭愍王 9)년에 版刻된 중간본이 여러 종류 현재 전하고 있다. 한솔제지 소장본은 1360년 경주에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소실된 下卷 제8장을 補刻하고 補入하여 後刷한 木版本이다. 이것과 동일한 東京(慶州) 간행의 重刊本은 이미 보물 제418호(郭英大 소장본), 보물 제895호(東國大學校圖書館) 및 보물 제1091호(三省出版博物館)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다른 異本들에 비하여 缺點이 아주 작은 귀중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帝王韻紀』는 元朝의 干涉 아래에서 성장한 民族意識에 기인하여 三國時代 이전의 上古史를 우리 歷史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歷史的인 意義가 至大할 뿐 아니라, 古代史研究의 文獻資料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長體로 歷史를 기술한 詠史詩는 歌辭文學의 원초적 형태로 고대의 小說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吳士文의 歷代歌와 李奎報의 東明王篇과 함께 國文學研究의 文獻資料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歷史學 國語學 書誌學 등의 研究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文獻資料이다.

○ (지정 가치 있음)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차례대로 읊은 것이다. 상하 2권의 역사저술로 공민왕 9년(1360)경에 板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조선초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帝王韻紀』는 정치폐단을 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왕권의 강화를 통한 국가 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국외적으로는 원나라 지배 하의 만족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군신화를 포함하는 고대사연구의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詠史詩는 가사문학의 원초적 형태로 고대의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李奎報의 『東明王篇』, 「歷代歌」와 함께 국문학연구의 문헌자료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판본은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과 같은 고려시대 판각본에 해당되며 下卷 제8장의 補板을 제외하면, 이미 보물로 지정된 판본들에 비하여 결락이 없고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本 「帝王韻紀」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帝王韻紀. 上·下 / 李承休(1224~1300) 著. — 木版本. — [東京(慶州)] :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板刻, 朝鮮時代 初期 印出 推定].

2卷1冊(36張) : 世系圖, 四周單邊, 半郭 17.3×14.6cm, 無界, 8行16字 註雙行, 白口, 無魚尾 ; 22.8×19.5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帝王韻紀

引表題: 帝王韻紀

卷頭題: 帝王韻紀

卷末題: 帝王韻紀

版心題: 韻紀

內容: 一卷頭; 帝王韻紀進呈引表. 一卷上; 帝王韻紀(并序), 正統相傳頌. 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本朝君王世系年代. 一卷末; 世系圖.

卷首: <帝王韻紀進呈引表>; 臣承休言臣謹編修帝王韻紀分爲兩/卷繕寫以/進者牛襟下土粗得曉於典墳螢燭末光/期助明於/日月臣承休誠惶誠恐頓首頓首恭惟我/主上殿下於周爲盛于湯有光/天妹爲妃夫豈三韓曾見龍樓成集實惟/百代難聞万世奇逢一時鍾在伏念臣陪/先代遺弓之詔報中天/昇日之祥因緣扈/駕以西東除拜超階於華要自頂至踵洽/然湛露淪身擢髮數恩行以清絲補袞乃/緣命薄返得身閑嗟無計於觀/天喜祝/齡之有地心歸佛隴目屬虬函万軸明窓/趣日志疲之消息九重/丹禁恒春不老之光陰抑念唯兹不曠之/文是我平生之業宜以虫吟之無譜聊申/鶴戀之有加遂乃古往今來皇傳帝受中/朝則從盤古而至於金國東國則自檀君/而洎我本朝肇起根源窮搜簡牘較異同/而撮要仍諷詠以成章彼相承授受之興/立如指諸掌凡肯構云爲之取捨可灼於/心伏望優推聖知無以人廢暫/借离明之炤許/垂乙夜之觀付外施行爲後勸誠臣誠惶/誠恐頓首頓首謹言/至元二十四(1287, 忠烈王 13, 丁亥)年三月日頭隴山居士臣李承休(1224~1300)

卷上: <序>; 頭隴山居士臣李承休製進/自古帝王相承授受興亾之事經世/君子所不可不明也然古今典籍浩/汗無涯而前後相紛如也苟能撮要/以詩之不亦便於覽乎謹據纂古圖/採諸子史而廣焉若夫今之未著方/策者姑以彰彰耳目所熟爲據播于/諷詠其善可爲法惡可爲誠者輒隨/其事而春秋焉名之曰帝王韻紀凡/二千三百七十言蓋忠臣孝子衛於/君父之義也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謹據國史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參諸高舜已來經傳子史/去浮辭取正理張其事而詠之以/明興亡年代凡一千四百六十/言

卷末: <跋>; 臣瑄初受書記將赴此州右司議大夫寶/文署直學士知制誥尹公班承/勅以居士臣李承休製進歷代韻紀開板/事傳囑是以募工彫板以壽其傳司錄參/軍事兼掌書記升仕郎良醞令鄭瑄(?~?)跋

卷末: <後題>; 先生業文精博洞明古今官以右司諫知/制誥便歸老關東雖迹同去

國而志在匡/君遂於看藏餘修此帝王韻紀以供乙/覽其辭約其旨暢如珠之在貫
網之在綱/万代相承理亂終始不出乎此可謂通鑑/之粹歟但所惜者於本朝仁宗
紀只言/見逼不言其終復天位永貽孫謨是一缺/耳胡不添撥亂賴忠臣龍孫綏不
已之/一句而足之乎先生非不知撮略故爾臣/幸以不才獲承憂寄比到州彫板僅
終矣/故無所補徒以姓名冠于板尾耳副使臣/李源(?~?)謹題

先居士臣動安所製進歷代/帝王韻紀在元貞(1295~1296, 忠烈王 21~22)
間/勅令鑄梓于晉州牧官年既久而板朽字/滅其季男前密直使李公嘗以重彫爲
意/而力不給姪婿克仁幸按是道取暇隙而/售其意於東京官非止爲繼述自私門
戶/盖欲以卷中眉目傳不泯而利後生稽覽/耳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
仁(?~1383)題

刊記: 至正二十年庚子(1360, 恭愍王 9)五月日東京開板/書進士臣金禧(?~?)/按
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1383)

印文: 烏川/人鄭'(卷首 1A, 卷下 9B), 藥季/家藏'(卷首 1A, 卷上 18B, 卷下
9B)

補入: 卷下 第8張(有界, 朝鮮初期刻), 卷末(<帝王享年之久> 墨書補入)

狀態: 前後表紙(磨損), 卷上 第1-16張(下端一部 切斷), 卷下 第15張(下端一部
切斷)

特記: 補修 및 保存處理 要望

□ 現狀

調査本「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1287)년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敍詠한 上下 2卷의 歷史著述로 恭愍王 9(1360)년 경에 版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朝鮮時代 初期에 印出한 것으로 推定되는 木版本이다.

調査本「帝王韻紀」는 韓製紙가 운영하는 서울시 江南區 驛三洞 736-1번지의 韓製紙博物館(鮮于永奭)의 所有로, 卷末에 世系圖가 있고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17.3cm 가로 14.6cm 內外이며 冊의 크기는 세로 22.8cm 가로 19.5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調査本「帝王韻紀」의 保存狀態는 前後表紙에 磨損이 있고 上권 第1-16張과 하권 第15張의 下端一部에 切斷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며, 전문적인 施設을 갖춘 韓製紙博物館에 의해 維持 管理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 內容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1287)년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敍詠한 저작이다. 상 하 2권으로 편차되어 있으며, 上卷에는 <序>에 이어 중국 역사의 요점을 神話時代부터 三皇五帝, 夏殷周의 三代 및 秦, 漢 등을 거쳐 元의 興起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七言古詩 264句로 敍詠하고 있다. 下卷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하여 <東國君王開國年代>와 <本朝君王世系年代>의 2부로 나누고 <東國君王開國年代>에는 <序>에 이어 地理記, 檀君의 前朝鮮, 後朝鮮, 衛滿朝鮮, 三韓, 新羅 百濟 高句麗의 三國과 後三國 및 渤海가 高麗로 통일되는 과정까지를 七言詩 264句 1,460言으로 敍詠하고 있다. <本朝君王世系年代>에는 고려 太祖의 世系說話에서부터 저자 當代인 충렬왕 때까지를 五言詩 700言으로 敍詠하고 있다.

動安居士가 「帝王韻紀」를 저술하게 된 동기는 當時의 問題意識에서 비롯되었음을 <本朝君王世系年代>의 末尾에서 此詩皆以前主之末年爲後主之元年成難曰子之編修帝王韻紀皆以七言敍事而至於本朝則用五言者何也其有指乎答且詩之作始於五言而終於七言者也今夫制作之意始起於本朝故終之以所起之始蓋夫子修春秋之志也”라고 밝히고 있다. 動安居士는 元의 침입으로 국내 정치상황이 혼란했던 당시에 新進儒學者로서 政治界에 등장하여 罷職을 당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였으며, 충렬왕의 失政과 附元勢力을 비판하여 上疏한 결과 罰職을 당하자 은둔하면서 「帝王韻紀」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帝王韻紀」는 당시의 대내외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회의와 함께 새로운 사회의 希願과 정치적 사회적 윤리를 바로 잡기위한 의욕에서 출발하여 그 가치기준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詩로 敍詠한 것으로, 결국 元朝의 高麗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우리의 民族意識을 고취시킨 歷史書요 文學書이다.

「帝王韻紀」의 구성은 中國史와 韓國史를 卷別로 분리하여 중국의 동쪽에 독립된 우리의 高麗王朝가 존재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우리 민족이 하늘(天)과 연결된 檀君을 始祖로 하는 單一民族임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檀君神話를 한국사의 체계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의 悠久性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渤海가 高句麗의 繼承國임을 확인하고 渤海인들이 高麗에 귀순한 사실을 서술함으로써 渤海의 역사를 최초로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 역사의 강조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중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自主的 獨自的 국가임을 천명함으로써 元朝의 政治的支配에 대항하는 우리의 民族意識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帝王韻紀」는 一然의 「三國遺事」와 함께 檀君을 한국사 속에 포함시킨 선구적 歷史敍述로 평가되고 있다. 「帝王韻紀」에서 태동된 檀君紀 元의 歷史意識은 高麗時代 말기의 新進士大夫들에게 전승되어 朝鮮의 開國 이후에도 檀君을 國祖로 정착시킴으로써 徐居正(1420~1488) 등의 「東國通鑑」을 비롯

한 여러 史書의 歷史敍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결국 「帝王韻紀」는 元朝의 干涉 아래에서 성장한 民族意識에 기인하여 三國時代 이전의 上古史를 우리 歷史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歷史的인 意義가 至大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特徵

調査本 「帝王韻紀」는 고려의 문신인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三陟의 容安堂에 기거하던 충렬왕 13(1287)년에 저술하여 국왕에게 進奉한 歷史著述²³⁾로 상하 2권으로 편차되어 있다. 上卷에는 神話時代부터 元朝 興起까지의 中國歷史를 七言古詩로 敍詠하였으며, 下卷에는 檀君神話와 渤海史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七言詩와 五言詩로 敍詠하였다.

調査本 「帝王韻紀」의 卷頭에는 <帝王韻紀進呈引表>가 수록되어 있고 上卷에는 <帝王韻紀(并序)>와 <正統相傳頌>이 수록되어 있으며, 下卷에는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와 <本朝君王世系年代>가 수록되어 있고 卷末에는 <世系圖>가 수록되어 있다. 분량은 상권 18장과 하권 15장 및 권말의 <世系圖> 1장과 <跋> <後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합 36장이다.

表題 引表題 卷頭題 卷末題 등은 帝王韻紀'이며 版心題는 韻紀'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다. 半郭의 크기는 세로 17.3cm 가로 14.6cm 內外이며, 界線이 없고 行字數는 8行 16字이며 註는 雙行이다.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無魚尾이다. 冊의 크기는 세로 22.8cm 가로 19.5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卷首의 제1장 전면과 卷下의 제9장 후면에는 烏川/人鄭'의 印文이 있고 卷首의 제1장 전면과 卷上의 제18장 후면 및 卷下의 제9장 후면에는 藥季/家藏'의 印文이 있어, 烏川(迎日) 鄭氏의 家藏本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 자세한 來歷은 알 수 없다.

調査本 「帝王韻紀」는 裝冊할 때에 上下를 너무 여유없이 切斷하여 상단의 註釋 부분이 절단된 경우도 있으며, 前後表紙에 磨損이 있고 卷上 第1-16張과 卷下 第15張의 下端一部에 切斷되어 毀損된 부분이 있다. 고려 惠宗의 諱인 武'가 虎'로 避諱되어 있는 등 避諱字도 보이며 界線과 魚尾 등이 없는 점에서 高麗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23)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板刻, 朝鮮時代 初期 印出 推定]. '帝王韻紀進呈引表'條.

承休言臣謹編修帝王韻紀分爲兩/卷繕寫以/進者牛襟下土粗得曉於典墳螢燭末光/期助明於/日月臣承休誠惶誠恐頓首頓首恭惟我/主上殿下於周爲盛于湯有光/天妹爲妃夫豈三韓曾見龍樓成集實惟/百代難聞万世奇逢一時鍾在伏念臣陪/先代遺弓之詔報中天/昇日之祥因緣扈/駕以西東除拜超階於華要自頂至踵洽/然湛露淪身擢髮數恩行以清絲補袞乃/緣命薄返得身閑嗟無計於觀/天喜祝/齡之有地心歸佛隴目屬虬函万軸明窓/越日志疲之消息九重/丹禁恒春不老之光陰抑念唯茲不腆之/文是我平生之業宜以虫吟之無譜聊申/鶴戀之有加遂乃古往今來皇傳帝受中/朝則從盤古而至於金國東國則自檀君/而洎我本朝肇起根源窮搜簡牘較異同/而撮要仍諷詠以成章彼相承授受之興/立如指諸掌凡肯構云爲之取捨可灼於/心伏望優推聖知無以人廢暫/借離明之炤許/垂乙夜之觀付外施行爲後勸誠臣誠惶/誠恐頓首頓首謹言/至元二十四(1287, 忠烈王 13, 丁亥)年三月日頭隴山居士臣李承(1224-1300).

「帝王韻紀」는 충렬왕 21-22(1295~1296)年間に 晉州牧官에서 初刊²⁴되었으며, 그 뒤 공민왕 9(1360)년에 東京(慶州)에서 重刊²⁵되고 조선 태종 17(1417)년에 三刊²⁶된 바 있다. 현재 충렬왕 13(1287)년의 初刊本은 전존하지 않으며 공민왕 9(1360)년의 重刊本은 보물 제418호(郭英大 所藏, 1965), 보물 제895호(東國大學校圖書館 所藏, 1986) 및 보물 제1091호(三省出版博物館 所藏, 199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종 17(1417)년의 三刊本은 東亞大學校圖書館과 啓明大學校圖書館 및 嶺南大學校圖書館 그리고 京畿大學校圖書館 등에 傳存되고 있다.

調査本 「帝王韻紀」는 卷末의 <刊記>에 나타나는 奎正二十年庚子(1360)五月日 東京開板/書進士臣金禧(?~?)/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1383)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공민왕 9(1360)년 5월에 東京(慶州)에서 간행된 木版本이나, 下卷 제8장의 版式만은 界線이 있는 등 차이가 있다. 따라서 調査本 「帝王韻紀」는 공민왕 9(1360)년에 板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缺張된 下卷 제8장만을 조선시대 초기에 補刻으로 補入하여 後刷한 木版本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미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과 같은 重刊本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물 제418호와 보물 895호 및 보물 제1091호 등의 重刊本은 한결같이 공민왕 9(1360)년에 東京(慶州)에서 판각된 版의 後刷本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각 缺點을 지니고 있다. 보물 제418호는 卷末의 鄭瓘(?~?)의 跋文과 刊記 등이 결락되어 있으며, 보물 895호는 上卷의 제18장이 결락되었고 下卷의 제6~8장과 제16장의 <世系圖> 등 4장은 筆寫로 보충되어 있다. 그리고 보물 제1091호는 上卷의 제1장과 下卷의 제6장 등 2장이 결락되어 있고 하권의 제8장은 계선이 있는 補版으로 보충되어 있다.

調査本 「帝王韻紀」는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과 같이 重刊本에 해당되나 下卷 제8장의 補入을 제외하면, 이미 보물로 지정된 版本들에 비하여 無缺點의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24)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板刻, 朝鮮時代 初期 印出 推定]. '後題'條.

先居士臣動安所製進歷代/帝王韻紀在元貞(1295-1296, 忠烈王 21-22)間/勅令鋟梓于晉州牧官年既久而板朽字/滅其季男前密直使李公嘗以重彫爲意/而力不給姪婿克仁幸按是道取暇隙而/售其意於東京官非止爲繼述自私門戶/蓋欲以卷中眉目傳不泯而利後生稽覽/耳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1383)題.

25)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板刻, 朝鮮時代 初期 印出 推定]. '刊記'條.

至正二十年庚子(1360, 恭愍王 9)五月日東京開板/書進士臣金禧(?~?)/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1383).

26) 啓明大學校 編, 「古書綜合目錄」. 大邱 : 啓明大學校, 2004. p.711. '帝王韻紀'條.

帝王韻紀 / 李承休(1224-1300) 著. - 木版本. - [慶州]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 2卷1冊 : 32×21 cm. - 東裝. - 四周雙邊, 半郭 20.9×15.9cm, 有界 9行18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跋: 永樂丁酉(1417)李輕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調査本「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1287)년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敍詠한 上下 2卷의 歷史著述로 恭愍王 9(1360)년 경에 版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朝鮮時代 初期에 印出한 것으로 推定되는 木版本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帝王韻紀」는 元朝의 干涉 아래에서 성장한 民族意識에 기인하여 三國時代 이전의 上古史를 우리 歷史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歷史的인 意義가 至大할 뿐 아니라, 古代史研究의 文獻資料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長體로 歷史를 敍詠한 詠史詩는 歌辭文學의 원초적 형태로 고대의 小說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同時代의 李奎報의 「東明王篇」, <歷代歌>와 함께 國文學研究의 文獻資料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調査本「帝王韻紀」는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근거 기준

調査本「帝王韻紀」과 동일한 공민왕 9(1360)년 5월의 東京(慶州) 重刊本은 이미 보물 제418호(郭英大, 1965), 보물 제895호(東國大學校圖書館, 1986) 및 보물 제1091호(三省出版博物館, 199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물 제418호는 卷末의 鄭瓘(?~?)의 跋文과 刊記 등이 결락되어 있고, 보물 895호는 上卷의 제18장이 결락되고 下卷의 제6-8장과 제16장의 <世系圖> 등 4장은 筆寫로 보충되어 있으며, 보물 제1091호는 上卷의 제1장과 下卷의 제6장 등 2장이 결락되어 있고 하권의 제8장은 계선이 있는 補版으로 보충되어 있어 각각 缺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調査本「帝王韻紀」는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의 版本에 비하여 下卷 제8장의 補入을 제외하면 無缺點의 版本이다.

歷史學 國語學 書誌學 研究의 귀중한 文獻資料로 傳本이 드문 貴重本이다.

○ 문헌자료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東京(慶州)] :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推定]. 韓舍博物館 所藏本.

韓舍製紙博物館 編, <「帝王韻紀」 國家指定申請書 關聯書類>. 서울 : 韓舍製紙博物館, 2009. (辛承云 宋日基 吳龍燮 諸教授의 調査內容)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東京(慶州)]: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推定]. 보물 제418호. 郭英大 所藏本.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東京(慶州)]: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推定]. 보물 제895호. 東國大學校圖書館 所藏本.

李承休 著, 「帝王韻紀」. 木版本. [東京(慶州)]: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推定]. 보물 제1091호. 三省出版博物館 所藏本.

啓明大學校 編, 「古書綜合目錄」. 大邱: 啓明大學校, 2004.

<<http://www.memorykorea.go.kr/>> 帝王韻紀'

○ 기 타

□ 其他

調査本 「帝王韻紀」는 한솔製紙가 운영하는 서울시 江南區 驛三洞 736-1번지의 한솔製紙博物館(鮮于永奭)의 소유이며, 1997년 5월에 好古堂(대표 김재갑)에서의 購入을 통하여 收藏 管理해 오고 있다. 調査本 「帝王韻紀」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에 의한 補修 및 保存處理가 要望된다.

□

○ 현 상

表紙는 개장되었고 卷上 第1~16張의 下端一部와 卷下 第15張의 下端一部가 손상됨.

서지사항

帝王韻紀 上·下. 李承休(1224~1300) 著.

木版本. [東京(慶州)], [1360년(恭愍王 9)刻, 麗末鮮初 印出].

2卷1冊(36張). 世系圖, 四周單邊, 半郭 19.5×14.6cm, 無界, 8行16字 註雙行, 白口, 無魚尾. 22.8×17.3cm. 楮紙. 線裝.

表題: 帝王韻紀

卷頭題: 帝王韻紀

卷末題: 帝王韻紀

版心題: 韻紀

帝王韻紀進呈引表: 臣承休言臣謹編修帝王韻紀分爲兩/卷繕寫以/進者牛襟下土粗得曉於典墳螢燭末光/期助明於/日月臣承休誠惶誠恐頓首頓首恭惟我.....至元二十四年(1287, 忠烈王 13)三月日 頭陞山居士臣 李承休

卷上. 序: 頭陞山居士臣李承休製進/自古帝王相承授受興亾之事經世/君子所不可不明也然古今典籍浩汗無涯而前後相紛如也苟能撮要/以詩之不亦便於覽乎謹據纂古圖/採諸子史而廣焉若夫今之未著方/策者姑以彰彰耳目所熟爲據播于/諷詠其善可爲法惡可爲誡者輒隨/其事而春秋焉名之曰帝王韻紀凡/二千三百七十言蓋忠臣孝子衛於/君父之義也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謹據國史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參諸高舜已來經傳子史/去浮辭取正理張其事而詠之以/明興亡年代凡一千四百六十/言跋: 臣瑄初受書記將赴此州右司議大夫寶/文署直學士知制誥尹公班承/勅以居士臣李承休製進歷代韻紀開板/事傳囑是以募工彫板以壽其傳司錄參/軍事兼掌書記升仕郎良醞令鄭瑄跋

後題: 臣/幸以不才獲承憂寄比到州彫板僅終矣/故無所補徒以姓名冠于板尾耳副使臣/李源謹題

後題: 先居士臣動安所製進歷代/帝王韻紀在元貞(1295~1296)間/勅令鑄梓于晉州牧官年既久而板朽字/滅其季男前密直使李公嘗以重彫爲意/而力不給姪婿克仁幸按是道取暇隙而/售其意於東京官非止爲繼述自私門戶/蓋欲以卷中眉目傳不泯而利後生稽覽/耳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1383)題

刊記: 至正二十年庚子(1360)五月日東京開板/

書進士臣金禧/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

○ 내용 및 특징

『帝王韻紀』는 고려 문신인 李承休(1224~1300)가 삼척의 容安堂에 기거하던 1287년(충렬왕 13)에 저술하여 왕에게 올린 책으로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卷은 중국역사를 下卷은 우리나라 역사를 저술하고 註記를 붙였다.

중국역사인 上卷은 신화시대부터 三皇五帝, 夏殷周의 3대와 秦, 漢 등을 거쳐 元에 이르기까지 칠언시로 저술하였고, 우리나라 역사인 下卷은 12부로 나누었다. 제1부에서는 '東國君王開國年代'라 하여 먼저 地理記를 적고 다음에 檀君朝鮮 箕子朝鮮 衛滿朝鮮 漢四郡 三韓 新羅 高句麗 扶餘 後高句麗 · 百濟 後百濟 渤海를 七言詩로 기술하고, 제2부에서는 '本朝君王世系年代'라 하여 고려 태조부터 당대인 충렬왕까지를 五言詩로 기술하였다.

권두에는 이 책의 완성시기인 至元二十四年(1287, 忠烈王 13)三月에 쓴 頭陞山居士臣 李承休의 '帝王韻紀進呈引表'이 있고, 권말에는 世系圖 다음에 良醞令 鄭瑄 跋文, 副使 李源과 按廉使 安克仁의 後題에 이어 그 뒤에 至正二十年(1360)五月日東京開板'이란 간기가 있다.

『帝王韻紀』는 元貞年間(1295~1296)에 晉州副使 李源이 晉州牧에서 開板하였고 1360년(공민왕 9) 5월에 慶尙道按廉使 安克仁이 慶州에서 重刊하였는데 글씨는 進士 金禧가 썼다.

이 책은 1360년(공민왕 9)경주에서 간행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려말선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식은 계선과 어미가 없고 하권에는 고려 惠宗의 이름인 武'를 피하여 虎'를 사용하는 避諱大字가 나타나는 등 고려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권상 제1장 전면과 제9장 후면에는 烏川人鄭'의 朱印이 있고, 권상 제1장 전면과 제18장 후면 및 권하의 제9장 후면에는 藥季家藏'의 朱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烏川(迎日)鄭氏 집안 누군가의 옛 소장본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卷下 第8張은 계선이 있는 補板이며, 장책을 할 때 상하를 넘무 많이 절단함으로서 상단에 있는 주석의 윗부분이 잘려나갔고, 상권의 중앙 하단부분이 훼손되어 글자가 탈락된 곳도 있으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상권 18장, 하권 15장, 世系圖 1장, 발문 및 後題 2장 등 전체 36장이다.

이와 동일본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물 제418호(곽영대, 1965년 지정)는 後題와 간기가 결락되었고, 보물 제895호(동국대학교, 1986년 지정)는 권상 제18장이 결락, 권하 제6~8장과 세계도는 補寫되었으며, 보물 제1091호(삼성출판박물관, 1991년 지정)는 권상 제1장과 권하 제6장이 결락되고 제8장은 補板인데 계선이 있다. 이와 같이 보물 3종은 결락된 장이 있는데 한솔종이박물관 소장본은 결락된 장이 없어 상호 보완되는 자료로서 서지학 역사학 한문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帝王韻紀』는 고려 문신인 李承休(1224~1300)가 중국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오언시와 칠언시의 韻文으로 서술한 역사서이다. 1360년(고려 공민왕 9)에 경주에서 간행되어 려말선초에 인출된 판본으로 서 발문 후제 간기 등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저술동기 및 간행과정과 간행에 참여한 제원이 밝혀져 있어서 서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고대사 및 역사연구 문헌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다. 본문에는 避諱大字가 있고, 판식에 계선과 어미가 없는 등 고려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귀중본이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제418호, 보물 제895호, 보물 제1091호로 지정되어 있는 3종에는 결락된 장이 있는데 한솔종이박물관 소장본은 결락된 장이 없이 완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보물)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 문헌자료

李承休, 『帝王韻紀』, 東京(慶州), [恭愍王 9(1360) 推定]. 한솔종이博物館 所藏本.

辛承云 宋日基 吳龍燮, 『帝王韻紀』 國家指定申請書 調査內容. 서울, 2009.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86 지정편)』, 서울, 1988.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 지정보고서(91 지정편)』, 서울, 1992.

○ 기 타

한솔제지에서 1997년 3월에 호고당에서 구입하였다고 함.



○ 현 상

帝王韻紀

李承休(1224-1300)著.

木版本 [東京(慶州)에서 1360년(恭愍王 9) 板刻, 朝鮮時代 初期 印出本]

楮紙. 線裝本(改裝되어 있음)

上下 2卷1冊(36張). 22.8×19.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17.3×14.6cm,

無界, 8行16字 註雙行.

版心: 白口, 無魚尾, 有張次.

卷首題: 帝王韻紀 [表題와 卷末題 등도 帝王韻紀이다.]

版心題: 韻紀.

刊記: 至正二十年庚子五月日東京開板/書進士臣金禧/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
臣安克仁

印文: 烏川/人鄭'(卷首와 卷下 9장 뒷면), 藥季/家藏'(卷首와 卷上 18장 뒷면,
卷下 9장 뒷면)

補入: 卷下 第8張(有界, 朝鮮初期刻 補板), 卷末(<帝王享年之久> 墨書補入)

* 卷頭에는 帝王韻紀進呈引表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卷에는 帝王韻紀(并序)
와 正統相傳頌이, 下卷에는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와 本朝君王世系年代가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世系圖가 수록되어 있다. 上卷 18장과 下卷 15장
및 世系圖 1장과 鄭瑄의 跋과 後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합 36장이다.
부분적으로 磨損된 곳이 있지만 대체로 양호함.

한솔제지 박물관 소장본 『帝王韻紀』의 保存狀態는 前後表紙에 磨損이 있고 上卷의 일부분과 下卷 第15張의 下端一部에 切斷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비교적 良好한 편이다. 이 책은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충렬왕 13년(1287)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기술한 上下 2卷 一冊의 歷史著述로 1360년(恭愍王 9)에 경주에서 版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朝鮮時代 初期에 印出한 木版本이다. 새로 개장하여 裝冊할 때에 上下를 너무 여유없이 切斷하여 上卷의 註釋부분이 절단된 경우도 있으며, 表紙에 磨損이 있고 卷上의 여러 부분과 卷下 第15張의 下端一部에 毀損된 부분이 있다. 고려 惠宗의 諱인 武가 虎로 避諱되어 있는 등 避諱字도 보이며 界線과 魚尾 등이 없는 점에서 高麗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입된 부분도 있는데 下卷 第8張의 경우는 界線이 있는 다른 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1360년 경주에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소실된 下卷 第8張 補刻으로 補入하여 後刷한 木版本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미 보물 제418·제895·제1091호 등과 같은 重刊本과 같은 것이다. 보물 제418호와 보물 895호 및 보물 제1091호 등에는 어느 정도의 缺點을 지니고 있다. 보물 제418호는 卷末의 鄭昭의 跋文과 刊記 등이 결락되어 있으며, 보물 895호는 上卷의 第18장이 결락되었고 下卷의 第6-8장과 第16장의 <世系圖> 등 4장은 筆寫로 보충되어 있다. 보물 제1091호는 上卷의 第1장과 下卷의 第6장 등 2장이 결락되어 있고 하권의 第8장은 계선이 있는 補版으로 보충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帝王韻紀』는 고려 충렬왕 13년(1287)에 李承休가 중국역사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운문으로 엮어서 편찬한 상 하 2권 1책의 역사서이다. 이승휴의 字는 休休, 自號는 動安居士이다. 1252년(高宗 39)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蒙古의 침략이 있자 三陟의 頭陀山 龜洞에서 몸소 농사를 지으며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후 여러 벼슬을 하였는데, 1274년에 書狀官으로 元나라에 다녀왔고, 忠烈王의 失政을 直諫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다시 두타산에 들어가 堂號를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容安唐이라 하고 여기에서 『帝王韻紀』, 『內典錄』 등을 저술하였다.

『帝王韻紀』는 1287년(충렬왕 13)에 출간되었고, 1360년(공민왕 9)과 1413년(조선 태종 13)에 각각 다시 重刊된 바 있다. 卷首에 이승휴가 1287년에 지은 帝王韻紀進呈引表가 있다. 上下 2권으로 되어 있고, 각 권수에 이승휴 자신이 序를 함께 붙였다. 상권은 中國歷代帝王의 흥망을 盤古로부터 금대까지 七言으로 읊었다. 下卷은 우리나라 사적을 읊은 것인데, 檀君에서 渤海까지는 七言으로, 高麗朝 忠烈王까지는 五言으로 읊었다. 권말에는 鄭昭가 쓴 改板跋이 있는데, 이는 공민왕대

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七言詩와 五言詩로 엮은 敍事詩로서, 이승휴를 비롯한 당대의 신진사류들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영사시는 우리나라에서는 吳士文의 歷代歌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그후의 것으로 李奎報의 東明王篇이 있다. 조선초기의 龍飛御天歌 등에 영향을 준 바 있다.

편찬목적은 중국과 우리 민족과의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 자주성 주체성을 가진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국민 각자에게 자각하게 하여 몽고의 정치적 간섭에 대항하는 정신적 지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사와 한국사를 각 권으로 분리하고 우리 민족이 단군을 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나타냈고, 당시까지 신화로 전승된 단군신화를 한국사의 체계 속에 편입시켰다. 또한 발해를 최초로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정하여 만주 일대도 고려의 영역이었음을 역사적으로 고증함으로써 영토회복의 뜻을 암시하고 있다. 帝王韻紀는 1295년-1296年間(충렬왕 21-22)에 晉州牧官에서 初刊되었으며, 그 뒤 1360년(공민왕 9)년에 東京(慶州)에서 重刊되고, 조선 태종 17년(1417)에 三刊된 바 있다. 현재 충렬왕 13년의 初刊本은 전존하지 않으며 공민왕 9년의 重刊本은 보물 제418호(郭英大 所藏, 1965), 보물 제895호(東國大學校圖書館 所藏, 1986) 및 보물 제1091호(三省出版博物館 所藏, 199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태종 17(1417)년의 三刊本은 東亞大學校圖書館과 啓明大學校圖書館 및 嶺南大學校圖書館 그리고 京畿大學校圖書館 등에 傳存되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中國과 韓國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기술한 歷史著述이다.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1360년(恭愍王 9)년에 版刻된 중간본이 여러 종류 현재 전하고 있다. 한솔제지 소장본은 1360년 경주에서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소실된 下卷 제8장을 補刻하고 補入하여 後刷한 木版本이다. 이것과 동일한 東京(慶州) 간행의 重刊本은 이미 보물 제418호(郭英大 소장본), 보물 제895호(東國大學校圖書館) 및 보물 제1091호(三省出版博物館)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책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다른 異本들에 비하여 缺點이 아주 작은 귀중한 版本이다. 따라서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帝王韻紀』는 元朝의 干涉 아래에서 성장한 民族意識에 기인하여 三國時代 이전의 上古史를 우리 歷史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歷史的인 意義가 至大할 뿐 아니라, 古代史研究의 文獻資料로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長

體로 歷史를 기술한 詠史詩는 歌辭文學의 원초적 형태로 고대의 小說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吳士文의 歷代歌와 李奎報의 東明王篇과 함께 國文學研究의 文獻資料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歷史學 國語學 書誌學 등의 研究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文獻資料이다.

□

○ 현 상

1. 書誌記述사항

帝王韻紀. 上·下 / 李承休(1224~1300) 著

木板本

[東京(慶州)] : [發行處不明], [恭愍王 9(1360) 板刻, 朝鮮初期 印出 推定].

2卷1冊(36張) : 世系圖, 四周單邊, 半郭 17.3×14.6cm, 無界, 8行16字 註雙行, 白口, 無魚尾 ; 22.8×19.5cm. 楮紙. 線裝(改裝).

表題: 帝王韻紀

引表題: 帝王韻紀

卷末題: 帝王韻紀

版心題: 韻紀

內容: 一卷頭; 帝王韻紀進呈引表.

一卷上; 帝王韻紀(并序), 正統相傳頌.

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本朝君王世系年代. 一卷末; 世系圖.

卷首: <帝王韻紀進呈引表>; 至元二十四(1287, 忠烈王 13, 丁亥)年三月日頭陞山居士臣李承休(1224-1300)

卷上: <序>; 頭陞山居士臣李承休製進/自古帝王相承授受興亾之事經世/君子所不可不明也然古今典籍浩汗無涯而前後相紛如也苟能撮要/以詩之不亦便於覽乎謹據纂古圖/採諸子史而廣焉若夫今之未著方策者姑以彰彰耳目所熟爲據播于/諷詠其善可爲法惡可爲誠者輒隨/其事而春秋焉名之曰帝王韻紀凡/二千三百七十言盖忠臣孝子衛於/君父之義也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并序>; 謹據國史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參諸高舜已來經傳子史/去浮辭取正理張其事而詠之以/明興亡年代凡一千四百六十/言

卷末: <跋>; 鄭珪 跋

卷末: <後題>; 李源 題

安克仁(?~1383)題

刊記: 至正二十年庚子(恭愍王 9, 1360)五月日東京開板

書進士臣金禧

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克仁(? ~ 1383)

印文: 烏川/人鄭'(卷首 1A, 卷下 9B), 藥季/家藏'(卷首 1A, 卷上 18B, 卷下 9B)

補入: 卷下 第8張(有界, 朝鮮初期刻), 卷末(<帝王享年之久> 墨書補入)

狀態: 前後表紙(磨損), 卷上 第1-16張(下端一部 切斷), 卷下 第15張(下端一部 切斷)

特記: 補修 및 保存處理 要望

2. 現狀 :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차례대로 읊은 것이다. 상하 2권의 역사저술로 공민왕 9년(1360)경에 板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조선초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다.

版式の 邊欄은 四周單邊, 半郭의 크기는 세로 17.3cm 가로 14.6cm 內外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22.8cm 가로 19.5cm 內外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五針眼訂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상태는 表紙에 磨損이 있고 상권 제1장-16장과 하권 제15장의 하단 끝 부분에 장책을 하면서 잘린 것이 일부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분량은 상권 18장과 하권 15장 및 권말의 <世系圖> 1장과 <跋> <後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두 36장이다.

장서인으로 卷首의 제1장 전면과 卷下의 제9장 후면에는 烏川/人鄭'의 印文이 있고 卷首의 제1장 전면과 卷上의 제18장 후면 및 卷下의 제9장 후면에는 藥季/家藏'의 印文이 있어, 烏川(迎日) 鄭氏의 家藏本이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調査本 『帝王韻紀』는 裝冊할 때에 上下를 너무 여유없이 切斷하여 상단의 註釋 부분이 절단된 경우도 있으며, 前後表紙에 磨損이 있고 卷上 第1-16張과 卷下 第15張의 下端一部에 切斷되어 毀損된 부분이 있다. 고려 惠宗의 諱인 武가 虎'로 避諱되어 있는 등 避諱字도 보이며 界線과 魚尾 등이 없는 점에서 고려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사본 『帝王韻紀』는 한솔제지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의 한솔제지박물관(鮮于永奭)의 소유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책의 저자 이승휴는 1224년(고종 11)에 경산부(현 경북 성주) 가리현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몽고의 1차침입이 있었고 1232년(고종 19)6월에는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는 등 국내의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였다. 1252년(고종 39)에 登第하였으나 몽고의 침입으로 관직의 길이 막혀 頭陀山 龜洞 龍溪邊에 거주하였다. 그가 관직의 길로 들어가게 된 시기는 원종 5년(1264) 정월로 貳座主 皇甫琦의 천거로 同文院修製를 지내면서 부터이다. 그 해 7월에는 慶興都護府 判官 兼掌書記를 지냈다.

『帝王韻紀』의 찬술은 그가 충렬왕 6년(1280)에 殿中侍史로서 시정득실을 논하다가 파직당하여 삼척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루어졌으며 충렬왕 13년(1287)에 마무리되었다. 그는 충렬왕 24년(1298)에 충선왕의 즉위 후 부름을 받아 여러 관직을 지냈고 충렬왕 26년(1300)에 사망하였다.

『帝王韻紀』는 정치폐단을 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왕권의 강화를 통한 국가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국외적으로는 원나라 지배 하의 만족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엮은 것이다. 卷上은 序에 이어 天地開闢과 三皇五帝에서 元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 사적을 七言古詩로 읊었다. 卷下는 東國君王開國年代'와 本朝君王世系年代'의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地理紀'에 이어 檀君朝鮮에서 渤海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七言古詩로 엮어서 단군신화의 편린도 확인할 수 있다. 뒤의 것은 고려의 조상인 作帝建 설화에서 당대의 임금 충렬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五言古詩로 노래하였다.

『帝王韻紀』는 이승휴가 충렬왕 13년(1287)에 찬술하여 왕에게 올린 후 충렬왕 20년(1294)에 초간본을 발행하였으며 공민왕 9년(1360) 경주에서 중간된 것과 조선 태종 17년(1417)에 중간된 것이 있다. 현재 충렬왕 13(1287)년의 初刊本은 전존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물지정된 것은 모두 중간본으로 3가지가 있는데 1965년에 보물 제418호에 지정된 郭英大 소장본, 보물 제895호인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본 및 보물 제1091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 등이 그것이다.

보물 제418호는 卷末의 鄭瑄(?~?)의 跋文과 刊記 등이 결락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보물 제895호의 목판본은 상권 제18장과 하권 제6 7 8 16장이 떨어져나가 필사로 채우고 있기는 하지만 발문 후제 간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본은 권수 1장, 하권 여섯째장이 떨어져나갔으며, 또 하권 제 8장은 보판된 것이다.

이번에 조사된 『帝王韻紀』는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과 같은 重刊本으로 奎正二十年庚子(1360)五月日東京開板 書進士臣金禧 按廉使中散大夫兵部侍郎臣安

克仁”의 간기를 통하여 공민왕 9년(1360) 5월에 東京(慶州)에서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고, 下卷 제8장이 보편된 것으로 보아 공민왕 9년(1360)년에 판각된 책판을 바탕으로 여말 선초의 시점에 後刷하면서 缺張된 下卷 제8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 기 타

조사본 『帝王韻紀』는 한솔제지가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번지의 한솔제지박물관(鮮于永奭)의 소유이며, 1997년 5월에 好古堂(대표 김재갑)에서의 구입을 통하여 수장하게 된 것이다. 조사본 『帝王韻紀』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전문기관의 보수 및 일부분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帝王韻紀』는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가 고려시대 말기인 충렬왕 13년(1287)에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韻律詩의 형식으로 차례대로 읊은 것이다. 상하 2권의 역사저술로 공민왕 9년(1360)경에 板刻된 冊版을 바탕으로 조선초기에 인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이며 傳本이 희귀한 貴重本이다.

『帝王韻紀』는 정치폐단을 시정하여 국내적으로는 왕권의 강화를 통한 국가 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국외적으로는 원나라 지배 하의 만족적 정통성 회복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군신화를 포함하는 고대사연구의 문헌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五言과 七言의 詠史詩는 가사문학의 원초적 형태로 고대의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李奎報의 『東明王篇』, 「歷代歌」와 함께 국문학연구의 문헌자료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판본은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과 같은 고려시대 판각본에 해당되며 下卷 제8장의 補板을 제외하면, 이미 보물로 지정된 판본들에 비하여 결락이 없고 인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근거 기준

조사본 『帝王韻紀』와 동일한 공민왕 9(1360)년 5월의 東京(慶州) 重刊本은 이미 보물 제418호(곽영대, 1965), 보물 제895호(동국대학교도서관, 1986) 및 보물 제1091호(삼성출판박물관, 1991)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물 제418호는 卷末의 鄭瑄의 跋文과 刊記 등이 결락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보물 제895호의 목판본은 상권 제18장과 하권 제

6 7 8 16장이 떨어져나가 필사로 채우고 있기는 하지만 발문 후제 간기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본은 권수 1장, 하권 여섯째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또 하권 제 8장은 보편된 것이다.

조사본 『帝王韻紀』는 보물 제418 895 1091호 등의 판본에 비하여 그 인쇄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역사학, 국어학, 서지학 연구의 귀중한 문헌자료로 傳本이 드문 귀중본이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4. 정몽주 초상 및 함(鄭夢周 肖像 및 函)

가. 검토사항

“정몽주 초상 및 함”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정몽주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정몽주 초상 및 함(鄭夢周 肖像 및 函)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건 2점
- 규 격 : 세로172.7 × 가로104.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555년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자 충절의 인물인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 만 아니라, 비록 고려말 조선초에 제작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

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조선중기로 올라가는 이모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가장 오래된 정몽주초상으로 알려져 왔던 보물 제1110호본 보다도 70년 가량 앞선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온 함 역시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리라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화면에 쓰인 嘉靖〇〇〇臯本'을 『圃隱集』에 의거하여 嘉靖乙卯臨臯本으로 볼 때 이 그림은 1555년(명종 10)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에 이모본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110호 정몽주 초상보다 70여년 앞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박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공신도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몽주라는 인물의 중요성, 고려말 조선초 초상화의 시대 양식이 잘 반영된 점, 현존하는 정몽주 초상 중에서 가장 시대를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현재 전해오는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보물 1110호로 지정된 1629년 작품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정몽주 초상의 원형에 더욱 가깝다고 추측된다. 비록 다소 손상되기는 했지만 남아 있는 이목구비의 형상으로 판단할 때 정몽주의 생김새와 그의 인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윤곽선, 터럭의 묘사, 신체의 비례, 과대, 단령 트임 사이로 보이는 철릭과 답호, 교의자, 족좌 등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초상화에 능숙했던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초상화를 이모할 경우 종종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인물의 모습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초상화이며, 기량이 뛰어난 화가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형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며, 조선시대 충신으로 숭앙되었던 정몽주에 대한 지속적인 추승의 전통을 알게 해주는 중

요한 역사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영정함과 보자기 등도 초상화와 관련된 유물이므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鄭夢周(1337~1392)는 고려 말기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迎日, 호는 圃隱이다. 1360년(공민왕9)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뒤 예조정랑, 대사성, 대제학, 문하찬성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웠으나, 조준, 정도전 등에게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들을 제거하려다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정몽주초상>의 화면 왼쪽에는 嘉靖 000皐本 '오른 쪽에는 '圃隱000像' 이라고 쓰여 있다. 『圃隱集』을 참조해 보면, 왼쪽 상단의 표제는 嘉靖乙卯臨皐本'일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1555년(명종10)에 이모된 본으로 추정된다.

『圃隱集』(권2, 엽8) 畫像 항목에 의하면, 정몽주의 초상화는 1390년(고려 공양왕2)에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佐命功臣에 책록되어 입각도형되었을 때의 본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 이 원본은 전해오지 않는다.

이 원본으로부터 이모한 본들이 임고서원과 경기도 용인시 모현동 포은선생영당, 전라남도 장흥군 용강영당, 국립중앙박물관(이한철 중모본)과 서울대학교 박물관(초본)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정몽주의 초상화는 모두 이모본이기는 하지만, 애초 동일한 본(좌명공신도상)으로부터 모사하였으므로 像容形式이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1555년(명종10)에 좌명공신상으로부터 직접 이모한 본이 임진왜란 후 너무 헤어지고 버지게 되자 1629년(인조7) 당시 서원의 유림들은 새로이 모사하도록 하였으며, 1629년에 제작된 이 <정몽주초상>은 현재 보물 제1110호로 지정(1991년 12월)되어 있다.

지금 이 경기도 박물관 소장 <정몽주초상>은 1555년에 이모했던 舊本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영일정씨 종가에서 줄곧 소장하고 있다가 2006년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한다. 그 당시 상태가 너무나 참혹하여 2007년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친 바 있다. 화폭은 3폭이 結縫되어 고식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수

리시 뒷면을 확인한 결과 사모, 얼굴, 단령 뿐 아니라 족좌대(발받침대)에 이르기까지 넓게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초상화는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공수자세를 취하고 있는 좌안9분면의 전신교의 좌상이다. 흑색의 사모는 帽頂이 낮고 둥글며, 좁은 兩角은 아래로 쳐져 있다. 단령을 원래는 靑袍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퇴색이 심하여 거의 회색계열로 보인다. 목선이 받으며 소매통이 좁은데, 이런 형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다. 허리에는 鍍金帶를 두르고 있다.

얼굴은 옅은 살색을 주조로 하였으며, 눈, 코, 입의 일부는 박락되어 있다. 특히 왼 쪽 눈은 반도 안남아 있을 정도로 박락이 심하여 특히 유감스럽다. 갈색 필선으로 이목구비와 얼굴 주름 만을 간략하게 형용하였다. 오른 눈을 보면, 검은 선으로 위 아래 눈꺼풀을 형용하였으며, 눈 안쪽에 아주 열게 담목을 칠하고, 홍채도 담목으로 처리하였다. 아래 위에 속눈썹은 전혀 그려 넣지 않았다. 코의 형용은 어느 정도 보이며, 입은 어두운 적색을 묘사하였는데, 윤곽선을 따라 담목으로 덧 그렸으며, 입술색은 아주 흐리게 칠하였다.

또한 단령의 윤곽선과 주름은 가늘고 예리한 목선으로 묘사하였으며, 양 허벅지 사이로 흘러내리는 주름 선들은 세로 선과 가로선을 교차시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의자에는 북은 방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자에 비끄러맨 맨 자색의 방석 끈이 눈길을 끈다. 족좌대 위에는 흑피화를 신은 발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여 있으며, 족좌대 윗면과 바닥에는 아무 것도 깔려 있지 않다.

복제와 모제, 그리고 얼굴의 간결한 묘사와 의자의 방석 끈, 같은 방향으로 놓여진 양 흑피화, 단령의 트임 사이로 첩리와 담호가 겹겹이 내보이는 점 등은 전체적으로 <이천우초상><이색초상> 등 고려말 조선초의 공신도상에서 살필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작품은 한국의 대표적 문인이자 충절의 인물인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주목될 뿐 만 아니라, 비록 고려말 조선초에 제작된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양식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조선중기로 올라가는 이모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 동안 가장 오래된 정몽주초상으로 알려져 왔던 보물 제1110호 본 보다도 70년 가량 앞선 정몽주의 초상화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함께 소장되어온 함 역시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리라 본다.

□

○ 내용 및 특징

좌안8분면의 얼굴에 烏紗帽를 쓰고 청색 團頰을 입은 정몽주(1337~1392)의 전신 교의상이다. 화면 왼쪽 상단에 嘉靖○○○皀本', 오른쪽 상단에 圃隱○○○像'이라고 쓰여 있다. 모정이 낮고 둥글며 양각이 아래로 처져 있는 사모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양식을 보여준다.拱手한 자세이며 마주한 소매 사이에 청색 안감이 살짝 보인다. 허리에 찬 鍍花金帶는 금박의 흔적이 있으며 볼록한 금선으로 모란당초문을 표현하였다. 의습선을 그린 윤곽은 매우 가늘고 채색에 묻혀 있어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설채가 얇은 편이며 비교적 얇게 이루어진 배채가 확인된다.

왼쪽 눈 부분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이 살아 있으며 야무지게 다문 입매의 표현도 단호하다. 교의의 방석에는 붉은 바탕에 금선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갈변된 보라색 끈으로 의자에 묶여 있다. 족좌대 위에 나란히 놓인 黑靴는 담묵으로 바탕칠 한 위에 작은 점을 가득 찍어 질감 표현을 하였으며 신발바닥과 연결부분에는 흰 점을 돌아가며 찍어 바느질 자국을 나타냈다. 화면을 대략 세로로 3등분한 지점에 結縫한 흔적이 있다.

화면 전체에 골고루 박락이 있으며 보물 제1110호로 지정된 초상보다 박락이 심한 편이다. 특히 왼쪽 눈이 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주 초상>은 오래된 원형의 느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고려말 조선초기 초상화 양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초상화를 보관하는 함과 보자기가 함께 남아 있는데 경첩과 자물쇠 부분에는 연화문이 음각되어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화면에 쓰인 嘉靖○○○皀本'을 『圃隱集』에 의거하여 嘉靖乙卯臨皀本으로 볼 때 이 그림은 1555년(명종 10)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629년에 이모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1110호 정몽주 초상보다 70여년 앞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박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풍을 파악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공신도상의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몽주라는 인물의 중요성, 고려말 조선초 초상화의 시대 양식이 잘 반영된 점, 현전하는 정몽주 초상 중에서 가장 시대를 올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鄭夢周, 『圃隱集全』 卷二「畫像」.

趙善美, 『韓國肖像畫研究』, 悅話堂, 1983, pp. 96~100.

□

○ 현 상

현재 족자 형태로 2007년 수리하였으며 상태는 양호하다. 작품의 손상 및 결손 부분은 수리시 비단으로 보완하였으나 가필은 하지 않았다. 유소 및 축은 원래의 것이다. 화면은 세 쪽의 비단을 세로로 잇대어 구성했다.

얼굴 부분에 손상이 다소 심하여 왼쪽 눈, 코를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대략의 이목구비를 추정할 수는 있다. 의복 부분에도 박락과 결손 부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작품의 가치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

○ 내용 및 특징

고려 후기 문신이며 성리학자였던 포은 정몽주(1337~1392)의 초상화로 조선시대인 1555년 이모한 것이다. 이모의 근거는 작품 왼쪽 위에 嘉靖 000 皐本"이라고 적혀 있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경북 영천에 소재한 임고서원에서 명종10년(1555)에 정몽주의 초상화를 임모했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까지 문중에서 계속 보관해 오던 이 작품이 바로 1555년 임모본일 가능성이 높다.

검은 사모를 쓰고 회청색 단령을 입었으며 두 손은 앞으로 공수하여 소매 속에 넣었다. 몸을 약간 오른쪽을 튼 자세로 검은 교의자에 앉아 있으며 흑혜를 신은 두 발은 가지런히 족좌대에 얹어 놓았다.

얼굴은 가는 선을 사용하여 윤곽과 터력을 묘사했으며 명암은 가하지 않았다. 상반신이 크고 하반신이 다소 작아 보이는데 풍성한 단령은 가는 의습선으로 형태를 묘사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현재 전해오는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보물 제1110호로 지정된 1629년 작품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 작품이 정몽주의 초상으로는 더 오래된 것이 될 것이다. 그만큼 정몽주 초상의 원형에 더욱 가깝다고 추측된다. 비록 다소 손상되기는 했지만 남아 있는 이목구비의 형상으로 판단할 때 정몽주의 생김새와 그의 인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만큼 개성이 잘 드러나는 초상화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윤곽선, 터력의 묘사, 신체의 비례, 과대, 단령 트임 사이로 보이는 철릭

과 답호, 교의자, 족좌 등에서 세밀하고 정교한 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초상화에 능숙했던 화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초상화를 이모할 경우 종종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인물의 모습을 충실하게 알려주는 초상화이며, 기량이 뛰어난 화가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높은 수준의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다. 또한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형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며, 조선시대 충신으로 숭앙되었던 정몽주에 대한 지속적인 추송의 전통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영정함과 보자기 등도 초상화와 관련된 유물이므로 일괄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 의결사항

원안 보류.

5. 허전 초상(許傳 肖像)

가. 검토사항

허전 초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허전 초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8.04)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허전 초상(許傳 肖像)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점
- 규 격 : 세로136.0 × 가로71.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9세기 후반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허전초상>은 조선조 문신 초상화 중 유복본 초상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초상화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핵심개념인 이른 바 傳神寫照'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허전의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기질과 성정, 그리고 노학자로서의 관록 등이 화면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19세기 후반의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철저한 관찰에 입각하여 안모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묘사한 점, 복색의 색감표현이 은은하고 푸른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격조있는 분위기를 창출한 점, 『송자대전』을 펼쳐 놓음으로써 인물상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점 등 한마디로 傳神에 성공한 초상이다.

양호한 보존상태, 단정하고 섬세한 붓질, 학덕과 인품을 느끼게 하는 깊은 눈빛의 표현, 은은한 복색의 깊은 맛, 신중하면서도 자신있는 필치 등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19세기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초상화는 공신상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복본 초상화가 대중을 이룬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평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일부 전해 오는데 대개는 복건에 심의 차림으로 주변에 다른 기물이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와룡관과 심의의 일종인 학창의 차림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과 함께 그려진 초상은 이 작품보다 후대인 1869년에 그려진 보물 제1499호 이하응 초상화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점차로 서양화법까지 도입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추구했다. 허전 초상의 안면 묘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지극히 섬세한 세필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생생하게 살렸고 가는 필선과 반복되는 붓질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다.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적 완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을 독특한 복식과 구성을 통하여 알려주는 흥미로운 초상화이며, 높은 수준의 기법적 완성도를 통하여 인물을 마치 살아 있는 듯이 재현했다.

따라서 극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초상화의 예술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다양한 면모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시각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허전(1797~1886)은 조선조 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陽川, 자는 而老이고 호는 性齋이다. 1828년(순조28) 庠試에 합격하고, 1835년(헌종1) 39세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崇陵別監이 되었다. 전적, 지평, 이조좌랑을 거쳐 1847년 咸平縣監으로 나갔는데, 형률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벌 기구를 모두 없앴으며, 효도, 공경, 친목의 도리로 깨우쳤다고 한다. 그러나 안찰사와의 불화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850년에는 교리를 거쳐 수찬이 되었을 때 대사간 趙夏望(1682-1747)의 관작추삭에 반대하다가 맹산에 유배되었으나, 중도에 풀려났다. 철종의 명을 받아 『士儀』라는 禮記를 편수하였다. 그가 저술한 『사의』는 조선말 近畿 실학파의 참신한 학풍을 바탕으로 역대의 예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찬한 저술인데, 주자의 가례를 보완하고 주석하는데 몰두했던 종래의 예학 풍조에서 벗어나 예제를 강구하는데 있어 합당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864년(고종1)에는 우부령이 되고, 이어 김해부사가 되어 鄉約을 강론했다. 병조, 형조, 이조의 참판, 한성판윤, 병조판서, 성균관동지사, 경연지사, 홍문관제학을 역임했으며,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86년(고종23) 90세로 崇祿大夫에 올라 돈녕부판사가 되었다. 문집에 『性齋文集』, 저서로는 이상적 군주상을 그린 『宗堯錄』과 『哲命編』 등이 있다.

허전은 타고난 바탕이 영특하고 호매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가학을 이어받아 먼저 효경을 읽었다. 黃德吉(1750~1827)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는데, 그는 우리 학문의 眞訣을 극한 사람이다라고 까지 극찬했다. 조정에 나간 후에도 허전은 성품이 강직하여, 조정에서는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으므로 외직으로 많이 돌았다. 그는 가는 곳 마다 풍속을 순화시키고 치적을 올렸으므로, 당시의 안찰사 趙斗淳(1796-1870)은 기린이 없다고 들었는데, 기린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할 정도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경연에 들어가 소학을 강론하기도 하고, 임금께 어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 드리고 예법이 가장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허전은 李瀾(1681~1763), 安鼎福(1712~1791), 황덕길로 이어지는 畿湖의 남인 학자로서 당대 유럽의 종장이 되어 영남 퇴계학과를 계승한 柳致明(1777~1861)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문중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전해오는 허전의 초상화는 생전에 어명으로 그려졌다 한다. 초상화는 본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1891년 문집 본판이 완성되고 이어 허전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생들이 1891년(고종28)에 경상남도 산청군에 세운 재실인 麗澤堂이 완공된 뒤 1916년 勿山影堂(재실내 영정을 모셔놓은 건물의 당호)를 지으면서 이안되었다가 다시 2008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허전은 이 초상화에서 흑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의연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다. 허전 앞에는 입식 서안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宋子大全』이 包匣 채 놓여 있고, 그 중 한 권은 빼내어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조선시대 초, 중기 초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탁이나 집기 등 비설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이후 <윤동섭초상> <임매초상> <이하응초상> 등 일부 초상화의 경우, 인물 주변이나 옆에 놓인 탁자 위에 서책 뿐 아니라 고동기물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그들의 신분이나 취향을 함께 보여주게 된다. <허전초상> 역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허전초상>의 세부를 보면, 안면의 외곽선 및 이목구비 등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두 선을 구획되어 있으며, 골상법의 보편적 기준에 준하여 안모의 특징을 묘사하였지만, 선생 만의 개성적인 특징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피부의 결은 육리문을 딸 잇대어 그려져 안면이 지니고 있는 높고 낮은 형세를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의습선은 윤곽선을 선으로 포착하고 회색 묵선으로 일단 주름 처리한 위에 짙은 회색선으로 재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초상화에서는 화가가 허전이란 인물을 마주하고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하였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눈을 보면, 위 눈꺼풀 및 아래 눈꺼풀을 그은 선은 결코 단호한 선이 아니라 유연하다. 동공 역시 검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홍채부분은 살색이 감도는 회색을 칠하여 나이가 들면서 탁해진 노인 특유의 흰 자위를 보여준다. 한편 속쌍꺼풀 위에도 위 눈꺼풀이 늘어져 다소 성깔 있어 보이는 눈매에선 오백년 조선 예학의 결산이라고 평가 받는 예기를 편수했고, 향약을 강론하였으며 유훈을 진작시켰던 노학자의 만만찮은 관록이 보인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허전초상>은 조선조 문신 초상화 중 유복본 초상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초상화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핵심개념인 이른 바 ‘傳神寫照’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허전의 생김새 만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기질과 성격, 그리고 노학자로서의 관록 등이 화면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 현 상

<허전 초상>은 보수한 흔적이 없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黑冠에 深衣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조선후기의 문신 허전(1797~1886)의 전신상이다. 얼굴은 갈색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잡고 肉里文을 따라 가늘고 얇은 선으로 피부의 결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선의 밀도를 많고 적게 조절하여 굴곡진 곳과 볼륨감을 나타냈다. 특히 눈썹의 형태, 검은색으로 담채한 눈동자, 속눈썹, 쳐진 눈꺼풀, 여러 겹의 속쌍꺼풀은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書匣 등의 푸른색과 화문석 무늬의 붉은색이 보여주는 절제된 채색의 사용은 은은한 심의의 색감과 잘 어울린다. 깊게 다문 입술, 흑관 안에 비치는 흰 머리카락, 의자를 덮은 푸른 천과 신발의 흰색 바늘 땀, 살짝 꺾인 옷주름의 미세한 표현, 관모 끈의 매듭과 술 등 어느 한곳 소홀하게 지나친 구석이 없다. 서안 위에는 서갑에 싸인 『宋子大全』이 놓여 있으며 한 권은 「四齋銘」과 「敬齋箴」이 쓰인 부분이 펼쳐진 채로 서갑에서 나와 있다. 족좌대 위의 발은 八字形으로 벌어져 있고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다. 족좌대 위에 깔린 화문석을 고정할 못에는 금칠이 확인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19세기 후반의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준다.

철저한 관찰에 입각하여 안모를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묘사한 점, 복색의 색감표현이 은은하고 푸른색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격조있는 분위기를 창출한 점, 『송자대전』을 펼쳐 놓음으로써 인물상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점 등 한마디로 傳神에 성공한 초상이다.

양호한 보존상태, 단정하고 섬세한 붓질, 학덕과 인품을 느끼게 하는 깊은 눈빛의 표현, 은은한 복색의 깊은 맛, 신중하면서도 자신있는 필치 등 전체적으로 매우 우수한 19세기 초상화의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조선미, 『한국의초상화』, 돌베개, 2009, pp. 373-377

□

○ 현 상

현재 족자 형태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화면의 극히 일부가 박락되었고, 약간 꺾임이 있으며, 비단이 들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었다. 비단의 상태, 먹과 안료의 색상도 우수하다. 족자도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유소도 남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조선 후기 문신이며 유학의 거두였던 허전(1797~1886)의 초상화다. 조선시대 초상화로는 드물게 와룡관을 쓰고 평상복인 학창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앞에 책상이 놓이고 그 위에 서책까지 표현되어 있어 초상화로는 희소한 경우이다.

검은 와룡관을 쓰고 흰 바탕에 검은 연을 두른 풍성한 학창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다. 두 손은 소매 속에 넣어 맞잡고 있는 듯하다. 책상 위에는 푸른 포갑에 싸인 <주자대전>이 있고 그 중 한 권은 <四齋銘>이 있는 부분을 펼쳐 놓았다. 바닥에는 화문석이 깔려 있다. 얼굴을 비롯하여 관모, 의복, 기물이 모두 극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보는 이를 놀라게 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선시대 초상화는 공신상을 중심으로 발달한 관복본 초상화가 대종을 이룬다. 그리고 사대부로서 평상복을 입은 초상화가 일부 전해 오는데 대개는 복건에 심의 차림으로 주변에 다른 기물이 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와룡관과 심의의 일종인 학창의 차림에 의자에 앉아서 책상과 함께 그려진 초상은 이 작품보다 후대인 1869년에 그려진 보물 1499호 이하응 초상화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점차로 서양화법까지 도입하면서 박진감 넘치는 묘사를 추구했다. 허전 초상의 안면 묘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지극히 섬세한 세필을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얼굴의 입체감을 생생하게 살렸고 가는 필선과 반복되는 붓질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려고 했다.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기술적 완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모습을 독특한 복식과 구성을 통하여 알려주는 흥미로운 초상화이며, 높은 수준의 기법적 완성도를 통하여 인물을 마치 살아있는 듯이 재현했다.

따라서 극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초상화의 예술적 성취를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다양한 면모를 실감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시각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보류

6. 헌종가례진하계병(憲宗嘉禮陳賀契屏)

가. 검토사항

헌종가례진하계병”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헌종가례진하계병”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1.0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헌종가례진하계병(憲宗嘉禮陳賀契屏)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박물관
-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 수 량 : 1좌
- 규 격 : 각 세로112.5 × 가로46.5cm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8첩 병풍
- 제작연대 : 1844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경기도박물관 소장 <헌종가례계진하계병>은 조선후기의 왕실의 주요행사인 가례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시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 계병들과 비교하

면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 약간 뒤지지만, 기 지정된 보물 제733호에 비교해 볼 때 같은 필치와 화풍을 보여주며, 상태는 오히려 보다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지정대상이 된다면, 명칭은 보물 제733호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계병이란 명칭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도감의 벼슬아치 들이 그 일을 처리 한 뒤에 기념으로 제작했던 병풍으로서, 이 그림 역시 계병이기는 하지만, 관원들끼리 나누어 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궁중에도 내입한 관행도 있었으므로,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 도병이라 일컫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또한 기존의 보물 제733호는 이 작품이 주로 진하장면을 그린 것이므로, 명칭 역시 <憲宗嘉禮陳賀圖屏>이란 포괄적인 명칭으로 수정, 변경하여, 지금 지정 대상인 경기도박물관 소장본과 함께 가지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헌종가례진하계병>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헌종가례진하도병>과 비교하면 반교문과 좌목의 서풍이 같으며 그림도 같은 필치와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 동시기에 제작된 다른 종류의 궁중행사도 계병과 비교하면 필치와 완성도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 보물 지정된 동아대의 <헌종가례진하도병>과 같은 수준과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헌종가례진하계병>이 가례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아니지만 의례의 행렬반차도를 제외하면 왕실혼례인 가례와 관련된 그림이 귀하다는 측면에서 이 그림은 희소성이 있다.

현재 박물관 측에 등록된 작품명은 憲宗嘉禮陳賀契屏'이다. 좌목에 의거하여 선전관청의 계병임이 분명하지만 19세기에는 같은 내용의 병풍을 궁중에도 內入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병풍이 관원들에게 분상된 계병이 아니고 內入圖屏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憲宗嘉禮陳賀圖屏'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헌종가례진하계병>은 왕실가례와 관련된 진하를 그린 점, 선전관청의 계병인 점, 19세기 시대양식에 부합하는 점 등 작품의 내용과 양식면에서 19세기 진하도병을 대표할만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기록화 중에서 궁궐을 그리는 경우 건물들을 정면을 위주로 하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그린 “청면부감구도”가 많다. 지도를 염두에 둔 평면도와도 같은 것으로 <화성능행도>와 같은 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건물들을 측면에서 빚겨보면서 사선이 평행을 이루도록 하는 “평행사선구도”에 속한다. 이 계통의 대표적인 작품이 <동궐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궐도 및 기록화 중에서 평행사선구도가 잘 구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의 다른 궁중기록화와 비교해 볼 때, 나무, 건물, 인물 등의 세부 묘사에 있어서 약간 둔중한 양식을 보여준다. 즉 필선이 굵고, 동일한 형태가 변화없이 반복되며, 색채도 지나치게 짙다. 최상급 궁중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극도로 섬세한 묘법과 생기 넘치는 필선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당시 여러 채의 대형 병풍을 동시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작품이 현재 보물733호로 지정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전체 구성 및 구도, 필치와 색상이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대본의 경우 화면의 손상이 훨씬 심하다. 특히 제2쪽 같은 경우에는 박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림의 원형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본은 이런 결손부분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궁중행사 기록화로서 제작년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당시 전개되었던 국가 의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또한 과감한 평행투시도법, 화려한 채색기법, 정교한 묘사방식으로 예술성이 매우 높은 회화자료이다. 거대한 규모임에도 기록화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표현을 충실하게 달성한 작품이다.

따라서 장대한 국가의례를 회화적으로 충실히 재현하였으며, 수준 높은 전문 화원의 손에 의해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같은 시기에 제작된 거의 동일한 작품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이 8폭 병풍은 1844년(헌종10) 조선조 제24대 왕인 憲宗(1827~1849, 재위 1834~1849)이 孝定王后와 嘉禮를 치른 후 진하장면을 그린 궁중기록화이다. 8세에 즉위한 헌종은 정비였던 孝顯王后 金氏(1828~1843)가 죽자 이듬해 10월 18일 흥재릉의 딸을 계비 효정왕후로 책봉하였으며, 21일 親迎禮와 同牢宴을 거행하였다.

<헌종가례진하계병>은 총 8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첩에는 藝文館 提學 趙秉龜(1801~1845)가 지어올린 嘉禮後陳賀教是時頒教文'이 쓰여 있다.

제2첩에서 7첩까지 여섯 폭에는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을 하여 진하례가 그려져 있다. 효정왕후의 책봉, 가례, 진하는 실제로는 모두 慶喜宮에서 치러졌으므로, 이 그림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지만, 19세기 진하도병에서는 실제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진하례를 그렸다. 따라서 이 병풍에서도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이 산수, 수목, 인마들과 함께 질서정연하면서도 호화롭게 묘사된 가운데, 문무백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집결되어 있다. 평행사선부감의 형식으로 표현된 궁궐장면은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국왕과 국체를 상징하는 의장이 총동원된 진하장면은 조선왕실문화의 위엄과 화려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다.

제8첩에는 선전관청의 관원으로 이루어진 선전관좌목이 보인다. 折衝將軍 宣傳官 尹明[儉(1779~?), 李熙庚(1790~?)을 비롯하여 모두 25명 관원들의 품계, 관직명, 생년, 과거급제년,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으로 보아 이 병풍은 선전관들이 주도하여 헌종가례 및 진하를 기념하여 제작된 선전관청의 계병이라 할 수 있으며, 관행상 좌목에 들어 있는 선전관원 전원에게 모두 분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세필에다 진채로 이루어진 대폭의 가례도는 회화사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167년 전의 궁중혼례모습을 생생하게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헌종가례진하계병>과 같은 내용의 그림이 동아대학교박물관(1982년 보물 제 733호로 지정)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각각 1점씩 소장되어 있다. 이들 세 병풍은 밑그림에서 약간 씩 차이를 보이며, 각종 의장물이나 인물의 복식과 포치,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수효도 상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양식은 거의 같아서 제작시기는 거의 같은 무렵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경기도박물관 소장 <헌종가례계진하계병>은 조선후기의 왕실의 주요행사인 가

례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시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 계병들과 비교하면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 약간 뒤지지만, 기 지정된 보물 제733호에 비교해 볼 때 같은 필치와 화풍을 보여주며, 상태는 오히려 보다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지정대상이 된다면, 명칭은 보물 제733호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계병이란 명칭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도감의 벼슬아치 들이 그 일을 처리 한 뒤에 기념으로 제작했던 병풍으로서, 이 그림 역시 계병이기는 하지만, 관원들끼리 나누어 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궁중에도 내입한 관행도 있었으므로,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 도병이라 일컫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또한 기존의 보물 제733호는 이 작품이 주로 진하장면을 그린 것이므로, 명칭 역시 <憲宗嘉禮陳賀圖屏>이란 포괄적인 명칭으로 수정, 변경하여, 지금 지정대상인 경기도박물관 소장본과 함께 가지번호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 현 상

<헌종가례진하계병>은 비단 바탕의 8첩 병풍으로 제1첩의 진하례 때 반포한 頒敎文, 제8첩의 座目, 그리고 나머지 6첩에 걸쳐 진하례의 광경이 그려진 기록화이다. 2003년 경기도박물관에서 구입할 당시에는 화면에 박락된 부분이 많았으나 2006년 보존처리를 할 때 부분적으로 보필(補筆)하여 현재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 내용

<헌종가례진하계병>은 1844년(헌종 10) 헌종이 益豐府院君 洪在龍(1794~1863)의 딸(孝定王后, 1828~1903)과 가례를 치른 후 10월 22일 慶熙宮 崇政殿에서 敎書를 반포하고 문무백관의 진하를 받는 광경을 그린 것이다. 헌종은 1843년 正妃였던 孝顯王后(1828~1843)가 죽자 이듬해 10월 18일 계비 효정왕후를 책봉하고 21일 親迎禮와 同牢宴을 거행하였다. 제1첩에는 禮文館提學 趙秉龜(1801~1845)가 지어 올린 「嘉禮後陳賀敎是[時]頒敎文」(時'字는 거의 박락되어 보이지 않음)이 쓰여 있다.

제2첩부터 7첩까지 6첩에 걸쳐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한 진하례가 그려져 있다. 효정왕후의 책봉, 가례, 진하는 모두 慶熙宮에서 치러졌으므로 그림에 그려진 창덕궁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배경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유행한 진하도병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실제 의례 장소와 관계없이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한 진하

례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계병의 유행, 제작 관행의 형식적 반복, 진하례 주제에 대한 선호 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의 모든 진하도 병의 배경은 인정전이며 <헌종가례진하계병>도 당시의 유행을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 왼편에서 사선으로 부감하는 평행사선구도를 사용하여 인정전을 중심으로 한 부근을 파노라마식으로 포치하였으므로 상당히 장대한 궁궐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시각의 범위는 서쪽 金虎門에서 熙政堂까지 外殿 중심이지만 모든 건물을 다 그리지 않고 주요건물 위주로 생략적인 묘사를 하였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창덕궁의 진입방향을 따라 왼편부터 살펴보면 제7첩에는 하단에 금호문과 錦川, 錦川橋, 그리고 금천교 왼편에 반쯤 그려진 摛文院(추정)과 오른편의 璿源殿(추정)이 그려져 있다. 제6첩에는 하단의 進善門과 養志堂(추정)이 그려져 있다. 제5첩에는 仁政殿과 仁政門이 큰 비중으로 포치되어 있다. 인정전 대청에는 金冠朝服 차림의 承旨와 史官이 부복하였고 북향한 代致詞官은 致詞文을 낭독하고 있다. 중간기단 위에 선 사람들이 宣傳官員이며 그 아래에는 交籠旗와 纛이 좌우로 설치되었다. 殿庭에는 문무백관이 부복하였고 小輿, 小輦, 大輦, 御馬 등이 늘어서 있다.

제4첩에는 善政殿과 善政門, 그리고 宣傳官廳□銀臺□臺廳 등이 있는 궐내각사가 묘사되고 제3첩에도 궐내각사와 肅章門이 그려져 있으며 상단에는 熙政堂이 반쯤 구름에 가린 채 그려져 있다. 제2첩은 산수와 瑞雲으로 마감하면서 더 이상 자세한 표현은 하지 않고 무슨 건물인지 알 수 없는 지붕 3개만을 그려 넣었다. 원경에 표시된 石造의 홍예는 後苑의 不老門으로 생각된다. 희정당 너머에도 건물과 후원이 계속 이어짐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특별히 불로문을 그려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제8첩에는 선전관청 관원으로 이루어진 「宣傳官廳座目」이다. 부분적으로 박락된 글자도 있으나 折衝將軍 선전관 尹明[儉](1779~?), 李熙庚(1790~?), 權灝(1789~?), 李信泳(1794~?), 御侮將軍 선전관 趙秉善(1817~?), 李膺漢(1814~?), 李完熙(1813~?), 李志益(1823~?), 宋在[濬](1810~?), 南宮鈺(1803~?), 宣略將軍 선전관 趙用夏(1811~?), 效力副尉 선전관 李玄益(1811~?), [李宓]熙(1814~?), [柳相]翬(1813~?), 孫亮漢(1812~?), 李鷹周(~?), 趙存澈(1817~?), 尹喜秀(1818~?), 鄭濟成(1813~?), 韓尙烈(1807~?), 李明熙(1808~?), 趙文顯(1817~?), 朴長夏(1813~?), 李敏德(1816~?), 李光[濂](1821~?)까지 25명의 품계, 관직명, 생년, 과거급제년,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안의 글자는 박락된 부분의 표시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본을 바탕으로 보완한 것임). 좌목으로 보아 이 도병은 선전관들이 주도하여 제작한 선전관청의 稷屏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행상 좌목에 적힌 선전관원들에게 모두 분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특징

19세기 진하도병은 시각구성상 정면부감 형식과 평행사선부감 형식의 2가지가 있는데 이 <헌종가례진하계병>은 후자에 속하는 예이다. 창덕궁의 진하례를 평행사선부감 형식으로 그린 다른 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왕세자탄강진하계병>이 있다.

19세기의 다른 궁중행사도 병풍과 비교할 때 얼굴에 이목구비의 표현이 전혀 없으며 윤곽에 사용된 필선은 약간의 太細가 있으며 굵고 거친 편이다. 인물의 신체 비례나 유형, 채색의 색감 등은 19세기 중엽 다른 궁중행사도와 유사하다. 금채가 사용된 흔적이 있으며 명암표현은 건물의 붉은 기둥에서만 나타난다. 명암이 지붕이나 다른 세부 건축 표현에는 시도되지 않았으며 인물 의습에 덧선을 그어 입체적인 효과를 내는 방식을 쓰지 않은 점은 19세기 중엽의 다른 궁중행사도와 다른 점이다. 청록산수기법으로 그려진 산수 묘사에서는 청색 보다 녹색을 많이 쓰고 짧은 선으로 산의 질감처리를 하였으며 화보풍의 수지법을 보여준다.

<헌종가례진하계병>은 같은 내용의 그림이 동아대학교박물관(1982년 보물 제 733호로 지정)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다. 세 소장본은 밑그림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여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의장물, 인물의 숫자와 위치, 복식의 종류와 복색 등에서 조금씩 다른데 경기도박물관의 <헌종가례진하계병>은 국립중앙박물관본과 더 가깝다. 그러나 세 그림의 필치와 화풍은 상통하여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헌종가례진하계병>을 이미 보물로 지정된 동아대학교박물관의 <헌종가례진하도병>과 비교하면 반교문과 좌목의 서풍이 같으며 그림도 같은 필치와 화풍을 간직하고 있다. 동시기에 제작된 다른 종류의 궁중행사도 계병과 비교하면 필치와 완성도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 보물 지정된 동아대의 <헌종가례진하도병>과 같은 수준과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헌종가례진하계병>이 가례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은 아니지만 의례의 행렬반차도를 제외하면 왕실혼례인 가례와 관련된 그림이 귀하다는 측면에서 이 그림은 희소성이 있다.

현재 박물관 측에 등록된 작품명은 憲宗嘉禮陳賀契屏'이다. 좌목에 의거하여 선전관청의 계병임이 분명하지만 19세기에는 같은 내용의 병풍을 궁중에도 內入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병풍이 관원들에게 분상된 계병이 아니고 內入圖屏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憲宗嘉禮陳賀圖屏'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을 쓰는 것이 좋겠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헌종가례진하계병>은 왕실가례와 관련된 진하를 그린 점, 선전관청의 계병인 점, 19세기 시대양식에 부합하는 점 등 작품의 내용과 양식면에서 19세기 진하도병을 대표할만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 2冊 (규 13141-1, 13141-2)
朴廷蕙,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

○ 현 상

현재 8폭 병풍 형태이며 2006년 은실문물연구원에서 수리를 거쳐 양호한 상태이다. 제1폭에는 조병구가 지어 올린 서문이, 제8폭에는 좌목이 적혀 있다. 제3폭 및 제7폭의 화면이 손상된 부분이 있어 수리 과정에서 보완하였는데 주로 배경 부분이 손실되었기에 화면의 원상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제8폭 좌목의 경우 전체 20% 가량이 손실되어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비단의 상태는 양호하며 안료의 색상도 선명하다.

○ 내용 및 특징

헌종10년(1844년) 10월에 헌종이 계비 효정왕후를 맞아 창덕궁 인정전에서 가례를 올리고 진하하는 장면을 그렸다. 청록산수로 그려진 구름 장면으로 시작하여 건물을 대각선으로 부감하여 투사하는 방식으로 묘사했고, 문무백관이 질서있게 도열한 행사 장면을 정교하게 그렸다. 장대한 구도와 화려한 색채로 위엄있고 경사스런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선시대 기록화 중에서 궁궐을 그리는 경우 건물들을 정면을 위주로 하여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그린 '청면부감구도'가 많다. 지도를 옆두에 둔 평면도와도 같은 것으로 <화성능행도>와 같은 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건물들을 측면에서 빗겨보면서 사선이 평행을 이루도록 하는 '평행사선구도'에 속한다. 이 계통의 대표적인 작품이 <동궐도>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궐도 및 기록화 중에서 평

행사선구도가 잘 구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의 다른 궁중기록화와 비교해 볼 때, 나무, 건물, 인물 등의 세부 묘사에 있어서 약간 둔중한 양식을 보여준다. 즉 필선이 굵고, 동일한 형태가 변화 없이 반복되며, 색채도 지나치게 짙다. 최상급 궁중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극도로 섬세한 묘법과 생기 넘치는 필선은 찾아보기 어렵는데, 당시 여러 채의 대형 병풍을 동시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작품이 현재 보물733호로 지정되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전체 구성 및 구도, 필치와 색상이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대본의 경우 화면의 손상이 훨씬 심하다. 특히 제2쪽 같은 경우에는 박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림의 원형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본은 이런 결손부분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궁중행사 기록화로서 제작년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당시 전개되었던 국가 의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 자료이다. 또한 과감한 평행투시도법, 화려한 채색기법, 정교한 묘사 방식으로 예술성이 매우 높은 회화자료이다. 거대한 규모임에도 기록화에서 추구하는 정확한 표현을 충실하게 달성한 작품이다.

따라서 장대한 국가의례를 회화적으로 충실히 재현하였으며, 수준 높은 전문 화원의 손에 의해 제작되었고, 조선시대 왕실문화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같은 시기에 제작된 거의 동일한 작품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7. 박사의 초상 및 함(朴師益 肖像 및 函)

가. 검토사항

박사의 초상 및 함”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박사의 초상 및 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0.03.1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30)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박사의 초상 및 함(朴師益 肖像 및 函)
- 소유자(관리자) : 개인소장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 수 량 : 1건2점
- 규 격 : 세로 220 × 가로 105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726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박사의초상>은 종손가에서 줄곧 보존해 온 본으로서, 화폭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표현형식과 기법 모두 18세기 초 정장 관복본 초상화의 전형을 보여준

다. 기 지정된 1728년(영조4) 분무공신상인 <오명항(1673~1728)초상>(보물 1177호), <박문수(1691~1756)초상>(보물1189호), <유수(1678~1756)초상>(보물 1176호) 등과 유사한 형식과 예술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화면에 쓰여 있는 1726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박사익의 官歷과 화면에 표현된 복식과 부합하여 내용적으로 믿을만하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18세기 전반 관복상 초상이 가지고 있는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동 시기의 초상화들과 같은 수준이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 초상화가 전통과 혁신의 전환기에 속했던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이다. 분명한 필선을 제한적으로 조금만 사용하여 얼굴이 맑은 느낌을 준다. 얼굴의 요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분홍색을 곁들였다. 사실적인 표현이 강조되면서도 지나치게 명암법을 구사하지는 않았기에 단아한 조선 선비의 풍모를 잘 전달해준다.

얼굴의 세부 묘사, 의복과 기물의 화려한 표현, 적절한 신체 비례 등에서 실존 인물의 초상화이면서도 심미적인 요소가 두드러져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작품이다.

이 초상화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는 1726년인데, 두 해가 지난 1728년에는 조선시대 최후의 공신인 분무공신의 책봉이 이루어지고 초상화가 제작되었다. 이때 그려진 <오명항초상>(보물1177호), <박문수초상>(보물1189호), 그리고 1727년에 그려진 <유수초상>(보물1176호)등과 박사익 초상은 양식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18세기 이후 널리 유행하였던 조선시대 후기 초상화의 여러 특징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주인공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뛰어난 기량을 지닌 전문 화가의 손으로 제작되어 예술성이 높은 초상화다. 이미 지정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유형의 초상화와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작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내용 및 특징

박사익(1675~1736)은 조선조 후기 경종, 영조 때의 문신이다. 본관은 潘南이며, 자는 謙之, 호는 鷺州, 시호는 章翼이다. 朴東亮의 후손이며, 참봉 朴弼賀의 아들이다. 1710년(숙종36) 생원이 되고, 1712년 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史官으로 발탁, 說書를 겸하였다. 檢閱, 正言, 修撰을 역임하고, 都堂錄에 선발되었다. 그 후 1717년 70세에 가까운 노부모의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청하여 강서현령을 나갔다. 이어 부교리를 거쳐 당시 대리청정하던 왕세자 경종을 위하여 시무에 가장 절실한 상소를 올려 채택되었으며,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다.

경종 즉위 후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辛壬士禍가 일어나자 공신회맹에 불참한 죄로, 泰仁에 귀양갔다가 다시 청하로 이배되었다. 영조가 등극하자 귀양에서 풀려 직첩을 돌려 받았으며, 이조참의를 거쳐 강화유수에 임명되어 강화의 성곽을 보수하였다. 1727년(영조3) 특지로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 錦原君에 봉해졌으며, 대사헌을 거쳐 형조, 공조, 예조판서를 지내고, 좌참찬이 되었다. 1736년(영조 12)에 졸하였다. 글씨에 뛰어나 <右議政閔鎮遠碑>, <禮曹參判 安積碑> 등이 전하고 있다.

<박사익 초상>은 화폭의 오른 쪽 상단에 錦原翁五十二歲像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데, 오사모에 녹색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좌상이다. 얼굴은 오른 쪽으로 살짝 돌린 좌안8분면이며, 손은 공수자세를 하고 있다. 사모의 높이는 제법 높아 영조연간 초기의 모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가슴에는 從二品 벼슬아치임을 지시하는 鶴頂金帶와 아울러 雙鶴文樣의 흉배가 보인다. 의자에는 호피가 깔려 있으며, 足座臺 위에 八字形으로 벌린 兩靴 사이로는 호랑이 얼굴이, 그리고 족좌대 바깥쪽으로는 호피의 양 발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다. 또한 바닥에는 채전도 돛자리도 깔려 있지 않다.

안면은 전체적을 밝은 살색을 주조로 하고, 보다 짙은 색선으로 외곽선과 이목구비를 규정하였다. 눈썹은 옅은 먹선으로 중간에서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등 정성스레 묘사하였으며, 양 眼頭에는 붉은 색을 살짝 삽입하였다.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은 검은 선으로 묘사하고, 속눈썹은 위에만 그려 넣었다. 산근과 와잠의 아랫면, 그리고 미간과 이마 등에 붉은 색조로 선염처리함으로써, 안면에 입체감을 주고자 하였다. 수염은 밑에 니금색을 칠하고 한 올씩 그려 넣었는데, 술은 적

지만 단아한 느낌이다. 미간 사이의 세로 주름 선과 귀밑 점 등 박사익의 개성적 특징을 잘 포착해내었으며, 전체적으로 약간 경직되고 근엄한 표정을 통해 그의 성정이 잘 드러나 있다.

옷주름 선은 선묘를 기조로 하면서도 주름선 주위에 약간 짙은 색으로 선염하여 주름진 부위를 지시하고자 했으며, 당시의 복제 대로 넓은 소매통으로 인해 공수한 부분 아래쪽으로 주름진 부위가 늘어져 있어 약간 찢그러진 느낌을 주는데, 이 점은 18세기초 관복본 초상화에 나타나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박사익초상>은 종손가에서 줄곧 보존해 온 본으로서, 화폭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표현형식과 기법 모두 18세기 초 정장 관복본 초상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기 지정된 1728년(영조4) 분무공신상인 <오명항(1673~1728)초상>(보물1177호), <박문수(1691~1756)초상>(보물1189호), <유수(1678~1756)초상>(보물1176호) 등과 유사한 형식과 예술적 수준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

○ 내용 및 특징

左顔八分面의 얼굴에 오사모를 쓰고 녹색 단령을 입은 조선후기의 문신 朴師益(1675~1736)의 전신 교의상이다. 화면 상단에 후에 첨기된 것으로 보이는 錦原翁五十二歲像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서 박사익이 52세되는 1726년에 제작된 초상화임을 말해준다. 쌍학흉배에 鶴頂金帶를 차고 있는 모습은 종2품의 관직에 해당되는 복식이므로 박사익이 1722년(경종 2)에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받았고 1727년에는 병조판서가 되었던 이력과 시기적으로 부합한다.

갈색 선으로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를 규정하고 이마□코□뺨 등을 담홍색으로 선염하여 紅氣를 표현하였다. 그 외에 얼굴에 가해진 필선은 없다. 눈동자는 검은 색으로 윤곽하고 갈색으로 담채하였으며 안쪽으로 붉은 기를 가하였다. 오사모는 모정의 앞 뒤 구분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진하게 설채되었고 여기에 채도가 낮은 선묘를 가하여 형태를 잡았다.

운문과 팔보문이 있는 단령의 옷주름은 직선과 곡선이 섞였지만 직선 위주이다. 단령의 오른쪽 트임 사이로 청색과 흰색의 안감이 보인다. 쌍학흉배는 갈색바탕에 단정학이 오색구름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다. 소매 속에서 공수한 자세이며 족좌대 위의 발은 八字形으로 놓여 있다. 교의에는 豹皮가 깔려 있고 표범 머리 부분이 족좌대 위 양발 사이에 놓여 있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화면에 쓰여 있는 1726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박사익의 官歴과 화면에 표현된 복식과 부합하여 내용적으로 믿을만하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18세기 전반 관복상 초상이 가지고 있는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미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동 시기의 초상화들과 같은 수준이다.

□

○ 현 상

현재 족자 형태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바탕에 약간의 얼룩이 있고 꺾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었다. 먹과 안료의 발색도 잘 남아 있으며, 족자도 원래의 모습이고 유소도 잘 보존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조선 후기 문신 박사익(朴師翼, 1675~1736)의 초상이다. 박사익은 영조때 형조, 공조, 예조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검은 오사모를 쓰고 짙은 초록색의 단령을 입었으며 목주위로 흰 직령이 나와 있다. 당상관을 나타내는 쌍학흉배와 학정금대를 착용했으며, 표범가죽이 덮인 교의에 앉아서 족좌에 발을 얻고 있다. 두손을 앞쪽을 맞잡아 소매 속에 감추었고 좌안측면의 자세를 취한 전형적인 공신초상 형식의 전신상이다.

배경과 바닥은 생략되었고, 오른쪽 위에는 錦原翁五十二歲像 이라고 적혀 있는데 52세는 1726년에 해당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조선시대 초상화가 전통과 혁신의 전환기에 속했던 18세기 전반기의 작품이다. 분명한 필선을 제한적으로 조금만 사용하여 얼굴이 맑은 느낌을 준다. 얼굴의 요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 분홍색을 곁들였다. 사실적인 표현이 강조되면서도 지나치게 명암법을 구사하지는 않았기에 단아한 조선 선비의 풍모를 잘 전달해준다.

얼굴의 세부 묘사, 의복과 기물의 화려한 표현, 적절한 신체 비례 등에서 실존 인물의 초상화이면서도 심미적인 요소가 두드러져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이 초상화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는 1726년인데, 두 해가 지난 1728년에는 조선시대 최후의 공신인 분무공신의 책봉이 이루어지고 초상화가 제작되었

다. 이때 그려진 <오명향초상> (보물1177호), <박문수초상> (보물1189호), 그리고 1727년에 그려진 <유수초상> (보물1176호)등과 박사의 초상은 양식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18세기 이후 널리 유행하였던 조선시대 후기 초상화의 여러 특징을 잘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이다. 주인공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며, 뛰어난 기량을 지닌 전문 화가의 손으로 제작되어 예술성이 높은 초상화다. 이미 지정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유형의 초상화와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작이다.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8.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 (佔畢齋 文籍 遺品 및 宗家文書)

가. 검토사항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로부터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6.0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6.2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북유형문화재 제209호(1985.10.15. 지정)
- 명 칭 :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
- 소유자(관리자) : 개인소장
- 소재지 : 경상북도 고령군
- 수 량 : 전적 2종 5책, 유품 6종 14점, 고문서 156매
- 규 격 : 보고서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筆寫本)
- 형 식 : 낱장
- 제작연대 : 15세기 ~ 18세기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佔畢齋宗家 古文書類는 時期的으로 成宗朝에서부터 宣祖朝를 下限으로 하는 文

化財로, 估畢齋와의 관계나 製作時期 등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전기의 政治 社會 文化의 사정을 이해하는 基本史料로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며, 특히 估畢齋 母夫人의 書札과 점필재 後妻 文氏의 分財記, 田畓買入 明文, 戶口單子 등은 조선시대의 社會史 經濟史 法制史 國語史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일부 훼손된 古文書類는 專門機關이나 匠人을 통한 補修와 保存管理가 要望된다. 또한 이들 문화재는 현재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大加耶博物館에 의해 임시로 維持 管理되고 있으므로 文化財廳이나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寄託이나 寄贈 등의 수단을 통한 적절한 維持 管理方策의 강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 중에서 이들 古文書類는 國家文化財의 指定으로 摘出하고 나머지 문화재는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로 잔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점필재 종가문서는 영남사림파의 종장인 김종직이나 그의 후손들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종직에게 내려진 교지나 교첩, 그의 후손들이 소과나 무과에 합격하여 받은 홍패와 백패, 그리고 각종 사령장 등은 조선 전기와 중기의 과거제도와 관료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 김종직과 그의 후손들이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으며 작성한 분재기나 토지나 노비를 매득하고서 작성한 매매문서와 입안 등이 다수 전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는 조선 전기와 중기 재산의 분배 양상과 매매 관행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종직의 어머니 朴氏와 부인 曹氏 김종직의 형 宗裕 등에게 보낸 서간과 김종직의 손자인 김뉴가 훈도 정아무개에게 보낸 서간 등은 조선 전기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신청된 종가의 고문서 79점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점필재 종가 고문서는 김종직과 그의 선조 및 후손들과 관련된 교지 교첩, 녹패, 분재기, 명문, 호구전준, 서간, 입안 등의 고문서 79점이다. 이 고문서들은 김종직이 1461년(세조 7)에 登第한 이래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중요 요직을

지냈으므로 교지 교첩 녹패는 김종직의 仕宦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분재기는 김종직이 부모로부터 받은 허여 또는 별급문기 그리고 분재기의 상당수는 처가로부터 분급받은 것으로 당시의 재산 授受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토지를 매입한 명문, 호구전준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는 요소가 되며, 김종직이 가족에게서 받은 서간은 생활상이 드러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고문서연구는 물론 당시의 생활사, 신분제도사, 과거제도 연구, 재산상태 및 사회 경제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지정명칭은 김종직 종가 고문서' 로 하고, 지정 신청시 소장자 김병식씨는 2011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맏아들 김진규씨로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점필재가문 고문서는 영남사림파의 종장인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교지, 패지 등을 비롯하여 김종직 母夫人의 서찰, 김종직의 後夫人文氏의 분재문기와 호구단자, 전담매매명문 등으로 현재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본 점필재 종가 소장의 고문서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기본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김종직 모부인의 서찰과 김종직 後夫人文氏의 분재기, 전담 매매명문, 호구단자 등 고문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사, 법제사, 국어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홍패□백패 및 각종 사령장 등은 조선전기와 중기의 과거제도 및 관료 제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재기□매매명문□입안 등은 이 시기 사족 가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들 고문서는 이러한 사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김종직이 영남사림파의 종장으로서 참혹한 무오사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중요한 자료를 보존해 오고 있다는 데서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점필재 종가 고문서 79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효율적 보존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현 상

調査件 <調査対象 文化財 目録>의 문화재는 佔畢齋의 宗家에 전해지는 佔畢齋의 典籍 遺品 古文書 등으로 현재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다.

調査件 <調査対象 文化財 目録>의 문화재는 慶尙北道 高靈郡 雙林面 舍伽里 84번지의 佔畢齋 宗家(宗孫 金震圭)의 소유이며, 慶尙北道 高靈郡 高靈邑 池山里 460번지의 大加耶博物館에 의하여 임시로 維持 管理되고 있다.

調査件 <調査対象 文化財 目録>의 문화재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良好한 편이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의 補修를 필요로 하는 文化財도 적지 않다.

<調査対象 文化財 目録> (전적 2종 5책, 유품 6종 14점, 고문서 156매)						
연번	명칭	재질	규격(cm)	수량	조성연대·형식·특징	조사결과(안)
1	畢齋堂后日記	楮紙	39.0×34.5	1冊	1482년(성종13)	경북유형209
2	畢翁玉友	벽옥	24.3×15.0	1點	성종 하사품 (벼루)	경북유형209
3	琉璃酒瓶	유리	32.0×11.0	1點	성종 하사품 (병)	경북유형209
4	梅花硯	석재	12.8×22.5×1.6	1點	(벼루)	경북유형209
5	象牙笏	상아	42.5×6.5×0.65	1點	(홀)	경북유형209
6	經義	楮紙	20.5×13.0	4冊	易義·書義·詩義·曲禮(전적)	경북유형209
7	竹簡과 紙桶		8.5×17.0	1點	1,410片	경북유형209
8	號牌와 술띠		8.0×2.5	9點		경북유형209
9 教旨	朝散大夫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	壯紙	60.0×44.0	1枚	成化6(1470) 6月 初三日	일괄지정
-1	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					
-2	朝散大夫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2月 初1日	일괄지정
-3	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2月 初1日	일괄지정
-4	奉列大夫行咸陽郡守	壯紙	57.0×44.0	1枚	成化7(1471) 9月 初6日	일괄지정
-5	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12月 初日	일괄지정
-6	奉正大夫行咸陽郡守	壯紙	62.0×48.0	1枚	成化7(1471) 12月 27日	일괄지정
-7	中訓大夫行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9(1473) 11月 初5日	일괄지정
-8	中直大夫行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11(1475) 2月 日	일괄지정
-9	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教	壯紙	85.0×50.0	1枚	成化11(1475) 12月 28日	일괄지정
-10	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壯紙	67.0×46.5	1枚	成化12(1476) 7月 初1日	일괄지정
-11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	壯紙	77.0×46.0	1枚	成化12(1476) 7月 初1日	일괄지정
-12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金宗直妻令人曹氏爲淑人	壯紙	85.0×50.0	1枚	成化12(1476) 8月 初三日	일괄지정
-13	通訓大夫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壯紙	85.0×50.0	1枚	成化18(1482) 3月 11日	일괄지정
-14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77.5×47.5	1枚	成化19(1483) 10月 初4日	일괄지정
-15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80.0×45.0	1枚	成化19(1483) 11月 初1日	일괄지정
-16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82.5×46.5	1枚	成化20(1484) 6月 初1日	일괄지정
-17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	壯紙	82.0×46.0	1枚	成化20(1484) 8月 初6日	일괄지정
-18	嘉善大夫吏曹叅判	壯紙	81.5×47.0	1枚	成化20(1484) 10月 26日	일괄지정
-19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祖考成均進士金瑄贈通政大夫戶曹叅議	壯紙	85.0×50.0	1枚	成化20(1484) 11月 14日	일괄지정
-20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妻淑人曹氏贈貞夫人	壯紙	85×50cm	1枚	成化20(1484) 11月 14日	일괄지정
-21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	壯紙	74.0×46.5	1枚	成化21(1485) 正月 27日	일괄지정

-22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	壯紙	85.0×50.0	1枚	成化21(1485) 9月 29日	일괄지정
-23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成均館事金宗直妻文氏爲貞夫人	壯紙	85.0×50.0	1枚	成化22(1486) 正月 初8日	일괄지정
-24	兼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提學	壯紙	80.0×45.5	1枚	成化22(1486) 3月 初2日	일괄지정
-25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壯紙	73.0×47.0	1枚	成化22(1486) 12月 初3日	일괄지정
-26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	壯紙	85.0×50.0	1枚	成化23(1487) 5月 23日	일괄지정
-27	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	壯紙	68.5×45.0	1枚	成化23(1487) 5月 23日	일괄지정
-28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壯紙	68.0×44.5	1枚	成化23(1487) 5月 27日	일괄지정
-29	全羅道兼兵馬水軍節度使	壯紙	79.0×46.0	1枚	成化23(1487) 6月 初8日	일괄지정
-30	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成均館事	壯紙	81.0×45.0	1枚	弘治元(1488) 10月 16日	일괄지정
-31	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	壯紙	87.0×47.0	1枚	弘治元(1488) 12月 15日	일괄지정
-32	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正月 21日	일괄지정
-33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曾祖妣贈淑人金氏贈淑夫人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3月 初8日	일괄지정
-34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祖妣贈淑夫人俞氏贈貞夫人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3月 初8日	일괄지정
-35	兵曹奉教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今辛亥年第三科祿	壯紙	74.0×89.0	1枚	弘治4(1491) 正月 日	일괄지정
-36	幼學金紐進士二等第十六人入格	壯紙	40.0×91.0	1枚	隆慶2(1568) 6月 日	일괄지정
-37	進士承仕郎金紐爲承仕郎行密陽訓導	壯紙	85.0×50.0	1枚	隆慶4(1570) 8月 17日	일괄지정
-38	承仕郎行密陽訓導金紐爲通仕郎行密陽訓導	壯紙	85.0×50.0	1枚	隆慶6(1572) 閏2月 25日	일괄지정
-39	進士務功郎金紐爲務功郎行咸安訓導	壯紙	85.0×50.0	1枚	萬曆元(1573) 12月 1日	일괄지정
-40	右帖下進士務功郎金紐准此	壯紙	85.0×50.0	1枚	萬曆2(1574) 2月 日	일괄지정
-41	司圍署別檢務功郎金紐爲宣務郎	壯紙	85.0×50.0	1枚	萬曆2(1574) 6月 4日	일괄지정
-42	前別提宣教郎金紐爲宣教郎行高靈訓導	壯紙	79.0×52.0	1枚	萬曆5(1577) 4月 22日	일괄지정
-43	前訓導宣務郎金紐爲宣務郎金海教授	壯紙	85.0×50.0	1枚	萬曆7(1579) 9月 9日	일괄지정
-44	宣教郎金海教授金紐爲承訓郎金海教授	壯紙	85.0×50.0	1枚	萬曆8(1580) 正月 22日	일괄지정
-45	正金聲律武科丙科第一百二十七人及第出身	壯紙	72.0×86.0	1枚	萬曆31(1603) 正月 日	일괄지정
-46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前妻貞夫人曹氏爲貞敬夫人	壯紙	85.0×50.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일괄지정
-47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後妻貞夫人文氏爲貞敬夫人	壯紙	85.0×50.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일괄지정
-48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壯紙	114.0×78.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일괄지정
-49	幼學金是洛生員二等第六十六人入格	壯紙	44.0×101.0	1枚	康熙30(1691) 2月 28日	경북유형209
-50	生員金是洛爲將仕郎孝陵叅奉	壯紙	74.0×54.0	1枚	康熙40(1701) 3月 日	경북유형209
-51	前叅奉金是洛爲宣務郎行厚陵叅奉	壯紙	74.0×52.0	1枚	康熙47(1708) 7月 5日	경북유형209
-52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	壯紙	106.0×71.5	1枚	康熙48(1709) 2月 日	일괄지정

	監事贈諡文忠公					
-53	宣務郎行厚陵叅奉金是洛爲宣教郎行厚陵叅奉	壯紙	74.0×53.0	1枚	康熙48(1709) 10月 日	경북유형209
-54	宣教郎行厚陵叅奉金是洛爲承訓郎行厚陵叅奉	壯紙	74.0×55.0	1枚	康熙49(1710) 2月 15日	경북유형209
-55	承訓郎行厚陵叅奉金是洛爲承訓郎行獻陵奉事	壯紙	77.0×55.0	1枚	康熙49(1710) 4月 16日	경북유형209
-56	金準爲朝奉大夫行成均館典籍	壯紙	73.0×53.0	1枚	咸豐2(1852) 10月 17日	경북유형209
-57	幼學金準文科甲科第一人及第出身	壯紙	73.0×95.0	1枚	咸豐2(1852) 10月 22日	경북유형209
-58	金準爲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直	壯紙	73.0×55.0	1枚	咸豐3(1853) 2月 日	경북유형209
-59	金準爲通訓大夫行司憲府持平	壯紙	73.0×55.0	1枚	咸豐3(1853) 2月 初3日	경북유형209
-60	幼學金昌鉉生員三等第一百七十四人入格	壯紙	65.0×81.0	1枚	光緒14(1888) 3月 日	경북유형209
-61	金昌鉉任慶基殿叅奉叙判任官八等	壯紙	59.0×39.0	1枚	光武7(1903) 8月 9日	경북유형209
10 分財記						
-1	金宗直妻父母 許與文記	楮紙	92.0×66.0	1枚	正德4(1509) 2月 ○日	일괄지정
-2	金宗直妻父母 許與文記	楮紙	40.0×47.0	1枚	正德4(1509)	일괄지정
-3	金宗直妻文氏 許與文記	楮紙	155.0×69.0	1枚	嘉靖22(1543) 10月 初4日	일괄지정
-4	金宗直妻文氏 許與文記	楮紙	88.0×68.5	1枚	嘉靖23(1544) 10月 初7日	일괄지정
-5	金嵩年妻孫氏 許與文記	楮紙	96.0×87.0	1枚	嘉靖35(1556) 正月 15日	일괄지정
-6	金夢齡弟妹 和會文記	楮紙	279.0×90.0	1枚	嘉靖45(1566)	일괄지정
-7	金綸妻河氏 許與文記	楮紙	107.5×69.0	1枚	萬曆12(1584) 正月 ○5日	일괄지정
-8	財主 母 文氏가 자식들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111.0×62.0	1枚	萬曆26(1598) 뒷면연결	일괄지정
-9	金聲律妻父朴某 許與文記	楮紙	142.0×76.0	1枚	萬曆33(1605) 7月 17日	일괄지정
-10	金受徽妻母朴氏 許與文記	楮紙	94.0×76.0	1枚	天啓3(1623) 7月 13日	경북유형209
-11	金是洛父 許與文記	楮紙	152.0×56.5	1枚	康熙49(1710)	경북유형209
-12	財主 承訓郎 前奉事 父가 子女들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152.0×56.0	1枚	康熙49(1710) 5月 10日	경북유형209
-13	估畢齋先生 賜牌田을 祀孫 世鳴에게 下賜하는 許與文記	楮紙	80.0×52.5	1枚	擁正42(1724) 8月 20日	일괄지정
-14	財主 父가 子女와 四男妹에게 相續 또는 贈與하는 別給文記	楮紙	172.0×94.0	1枚	乾隆4(1739)	경북유형209
-15	金敬中六男妹 和會文記	楮紙	181.0×105.0	1枚	乾隆25(1760) 3月 25日	경북유형209
-16	財主 父 前參奉 崔某 分財記	楮紙	194.0×88.0	1枚	年代未詳	일괄지정
-17	金受徽 許與文記	楮紙	257.0×57.0	1枚	丁亥(年代未詳)	경북유형209
11 別給文記						
-1	金夢齡에게 別給	楮紙	58.5×52.0	1枚	嘉靖45(1566) 7月 初4日	일괄지정
-2	朴某가 婿金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8.5×52.0	1枚	萬曆11(1583) 2月 1日	일괄지정
-3	金夢齡妻가 長子 金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44.0×60.0	1枚	萬曆12(1584)	일괄지정
-4	財主 祖母 文氏가 長孫 弘業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5.5×82.0	1枚	萬曆23(1595) 10月 16日	일괄지정
-5	財主 父가 長子 弘業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67.0×78.5	1枚	萬曆23(1595) 10月 16日	일괄지정
-6	財主 母 文氏가 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1.0×72.0	1枚	萬曆31(1603)	일괄지정
-7	財主 朴再定의 妻 金氏가 三寸姪 金聲律에게 別給한 文記	楮紙	45.0×71.0	1枚	萬曆31(1603) 3月 21日	경북유형209
-8	財主 妻父 朴 某가 金聲律에게 贈與한 別給文記	楮紙	47.0×69.0	1枚	萬曆31(1603) 3月 22日	일괄지정
-9	番主 前 萬戶 父가 子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47.0×35.0	1枚	萬曆44(1616) 8月 4日	경북유형209
-10	財主 養母가 養子 ○繼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54.0×73.0	1枚	萬曆47(1619) 12月 7日	경북유형209

-11	財主 前 萬戶 父가 子 徽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47.0×66.0	1枚	天啓元(1621) 7月 20日	경북유형209
-12	財主 萬戶 父가 (未詳者)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53.0×60.0	1枚	天啓元(1621) 7月 1日	경북유형209
-13	畚主 前 萬戶 父가 子 受徽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55.5×56.0	1枚	天啓2(1622) 7月 1日	경북유형209
-14	財主 母 成氏가 長子 是洛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37.0×41.0	1枚	康熙15(1676) 4月 初10日	경북유형209
-15	財主 祖母 成氏가 長孫 世鳴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44.0×36.0	1枚	康熙26(1687) 12月 初10日	경북유형209
-16	財主 祖父 厚陵參奉이 長孫 聖弼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36.5×42.0	1枚	康熙49(1710) 2月 12日	경북유형209
-17	財主 承訓郎 前奉事 祖父가 長孫 聖弼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63.0×48.5	1枚	康熙49(1710) 5月 11日	경북유형209
-18	父 全 萬戶 金聲律이 子 昌業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54.0×41.0	1枚	乾隆4년(1739) 3月 日	경북유형209
-19	財主 祖父가 長孫(장손) 應祖에게 相續한 別給文記	楮紙	58.0×46.0	1枚	乾隆4(1739) 6月 初10日	경북유형209
-20	財主 父가 長子 壽岳에게 相續하는 別給文記	楮紙	59.0×45.0	1枚	乾隆5(1740) 正月 初10日	경북유형209
-21	財主 生父가 子(缺)에게 相續하는 別給文記	楮紙	65.0×50.0	1枚	壬辰(年代未詳) 正月 2□日	경북유형209
-22	財主 前參奉 祖父 崔에게... (以下缺)	楮紙	54.0×81.5	1枚	嘉靖27(1548) 月 初7日	일괄지정
-23	財主 崔某가 全參奉 崔某에게 상속하는 別給文記	楮紙	127.0×50.0	1枚	嘉靖27(1548) 月 初7日	일괄지정
12 明文						
-1	金宗直妻文氏 田畚賣買明文	楮紙	40.5×48.0	1枚	洪治18 4月 26日	일괄지정
-2	金夢齡 田畚賣買明文	楮紙	85.0×50.0	1枚	成化23(1487)	일괄지정
-3	金嵩年 田畚賣買明文	楮紙	32.0×48.0	1枚	嘉靖8(1529) 11月 24日	일괄지정
-4	金維 田畚賣買明文	楮紙	34.0×47.0	1枚	嘉靖31(1552) 12月 25日	일괄지정
-5	金聲律 田畚賣買明文	楮紙	48.5.0×37.0	1枚	萬曆22(1594) 2月 12日	일괄지정
-6	金受徽 田畚賣買明文	楮紙	39.0×43.0	1枚	崇德8(1643) 6月 15日	경북유형209
-7	金壽丘 田畚賣買明文	楮紙	40.0×38.0	1枚	雍正11(1733) 3月 初3日	경북유형209
-8	金敬中 田畚賣買明文	楮紙	85.0×50.0	1枚	乾隆29(1764) 2月 15日	경북유형209
-9	金敬中 田畚賣買明文	楮紙	85.0×50.0	1枚	乾隆30(1765) 閏2月 초8日	경북유형209
-10	金相度 田畚賣買明文	楮紙	38.0×30.0	1枚	嘉慶12(1807) 10月 初9日	경북유형209
-11	金鏞振 奴婢賣買明文	楮紙	42.0×38.0	1枚	嘉慶23(1818) 4月 初10日	경북유형209
-12	從姪 昌鉉 田畚賣買明文	楮紙	49.5×47.0	1枚	光武4(1900) 正月 15日	경북유형209
13 戶口單子						
-1	戶口單子 (文氏 67歲)	楮紙	69.0×53.0	1枚	嘉靖16(1537) 3月 初7日	일괄지정
-2	戶口單子	楮紙	40.0×50.0	1枚	康熙8(1669) 11月 日	경북유형209
-3	戶口單子(金이처 成氏42歲)	楮紙	44.0×39.0	1枚	康熙14(1675) 11月	경북유형209
-4	戶口單子 (金시학 51歲)	楮紙	59.0×51.0	1枚	康熙47(1708) 12月 日	경북유형209
-5	戶口單子 (金세명 49歲)	楮紙	52.0×45.0	1枚	雍正7(1729) 12月 日	경북유형209
-6	戶口單子 (金敬中 29歲)	楮紙	28.0×38.0	1枚	乾隆24(1759) 3月 日	경북유형209
-7	戶口單子 (金敬中 35歲)	楮紙	62.0×35.0	1枚	乾隆30(1765) 3月 日	경북유형209
-8	戶口單子 (金敬中 38歲)	楮紙	115.0×37.0	1枚	乾隆33(1768) 4月 日	경북유형209
-9	戶口單子 (金敬中 47歲)	楮紙	95.0×34.0	1枚	乾隆42(1777)	경북유형209
-10	戶口單子 (金一精 18歲)	楮紙	62.0×36.0	1枚	乾隆48(1783) 3月 日	경북유형209
-11	戶口單子 (金一精 21歲)	楮紙	66.0×36.5	1枚	乾隆51(1786) 3月 日	경북유형209
-12	戶口單子 (金獻運 27歲)	楮紙	42.0×35.0	1枚	乾隆57(1792) 4月 日	경북유형209
-13	戶口單子 (金獻運 30歲)	楮紙	30.5×34.0	1枚	乾隆60(1795) 4月 日	경북유형209
-14	戶口單子 (金相度 33歲)	楮紙	43.5×33.5	1枚	嘉慶3(1798) 4月 日	경북유형209
-15	戶口單子 (金相度 36歲)	楮紙	42.0×34.2	1枚	嘉慶6(1801) 4月 日	경북유형209
-16	戶口單子 (金相度 39歲)	楮紙	36.5×37.0	1枚	嘉慶9(1804) 4月 日	경북유형209
-17	戶口單子 (金相度 44歲)	楮紙	33.0×38.0	1枚	嘉慶12(1807) 10月 日	경북유형209

-18	戶口單子 (金相度 45歲)	楮紙	38.0×38.0	1枚	嘉慶15(1810) 11月 日	경북유형209
-19	戶口單子 (金相度 48歲)	楮紙	33.5×35.0	1枚	嘉慶18(1813) 4月 日	경북유형209
-20	戶口單子 (金鏞振 23歲)	楮紙	32.5×34.0	1枚	嘉慶21(1816) 5月 日	경북유형209
-21	戶口單子 (金鏞振 26歲)	楮紙	33.5×33.5	1枚	嘉慶24(1819)	경북유형209
-22	戶口單子 (金鏞振 38歲)	楮紙	65.0×37.0	1枚	道光11(1831)	경북유형209
-23	戶口單子 (金鏞振 44歲)	楮紙	64.0×37.0	1枚	道光17(1837)	경북유형209
-24	戶口單子 (金鏞振 47歲)	楮紙	48.0×37.0	1枚	道光20(1840)	경북유형209
-25	戶口單子 (金鏞振 50歲)	楮紙	51.5×34.0	1枚	道光23(1843)	경북유형209
-26	戶口單子 (金鏞振 53歲)	楮紙	53.0×37.0	1枚	道光26(1846)	경북유형209
-27	戶口單子 (金謹默 56歲)	楮紙	47.5×36.5	1枚	道光29(1849)	경북유형209
14 書簡	金宗直의 母 朴氏가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1.7	1枚	成化5(1469)	일괄지정
-1	仲兄이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9.7	1枚	成化6(1470)	일괄지정
-2	金紐가 鄭訓導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2.0	1枚	萬曆8(1580)	일괄지정
-3	家人 曹氏가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7.0	1枚	11月 17日	일괄지정
-4						
15 其他	幼學 金受徽 禮曹立案	楮紙	74.5×81.0	1枚	順治3(1646) 7月	경북유형209
-1						
-2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所志	楮紙	105.0×47.0	1枚	康熙31(1692) 正月 9日	경북유형209
-3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所志	楮紙	36.0×42.5	1枚	道光1(1821) 5月 日	경북유형209
-4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所志	楮紙	44.0×53.5	1枚	道光3(1823) 7月	경북유형209
-5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完文	楮紙	40.0×42.5	1枚	道光1(1821) 5月 日	경북유형209
-6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完文	楮紙	43.0×38.0	1枚	咸豐9(1859)	경북유형209
-7	金宗直祠宇守護直勿浸完文	楮紙	28.0×38.0	1枚	光武6(1902)	경북유형209
-8	儒林 決議文	楮紙	56.5×44.5	1枚	同治4(1865)	경북유형209
-9	金是洛 祿牌	楮紙	44.0×70.5	1枚	康熙49(1710)	경북유형209
-10	金宗直 孫의 祖上忌日을 기록	楮紙	36.7×27.0	1枚	年代未詳	경북유형209
-11	羅州牧居奴婢推刷案	楮紙	101.0×32.5	1枚	年代未詳	경북유형209
-12	承政院에서 金昌鉉에게 發給	楮紙	30.0×43.0	1枚	光緒11 5月 1日	경북유형209

○ 내용 및 특징

□ 內容

調査件 <調査對象 文化財 目錄>의 문화재는 典籍 遺品 古文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典籍은 「畢齋堂后日記」 1책과 「經義」 4책의 도합 2종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經義」는 「易義」 「書義」 「詩義」 「曲禮」 등이 각각 1책씩이다.

調査本 「畢齋堂后日記」의 收錄된 記事는 成宗 13(148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동년(1482) 12월 25일로 끝나고 있으나, 원래의 收錄範圍는 成宗 13(1482)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개월의 분량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調査本 「畢齋堂后日記」에서 확인되는 日記는 11월의 2~8, 10~19, 25~30의 23일간과 12월의 1~8, 10~18, 20~25의 23일간의 일기이다. 도합 59일 중 47일의 日記가 기록되어 있으나, 12월 8일의 경우 日字만 기록되어 있고 本文의 記事內容은 결락된 상태이며 11월 1일의 경우 日字의 기록과 本文의 記事內容의 일부는 마손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11월 9 20 21 22 23 24일을 비롯하여 12월 8 9 19 26 27 28 29일 등의 本文의 記事內容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後代에 缺落된 것으로 파악된다.

調査本「畢齋堂后日記」는 筆寫本으로 界線이 없고 行字數는 16行 22字 내외이다. 版口와 魚尾는 없으며, 冊의 크기는 세로 39.0cm 가로 34.5cm 내외이다. 紙質은 楮紙이며, 表紙의 裝訂은 假裝形態로 改裝되어 있다. 字體는 端嚴한 楷書體이다.

調査本「畢齋堂后日記」의 記事內容이 「承政院日記」의 編纂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는 成宗朝의 「承政院日記」가 傳存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調査本「畢齋堂后日記」의 주요 記事들이 「成宗實錄」에서 비교적 반영되고 있음을 볼 때, 調査本「畢齋堂后日記」의 眞正性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일례로 調査本「畢齋堂后日記」의 壬寅(1482)年 11月 初3(丁酉)日의 기사내용과 同年 同日의 「成宗實錄」의 記事內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畢齋堂后日記」와 「成宗實錄」의 記事內容 比較> <成宗 13(1482, 壬寅 / 明 成化 18)年 11月 3日(丁酉)條>			
番號	「畢齋堂后日記」	「成宗實錄」 卷148	備考
1	(1)壬寅十一月初三日丁酉晴	(1)○丁酉	
2	(2)受常參	(2)○受常參	
3	(3)御經筵(3·1) (3·1)領事韓明澮知事姜希孟參贊官金世勣 大司諫李世弼執義鄭忻試讀官鄭誠謹說經 李琚記事官朴訥洪係元等侍	(3)○御經筵(3.1) (3·1)講訖大司諫李世弼啓曰設奉常寺兼官甚冗莫如令該曹精選其實員上顧問左右曰議諡不可不公設兼官者正欲廣聞見而得公論也執義鄭忻啓曰全羅道土豪廣張垣籬多匿人丁爲逃漏者淵藪如有追尋者反攻規不可不痛懲也知事姜希孟曰全羅人性大抵强悍至有打殺本主者上曰可委遣人糾摘以置於法	
4	(4)○慶尙道觀察使金自貞左道兵馬節度使慶由恭右道兵馬節度使王宗信全羅道觀察使李克墩兵馬節度使辛以中江原道觀察使呂自新永安道觀察使鄭文焯南道節度使李從生北道節度使朴星孫開折那進隨所得上送毋使弊及於民爲乎矣在前進上鷹子乙調養慣熟不得人准授上送路次不謹調養多致故失甚爲未便今後乙良調養慣熟鷹師乙用良精潔食以養飼上送事有旨		
5	(5)○全羅道觀察使李克墩開折道內人性强悍其中土豪者廣張垣籬占匿人口如才人白丁軍士奉足逃漏奴婢等項無賴之徒萃爲淵藪使其戶首本主等雖欲挨尋畏其強禦莫敢誰何至如追捕盜賊者雖顯有蹤跡才至門戶竟莫能究其武於鄉曲逞惡無忌漸不長可卿其痛行糾摘以啓事有旨	(4)○下書全羅道觀察使李克墩曰道內人性强悍其中土豪者廣張垣籬占匿人丁如才人白丁軍士奉足逃漏奴婢等項無賴之徒萃爲淵藪使其戶首本主不得下手至如捕賊者尋其蹤跡追至其門亦不得獲其武於鄉曲逞惡無忌莫甚卿其痛行糾摘以啓(4·1)	
6	(6)○全羅道左敬差官金景光開折秦仁瓮池		

	堤金溝禿愁伊堤乙擲奸上來爲乎矣同封事 目相考施行事有旨		
7	(7)○堤堰擲奸事目一堤堰內或盜耕或作官 屯田與人起耕捉魚決毀者推考何如一不用 心修築儲水不冬者推考何如一堤堰尺數內 入注乙打量作沓者推考論罪花利沒官還陳 何如		
8	(8)○全羅道土豪擲奸敬差官望直提學李命 崇落點	(4·1)即以弘文館直提學李命崇爲全羅道逃 漏人物推刷敬差官	
9		(5)○御晝講	
10	(9)○上出紫的囊子六事于政院(其中所入 則筆墨胡椒清心元蘇合元)仍傳曰佩持備忘 可也勿謝焉	(6)○賜承旨等佩囊各一	
11		(7)○御夕講	
12		(8)○御夜對	

이상의 대조를 통하여 볼 때, 調査本 「畢齋堂后日記」의 주요 記事들이 「成宗實錄」에서 비교적 반영되고 있을 알 수 있으나, 「畢齋堂后日記」에 수록된 기사내용이 「成宗實錄」에 수록되지 않은 기사도 있다.

調査本 「畢齋堂后日記」의 保存狀態는 後表紙와 本文 第1張의 部分的 毀損을 제외하고는 比較的 良好하다. 그러나 專門機關이나 匠人을 통한 補修와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遺品은 硯 2종 2점, 酒瓶 1종 1점, 笏 1종 1점, 竹簡과 紙桶 1종 1점, 號牌와 술띠 9종 9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硯은 碧玉材의 畢翁玉友'와 石材의 梅花硯'이고 酒瓶은 琉璃材의 琉璃酒瓶이며, 笏은 象牙材이고 竹簡은 1,410片이다.

古文書는 教旨 61매, 分財記 17매, 別給文記 23매, 明文 12매, 戶口單子 27매, 書簡 4매, 其他 12매 등 도합 156매이다. 嶺南士林派의 宗匠인 점필재의 教旨와 牒旨들을 비롯하여 점필재 母夫人의 書札, 점필재 後夫人 文氏의 分財文記와 戶口單子, 田畓賣買明文 및 아들 金嵩年, 손자 金維과 金綸, 증손 金夢齡 등 成宗朝부터 19세기까지의 것이다.

調査件 <調査對象 文化財 目錄> 문화재의 典籍 2종 5책, 遺品 6종 14점, 古文書 156매 중에는 估畢齋와 관련된 文化財도 있으나 估畢齋와 直接的으로 관련되지 않고 估畢齋의 後孫들과 관련된 것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調査件 <調査對象 文化財 目錄>의 文化재 중에서 估畢齋와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估畢齋와의 관계에서 貴重한 資料로 판단되어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管理 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는 文化재는 高문서류 79매이다.

일괄지정번호	신청연번	명칭	재질	규격(cm)	수량	조성연대·형식·특징
--------	------	----	----	--------	----	------------

1	9 教旨 -1	朝散大夫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 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	壯紙	60.0×44.0	1枚	成化6(1470) 6月 初3日
2	-2	朝散大夫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2月 初1日
3	-3	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2月 初1日
4	-4	奉列大夫行咸陽郡守	壯紙	57.0×44.0	1枚	成化7(1471) 9月 初6日
5	-5	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鎮管兵馬同 僉節制使	壯紙	85.0×50.0	1枚	成化7(1471) 12月 初日
6	-6	奉正大夫行咸陽郡守	壯紙	62.0×48.0	1枚	成化7(1471) 12月 27日
7	-7	中訓大夫行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9(1473) 11月 初5日
8	-8	中直大夫行咸陽郡守	壯紙	85.0×50.0	1枚	成化11(1475) 2月 日
9	-9	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教	壯紙	85.0×50.0	1枚	成化11(1475) 12月 28日
10	-10	尙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壯紙	67.0×46.5	1枚	成化12(1476) 7月 初1日
11	-11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	壯紙	77.0×46.0	1枚	成化12(1476) 7月 初1日
12	-12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金宗直妻 令人曹氏爲淑人	壯紙	85.0×50.0	1枚	成化12(1476) 8月 初3日
13	-13	通訓大夫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 侍講官春秋館編修官	壯紙	85.0×50.0	1枚	成化18(1482) 3月 11日
14	-14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 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77.5×47.5	1枚	成化19(1483) 10月 初4日
15	-15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 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80.0×45.0	1枚	成化19(1483) 11月 初1日
16	-16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 贊官春秋館修撰官	壯紙	82.5×46.5	1枚	成化20(1484) 6月 初1日
17	-17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 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 學尙瑞院正	壯紙	82.0×46.0	1枚	成化20(1484) 8月 初6日
18	-18	嘉善大夫吏曹叅判	壯紙	81.5×47.0	1枚	成化20(1484) 10月 26日
19	-19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祖成均 進士金瑄贈通政大夫戶曹叅議	壯紙	85.0×50.0	1枚	成化20(1484) 11月 14日
20	-20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妻淑人曹 氏贈貞夫人	壯紙	85×50cm	1枚	成化20(1484) 11月 14日
21	-21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 館事	壯紙	74.0×46.5	1枚	成化21(1485) 正月 27日
22	-22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	壯紙	85.0×50.0	1枚	成化21(1485) 9月 29日
23	-23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同知經 筵成均館事金宗直妻文氏爲貞夫人	壯紙	85.0×50.0	1枚	成化22(1486) 正月 初8日
24	-24	兼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提學	壯紙	80.0×45.5	1枚	成化22(1486) 3月 初2日
25	-25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壯紙	73.0×47.0	1枚	成化22(1486) 12月 初3日
26	-26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	壯紙	85.0×50.0	1枚	成化23(1487) 5月 23日
27	-27	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	壯紙	68.5×45.0	1枚	成化23(1487) 5月 23日
28	-28	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壯紙	68.0×44.5	1枚	成化23(1487) 5月 27日
29	-29	全羅道兼兵馬水軍節度使	壯紙	79.0×46.0	1枚	成化23(1487) 6月 初8日
30	-30	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成均館 事	壯紙	81.0×45.0	1枚	弘治元(1488) 10月 16日
31	-31	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	壯紙	87.0×47.0	1枚	弘治元(1488) 12月 15日
32	-32	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 弘文館提學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正月 21日
33	-33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 知成均館事金宗直曾祖妣贈淑人金 氏贈淑夫人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3月 初8日
34	-34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 知成均館事金宗直祖妣贈淑夫人俞 氏贈貞夫人	壯紙	85.0×50.0	1枚	弘治2(1489) 3月 初8日
35	-35	兵曹奉教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今 辛亥年第三科祿	壯紙	74.0×89.0	1枚	弘治4(1491) 正月 日
36	-36	幼學金紐進士二等第十六人入格	壯紙	40.0×91.0	1枚	隆慶2(1568) 6月 日

37	-37	進士承仕郎金紐爲承仕郎行密陽訓導	壯紙	85.0×50.0	1枚	隆慶4(1570) 8月 17日
38	-38	承仕郎行密陽訓導金紐爲通仕郎行密陽訓導	壯紙	85.0×50.0	1枚	隆慶6(1572) 閏2月 25日
39	-39	進士務功郎金紐爲務功郎行咸安訓導	壯紙	85.0×50.0	1枚	萬曆元(1573) 12月 1日
40	-40	右帖下進士務功郎金紐准此	壯紙	85.0×50.0	1枚	萬曆2(1574) 2月 日
41	-41	司圍署別檢務功郎金紐爲宣務郎	壯紙	85.0×50.0	1枚	萬曆2(1574) 6月 4日
42	-42	前別提宣教郎金紐爲宣教郎行高靈訓導	壯紙	79.0×52.0	1枚	萬曆5(1577) 4月 22日
43	-43	前訓導宣務郎金紐爲宣務郎金海教授	壯紙	85.0×50.0	1枚	萬曆7(1579) 9月 9日
44	-44	宣教郎金海教授金紐爲承訓郎金海教授	壯紙	85.0×50.0	1枚	萬曆8(1580) 正月 22日
45	-45	正金聲律武科丙科第一百二十七人及第出身	壯紙	72.0×86.0	1枚	萬曆31(1603) 正月 日
46	-46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前妻貞夫人曹氏爲貞敬夫人	壯紙	85.0×50.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47	-47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後妻貞夫人文氏爲貞敬夫人	壯紙	85.0×50.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48	-48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壯紙	114.0×78.0	1枚	康熙28(1689) 正月 27日
49	-52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文忠公	壯紙	106.0×71.5	1枚	康熙48(1709) 2月 日
50	10 分財記 -1	金宗直妻父母 許與文記	楮紙	92.0×66.0	1枚	正德4(1509) 2月 ○日
51	-2	金宗直妻父母 許與文記	楮紙	40.0×47.0	1枚	正德4(1509)
52	-3	金宗直妻文氏 許與文記	楮紙	155.0×69.0	1枚	嘉靖22(1543) 10月 初4日
53	-4	金宗直妻文氏 許與文記	楮紙	88.0×68.5	1枚	嘉靖23(1544) 10月 初7日
54	-5	金嵩年妻孫氏 許與文記	楮紙	96.0×87.0	1枚	嘉靖35(1556) 正月 15日
55	-6	金夢齡弟妹 和會文記	楮紙	279.0×90.0	1枚	嘉靖45(1566)
56	-7	金綸妻河氏 許與文記	楮紙	107.5×69.0	1枚	萬曆12(1584) 正月 ○5日
57	-8	財主 母 文氏가 자식들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111.0×62.0	1枚	萬曆26(1598) 뒷면연결
58	-9	金聲律妻父朴某 許與文記	楮紙	142.0×76.0	1枚	萬曆33(1605) 7月 17日
59	-13	估畢齋先生 賜牌田을 祀孫 世鳴에게 下賜하는 許與文記	楮紙	80.0×52.5	1枚	擁正42(1724) 8月 20日
60	-16	財主 父 前參奉 崔某 分財記	楮紙	194.0×88.0	1枚	年代未詳
61	11 別給文記 -1	金夢齡에게 別給	楮紙	58.5×52.0	1枚	嘉靖45(1566) 7月 初4日
62	-2	朴某가 婿金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8.5×52.0	1枚	萬曆11(1583) 2月 1日
63	-3	金夢齡妻가 長子 金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44.0×60.0	1枚	萬曆12(1584)
64	-4	財主 祖母 文氏가 長孫 弘業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5.5×82.0	1枚	萬曆23(1595) 10月 16日
65	-5	財主 父가 長子 弘業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67.0×78.5	1枚	萬曆23(1595) 10月 16日
66	-6	財主 母 文氏가 聲律에게 상속한 別給文記	楮紙	51.0×72.0	1枚	萬曆31(1603)

67	-8	財主 妻父 朴 某가 金聲律에게 贈與한 別給文記	楮紙	47.0×69.0	1枚	萬曆31(1603) 3月 22日
68	-22	財主 前參奉 祖父 崔에게... (以下缺)	楮紙	54.0×81.5	1枚	嘉靖27(1548) 月 初7日
69	-23	財主 崔某가 全參奉 崔某에게 상속하는 別給文記	楮紙	127.0×50.0	1枚	嘉靖27(1548) 月 初7日
70	12 明文 -1	金宗直妻文氏 田畚賣買明文	楮紙	40.5×48.0	1枚	洪治18 4月 26日
71	-2	金夢齡 田畚賣買明文	楮紙	85.0×50.0	1枚	成化23(1487)
72	-3	金嵩年 田畚賣買明文	楮紙	32.0×48.0	1枚	嘉靖8(1529) 11月 24日
73	-4	金維 田畚賣買明文	楮紙	34.0×47.0	1枚	嘉靖31(1552) 12月 25日
74	-5	金聲律 田畚賣買明文	楮紙	48.5.0×37.0	1枚	萬曆22(1594) 2月 12日
75	13 戶口單子 -1	戶口單子 (文氏 67歲)	楮紙	69.0×53.0	1枚	嘉靖16(1537) 3月 初7日
76	14 書簡 -1	金宗直의 母 朴氏가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1.7	1枚	成化5(1469)
77	-2	仲兄이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9.7	1枚	成化6(1470)
78	-3	金紐가 鄭訓導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2.0	1枚	萬曆8(1580)
79	-4	家人 曹氏가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楮紙	36.7×27.0	1枚	11月 17日

□ 특징

이상 79매의 古文書類는 嶺南士林派의 宗匠인 점필재의 教旨와 牒旨들을 비롯하여 점필재 母夫人의 書札, 점필재 後夫人 文氏의 分財文記와 戶口單子, 田畚賣買明文 및 아들 金嵩年(1486-1539), 손자 金維(1515-1562)과 金綸, 증손 金夢齡(1551-1580) 등 家系的으로는 点필재의 曾孫까지, 時期的으로는 成宗朝에서부터 宣祖朝를 下限으로 하는 문서들이다.

이들 古文書類는 韓國史研究에 있어 基本史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특히 佔畢齋 母夫人의 書札과 点필재 後妻 文氏의 分財記, 田畚買入 明文, 戶口單子 등은 조선시대의 社會史 經濟史 法制史 國語史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佔畢齋와의 관계나 製作時期 등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전기의 政治 社會 文化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며, 아울러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일부 훼손된 古文書類는 專門機關이나 匠人을 통한 補修와 保存管理가 要望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지정 가치

이들 古文書類는 時期的으로 成宗朝에서부터 宣祖朝를 下限으로 하는 文化財로, 佔畢齋와의 관계나 製作時期 등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전기의 政治 社會 文化의 사정을 이해하는 基本史料로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며, 특히 佔畢齋 母夫人의 書札과 点필재 後妻 文氏의 分財記, 田畚買入 明文, 戶口單子 등은 조선시대의

社會史 經濟史 法制史 國語史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評價된다.

다만, 일부 훼손된 古文書類는 專門機關이나 匠人을 통한 補修와 保存管理가 要望된다. 또한 이들 문화재는 현재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大加耶博物館에 의해 임시로 維持 管理되고 있으므로 文化財廳이나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寄託이나 寄贈 등의 수단을 통한 적절한 維持 管理方策의 강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 중에서 이들 古文書類는 國家文化財의 指定으로 摘出하고 나머지 문화재는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로 잔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 근거 기준

古文書類 79매는 佔畢齋와 直間接으로 관련된 문화재로 韓國史研究에 있어 基本史料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특히 佔畢齋 母夫人의 書札과 점필재 後妻 文氏의 分財記, 田畝買入 明文, 戶口單子 등은 조선시대의 社會史 經濟史 法制史 國語史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時期的으로는 成宗朝에서부터 宣祖朝의 壬辰倭亂란 이전을 下限으로 하는 文化財라 조선시대 전기의 政治·社會 文化事情의 基本史料로서의 價値性도 매우 높다.

○ 문헌자료

- 金宗直 編, 「畢齋堂后日記」. 筆寫本. [筆寫地不明] : [筆寫處(者)不明], [成宗 13(1482) 以後 筆寫 推定]. 佔畢齋宗家 所藏本.
- 金宗直 編, <佔畢齋 宗家 文籍 및 遺品 一括>. 佔畢齋宗家 所藏品.
- 慶尙北道 編, <國家指定文化財(寶物) 指定申請書>. 大邱 : 慶尙北道 文化財課, 2009. (裴賢淑 李樹奐 諸教授의 調査內容.)

○ 기 타

□ 其他

<佔畢齋 文籍 遺品 및 宗家文書>는 慶尙北道 高靈郡 雙林面 合伽里 84번지의 佔畢齋 宗家(중손 金震圭)의 所有로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慶尙北道 高靈郡 高靈邑 池山里 460의 大加耶博物館에 의해 임시로 維持 管理되고 있다.

<畢齋堂后日記>의 後表紙와 本文 第1張의 部分的 毀損을 제외하고는 <佔畢齋

文籍 遺品 및 宗家文書>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良好하나 일부 毀損된 文化財는 專門機關이나 匠人을 통한 補修와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估畢齋 文籍 遺品 및 宗家文書>는 현재 宗孫 金震圭의 부탁에 의해 慶尙北道 高靈郡 高靈邑 池山里 460의 大加耶博物館에 의해 임시로 維持 管理되고 있으나, 법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文化財廳이나 地方自治團體에서는 寄託이나 寄贈 등의 수단을 통한 적절한 維持 管理方策의 강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 중에서 古文書類 79매는 國家文化財의 指定으로 摘出한 나머지 문화재는 慶尙北道 有形文化財 제209호로 잔존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估畢齋의 家系

金宗直(文忠公派 派祖) - 纒(文2) - 綸(文3) - 夢齡(文4) - 聲律(文5) - 受徽(文6) - 彝(文7) - 是洛(文8) - 世鳴(文9) - 壽岳(文10) - 敬中(文11) - 相度(文12) - 金鏞振(文13) - 準(文14) - 金昌鉉(文15) - 泰鎮(文16) - 映秀(文17) - 炳埴(文18) - 震圭(文19, 文化財所有者) - 鉉益(文20) …

□

○ 현 상

보존상태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 지정 후 시급히 보존처리해야 한다.

○ 내용 및 특징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신청한 점필재 종가문서는 영남사림과의 종장인 김종직이나 그의 후손들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종직에게 내려진 교지나 교첩, 그의 후손들이 소과나 무과에 합격하여 받은 홍패와 백패, 그리고 각종 사령장 등은 조선 전기와 중기의 과거제도와 관료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 김종직과 그의 후손들이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으며 작성한 분재기나 토지나 노비를 매득하고서 작성한 매매문서와 입안 등이 다수 전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는 조선 전기와 중기 재산의 분배 양상과 매매 관행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종직의 어머니 朴氏와 부인 曹氏 김종직의 형 宗裕 등이에게 보낸 서간과 김종직의 손자인 김뉴가 훈도 정아무개에게 보낸 서간 등은 조선 전기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신청된 종가의 고문서 중 김종직의 사령장 30점, 김종직의

녹패 1점, 김종직 부인(조씨와 문씨)의 사령장 5점, 김종직의 조상 관련된 사령장 3점, 김종직 후손 중 김뉴의 합격증과 사령장 9점, 김종직의 후손 중 김성률 관련 무과 합격증 1점, 분재기 19점, 명문 5점, 호구전준 1점, 서간 4점, 입안 1점 등 도합 79점은 보물로 지정해서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김종직의 사령장(30점)

연번	명 칭	기 타 특 징
-1)	金宗直爲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	成化 6年(1470) 6月初3日
-2)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	成化 7年(1471) 2月初1日
-3)	金宗直爲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7年(1471) 2月初1日
-4)	金宗直爲奉列大夫行咸陽郡守	成化 7年(1471) 9月初6日
-5)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7年(1471) 12月初日
-6)	金宗直爲奉正大夫行咸陽郡守	成化 7年(1471) 12月27日
-7)	金宗直爲中訓大夫行咸陽郡守	成化 9年(1473) 11月初5日
-8)	金宗直爲中直大夫行咸陽郡守	成化 11年(1475) 2月日
-9)	金宗直爲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教	成化 11年(1475) 12月28日
-10)	金宗直爲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	成化 12年(1476) 7月初1日
-11)	金宗直爲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12年(1476) 7月初1日
-12)	金宗直爲通訓大夫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成化 18年(1482) 3月11日
-13)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19年(1483) 10月初4日
-14)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19年(1483) 11月初1日
-15)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20年(1484) 6月初1日
-16)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	成化 20年(1484) 8月初6日
-17)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	成化 20年(1484) 10月26日

-18)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	成化 21年(1485) 正月 27日
-19)	金宗直爲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	成化 21年(1485) 9月 29日
-20)	金宗直爲兼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提學	成化 22年(1486) 3月 初2日
-21)	金宗直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成化 22年(1486) 12月 初3日
-22)	金宗直爲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	成化 23年(1487) 5月 23日
-23)	金宗直爲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	成化 23年(1487) 5月 23日
-24)	金宗直爲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成化 23年(1487) 5月 27日
-25)	金宗直爲全羅道兼兵馬水軍節度使	成化 23年(1487) 6月 初8日
-26)	金宗直爲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成均館事	弘治 元年(1488) 10月 16日
-27)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	弘治 元年(1488) 12月 15日
-28)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	弘治 2年(1489) 正月 21日
-29)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30)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文忠公	康熙 48年(1709) 2月 日

1) 국왕이 1470년 6월 3일에 김종직을 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조산대부는 종4품 上位였다.

2) 국왕이 1471년 2월 1일에 김종직을 朝散大夫咸陽郡守'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3) 국왕이 1471년 2월 1일에 김종직을 咸陽郡守로 임명하고 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4) 국왕이 1471년 9월 6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奉列大夫'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봉렬대부는 정4품 下位였다.

5) 국왕이 1471년 12월 초에 김종직을 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그런데 이 교지에는 오자가 있다. 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라고 해야 맞는데 사령장을 보면 管'이 道'로 잘못 쓰여 있으며 節'과 使' 사이에 制' 자가 빠져 있다. 또 사령장을 보면 정4품 하위인

봉렬대부로 승품했다가 다시 종4품 상위인 조산대부로 강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령장의 작성자가 오류를 범했는지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6) 국왕이 1471년 12월 27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정4품 상위인 奉正大夫'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7) 국왕이 1473년 11월 5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종3품 하위인 中훈대부'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8) 국왕이 1475년 2월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종3품 상위인 中직대부'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9) 국왕이 1475년 12월 28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敎'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이다.

10) 국왕이 1476년 7월 1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1) 국왕이 1476년 7월 1일에 김종직을 선산도호부사로 임명하고 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2) 국왕이 1482년 3월 11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弘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3) 국왕이 1483년 10월 4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다.

14) 국왕이 1483년 11월 1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이 사령장 작성자가 처음에는 撰' 자를 빼어놓고 썼다가 나중에 추가하였다.

15) 국왕이 1484년 6월 1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6) 국왕이 1484년 8월 6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敎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7) 국왕이 1484년 10월 26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吏曹叅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위이다.

18) 국왕이 1485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호조참판에 임명되어 있던 김종직에게 경연동지사와 성균관동지사를 겸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19) 국왕이 1485년 9월 29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지정 후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20) 국왕이 1486년 3월 2일에 김종직에게 경연동지사와 성균관동지사 및 예문관제학을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1) 국왕이 1486년 12월 3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2) 국왕이 1487년 5월 23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3) 국왕이 1487년 5월 23일에 경기관찰사인 김종직에게 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를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4) 국왕이 김종직을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한 지 4일 후에 전라도 관찰사로 바꾸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관찰사에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성종실록』에 의하면, 김종직이 전라도 관찰사에 부임하기 위해 국왕에게 사조한 것은 6월 20일이었는데 이는 임명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25) 국왕이 1487년 6월 8일에 전라도 관찰사이던 김종직에게 병마수군절도사'를 겸직토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관찰사는 관례적으로 兵使와 水使를 겸직했다.

26) 국왕이 1488년 10월 16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 漢城府左尹 兼同知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7) 국왕이 1488년 12월 15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8) 국왕이 1489년 1월 21일에 공조참판으로 성균관동지사를 겸직하고 있던 김종직에게 홍문관제학을 하나 더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9)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이던 김종직에게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자헌대부는 정2품 하위이며 대광보국승록대부는 정1품으로 신하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품계이다.

30) 숙종이 1709년 2월에 김종직에게 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김종직의 녹패(1점)

-1) 兵曹奉教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今辛亥年第三科祿	弘治 4年(1491) 正月 日
----------------------------	------------------

병조에서 자헌대부지중추부사이던 김종직에게 발급한 녹패이다. 당시 그는 3과에 해당하는 녹을 받았는데 현재 정월, 4월, 7월에 지급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녹봉을 연구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김종직 부인(조씨와 문씨)의 사령장(5점)

-1)	吏曹奉教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金宗直妻令人曹氏爲淑人	成化 12年(1476) 8月 初3日
-2)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妻淑人曹氏贈貞夫人	成化 20年(1484) 11月 14日
-3)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成均館事金宗直妻文氏爲貞夫人	成化 22年(1486) 正月 初8日
-4)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前妻貞夫人曹氏爲貞敬夫人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5)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後妻貞夫人文氏爲貞敬夫人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1) 이조에서 1476년 8월 3일에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통훈대부행선산도호부사인 김종직의 아내 曹氏를 淑人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숙인은 종3품과 정3품 당하관 아내에게 내려주는 外命婦이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직이 선산도호부사에 임명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부인 조씨에게 숙인 품계를 내리는데 왜 동시에 임명하지 않고 이와 같은 시차가 있었는지는 장차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국왕이 1484년 11월 14일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인 김종직의 아내 조씨에게 정부인의 외명부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조씨에게 증직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그녀는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왕이 1486년 1월 8일에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 겸동지경연성균관사인 김종직의 아내 문씨를 정부인으로 봉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문씨는 김종직의 둘째 아내였다.

4)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관례에 따라 그의 첫째 아내인 정부인 조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할 때 발급한 사령장이다.

5)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관례에 따라 그의 둘째 아내인 정부인 문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할 때 발급한 사령장이다.

김종직의 조상 관련된 사령장(3점)

-1)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祖考成均進士金瑄贈通政大夫戶曹叅議	成化 20年(1484) 11月 14日
-2)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曾祖妣贈淑人金氏贈淑夫人	弘治 2年(1489) 3月 初8日
-3)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祖妣贈淑夫人俞氏贈貞夫人	弘治 2年(1489) 3月 初8日

1) 성종이 1484년 11월 14일에 김종직의 조고인 成均進士 金瑄에게 通政大夫戶曹叅議라는 증직을 내려주면서 작성한 사령장이다. 김종직이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조상에게 추증이 내려졌던 것이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글자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

2) 성종이 1489년 3월 8일에 김종직의 증조비인 숙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이 사령장을 통하여 김종직이 이 무렵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이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임명될 때 발급되었던 사령장은 현전하지 않는다.

3) 성종이 1489년 3월 8일에 김종직의 조비인 숙부인 유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김종직 후손 중 김뉴의 합격증과 사령장(9점)

-1)	幼學金紐進士二等第十六人入格	隆慶 2年(1568) 6月 日
-2)	吏曹隆慶四年八月十七日奉教進士承仕郎金紐爲承仕郎行密陽訓導	隆慶 4年(1570) 8月 日
-3)	吏曹隆慶六年二月二十五日奉教承仕郎行密陽訓導金紐爲通仕郎行密陽訓導	隆慶 6年(1572) 閏2月 25日
-4)	吏曹萬曆元年十二月初一日奉教進士務功郎金紐爲務功郎行咸安訓導	萬曆 元年(1573) 12月 1日
-5)	吏曹萬曆二年六月初四日奉教司圃署別檢務功郎金紐爲宣務郎	萬曆 2年(1574) 6月 日
-6)	吏曹萬曆五年四月二十二日奉教前別提宣教郎金紐爲宣教郎行高靈訓導	萬曆 5年(1577) 4月 日
-7)	吏曹萬曆七年九月初九日奉教前訓導宣務郎金紐爲宣務郎金海教授	萬曆 7年(1579) 9月 日
-8)	宣教郎金海教授金紐爲承訓郎金海教授	萬曆 8年(1580) 正月 日
-9)	吏曹爲差定事萬曆元年十一月二十五日同副承旨臣洪聖民次知口傳司圃署別提南宮愷遷傳本乙良金紐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進士務功郎金紐准此	萬曆 2年(1574) 2月 日

1) 김종직의 손자인 유학 김뉴가 1568년 6월에 진사시에 응시하여 2등 16인으로

합격하여 받은 증서로 白牌라고도 한다.

2) 1570년 8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김뉴를 밀양훈도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그는 이미 진사에 합격하고 또 품계도 중8품인 승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사령장을 敎牒이라 하였다.

3) 1572년 윤2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밀양훈도 김뉴의 품계를 승사랑에서 정8품인 통사랑으로 승품시켜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4) 이조에서 1573년 12월에 왕명을 받들어 김뉴를 무공랑행함안훈도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무공랑은 정7품이다.

5) 이조에서 1574년 6월에 왕명을 받들어 사포서 별제이던 김뉴의 품계를 정7품인 무공랑에서 중6품 하위인 선무랑으로 승품시켜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6) 이조에서 1577년 4월에 왕명을 받들어 전임 별제이던 선교랑 김뉴를 고령훈도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선교랑은 중6품 상위이다.

7) 이조에서 1579년 9월에 왕명을 받들어 선무랑 전 훈도 김뉴를 선무랑 김해교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김뉴는 이미 2년 전에 중6품 하위인 선무랑에서 중6품 상위인 선교랑으로 승품하였는데 2년 후 무슨 일을 계기로 다시 降品이 되었는지, 아니면 교첩 작성자가 잘못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8) 이조에서 1580년 1월에 선교랑 김해교수인 김뉴의 품계를 승훈랑으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승훈랑은 정6품 하위이다.

9) 이조에서 1574년 2월에 무공랑 김뉴를 사포서별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나 문서 형태는 帖이다. 前任 사포서 별제인 남궁개가 遷轉되자 이조에서는 그 후임으로 김뉴를 천거하여 왕으로부터 구전 허가를 받고서 임명하였다.

김종직의 후손 중 김성률의 무과 합격증(1점)

-1) 正金聲律武科丙科第一百二十七人及第出身	萬曆 31年(1603) 正月 日
-------------------------	-------------------

국왕이 1603년 정월에 김종직의 현손으로 무과에 급제한 김성률에게 발급한 합격증서이다. 그는 이때의 시험에서 丙科 127등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급제한 후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한 도문연에서 여러 인척들이 김성률에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작성한 별급문기도 전하고 있다.

분재기(19점)

1507년부터 1605년까지 작성된 것이다. 분재기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正德貳年五月拾三日四女子金宗□…□臥乎事段	正德 2년(1507) 5月 13日
-2) 正德四年己巳貳月十一□…□金宗直妻衿母邊婢德只	正德 4년(1509) 2月 11日

-3)	嘉靖貳拾貳年十月初四日前後室子息□…□	嘉靖 22년(1543) 10월 初4日
-4)	嘉靖卅三年甲辰十月初一日二甥妹亦中許與成給爲乎事叱段	嘉靖 23년(1544) 10월 初7日
-5)	嘉靖卅七年十月廿五日孫獐祥亦中□…□議別給事段	嘉靖 27년(1548) 10월 25日
-6)	嘉靖三十五年丙辰正月十五日三子等亦中田民家財等	嘉靖 35년(1556) 正月 15日
-7)	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初四日女壻金夢嶺亦中別給明文(별)	嘉靖 45년(1566) 7월 初4日
-8)	嘉靖四十五年丙寅□…□十日二甥妹和議成文事段	嘉靖 45년(1566) ○月 ○日
-9)	萬曆十一年癸未二月初一日女□…□金聲律亦中(별)	萬曆 11년(1583) 2월 1日
-10)	萬曆十二年甲申正月□五日子息二兄弟亦中都許與成置爲臥乎事叱段	萬曆 12년(1584) 正月 ○5日
-11)	萬曆十二年□…□長子聲律處別給事段(별)	萬曆 12년(1584)
-12)	萬曆卅三年乙未十月十六日長孫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23년(1595) 10월 16日
-13)	萬曆卅三年十月十六日長子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23년(1595) 10월 16日
-14)	萬曆卅六年三月五日子息等處明文	萬曆 26년(1598) 뒷면연결
-15)	萬曆三十一年□月□…□長子□…□聲律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31년(1603)
-16)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一日三寸姪新及第金聲律處別給(별)	萬曆 31년(1603) 3월 21日
-17)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二日女婿金聲律處別給成文爲臥乎事段(별)	萬曆 31년(1603) 3월 22日
-18)	萬曆三十三年乙巳七月十七日嫡室二甥妹妾子四甥妹等亦中 都許與二度及各衿文記二度	萬曆 33년(1605) 7월 17日
-19)	祖上奴婢乙汝矣	年代未詳(명종연간으로 추정)

1) 김종직이 관찰사로 있으면서 장인에게 온갖 효도를 다하고 장인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인이 1507년 5월 13일에 김종직에게 노비와 전답을 특별히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2) 김종직의 장인과 장모인 광주노씨가 1509년 2월에 김종직의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3)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43년 10월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4)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44년 10월에 자신의 두 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5) 조부 최아무개가 1548년 10월에 손자 인상(獐祥)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그냥 조부'라고만 밝혀져 있지만 사실은 외조부'이며 가계도에 의하면 이 조부 최아무개는 최필손(崔弼孫)이다. 이 분재기에 의하면, 나이 육십이 다 되어 어린 손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자 기쁘기 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방에 가득한 손님들이 손자에게 춤추기를 청하면 곧바로 일어나 손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니 그 기상이 비범하여 장차 선조들의 이름을 널리 떨칠 인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인상은 현재 가계도에 최필손의 손자로 나오는 몽령과 동일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몽령의 형으로 성장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6) 김종직의 아들인 김송년의 아내 손씨가 1556년 정월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7) 1566년 7월에 진사 문아무개가 자신의 딸이 김종직의 증손인 김몽령과 혼인하자 이를 축하하며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이 재산을 김몽령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의 딸에게 지급하였다.

8) 1566년에 김종직의 증손인 김몽령, 김석령 및 광재정에게 시집간 여동생 등 3남매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二娣妹'로 되어 있으나 三娣妹'가 맞다. 배면에는 후일 이 재산 중의 일부를 방매하고서 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록이 있다.

9) 1583년에 김성률의 장인 박아무개가 사위인 김성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재산을 사위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성혼하는 딸에 지급했다.

10) 김륵의 아내 하씨가 1594년에 자신의 두 아들 천서와 천상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김륵은 김송년의 장자인데 가계도에는 그가 요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서를 보면 요절하지 않고 혼인을 하여 두 아들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니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11) 1584년에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그의 아들 김성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재산을 별급한 이유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자태가 범상치 않고 행동이 유순하여 자신의 마음에 족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서에는 재산을 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주었다.

12)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595년 10월 16일에 장손 흥업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날은 문씨의 셋째 아들인 성철의 생일이어서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살 밖에 안 된 장손 흥업이 綵舞를 추며 재물을 떨자 기뻐서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이 흥업은 가계도에

나오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장성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김성률이 1595년 10월 16일에 큰아들 흥업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날은 김성률의 막내동생인 성철의 생일이었는데 자기의 큰 아들인 흥업이 채무를 추면서 재물을 떨자 기쁜 마음에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14)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598년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대부분의 재산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사망한 딸의 제위조로 약간의 재산 지급하고 또 열자 담동에게도 미미하지만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배면에는 후에 이들 재산 중의 일부를 방매하고서 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기록들이 있다.

15)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603년에 장자 성률이 무과에 급제한 후 집에 도착해서 도문연을 개최하자 기쁜 마음에서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도문연에 참석했던 양산군수와 고령현감이 이 재산분배의 증인이 되어 이 분재기에 서명한 후에 관인까지 찍었다. 김성률이 무과에 급제한 후 받은 흥패, 즉 합격증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16) 광재정의 아내 김씨가 1603년 3월 21일에 조카인 김성률이 무과에 급제하여 도문연을 개최하자 축하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광재정의 아내 김씨는 김성률의 고모였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자 김성률을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매우 사랑하였다고 한다.

17) 김성률의 장인인 통정대부 박아무개가 1603년 3월 21일에 사위인 김성률의 무과 급제 축하잔치가 열리자 여기에 참석하여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18) 김성률의 장인인 통정대부 박아무개가 1605년 7월에 자신이 자녀 6명에게 재산은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그는 적실과의 사이에서 두 남매, 측실과의 사이에서 4 남매를 낳았다.

19) 최필손이 그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자세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명종 연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문(5점)

보물로 지정할 만한 명문은 총 5점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弘治拾捌年肆月貳拾陸日金宗直妻文氏前明文	洪治 18년(1505) 4월 26 日
-2)	嘉靖八年己丑十一月廿四日東部前叅奉金崇年前明文	嘉靖 8년(1529) 11월 24 日
-3)	嘉靖三十一年壬子十二月二十五日金維處明文	嘉靖 31년(1552) 12월

		25日
-4)	萬曆二十二年甲午二月十二日軍資主簿金聲律處明文	만력 22년(1594) 2월 12日
-5)	□…□初六日金夢嶺前明文事叱段	연대미상(1580년 이전)

1)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05년에 학생 박명동(朴明同)으로부터 과종량이 두말 닷되가 되는 논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명동은 이를 처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논이 멀리 있어서 경작하러 왕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하였다. 구입가는 목면(木綿) 15필(疋)이었다.

2) 김종직의 아들 김숭년(金崇年)이 1529년에 사노 가손(私奴 佳孫)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노 가손 역시 이 논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작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면 2동(同) 40필로 구입하고 있다.

3) 김숭년의 아들 김유(金維)가 1552년에 별시위(別侍衛) 박인원(朴仁元)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나락[租] 11섬과 암소 한 마리에 바꾸고 있다. 박인원 역시 논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작하기 불편해서 방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김유의 손자인 군자주부(軍資主簿) 김성률(金聲律)이 1594년에 유학(幼學) 송흥복(宋興復)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송흥복은 이 논을 처자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5) 김유의 아들 김몽령(金夢嶺)이 전 별좌(前 別坐) 배진서(裴振緒)로부터 논 10마지기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다만 문서의 첫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가계도에 의하면 김몽령이 158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호구전준(1점)

-1)	戶口傳準 (文氏 67歲)	嘉靖 16년(1537) 3月 初7日
-----	---------------	---------------------

이 호구전준은 단자는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글자의 흔적을 보아 가정 16년 즉 1537년에 작성되었으며 김종직으로 아내인 남편문씨에게 발급된 것인데 당시 문씨의 나이는 67세였다.

서간(4점)

-1)	(校理寄平書)此間未審安否分別次	戊子年(1468) 10月 26日
-2)	(弟主上平書) 昨夕醫生所傳書內得知	成化 6年(1470) 10월 초7일
-3)	秋暑尙熾謹問動履若何懸慕曷已	庚辰年(1580) 7월 17일
-4)	(家翁上平書)校理宅 金三來後 未審安否 日夜懸	11月 17日

戀 ” ” 爲白內筋	
------------	--

1) 김종직의 어머니 박씨가 1468년 10월에 김종직에게 보낸 편지이다. 어머니 박씨는 기관(記官) 중륜(仲倫)이 가져온 편지를 통해 김종직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같은 달 11일에 신발과 철릭 및 바지 등을 도적 맞아 보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서 3일 전에 신관사또를 맞이하러 가는 편에 물건을 보냈으니 수소문해서 이를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2) 중형이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있으며 늦벼가 서리를 받고 풍해도 입어 수확이 평년의 1/4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밀이나 콩 등은 예년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교관이나 수령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과 계집종이 도망갔다가 잡혀온 후 6일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3) 김뉴(金紐)가 1680년 7월에 훈도(訓導) 정아무개에게 보낸 편지로 향촌에서 무도하게 구는 문응정(文應禎)의 행실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에 대한 단자(單字)를 올렸으니 이를 잘 살펴보고 관에 보고하여 처벌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4) 김종직의 첫째 부인 창녕조씨(昌寧曹氏)씨가 김종직에게 써 보낸 편지로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자신은 전부터 앓아오던 병이 낫지 않으며 배 속의 흑이 점차 커지면서 소리까지 내고 배가 불러와 고통이 날로 심해져서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오는 인편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주고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또 작황이 좋지 못해서 내년 봄을 지낼 일이 걱정이라면서 서울에서 드는 비용은 녹봉으로 충당하라고 말하고 있다.

입안(1점)

-1)	嘉靖廿七年戊申□…□初七日嫡三寸姪前叅奉崔□… □成上爲	嘉靖 27년(1548) ?月 初7日
-----	---------------------------------	---------------------

재주인 최세덕(崔世德)이 1548년에 그의 적삼촌(嫡三寸) 조카인 최필손(崔弼孫)에게 자기 소유의 사내종 막이(莫伊)를 주면서 작성한 일괄문서이다. 최세덕이 최필손에게 막이를 준 이유는 그가 여러 해 동안 병환을 앓고 있을 때 최필손이 마음을 다해 간호하고 지성으로 봉양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일괄문서의 제일 앞쪽에는 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기 위한 탄원서가 점련되어 있었으나 제사(題辭)의 일부분만 남고 떨어져 나갔으며 뒷부분에 점련되어 있던 공증문서 즉 입안은 아예 떨어져 나가 그 형태도 알 수 없지만 16세기 전반에 작성된 입안이라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 문헌자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편, 『영남고문서집성(1)』, 1992, 영남대학교출판부

□

○ 현 상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문서 가운데는 일부 훼손되어 손상된 부분이 있어 보수 및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점필재 문적 유품 및 종가문서는 전적 2종 5책, 유품 6종 14점, 고문서 156매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가문화재 지정 대상 자료는 김종직과 관련된 그의 선조 및 후손들과 관련된 자료로서 임난직후의 고문서 79점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金宗直(1431~1492)은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善山, 자는 孝盥, 季暵 號는 佔畢齋. 문장과 經術에 뛰어나 嶺南士林派의 宗祖가 되었고, 문하생으로는 鄭汝昌, 金宏弼, 金駟孫, 兪好仁, 南孝溫 등이 있다. 그가 지은 弔義帝文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나, 참화를 당하였다.

『東國輿地勝覽』 55권을 증수하였으며, 『佔畢齋集』, 『流頭遊錄』, 『靑丘風雅』, 『東文粹』, 『一善誌』, 『彝尊錄』 등의 문집 및 저서가 있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명 칭	수량	연 대	비 고
1	교지 교첩 차첩	48	1470~1709년 (성종 1~숙종 35)	김종직의 사령장 및 시호교지 30점, 김종직 부인(조씨와 문씨)의 사령장 5점, 김종직의 선조와 관련된 사령장 3점, 김종직 후손 중 김뉴의 진사 합격증과 사령장 9점과 김성률 무과 합격증 1점
2	녹패	1	1491년(성종 22)	김종직의 녹패로서 제3과록임.
3	분재기	19	1507~1605년 (중종 2~선조 38)	김종직과 그의 후손들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으면서 작성한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의성문 등임.
4	명문(토지문기)	5	1505~1594년 (연산 11~선조 27)	김종직의 처 문씨와 아들, 손자, 증손 등이 논을 사들인 토지매매문서이다.
5	호구전준	1	1537년(중종 32)	김종직의 부인 조씨가 발급받은 호구전준임.

6	서간	4	1468~1580년 (세조 14~선조 13)	김종직의 모친, 중형, 아내 조씨가 김종직에게 보낸 편지
7	입안	1	1548년(명종 3)	김종직의 손자 金維의 장인 최필손이 이 노비를 별급해주고서 작성한 일괄 점련문서로 관으로부터 받은 입안은 떨어져 없음.

1. 교지 교첩

교지 교첩은 모두 48점이다. 김종직과 그의 선조 및 후손과 관련된 사령장과 합격증으로서 이 가운데 김종직은 30점, 김종직의 처(창령조씨 3점 남평문씨 2점) 5점, 김종직의 선조(조부 조모 증조모) 3점, 김종직의 증손 김뉴 9점, 김종직의 현손 김성을 1점 등이다. 이들 자료는 傳記資料로서 인사행정 및 과거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이다.

金宗直(1431~1492)

- 1) 金宗直爲朝散大夫藝文館修撰知制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檢校者
成化六年(1470)六月 初三日
- 2)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者
成化七年(1471)二月 初一日
- 3) 金宗直爲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者
成化七年(1471)二月 初一日
- 4) 金宗直爲奉列大夫行咸陽郡守者
成化七年(1471)九月 初六日
- 5)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者
成化七年(1471)十二月 初日
- 6) 金宗直爲奉正大夫行咸陽郡守者
成化七年(1471)十二月 二十七日
- 7) 金宗直爲中訓大夫行咸陽郡守者
成化九年(1473)十一月 初五日
- 8) 金宗直爲中直大夫行咸陽郡守者
成化十一年(1475)二月 日
- 9) 金宗直爲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敎者
成化十一年(1475)十二月二十八日
- 10) 金宗直爲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者
成化十二年(1476)七月 初一日
- 11) 金宗直爲尙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者

- 成化 十二年(1476) 七月 初一日
- 12) 金宗直爲通訓大夫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者
成化 十八年(1482) 三月 十一日
- 13)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者
成化 十九年(1483) 十月 初四日
- 14)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者
成化 十九年(1483) 十一月 初一日
- 15)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者
成化 二十年(1484) 六月 初一日
- 16)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
直提學尙瑞院正者
成化 二十年(1484) 八月 初六日
- 17)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者
成化 二十年(1484) 十月 二十六日
- 18)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者
成化 二十一年(1485) 正月二十七日
- 19) 金宗直爲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者
成化 二十一年(1485) 九月 二十九日
- 20) 金宗直爲兼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提學者
成化 二十二年(1486) 三月 初二日
- 21) 金宗直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者
成化 二十二年(1486) 十二月 初三日
- 22) 金宗直爲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者
成化 二十三年(1487) 五月 二十三日
- 23) 金宗直爲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者
成化 二十三年(1487) 五月 二十三日
- 24) 金宗直爲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者
成化 二十三年(1487) 五月 二十七日
- 25) 金宗直爲全羅道兼兵馬水軍節度使者
成化 二十三年(1487) 六月 初八日
- 26) 金宗直爲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成均館事者
弘治 元年(1488) 十月 十六日
- 27)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者
弘治 元年(1488) 十二月 十五日

- 28)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者
弘治二年(1489)正月二十一日
- 29)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者
康熙二十八年(1689)正月二十七日
- 30)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文忠公者
康熙四十八年(1709)二月日
金宗直妻 曹氏 文氏
- 31) 吏曹成化十二年八月初三日奉教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金宗直妻令人曹氏爲淑人者
成化十二年(1476)八月初三日
- 32)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妻淑人曹氏贈貞夫人者
成化二十年(1484)十一月十四日
- 33)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前妻貞夫人曹氏爲貞敬夫人者
康熙二十八年(1689)正月二十七日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經筵弘文館藝文官春秋館觀象監事
金宗直前妻依法典從夫職
- 34)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成均館事金宗直妻文氏爲貞夫人者
成化二十二年(1486)正月初八日
- 35)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後妻貞夫人文氏爲貞敬夫人者
康熙二十八年(1689)正月二十七日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經筵弘文館藝文官春秋館觀象監事
金宗直前妻依法典從夫職
金宗直 祖考 祖妣 曾祖妣
- 36)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祖考成均進士金瑄贈通政大夫戶曹叅議者
成化二十年(1484)十一月十四日
- 37)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曾祖妣贈淑人金氏贈淑夫人者
弘治二年(1489)三月初八日
- 38)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祖妣贈淑夫人俞氏贈貞夫人者
弘治二年(1489)三月初八日
金宗直 孫子 金紐(1527~1560)
- 39) 幼學金紐進士二等第十六人入格者
隆慶二年(1568)六月日

- 40) 吏曹隆慶四年(1570)八月十七日奉敎進士承仕郎金紐爲承仕郎行密陽訓者
隆慶四年(1570) 八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1) 吏曹隆慶六年二月二十五日奉敎承仕郎行密陽訓導金紐爲通仕郎行密陽訓導者
隆慶六年(1572)閏二月二十五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2) 吏曹萬曆元年十二月 初一日進士務功郎金紐爲務功郎行咸安訓導者
萬曆 元年(1573) 十二月 一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3) 吏曹萬曆二年六月初四日奉敎司圃署別檢務功郎金紐爲宣務郎者
萬曆二年(1574) 六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4) 吏曹萬曆五年四月二十二日奉敎前別提宣敎郎金紐爲宣敎郎行高靈訓導者
萬曆五年(1577) 四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5) 吏曹萬曆七年九月初九日奉敎前訓導宣務郎金紐爲宣務郎金海敎授者
萬曆七年(1579) 九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 46) 宣敎郎金海敎授金紐爲承訓郎金海敎授者
萬曆八年(1580) 正月 二十二日
- 47) 吏曹爲差定事萬曆元年十一月二十五日同副承旨臣洪聖民次知口傳司圃署
別提南宮愷遷轉本乙良金紐准此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
驗施行須至帖者 右帖下進士務功郎金紐准此
萬曆 二年(1574) 二月 日
判書, 參判, 參議臣李(수결), 正郎, 佐郎臣權(手決)
金聲律
- 48) 正金聲律武科丙科第一百二十七人及第出身
萬曆 三十一年(1603) 正月 日

2. 祿牌

녹과는 1점으로 김종직에게 발급된 문서이다. 吏曹兵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이나 文武官員에게 녹과를 정하여 내려주는 녹과증서이다. 녹과는 제1과에서 18과로 구분하여 녹봉에 차이가 있다. 祿俸은 年 4차례 지급하였는데 1671년(현종 12)부터는 月俸制로 바뀌었다

1) 兵曹奉教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宗直今辛亥年第三科祿者

弘治四年 正月 日

判書臣李(手決), 參判, 參議, 參知, 正郎臣郭(手決)

후면: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宗直 今辛亥科祿

1491년(성종 22), 「兵曹之印」. 74×89cm

1491년(성종 22)정월에 왕명을 받들어 병조에서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이던 김중직에게 제3 科祿을 내리는 녹패이다. 녹패하단에 있는 정월, 4월, 7월에 지급 받았던 내용의 小片紙 3매는 당시 받은 내역을 알 수 있으며, 녹봉제 연구에 중요한 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3. 分財記

분재기는 19점으로 김중직 및 그의 후손들과 관련된 재산 상속문서이다. 재산이 나누어지는 형태에 따라 分給, 許與, 別給, 和議成文 등으로 쓰여 진다.

1) 正德貳年五月拾三日四女子金宗□…………□臥乎事段

自筆…武衛中部副司正 文氏(手決), 盧氏(墨印)

1507년(중종 2) 5월 13일에 김중직이 처가로부터 장인 文氏에게 노비와 전답을 특별히 받은 별급문서이다.

2) 正德四年己巳貳月十一□…………□金宗直妻衿母邊婢德只…………

財主 父 奮順副尉忠武衛中部副司正 文氏(手決), 財主 母 光州 盧氏(墨印)
1509(중종 4) 2월 11일에 김중직의 장인 문씨와 장모 盧氏가 김중직의 처에게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3) 嘉靖貳拾貳年十月初四日前後室子息□…………

財主 卒資憲大夫刑曹判書 金宗直妻貞夫人文氏(墨印), 證保 四寸孫女父幼學柳孟輔(手決), 證人 四寸孫前參奉金令始(手決), 筆執 四寸孫前參奉金有昌(手決)

155×69cm

1543년(중종 38) 10월 初4일에 金宗直妻 文氏가 長女 生員柳世湄妻金氏, 次女 生員李翮妻金氏, 子 參奉嵩年妻孫氏, 末女 直長申用啓妻金氏, 家翁 主子女 阿□水 등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4) 嘉靖廿三年甲辰十月初七日二甥妹亦中許與成給爲乎事叱段

財主 資憲大夫刑曹判書 金宗直妻貞夫人文氏(墨印), 證 三寸姪忠贊衛文壽長, 證 四寸孫子前參奉金苟昌(手決), 筆執 五寸姪幼學盧鐵住(手決)

88×68.5cm

1544년(중종 39) 10월 初7일에 김중직 처 문씨가 所生 前參奉 子嵩年妻 孫

氏, 女子 直長申用啓妻金氏, 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성한 문서이다.

5) 嘉靖廿七年十月廿五日孫獐祥亦中□…□議別給事段

財主 前參奉 祖父崔(手決) 宜人 祖母朴氏(墨印), 證 前參奉 妻甥兄朴(手決) 前參奉妻 甥弟朴(手決), 筆執 幼學三寸 良佐(手決)

1548년(명종 3) 10월 25일에 외조부모가 손자인 獐祥에게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서이다.

6) 嘉靖三十五年丙辰正月十五日三子等亦中田民家財等

財主 承仕郎東部參奉 金嵩年妻孫氏(墨印), 訂保 三寸姪 申季誠(手決), 訂保 三寸姪 通訓大夫前縣監 孫致雲(手決), 筆執 三寸姪幼學 孫起雲(手決)

. 96×87cm

1556년(명종 11) 1월 15일 재주인 承仕郎 東部參奉 金嵩年妻孫氏가 長子 綸, 次子 維, 末子 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7) 祖上奴婢乙汝矣……長女婿金維衿…末女婿박택衿

財主 父前參奉 崔(手決), 訂 七寸姪 幼學 崔應□(手決), 訂 孿妹夫禦侮將軍李義姜(手決), 筆執 五寸姪女父幼學禹□平(手決)

재주인 전 참봉 崔弼孫이 김종직의 손자인 만사위 金維와 末女婿 朴澤, 亡女 李岳妻 祭祀條, 妾子 鶴年 등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작성한 문서이다. 亡女 李岳妻 祭祀條는 약간 분배되었다. 첫부분이 훼손되어 연대가 기록된 부분이 결락되어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사위인 김유가 1562년 6월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1562년(명종 17) 6월 이전의 문서로 추정된다.

8) 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初四日女婿金夢齡亦中別給明文

財主自筆 進士文氏(手決)

1566년(명종 21) 7월 4일에 進士 文氏가 사위인 김종직의 증손 金夢齡에게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서이다.

9) 嘉靖四十五年丙寅□…□十日二[三]甥妹和議成文事段

兄幼學金夢齡(手決), 弟幼學 錫齡(手決), 妹夫幼學郭再定(手決), 證人同生 三寸叔 幼學金紐(手決), 證保三寸叔母夫 幼學朴澤(手決), 筆執六寸兄幼學 金壽玩(手決)

1566년(명종 21)에 김종직의 증손인 金夢齡, 金錫齡, 末妹 阿只(郭再定에게 시집) 삼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10) 萬曆十一年癸未二月初一日女□…□金聲律亦中

財主妻父幼學 朴(手決), 證前□讀官 薛(手決), 證同生男幼學 郭(手決),

1583년(선조 16) 2월 1일에 김종직의 현손 김성율의 장인 박씨가 김성율에게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11) 萬曆十二年甲申正月□五日子息二兄弟亦中都許與成置爲臥乎事叱段

財主 故幼學 金綸 妻 河氏(墨印), 證保 家翁同生孫金文龍(手決), 證保 家翁同生孫金得南(手決), 筆執 孳同生甥 別侍衛河宗(手決)

1584년(선조 17) 정월에 金綸 妻 河氏가 長子 天瑞妻朴氏, 次子天祥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12) 萬曆十二年□…□長子聲律處別給事段

財主 母 金夢嶺妻文氏(墨印), 證人 家翁六寸兄 金壽悅(手決), 證保 家翁四寸弟金□嶺(手決), 筆執同生甥 文免(手決)

1584년(선조 17)에 김몽령의 처 문씨가 그의 아들 김성률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별급문기이다.

13) 萬曆廿三年乙未十月十六日長孫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

財主 祖母文氏(墨印), 證人 次子聲振(手決), 筆執 七寸兄 金(手決)

1595년(선조 28) 10월 16일에 김몽령의 처 문씨가 장손 흥업에게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14) 萬曆廿三年十月十六日長子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

財主 父 金(手決), 證人 八寸兄金(手決), 筆執 同生弟 金(手決)

1595년(선조 28) 10월 16일에 김성률이 장자 흥업에게 재산을 주고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15) 萬曆廿六年三月五日子息等處明文

財主 母 文氏(墨印), 證人 家翁四寸幼學 金甲嶺(手決), 證保, 筆執孳子同生 文勤(手決)

1598년(선조 31) 3월 5일에 金夢嶺妻 文氏가 장자 聲律, 仲子 聲振, 末子 聲澈, 亡女 祭位, 孳子 淡同 등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세 아들에게 주로 분배하고 사망한 딸의 제위조 및 일자에게는 약간을 주었다. 배면에는 丁亥년에 故金聲澈 몫 가운데 일부를 방매하고서 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록이 있다.

16) 萬曆三十一年□月□…□長子□…□聲律處別給爲臥乎事段

財主 母 文氏(墨印), 證人 三寸姪通訓大夫梁山郡守 文(手決), 證保 八寸甥 奉直郎行 高靈縣監 申景翼(手決), 筆執 仲子幼學聲振(手決)

1603년(선조 31)에 재주인 김몽령의 아내 문씨가 장자 성률이 무과에 급제하여 특별히 주는 별급문기이다.

17)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一日三寸姪新及第金聲律處別給爲臥乎事段

財主 故 郭再定妻金氏(墨印), 證人 通訓大夫梁山郡守 文(手決), 證保 奉直郎行 高靈縣監 申景翼(手決), 筆執 異姓七寸姪 金應聖(手決)

1603년(선조 31) 3월 21일에 재주인 郭再定の 妻 金氏(김종직 손자 金維의 딸)가 조카인 성률이 무과에 급제하여 특별히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별급문기이다.

18)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二日女婿 金聲律處別給成文爲臥乎事段

財主 妻父 通政大夫 朴氏(手決), 證 四寸甥 通政大夫 金(手決), 證 九寸叔 通政大夫 薛(手決), 筆執 子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藩(手決)

1 603년(선조 31) 3월 22일에 재주인 박씨가 사위인 김성률이 무과에 급제하여 특별히 재산을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19) 萬曆三十三年乙巳七月十七日嫡室二甥妹妻子四甥妹等亦中

財主 父 通政大夫 朴氏(手決), 證人 異姓八寸弟 訓練奉事 韓浩(手決), 證保七寸姪訓練僉正朴延慶(手決), 筆執 同生七寸幼學朴慶鸞(手決)

1605년(선조 31) 7월 17일에 재주인 박씨가 長女婿判事 김성률 및 子 僉知 朴藩 嫡室 二甥妹와 妻子 私奴應林, 妾女太眞, 次女小眞, 三女 季眞 등 妻子 四甥妹 모두 6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4. 明文(土地文記)

명문은 5점으로 김종직의 妻 文氏와 그의 後孫들이 토지를 사들인 土地賣買文書이다. 賣買文書에는 賣渡人, 證人, 筆執이 참여하여 성명 밑에 수결을 하며, 천민인 경우에는 手寸 또는 手掌을 하여 증명하고 있다.

1) 弘治拾捌年肆月貳拾陸日金宗直妻文氏前 明文

畚主 學生 朴明同(手決), 寺奴 順今(手寸), 證保, 筆執 幼學 權(手決)

1505년(연산군 11) 4월 26일에 김종직의 처 문씨가 학생 박명동으로 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40.5×48cm

2) 嘉靖八年己丑十一月廿四日東部前叅奉金崇年前明文

畚主 私奴 佳孫(左手村), 證保, 所耕主 雙熊同(수결), 證人 奴年金(手決) 筆執 學生 琴有滋(手決)

1529년((중종 24) 11월 24일에 김종직의 아들 金嵩年이 私奴 佳孫으로 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32×48cm

3) 嘉靖三十一年壬子十二月二十五日金維處明文

畚主 別侍衛朴仁元(手決), 證人 同生妻男柳光春(手決), 筆執 金孝己(手決)

1552년(명종 7) 12월 25일에 김종직의 손자 金維가 別侍衛 朴仁元으로 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34×47cm

4) 萬曆二十二年甲午二月十二日軍資主簿金聲律處明文

畚主自筆 幼學宋興復(手決)

1594년(宣祖 27) 2月 12日에 김종직의 현손 金聲律이 幼學 宋興復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5) □…□初六日金夢嶺前明文事叱段

85×50cm

김종직의 曾孫 金夢嶺이 前 別坐 裴振緒로부터 논 10마지기를 사들이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 上段부분이 일부 缺損되어 작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김몽령이 1580년(선조 13) 6월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문서는 1580년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戶口傳准

1) [嘉]靖 十六年 三月初七日戶口(文氏 67) ……傳准

戶卒資憲大夫刑曹判書……文氏年陸拾柒 籍南平 父贈通政大夫司憲府僉正克貞 祖宣務郎 曾祖通德郎大興縣監典, 外祖宣…… 盧盡目 本 光州

嘉靖 16년(1537) 3月 初7日에 김종직의 처인 남평 문씨에게 발급된 戶口傳準이다. 당시 문씨의 나이는 67세였다. 첫줄 간기부분과 중단 및 하단 부분이 損傷되어 상태는 불량하다.

6. 書簡

서간은 4점으로 김종직이 모친, 아내, 둘째 형으로부터 받은 3점과 손자인 김뉴가 鄭訓導에게 받은 1점이 있다. 서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어서 간단한 안부편지에서부터 인간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1) (校理寄平書)此間未審安否分別次 ……

戊子年(1468) 十月二十六日 母 朴氏

36.7×21.7cm

金宗直의 어머니 朴氏가 1468년 10월 26일에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2) (弟主上平書)昨夕醫生所傳書內得知……

成化 六年(1470) 十月初七日 36.7×29.7cm

김종직의 仲兄 金宗裕가 1470년(성종 1)10월 7일에 金宗直에게 보낸 書簡

3) (家翁上平書)校理宅 金三來後 未審安否 日夜懸戀 ” ” 爲白內旆

十一月 十七日 家人 曹氏

36.7×27cm

김종직의 처 曹氏가 김종직에게 보낸 서간으로 끝에 11월17일만 기록되어 있다. 김종직의 처 조씨가 1482년(성종 13)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서간의

작성 시기는 1482년경으로 추정된다.

4) 秋暑尙熾謹問動履若何懸慕曷已

庚辰年(1580) 七月 十七日

김종직의 손자 金紐가 1580년(선조 13) 7월 17일에 鄭訓導에게 보낸 書簡

7. 입안

嘉靖廿七年戊申□…□初七日嫡三寸姪前叅奉崔 [弼孫]□□成上爲臥乎事段

財主自筆展力副尉崔世德(手決), 證保 奮順副尉崔世芳(手決), 證人 學生 李熙貞(手決)

1548년(명종 3)에 재주인 崔世德 그의嫡三寸 조카인 崔弼孫에게 자기 소유의 奴 莫伊를 주면서 작성한 일괄 점련문서이다.

첫부분의 소지가 손상되어 題辭의 일부분만 남아 있으나 파악하기 어렵고 뒷부분에 있어야 할 관으로부터 받은 입안은 결락되었다. 이 문서는 전체적으로 손상이 심하고 상태도 불량하다. 16세기 전반에 작성된 입안이라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점필재 중가 고문서는 김종직과 그의 선조 및 후손들과 관련된 교지 교첩, 녹패, 분재기, 명문, 호구전준, 서간, 입안 등의 고문서 79점이다. 이 고문서들은 김종직이 1461년(세조 7)에 登第한 이래 내외의 관직을 역임하고 중요 요직을 지냈으므로 교지 교첩 녹패는 김종직의 仕宦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분재기는 김종직이 부모로부터 받은 허여 또는 별급문기 그리고 분재기의 상당수는 처가로부터 분급받은 것으로 당시의 재산 授受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토지를 매입한 명문, 호구전준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는 요소가 되며, 김종직이 가족에게서 받은 서간은 생활상이 드러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고문서 연구는 물론 당시의 생활사, 신분제도사, 과거제도연구, 재산상태 및 사회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지정명칭은 '김종직 중가 고문서' 로 하고, 지정 신청시 소장자 김병식씨는 2011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맏아들 김진규씨로 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 문헌자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편, 『영남지방고문서집성(1)』, 1992, 영남대학교출판부.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증보판, 2006, 지식산업사.

○ 기 타

김종직 종손가에 전해오고 있는 家傳 고문서이다. 현재는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대가야박물관에 임시보관하고 있다.

□

○ 현 상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다. 시급한 보존처리가 요망된다.

○ 내용 및 특징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한 점필재가문 고문서는 영남사림과의 종장인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교지, 패지 등을 비롯하여 김종직 母夫人의 서찰, 김종직의 後夫人文氏의 분재문기와 호구단자, 전답매매명문 등으로 현재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 이들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09호로 지정되어 있다. 본 점필재 종가 소장 고문서는 한국사연구에 있어서 기본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김종직 모부인의 서찰과 김종직 後夫人文氏의 분재기, 전답 매매명문, 호구단자 등 고문서는 한국의 사회경제사, 법제사, 국어사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흥패□백패 및 각종 사령장 등은 조선전기과 중기의 과거제도 및 관료 제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재기□매매명문□입안 등은 이 시기 사족 가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들 고문서는 이러한 사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김종직이 영남사림과의 종장으로서 참혹한 무오사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중요한 자료를 보존해 오고 있다는 데서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점필재 종가 고문서 중 김종직의 사령장 30점, 김종직의 녹패 1점, 김종직 부인(曹氏와 文氏)의 사령장 5점, 김종직의 조상과 관련된 사령장 3점, 김종직 후손 중 김뉴의 합격증과 사령장 9점, 김종직의 후손 중 김성률 관련 무과 합격증 1점, 분재기 19점, 명문 5점, 호구전준 1점, 서간 4점, 입안 1점 등 도합 79점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효율적 보존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 김종직의 사령장(30점)

연번	명 칭	기 타 특 징
-1)	金宗直爲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	成化 6年(1470) 6月 初3日
-2)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	成化 7年(1471) 2月 初1日
-3)	金宗直爲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7年(1471) 2月 初1日
-4)	金宗直爲奉列大夫行咸陽郡守	成化 7年(1471) 9月 初6日
-5)	金宗直爲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7年(1471) 12月 初 日
-6)	金宗直爲奉正大夫行咸陽郡守	成化 7年(1471) 12月 27日
-7)	金宗直爲中訓大夫行咸陽郡守	成化 9年(1473) 11月 初5日
-8)	金宗直爲中直大夫行咸陽郡守	成化 11年(1475) 2月 日
-9)	金宗直爲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教	成化 11年(1475) 12月 28日
-10)	金宗直爲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	成化 12年(1476) 7月 初1日
-11)	金宗直爲尙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成化 12年(1476) 7月 初1日
-12)	金宗直爲通訓大夫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成化 18年(1482) 3月 11日
-13)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19年(1483) 10月 初4日
-14)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19年(1483) 11月 初1日
-15)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	成化 20年(1484) 6月 初1日
-16)	金宗直爲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	成化 20年(1484) 8月 初6日
-17)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	成化 20年(1484) 10月 26日
-18)	金宗直爲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	成化 21年(1485) 正月 27日
-19)	金宗直爲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	成化 21年(1485) 9月 29日
-20)	金宗直爲兼同知經筵成均館事藝文館提學	成化 22年(1486) 3月 初2日
-21)	金宗直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成化 22年(1486) 12月 初3日
-22)	金宗直爲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	成化 23年(1487) 5月 23日
-23)	金宗直爲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	成化 23年(1487) 5月 23日
-24)	金宗直爲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	成化 23年(1487) 5月 27日
-25)	金宗直爲全羅道兼兵馬水軍節度使	成化 23年(1487) 6月 初8日
-26)	金宗直爲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同知成均館事	弘治 元年(1488) 10月 16日
-27)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	弘治 元年(1488) 12月 15日

-28)	金宗直爲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	弘治 2年(1489) 正月 21日
-29)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30)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贈諡文忠公	康熙 48年(1709) 2月 日

1) 국왕이 1470년 6월 3일에 김종직을 朝散大夫行藝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조산대부는 종4품 上位였다.

2) 국왕이 1471년 2월 1일에 김종직을 朝散大夫咸陽郡守'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3) 국왕이 1471년 2월 1일에 김종직을 咸陽郡守로 임명하고 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4) 국왕이 1471년 9월 6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奉列大夫'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봉렬대부는 정4품 下位였다.

5) 국왕이 1471년 12월 초에 김종직을 朝散大夫咸陽郡守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그런데 이 교지에는 오자가 있다. 晉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라고 해야 맞는데 사령장을 보면 管'이 道'로 잘못 쓰여 있으며 節'과 使' 사이에 制' 자가 빠져 있다. 또 사령장을 보면 정4품 하위인 봉렬대부로 승품했다가 다시 종4품 상위인 조산대부로 강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령장의 작성자가 오류를 범했는지는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6) 국왕이 1471년 12월 27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정4품 상위인 奉正大夫'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7) 국왕이 1473년 11월 5일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종3품 하위인 中훈대부'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8) 국왕이 1475년 2월에 함양군수인 김종직의 품계를 종3품 상위인 中직대부'로 승품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9) 국왕이 1475년 12월 28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行承文院叅校知製敎'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이다.

10) 국왕이 1476년 7월 1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1) 국왕이 1476년 7월 1일에 김종직을 선산도호부사로 임명하고 尙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시키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2) 국왕이 1482년 3월 11일에 김종직을 通訓大夫弘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3) 국왕이 1483년 10월 4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다.

14) 국왕이 1483년 11월 1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이 사령장 작성자가 처음에는 撰' 자를 빼어놓고 썼다가 나중에 추가하였다.

15) 국왕이 1484년 6월 1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6) 국왕이 1484년 8월 6일에 김종직을 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敎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官直提學尙瑞院正'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17) 국왕이 1484년 10월 26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吏曹叅判'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가선대부는 종2품 하위이다.

18) 국왕이 1485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호조참판에 임명되어 있던 김종직에게 경연동지사와 성균관동지사를 겸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19) 국왕이 1485년 9월 29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지정 후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20) 국왕이 1486년 3월 2일에 김종직에게 경연동지사와 성균관동지사 및 예문관제학을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1) 국왕이 1486년 12월 3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2) 국왕이 1487년 5월 23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京畿觀察使兼開城府留守'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3) 국왕이 1487년 5월 23일에 경기관찰사인 김종직에게 京畿兼兵馬水軍節度使'를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4) 국왕이 김종직을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한 지 4일 후에 전라도 관찰사로 바꾸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경기도 관찰사에 부임하기도 전에 교체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성종실록』에 의하면, 김종직이 전라도 관찰사에 부임하기 위해 국왕에게 사조한 것은 6월 20일이었는데 이는 임명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시점이었다.

25) 국왕이 1487년 6월 8일에 전라도 관찰사이던 김종직에게 병마수군절도사'를 겸직토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관찰사는 관례적으로 兵使와 水使를 겸직했다.

26) 국왕이 1488년 10월 16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 漢城府左尹 兼同知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7) 국왕이 1488년 12월 15일에 김종직을 嘉善大夫工曹叅判兼同知成均館事'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8) 국왕이 1489년 1월 21일에 공조참판으로 성균관동지사를 겸직하고 있던 김종직에게 홍문관제학을 하나 더 겸직하도록 명령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29)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이던 김종직에게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자헌대부는 정2품 하위이며 대광보국승록대부는 정1품으로 신하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품계이다.

30) 숙종이 1709년 2월에 김종직에게 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 김종직의 녹패(1점)

-1) 兵曹奉教賜資憲大夫知中樞府事今辛亥年第三科祿	弘治 4年(1491) 正月 日
----------------------------	------------------

병조에서 자헌대부지중추부사이던 김종직에게 발급한 녹패이다. 당시 그는 3과에 해당하는 녹을 받았는데 현재 정월, 4월, 7월에 지급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녹봉을 연구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 김종직 부인(조씨와 문씨)의 사령장(5점)

-1) 吏曹奉教通訓大夫行善山都護府使金宗直妻令人曹氏爲淑人	成化 12年(1476) 8月 初3日
-2)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妻淑人曹氏贈貞夫人	成化 20年(1484) 11月 14日
-3) 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成均館事金宗直妻文氏爲貞夫人	成化 22年(1486) 正月 初8日
-4)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前妻貞夫人曹氏爲貞敬夫人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5) 贈議政府領議政金宗直後妻貞夫人文氏爲貞敬夫人	康熙 28年(1689) 正月 27日

1) 이조에서 1476년 8월 3일에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통훈대부행선산도호부사인 김종직의 아내 曹氏를 淑人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숙인은 종3품과

정3품 당하관 아내에게 내려주는 外命婦이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직이 선산도호부사에 임명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부인 조씨에게 숙인 품계를 내리는데 왜 동시에 임명하지 않고 이와 같은 시차가 있었는지는 장차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국왕이 1484년 11월 14일에 가선대부 이조참판인 김종직의 아내 조씨에게 정부인의 외명부를 내려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조씨에게 증직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그녀는 당시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국왕이 1486년 1월 8일에 가선대부 행첨지중추부사 겸동지경연성균관사인 김종직의 아내 문씨를 정부인으로 봉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문씨는 김종직의 둘째 아내였다.

4)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관례에 따라 그의 첫째 아내인 정부인 조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할 때 발급한 사령장이다.

5) 숙종이 1689년 1월 27일에 김종직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면서 관례에 따라 그의 둘째 아내인 정부인 문씨를 정경부인으로 추증할 때 발급한 사령장이다.

● 김종직의 조상 관련된 사령장(3점)

-1)	嘉善大夫吏曹叅判金宗直祖考成均進士金瑄贈通政大夫戶曹叅議	成化 20年(1484) 11月 14日
-2)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曾祖妣贈淑人金氏贈淑夫人	弘治 2年(1489) 3月 初8日
-3)	資憲大夫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金宗直祖妣贈淑夫人俞氏贈貞夫人	弘治 2年(1489) 3月 初8日

1) 성종이 1484년 11월 14일에 김종직의 조고인 成均進士 金瑄에게 通政大夫戶曹叅議라는 증직을 내려주면서 작성한 사령장이다. 김종직이 가선대부 이조참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조상에게 추증이 내려졌던 것이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글자가 없어진 부분이 있다.

2) 성종이 1489년 3월 8일에 김종직의 증조비인 숙인 김씨를 숙부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이 사령장을 통하여 김종직이 이 무렵 자헌대부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종직이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임명될 때 발급되었던 사령장은 현전하지 않는다.

3) 성종이 1489년 3월 8일에 김종직의 조비인 숙부인 유씨를 정부인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 김종직 후손 중 김뉴의 합격증과 사령장(9점)

-1)	幼學金紐進士二等第十六人入格	隆慶 2年(1568) 6月 日
-2)	吏曹隆慶四年八月十七日奉教進士承仕郎金紐爲承仕郎行密陽訓導	隆慶 4年(1570) 8月 日
-3)	吏曹隆慶六年二月二十五日奉教承仕郎行密陽訓導金紐爲通仕郎行密陽訓導	隆慶 6年(1572) 閏2月 25日
-4)	吏曹萬曆元年十二月初一日奉教進士務功郎金紐爲務功郎行咸安訓導	萬曆 元年(1573) 12月 1日
-5)	吏曹萬曆二年六月初四日奉教司圃署別檢務功郎金紐爲宣務郎	萬曆 2年(1574) 6月 日
-6)	吏曹萬曆五年四月二十二日奉教前別提宣教郎金紐爲宣教郎行高靈訓導	萬曆 5年(1577) 4月 日
-7)	吏曹萬曆七年九月初九日奉教前訓導宣務郎金紐爲宣務郎金海教授	萬曆 7年(1579) 9月 日
-8)	宣教郎金海教授金紐爲承訓郎金海教授	萬曆 8年(1580) 正月 日
-9)	吏曹爲差定事萬曆元年十一月二十五日同副承旨臣洪聖民次知口傳司圃署別提南宮愷遷傳本乙良金紐進叱使內良如爲口傳施行爲有置有等以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右帖下進士務功郎金紐准此	萬曆 2年(1574) 2月 日

1) 김종직의 손자인 유학 김뉴가 1568년 6월에 진사시에 응시하여 2등 16인으로 합격하여 받은 증서로 白牌라고도 한다.

2) 1570년 8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김뉴를 밀양훈도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그는 이미 진사에 합격하고 또 품계도 중8품인 승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발급하는 사령장을 敎牒이라 하였다.

3) 1572년 윤2월에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밀양훈도 김뉴의 품계를 승사랑에서 정8품인 통사랑으로 승품시켜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4) 이조에서 1573년 12월에 왕명을 받들어 김뉴를 무공랑행함안훈도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무공랑은 정7품이다.

5) 이조에서 1574년 6월에 왕명을 받들어 사포서 별제이던 김뉴의 품계를 정7품인 무공랑에서 중6품 하위인 선무랑으로 승품시켜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6) 이조에서 1577년 4월에 왕명을 받들어 전임 별제이던 선교랑 김뉴를 고령훈도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선교랑은 중6품 상위이다.

7) 이조에서 1579년 9월에 왕명을 받들어 선무랑 전 훈도 김뉴를 선무랑 김해교수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김뉴는 이미 2년 전에 중6품 하위인 선무랑에서 중6품 상위인 선교랑으로 승품하였는데 2년 후 무슨 일을 계기로 다시 降

품이 되었는지, 아니면 교첩 작성자가 잘못 쓴 것인지 알 수 없다.

8) 이조에서 1580년 1월에 선교랑 김해교수인 김뉴의 품계를 승훈랑으로 올려주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다. 승훈랑은 정6품 하위이다.

9) 이조에서 1574년 2월에 무공랑 김뉴를 사포서별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령장이나 문서 형태는 帖이다. 前任 사포서 별제인 남궁개가 遷轉되자 이조에서는 그 후임으로 김뉴를 천거하여 왕으로부터 구전 허가를 받고서 임명하였다.

● 김종직의 후손 중 김성률의 무과 합격증(1점)

-1)	正金聲律武科丙科第一百二十七人及第出身	萬曆 31年(1603) 正月 日
-----	---------------------	-------------------

국왕이 1603년 정월에 김종직의 현손으로 무과에 급제한 김성률에게 발급한 합격증서이다. 그는 이때의 시험에서 丙科 127등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급제한 후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실시한 도문연에서 여러 인척들이 김성률에게 특별히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때 작성한 별급문기도 전하고 있다.

● 분재기 (19점)

1507년부터 1605년까지 작성된 것이다. 분재기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正德貳年五月拾三日四女子金宗□…□臥乎事段	正德 2년(1507) 5月 13日
-2)	正德四年己巳貳月十一□…□金宗直妻衿母邊婢德只	正德 4년(1509) 2月 11日
-3)	嘉靖貳拾貳年十月初四日前後室子息□…□	嘉靖 22년(1543) 10月 初4日
-4)	嘉靖廿三年甲辰十月初一日二甥妹亦中許與成給爲乎事叱段	嘉靖 23년(1544) 10月 初7日
-5)	嘉靖廿七年十月廿五日孫獐祥亦中□…□議別給事段	嘉靖 27년(1548) 10月 25日
-6)	嘉靖三十五年丙辰正月十五日三子等亦中田民家財等	嘉靖 35년(1556) 正月 15日
-7)	嘉靖四十五年丙寅七月初四日女婿金夢崐亦中別給明文(별)	嘉靖 45년(1566) 7月 初4日
-8)	嘉靖四十五年丙寅□…□十日二甥妹和議成文事段	嘉靖 45년(1566) ○月 ○日
-9)	萬曆十一年癸未二月初一日女□…□金聲律亦中(별)	萬曆 11년(1583) 2月 1日
-10)	萬曆十二年甲申正月□五日子息二兄弟亦中都許與成置爲臥乎事叱段	萬曆 12년(1584) 正月 ○5日

-11)	萬曆十二年□…□長子聲律處別給事段(별)	萬曆 12년(1584)
-12)	萬曆廿三年乙未十月十六日長孫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23년(1595) 10월 16일
-13)	萬曆廿三年十月十六日長子弘業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23년(1595) 10월 16일
-14)	萬曆廿六年三月五日子息等處明文	萬曆 26년(1598) 뒷면연결
-15)	萬曆三十一年□月□…□長子□…□聲律處別給爲臥乎事段(별)	萬曆 31년(1603)
-16)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一日三寸姪新及第金聲律處別給(별)	萬曆 31년(1603) 3월 21일
-17)	萬曆三十一年三月二十二日女婿金聲律處別給成文爲臥乎事段(별)	萬曆 31년(1603) 3월 22일
-18)	萬曆三十三年乙巳七月十七日嫡室二甥妹妾子四甥妹等亦中 都許與二度及各衿文記二度	萬曆 33년(1605) 7월 17일
-19)	祖上奴婢乙汝矣	年代未詳(명종연간으로 추정)

1) 김종직이 관찰사로 있으면서 장인에게 온갖 효도를 다하고 장인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장인이 1507년 5월 13일에 김종직에게 노비와 전답을 특별히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2) 김종직의 장인과 장모인 광주노씨가 1509년 2월에 김종직의 아내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3)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43년 10월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4)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44년 10월에 자신의 두 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5) 조부 최아무개가 1548년 10월에 손자 인상(麟祥)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그냥 조부'라고만 밝혀져 있지만 사실은 외조부'이며 가계도에 의하면 이 조부 최아무개는 최필손(崔弼孫)이다. 이 분재기에 의하면, 나이 육십이 다 되어 어린 손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자 기쁘기 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방에 가득한 손님들이 손자에게 춤추기를 청하면 곧바로 일어나 손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니 그 기상이 비범하여 장차 선조들의 이름을 널리 떨칠 인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있다. 인상은 현재 가계도에 최필손의 손자로 나오는 몽령과 동일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몽령의 형으로 성장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6) 김종직의 아들인 김승년의 아내 손씨가 1556년 정월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7) 1566년 7월에 진사 문아무개가 자신의 딸이 김종직의 증손인 김몽령과 혼인하자 이를 축하하며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이 재산을 김몽령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그의 딸에게 지급하였다.

8) 1566년에 김종직의 증손인 김몽령, 김석령 및 광재정에게 시집간 여동생 등 3남매가 모여 부모의 재산을 나누고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二娣妹'로 되어 있으나 三娣妹'가 맞다. 배면에는 후일 이 재산 중의 일부를 방매하고서 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록이 있다.

9) 1583년에 김성률의 장인 박아무개가 사위인 김성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재산을 사위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성혼하는 딸에 지급했다.

10) 김륜의 아내 하씨가 1594년에 자신의 두 아들 천서와 천상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김륜은 김승년의 장자인데 가계도에는 그가 요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문서를 보면 요절하지 않고 혼인을 하여 두 아들까지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언제 사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니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11) 1584년에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그의 아들 김성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재산을 별급한 이유는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자태가 범상치 않고 행동이 유순하여 자신의 마음에 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서에는 재산을 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주었다.

12)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595년 10월 16일에 장손 흥업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날은 문씨의 셋째 아들인 성철의 생일이어서 문중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살 밖에 안 된 장손 흥업이 綵舞를 추며 재롱을 떨자 기뻐서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이 흥업은 가계도에 나오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장성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김성률이 1595년 10월 16일에 큰아들 흥업에게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날은 김성률의 막내동생인 성철의 생일이었는데 자기의 큰 아들인 흥업이 채무를 추면서 재롱을 떨자 기쁜 마음에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14)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598년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대부분의 재산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사망한 딸의 제위조로 약간의 재산 지급하고 또 열자 담동에게도 미미하지만 약간의 재산을 떼어주었다. 배면에는 후에 이들 재산 중의 일부를 방매하고서 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기록들이 있다.

15) 김몽령의 아내 남평문씨가 1603년에 장자 성률이 무과에 급제한 후 집에 도착해서 도문연을 개최하자 기쁜 마음에서 약간의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 도문연에 참석했던 양산군수와 고령현감이 이 재산분배의 증인이 되어 이 분재기에 서명한 후에 관인까지 찍었다. 김성률이 무과에 급제한 후 받은 흥패, 즉 합격증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16) 광재정의 아내 김씨가 1603년 3월 21일에 조카인 김성률이 무과에 급제하여 도문연을 개최하자 축하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광재정의 아내 김씨는 김성률의 고모였는데 젊어서 과부가 되고 슬하에 자녀가 없자 김성률을 자기가 낳은 아들처럼 매우 사랑하였다고 한다.

17) 김성률의 장인인 통정대부 박아무개가 1603년 3월 21일에 사위인 김성률의 무과 급제 축하잔치가 열리자 여기에 참석하여 약간의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18) 김성률의 장인인 통정대부 박아무개가 1605년 7월에 자신이 자녀 6명에게 재산은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그는 적실과의 사이에서 두 남매, 측실과의 사이에서 4 남매를 낳았다.

19) 최필손이 그의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나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자세한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명종 연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명문(5점)

보물로 지정할 만한 명문은 총 5점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弘治拾捌年肆月貳拾陸日金宗直妻文氏前明文	洪治 18년(1505) 4월 26일
-2)	嘉靖八年己丑十一月廿四日東部前叅奉金崇年前明文	嘉靖 8년(1529) 11월 24일
-3)	嘉靖三十一年壬子十二月二十五日金維處明文	嘉靖 31년(1552) 12월 25일
-4)	萬曆二十二年甲午二月十二日軍資主簿金聲律處明文	만력 22년(1594) 2월 12일
-5)	□...□初六日金夢嶺前明文事叱段	연대미상(1580년 이전)

1) 김종직의 아내 문씨가 1505년에 학생 박명동(朴明同)으로부터 과종량이 두말 닳되가 되는 논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박명동은 이를 처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논이 멀리 있어서 경작하러 왕래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하였다. 구입가는 목면(木綿) 15필(疋)이었다.

2) 김종직의 아들 김숭년(金崇年)이 1529년에 사노 가손(私奴 佳孫)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사노 가손 역시 이 논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

리 떨어져 있어서 경작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면 2동(同) 40필로 구입하고 있다.

3) 김승년의 아들 김유(金維)가 1552년에 별시위(別侍衛) 박인원(朴仁元)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매매문서이다. 나락[租] 11섬과 암소 한 마리에 바꾸고 있다. 박인원 역시 논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경작하기 불편해서 방매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김유의 손자인 군자주부(軍資主簿) 김성률(金聲律)이 1594년에 유학(幼學) 송흥복(宋興復)으로부터 논을 사들이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송흥복은 이 논을 처자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5) 김유의 아들 김몽령(金夢嶺)이 전 별좌(前別坐) 배진서(裴振緒)로부터 논 10마지기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다만 문서의 첫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정확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가계도에 의하면 김몽령이 1580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 호구전준(1점)

-1)	戶口傳準 (文氏 67歲)	嘉靖 16년(1537) 3月 初7日
-----	---------------	---------------------

이 호구전준은 단자는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글자의 흔적을 보아 가정 16년 즉 1537년에 작성되었으며 김종직으로 아내인 남평문씨에게 발급된 것인데 당시 문씨의 나이는 67세였다.

● 서간(4점)

-1)	(校理寄平書)此間未審安否分別次	戊子年(1468) 10月 26日
-2)	(弟主上平書) 昨夕醫生所傳書內得知	成化 6年(1470) 10월 초7일
-3)	秋暑尙熾謹問動履若何懸慕曷已	庚辰年(1580) 7월 17일
-4)	(家翁上平書)校理宅 金三來後 未審安否 日夜懸戀 " " 爲白內旆	11月 17日

1) 김종직의 어머니 박씨가 1468년 10월에 김종직에게 보낸 편지이다. 어머니 박씨는 기관(記官) 중륜(仲倫)이 가져온 편지를 통해 김종직이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같은 달 11일에 신발과 철릭 및 바지 등을 도적 맞아 보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서 3일 전에 신관사또를 맞이하러 가는 편에 물건을 보냈으니 수소문해서 이를 찾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2) 중형이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잘 있으며 늦벼가 서리를 받고 풍해도 입어

수확이 평년의 1/4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밀이나 콩 등은 예년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교관이나 수령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내용과 계집종이 도망갔다가 잡혀온 후 6일만에 병으로 죽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3) 김뉴(金紐)가 1680년 7월에 훈도(訓導) 정아무개에게 보낸 편지로 향촌에서 무도하게 구는 문응정(文應禎)의 행실에 대해서는 평소에 잘 알고 계실 것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에 대한 단자(單字)를 올렸으니 이를 잘 살펴보고 관에 보고하여 처벌해주도록 당부하고 있다.

4) 김종직의 첫째 부인 창녕조씨(昌寧曹氏)씨가 김종직에게 써 보낸 편지로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자신은 전부터 앓아오던 병이 낫지 않으며 배 속의 흑이 점차 커지면서 소리까지 내고 배가 불러와 고통이 날로 심해져서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오는 인편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주고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또 작황이 좋지 못해서 내년 봄을 지낼 일이 걱정이라면서 서울에서 드는 비용은 녹봉으로 충당하라고 말하고 있다.

● 입안(1점)

-1)	嘉靖廿七年戊申□…□初七日嫡三寸姪前叅奉崔□…□成上爲	嘉靖 27년(1548) ?月 初7日
-----	-----------------------------	---------------------

재주인 최세덕(崔世德)가 1548년에 그의 적삼촌(嫡三寸) 조카인 최필손(崔弼孫)에게 자기 소유의 사내종 막이(莫伊)를 주면서 작성한 일괄문서이다. 최세덕이 최필손에게 막이를 준 이유는 그가 여러 해 동안 병환을 앓고 있을 때 최필손이 마음을 다해 간호하고 지성으로 봉양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일괄문서의 제일 앞쪽에는 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기 위한 탄원서가 점련되어 있었으나 제사(題辭)의 일부분만 남고 떨어져 나갔으며 뒷부분에 점련되어 있던 공증문서 즉 입안은 아예 떨어져 나가 그 형태도 알 수 없지만 16세기 전반에 작성된 입안이라는 점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명칭은 김종직 종가 고문서).

9.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가. 검토사항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04.10)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0.08.01)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53호(2001.6.5. 지정)
- 명 칭 :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 조계종 쌍봉사
-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741
- 수 량 : 21구
- 규 격 : 별표참조 지장보살상 104cm
도명존자 146cm
무독귀왕 148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67년(현종 8)
- 작 가 : 雲惠, 印性, 道日, 碧雲, 敬林, 辛瓊, 道尙, 性行, 監禪, 處元, 善奉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장삼존상과 시왕일괄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제작연대와 조각승이 알려졌으며 보존 상태와 채색상태가 현재 알려진 시왕상 중에서는 뛰어나고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섬세하고 장식적이다. 국가문화재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綾州地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과 「雙峰寺事蹟記」 등을 통해 이 상은 1667년경 雲惠를 비롯한 그의 일파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의 경향은 조선후기 17세기 중□후반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 운혜의 조각 경향을 잘 간직하고 있고, 더불어 과거에 시문된 고색 찬연한 채색문양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곧 이 시왕상과 권속상들은 회화와 조각이 잘 어우러진 불상으로 조선후기 채색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승 운혜는 17세기 전반을 활약했던 守衍 - 靈哲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으로 그의 조각 경향은 敬林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특히 입체적이고 건장하면서도 중량감 넘치는 선 굵은 조각 경향을 선호하였는데, 쌍봉사 지장시왕상에서도 이러한 조각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지장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기를 통해 이 상은 1667년경에 조성된 것이 확실하므로 아직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해남 대흥사 지장시왕상, 강진 백련사 지장시왕상, 해남 미황사 지장시왕상, 순천 동화사 지장시왕상, 순천 정혜사 지장시왕상 등 운혜파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조각상들의 조성연대 추정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고, 더불어 이 중에서 冥界彫刻이라는 종교적 엄숙성과 17세기 불교 조각계가 추구한 대중적 평담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7세기 중□후반경 활발한 조각활동을 펼친 조각승 운혜의 불상양식 연구와 운혜파 조각승의 조각활동과 경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쌍봉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올수록 뾰족한 얼굴에 깊게 파인 큰 인중과 입술의 양 끝을 들어가게 하여 미소 진 모습 그

리고 얼굴이 몸에 비해 다소 큰 듯한 신체 비례가 특징으로 이는 17세기중엽 경에 활동한 윤희의 특징들이다.

윤희는 약 40여년간 전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한 17세기의 중요한 조각승이다. 특히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신체 비례나 얼굴 표현 등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창출한 점에서 전라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승이라 할 수 있다.

쌍봉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비록 현재 복장물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고 발원문에 기재된 권속도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상을 만든 조각승이 확인되었으며 1m가 넘는 큰 크기에 부드러운 중간 색조의 채색과 더불어 조각적 기법도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또한 1667년이라는 확실한 제작연대를 통해 인근에 있는 유사한 지장상의 기준작이 되어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쌍봉사 목조지장삼존상, 시왕, 권속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보고서 전문



○ 조성연대 : 1667년 추정

지장상에서 발견된 조상기에 의하면 명부전 조각을 한 조각승은 雲慧비구 외 印性, 道日 碧雲 敬林등 11명이며, 사적기에 명부전상들이 1667년에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상기에 언급된 바로는 이 지장보살상 일괄이 조성시기부터 이 쌍봉사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성에 관련된 인물 중에 大監으로 翠微堂大師守初比丘가 기록되었는데 守初비구의 생몰연대는 1590년에서 1668년이므로 명부전상들이 1667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현 상

지장전에는 주존인 목조 지장보살상은 좌상이며 시왕들은 의자에 앉아 있으며 나머지 상들은 모두 입상이다. 시왕상들은 머리에 각기 다양한 형태의 관들을 쓰고 있다. 상들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으며 지장상의 입체감이 풍부한 조각 수법과 협시상들과 시왕상들의 표현이 너무 화려하지 않은 세련된 채색기법으로 나타내었다. 특히 두 인왕상은 활력이 넘치게 조각되었고 크기가 가장 크다.

○ 내용 및 특징

지장전에는 지장보살상과 그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협시하고 그 좌우에 시왕 10구 그리고 인왕, 귀왕, 동자, 사자등 21구가 있다. 그러나 원래 조성되었던 상은 23구라 한다. 상들의 조각 수법이 우수하고 제작시기와 조각승들의 이름을 알수 있으며 17세기 조선시대 시왕상들의 시대양식을 잘 대표하고 크기도 매우 큰편이다. 현재 다른 사찰들의 시왕상 제작에 모형 역할을 한다고 한다. 현재 지왕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예는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 및 시왕상과(1648년)과 진주 청곡사 지장상과 그 권속이 있다(1657년). 이 쌍봉사 상들은 다른 시왕상들보다는 시대가 약간 늦기는 하나 크기가 크고 특히 상들의 복식에 보이는 섬세한 문양 표현은 다른 사찰의 시왕상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 쌍봉사 사적기에는 1667년 주지 善益화상이 명부전 시왕상을 조성 목재는 인도에서 채색, 도료는 중국에서 수입하였다고 하나 기록을 확인 하지는 못했다(최인선, p. 135).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지장삼존상과 시왕일괄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제작연대와 조각승이 알려졌으며 보존 상태와 채색상태가 현재 알려진 시왕상 중에서는 뛰어나고 세부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섬세하고 장식적이다. 국가문화재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문헌자료

1. 지장보살상 복장 중에 발견된 조상기문(원문은 다시 넣었다고 함)
2. 최인선, 『쌍봉사의 유적과 유물』, 목포대학교박물관, 화순군, 1996.
pp.134-135.

□

○ 내용 및 특징

쌍봉사는 신라말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자산문의 개조 철감선사(798~868)가 말년에 이곳에 주석하며 크게 중창하였다. 고려 문종 22년(1068)에 혜조국사가 대대적으로 중건한 이래 조선 중기까지 사맥을 이어왔으나 정유재란(1597년)으로 건물의 태반이 소실된 것을 인조 6년(1628)에 了誼禪師가 대응전을 중수하였다. 1633년에는 印還禪師에 의해 석가팔상도와 단청불사가 있었고, 1637년에는 주지

守印에 의해 冥府殿과 地藏十王圖가 제작, 봉안되는 등 이후로도 꾸준히 중창□중수 불사가 있어 왔다. 20세기 들어와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다시 대웅전과 극락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古蹟圖譜』 권13에 수록된 쌍봉사 전경 사진에 따르면, 현재의 지장전 자리에는 丁字閣 형태의 護聖殿이 있었고 지금의 지장전과 같은 모양의 건물은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논 위에 “五百殿”라는 건물이 확인된다. 이 건물을 1978년 현재의 곳으로 옮겨 고쳐 짓고 地藏殿이라 편액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78년에 건립한 지장전 내부에는 목조로 만든 지장보살삼존상을 비롯하여 십대왕, 귀왕, 판관 등 지장보살의 권속 21구가 봉안되어 있다. 1996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이 상들에 대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상들이 이미 복장구가 열려 도난된 상태였다. 그 중 지장보살상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고, 이외 몇몇의 시왕상에서 도난 시 잔존한 일부의 복장유물들이 수습되었다.

지장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장방형 한지에 행서로 묵서한 것인데, 조성기에는 발원내용, 造像名, 施主者, 畫員 등 조상 불사에 참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조성연대는 누락되어 있다. 다행히 조성기에 나오는 인물 중 행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翠微堂 守初(1590~1668)가 등장하고 있어 조성연대 추정에 도움을 준다. 즉, 그의 생몰연대를 고려해 볼 때 늦어도 이상이 1668년 이전에는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후기에 쌍봉사의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綾州地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과 「雙峰寺事蹟記」에는 1667년에 지장시왕상을 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결과적으로 조성기에 등장하는 취미수초의 생몰연대와 수조각승 雲慧의 활동시기, 그리고 『능주지사자산쌍봉사제전기문집록』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1667년에 조성된 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장보살상은 얼굴은 뾰족하게 처리한 턱, 코 뿌리에서 예리하게 솟은 돌출 코, 야무지게 양다문 얇은 입술, 절제된 미소 등에서 엄정한 佛格을 느낄 수 있다. 역3자형의 귀는 다소 추상적이며, 상□하각의 골을 길게 파내어 특징적이다. 목은 짧고 굵으며 목에는 삼도를 얇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호와 귀의 표현은 17세기 중엽 경에 전라도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雲惠派 조각에서 자주 확인된다.

본존 지장보살상의 착의형식은 上衣 위에 다시 대의를 변형 편단우견으로 걸친

27) 현재 이 기록이 원본은 행방이 묘연하고, 화순군청에 이 기록을 근거로 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 崔仁善, 「雙峯寺의 遺蹟과 遺物」, 『雙峯寺』(木浦大學校博物館, 1996), p.107 註5) 참조.

이중착의법으로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게 두텁게 표현하였다. 상□하체의 주름은 철선묘의 강직한 선을 위주로 하되 상체는 불필요한 주름을 최대한 줄여 단순화시킨 반면, 하체는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주름으로 조각하여 의도적으로 대비시켰다. 여기에 다시 군의의 끝단을 울동감 있는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내어 상체의 단조로움을 보완하였다. 또한 왼쪽 무릎 부근에 형성된 큼직한 주머니 형태의 주름과 왼쪽 측면 상박 아래로 형성된 좁고 긴 대롱 모양의 주름 끝을 〇로 마무리한 것이 특색이 있다. 손은 길고 섬려하게 표현되었는데, 왼손은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손바닥에는 운혜조각의 표식인 큼직한 井자형의 손금을 음각하였다.

좌우 협시인 도명존자□무독귀왕을 비롯한 권속들의 상호표현은 지장보살상과 거의 같지만, 지물이나 착의형식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다. 우선 좌협시 도명존자는 가사장삼을 걸치고 민머리의 僧形으로 표현되었고, 무독귀왕은 원유관과 제왕의 복장을 착용하고 두 손을 다소곳이 포개 모으고 손 가리개로 덮었다. 시왕상은 등받이와 손 걸이 끝부분에 龍鳳文이 조각된 의자에 앉아 홀을 받쳐 들거나 손을 포개어 모으거나, 또는 수염을 매만지거나 細條帶를 잡고 멋스런 포즈를 취하거나 하며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성격에 걸맞게 개성 있게 연출되었다.

좌우 귀왕은 원유관을 쓰고 면복을 착용하였는데, 우측 귀왕상은 홀을 들었고 좌측 귀왕은 무독귀왕과 마찬가지로 손을 포개어 모으고 흰색 가리개 손을 덮어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좌우 판관은 검푸른 색 복두를 쓰고 관복을 착용하고 상호 대응하였다. 사자상은 1구만 남아 있는데, 2개의 귀솟음이 있는 두건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긴 두루마리를 들었고, 우측사자는 남아 있지 않다. 분노형으로 표현된 두 인왕상의 상반신은 천의를 비스듬히 걸쳐 묶었고, 하반신은 바지 위에 要布를 두르고 木靴를 신었다. 우측 인왕상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으며, 좌측 인왕상은 입을 앙 다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단구적으로 표현된 동자상은 1구만 남아 있는데, 머리는 쌍계로 땀아 묶고 천의를 걸쳤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공양물을 받쳐 든 모습이나 공양물은 결실되었다. 특히 동자상의 뒷면에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채색 주머니가 인상적이다.

쌍봉사 명부전 지장보살상은 엄숙하면서도 강인한 얼굴, 명치부분을 꺾어 넣어 가슴을 강조한 수법이나 꽃잎 모양으로 울동적으로 접은 군의 끝단의 형태, 왼쪽 상박 측면에 표현된 좁고 긴 대롱모양의 주름, 그리고 무릎 아래로 부메랑처럼 속도감 있게 뻗어 내린 주름과 왼쪽 무릎 앞에 형성된 큼직한 주머니 형태의 주름 등은 1650년의 서동사 석가여래삼불좌상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각승들

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련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해남 미황사 지장보살삼존상 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쌍봉사 지장시왕상의 형태나 비례, 세부 표현 등은 1650년에 제작된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조각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무릎의 폭이 좁고 높아졌으며 허리가 다소 길어져 장신화의 경향을 보이며, 옷 주름도 좀더 간결하고 정돈된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이곳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왕상의 官服을 묶은 사실적인 細條帶의 표현과 표면에 시문된 고색 찬연한 채색과 문양이다. 특히 문양은 섬세하고 고풍스러워 조선후기 채색 불상의 채색과 문양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綾州地獅子山雙峰寺諸殿記文輯錄」과 「雙峰寺事蹟記」 등을 통해 이 상은 1667년경 雲惠를 비롯한 그의 일파 조각승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작품의 경향은 조선후기 17세기 중□후반 전라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조각승 운혜의 조각 경향을 잘 간직하고 있고, 더불어 과거에 시문된 고색 찬연한 채색문양이 잘 보존되어 있다. 곧 이 시왕상과 권속상들은 회화와 조각이 잘 어우러진 불상으로 조선후기 채색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승 운혜는 17세기 전반을 활약했던 守衍 - 靈哲의 계보를 잇는 조각승으로 그의 조각 경향은 敬林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특히 입체적이고 건장하면서도 중량감 넘치는 선 굵은 조각 경향을 선호하였는데, 쌍봉사 지장시왕상에서도 이러한 조각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지장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기를 통해 이 상은 1667년경에 조성된 것이 확실하므로 아직 제작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해남 대흥사 지장시왕상, 강진 백련사 지장시왕상, 해남 미황사 지장시왕상, 순천 동화사 지장시왕상, 순천 정혜사 지장시왕상 등 운혜파의 조각으로 추정되는 조각상들의 조성연대 추정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고, 더불어 이 중에서 冥界彫刻이라는 종교적 엄숙성과 17세기 불교 조각계가 추구한 대중적 평담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화순 쌍봉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7세기 중□후반경 활발한 조각 활동을 펼친 조각승 운혜의 불상양식 연구와 운혜파 조각승의 조각활동과 경향을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문헌자료

趙由典□尹根一, 「雙峰寺 基壇部 發掘調查概報」, 『文化財』 19, 國立文化

財研究所, 1986

崔仁善, 「雙峯寺의 遺蹟과 遺物」, 『雙峯寺』, 木浦大學校 博物館, 1996

崔宣一,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불교미술사학』 2, 통도사정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별표1>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no	명칭	재질	크기	연대	비고
1	지장보살좌상	목조	높이 106.0, 무릎폭 73.0	1667년	본존
2	도명존자입상	"	높이 139.8, 어깨폭 36.6	"	좌협시
3	무독귀왕입상	"	높이 144.8, 어깨폭 37.7	"	우협시
4	제1 진광대왕	"	높이 172.5, 어깨폭 37.0	"	좌1 *홀을 잡음
5	제2 초강대왕	"	높이 167.0, 어깨폭 43.7	"	우1
6	제3 송제대왕	"	높이 173.0, 어깨폭 46.0	"	좌2 *수염을 매만짐
7	제4 오관대왕	"	높이 179.0, 어깨폭 43.6	"	우2
8	제5 염라대왕	"	높이 164.8, 어깨폭 42.5	"	좌3 *머리에 경책을 올려놓음
9	제6 변성대왕	"	높이 169.0, 어깨폭 43.6	"	우3 *細條帶를 매만짐
10	제7 태산대왕	"	높이 168.0, 어깨폭 44.0	"	좌4 *紙筆을 들고 있음
11	제8 평등대왕	"	높이 161.2, 어깨폭 40.7	"	우4 *紙筆을 들고 있음
12	제9 도시대왕	"	높이 173, 어깨폭 38.0	"	좌4
13	제10 오도전륜대왕	"	높이 168.0, 어깨폭 38.5	"	우5 *수염을 매만짐
14	귀왕상(좌)	"	높이 118.7, 어깨폭 25.8	"	
15	귀왕상(우)	"	높이 119.0, 어깨폭 28.6	"	홀
16	관관상(좌)	"	높이 93.8, 어깨폭 25.3	"	
17	관관상(우)	"	높이 111.0, 어깨폭 29.8	"	
18	사자상(좌)	"	높이 120.0, 어깨폭 32.2	"	
19	동자상	"	총고 68.5, 상고 63.2, 어깨폭 26.0		
20	인왕상(좌)	"	높이 203.0	"	
21	인왕상(우)	"	높이 203.0	"	

* 시왕상의 명칭은 통상의 배치 예에 따라 명명하였음.

< 발원문 >

全羅道綾州地仲條山雙峯寺新造成地藏菩薩左補處道明尊者右補處無毒王十王造成安于」
 伏願」
 佛日慧炬長明佛□□調雨順歲稔時康 主上三殿萬歲無窮萬國折慶置寧靜 十方絕識同爲極樂之化生 法
 界含靈共作地藏之海衆 次願 各各結願隨喜施主與勸化助緣比丘等現增福壽當證喜提能度百千無數衆
 生 次願
 幽冥教主地藏菩薩大施主金金兩主 證明□行比丘
 左補處道明尊者大施主比丘監天 持殿處和比丘
 右補處無毒鬼王大施主吳夢良兩主 畫員雲慧比丘
 黃金大施主金文兩主 印性比丘
 烏金大施主金徹鳴兩主 道日比丘
 第一秦光大王大施主肉月兩主 碧雲比丘
 第二初江大王大施主金化男兩主 敬林比丘
 第三宋(帝)大王大施主崔守兩主 辛瓊比丘
 第四五官大王大施主裴芴男兩主 道尙比丘
 第五閻羅大王大施主鄭贊兩主 性行比丘
 第六變成大王大施主梁益老兩主 監禪比丘
 第七泰山大王大施主徐敬生兩主 處元比丘
 第八平等大王大施主鄭金同兩主 少者善奉
 第九都市大王大施主徐敬生兩主 緣化秩
 第十五道轉輪大王大施主琢□比丘 供養主 清憲比丘
 判官大施主金命吉兩主 清淡比丘
 判官大施主朱億主兩主 太正比丘
 鬼王大施主李秋日兩主 來性太元比丘
 鬼王大施主金龍兩主 負木廣員金
 左右將軍 治匠宋仁哲兩主
 童子施主應花兩主 別座雙成比丘
 童子施主朴太玉兩主 大功德主清信居士姜仲生兩主
 使者施主李介同兩主 勸化性浩比丘
 使者施主金 花單身
 亦願
 各現犬德風 堂義浣比丘
 大監翠微堂大師守初比丘
 山中大功德主比丘 靈峯 持寺鬼玉比丘
 教師處仁 敬倫比丘 持殿性天比丘
 禪德信仁 □宴比丘 出記戒比丘
 日玄比丘 尙澄比丘 處學比丘 首僧昊學比丘
 靈郁比丘 敬信比丘 和尚妙置比丘
 三綱正行比丘 前僧將住持 眞比丘

□

○ 현상 및 특징

쌍봉사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좌상과 무독귀왕, 도명존자로 구성된 삼존상과 시왕, 판관, 인왕상 등 총 21구의 상이 봉안되어 있다. 중앙에는 지장삼존을 그 좌, 우측에 각 5명의 왕과 귀왕, 판관, 사자상을 두는 일반적인 배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인왕은 불단의 양 측면에 배치하였다. 중앙의 지장상과 도명, 무독귀왕을 가장 크게 조각하였고 귀왕과 판관들은 시왕 보다 작은 크기로 만들어 위엄을 표현하였다.

지장보살좌상은 민머리의 지장상으로 전체적으로 얼굴이 크고 무릎이 넓어 안정감은 있지만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큰 편이다. 이마가 넓고 턱으로 올수록 뾰족한 얼굴 모습에 깊게 파인 넓은 인중, 입술의 양 끝을 살짝 들어가게 조각하는 등 특징적인 얼굴 모습을 보인다. 주름 잡어 모양을 낸 승각기와 오른팔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쳤으면서도 W자의 옷자락의 표현 없이 넓게 처리한 점 그리고 무릎 밑으로 부드럽게 주름 잡아 속도감과 율동감이 느껴지는 대의 표현이 특징이다.

지장보살좌상의 양 옆에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입상으로 서 있다. 도명존자는 두 손을 합장하였으며 옷깃을 오른쪽으로 잡아 당겨 입은 점과 두 가닥으로 갈라진 띠 매듭이 발 밑 까지 닿아 있는 점이 독특하다. 시왕들은 모두 용이 조각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연스러운 자세와 부드러운 옷주름 그리고 다양한 지물과 중간 색조의 부드러운 채색 등에서 우수함이 느껴진다.

이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의 복장물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몇 구의 시왕상에서 발원문이 나와 1667년 雲慧를 포함하여 10명의 화원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시주자 가운데는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당대의 고승 守初의 이름도 적혀 있다.

쌍봉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은 인근에 위치한 미황사라든지 강진 백련사 지장상과 크기라든지 전체적인 비례, 얼굴 모습, 착의법과 옷주름의 표현 까지 닮았다. 따라서 운혜는 비슷한 시기에 인근 지역에서 지장상을 연속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외에도 운혜는 1639년 전라남도 고흥 능가사 대웅전 불상, 1650년 전라남도 해남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65년 전라남도 곡성 도림사 목조아미타삼존상, 1667년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그리고 1680년 전라남도 곡성 목조관음, 세지보살상을 제작하여 주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쌍봉사 명부전의 지장삼존상과 시왕상은 이마가 넓고 턱으로 올수록 뽀족한 얼굴에 깊게 파인 큰 인중과 입술의 양 끝을 들어가게 하여 미소 진 모습 그리고 얼굴이 몸에 비해 다소 큰 듯한 신체 비례가 특징으로 이는 17세기 중엽 경에 활동한 운혜의 특징들이다.

운혜는 약 40여년간 전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한 17세기의 중요한 조각승이다. 특히 일반적인 조선후기의 경향을 따르면서도 신체 비례나 얼굴 표현 등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창출한 점에서 전라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조각승이라 할 수 있다.

쌍봉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등은 비록 현재 복장물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고 발원문에 기재된 권속도 완전하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상을 만든 조각승이 확인되었으며 1m가 넘는 큰 크기에 부드러운 중간 색조의 채색과 더불어 조각적 기법도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또한 1667년이라는 확실한 제작연대를 통해 인근에 있는 유사한 지장상의 기준작이 되어 자료적 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쌍봉사 목조지장삼존상, 시왕, 권속 일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원안 가결-보물로 지정예고 함.

10.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清原 東華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가. 검토사항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09.12.0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1.07.28)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 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북유형문화재 제168호(1990.12.14. 지정)
- 명 칭 : 청원 동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清原 東華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 정성천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150
- 수 량 : 1구
- 규 격 : 불상높이 147cm, 대좌높이 120cm, 총 높이 247cm
- 재 질 : 화강암
- 형 식 : 독존형식
- 제작연대 : 나말여초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부족함)

불상의 표현에 후대의 덧붙임이 많아서 머리, 얼굴과 몸체 표현에서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다. 대좌의 규모와 연판이나 부조상들은 비교적 입체적이거나 마멸이 심하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 (지정 가치 부족함)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석조비로자나불로 광배를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佛身은 덧칠이 심해 세부 특징이 불분명하고 옷주름도 힘을 잃은 모습이며, 특히 부자연스럽게 접합된 頭部로 인해 예배상으로서의 숭고미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智拳印을 맺은 양 손도 지나치게 작고 상체에 밀착된 평면적인 형태여서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석조비로자나불의 일반적인 형식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光背도 결실된 상태이다.

대좌는 드물게 지대석까지 갖추고 있고 각 부분의 조각이 날카롭고 볼륨도 강한 편이나, 上臺石 뒷면 일부가 결실되었고, 팔각 覆蓮石의 귀꽃도 모두 잘려진 상태이다. 복련석과 중대석 사이에 끼워넣은 별석의 괴임석으로 인해 이 대좌의 미술사적 가치를 높여준다고 하나,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걸쳐 석조대좌와 석탑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불상의 조형성과 대좌의 형식이 통일신라 9세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나 작품의 완성도가 낮고, 부분적으로 결실된 부분이 많으며, 나아가 이 불상만이 지니고 있는 미술사적 특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준거가 되는 여러 요소(희소성, 조형미, 紀年銘, 특수한 圖像과 형식 등) 가운데 어느 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부족함)

이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수인, 주름표현, 비례, 장식성과 장엄이 강조된 대좌 등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어 나말여초 충청지역의 비로자나불 도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지만, 종교성과 예술성을 상실한 相好와 격식 없이 시행된 표면 개금, 마멸로 인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지권인의 수인, 법식에 벗어나 있는 배면 주름의 처리, 후대에 인위적으로 손질을 가한 옷 주름, 파손된 부위가 큰 대좌 등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보고서 전문

□

○ 제작연대

불상 원래의 불상 몸체는 통일신라말기로 볼 수 있으나 머리, 얼굴, 가슴 손 등에 보수를 너무 하여 불상의 원형을 잃어버렸다.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말기(9세기)로 볼 수 있다.

○ 현 상

석조불상은 전체에 금칠은 했으며 머리에는 육계가 보이지 않고 안면은 눈, 코, 입, 귀등을 흰회로 덧붙여서 보수하여 원형이 거의 손실되었다. 지권인의 수인도 이해 부족으로 왼손의 검지 손가락 표현이 생략되는 등 불상표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의의 표현도 가슴 앞으로 흘러내린 옷주름의 연속성이 없으며 몸 뒤에 보이는 여러 갈래의 주름은 불상표현에서는 보기 드문 형상이다. 단지 두 다리와 그사이의 옷주름 표현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초기 불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불상대좌는 규모가 큰 편으로 양연대좌의 상대석, 팔각대좌의 각면에 새겨진 향로와 공양좌상들과 복련의 하대석의 연판 표현에 볼륨감이 있으며 그 밑의 팔각 기대석의 안상속에 조각된 사자상들은 매우 입체적이나 세부 표현에는 마멸이 심하다.

○ 내용 및 특징

비로자나불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나 불상의 머리, 얼굴, 몸체에 회로 덧붙여서 보수를 하여 원형이 훼손되었고 머리 부분과 지권인의 두손은 거의 정상적인 비로자나불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대좌는 모든 갖춤석을 보존하고 있으나 상대석의 뒷부분이 파손되었고, 중대석의 공양자상이나 기대석의 사자상 표현에는 마멸이 심하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불상의 표현에 후대의 덧붙임이 많아서 머리, 얼굴과 몸체 표현에서 원형을 많이 잃어버렸다. 대좌의 규모와 연판이나 부조상들은 비교적 입체적이나 마멸이 심하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

○ 현 상

결실된 광배를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佛身 전면에 두껍게 덧칠되어 있어 세부 특징 불분명함(덧칠 제거 필요). 얼굴은 복원 실수로 한쪽으로 뒤틀렸음. 광배 곳곳에 깨진 자국 많고, 상대석 뒷면 일부와 복련석의 귀꽃 모두 결실되었음. 상대석과 중대석 및 괴임석에 붉은 朱漆이 베풀어져 있음(원래의 것인지는 확인 불가)

○ 내용 및 특징

광배를 제외하고는 불신과 삼단 대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여래형 비로자나불 좌상이다.

지권인을 맺고 삼단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비로자나불은 신체 전면에 원래의 조각선을 찾기 힘들 정도로 도금이 두텁게 베풀어져 있어 세부 특징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頭部는 원래 절단된 것을 접착하면서 한쪽으로 뒤틀리게 복원하여 균형을 잃은 모습이다. 특히 코와 귀, 눈 등 이목구비 곳곳에 석고로 보강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 원래의 相好를 관찰하기 어렵다. 검게 칠한 머리 역시 세부 특징이 불분명하나 螺髮의 흔적이 보이며, 정상의 肉髻는 겨우 흔적만 남아 있다. 목에는 두터운 三道의 일부가 남아 있다. 지권인을 맺은 신체는 두터운 通肩衣로 덮혀 있으나 層段式 옷주름은 무겁고 축 늘어진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탄력감을 찾을 수 없다. 智拳印이라는 특징적인 신체 구조 때문인지 양팔의 위치가 높고 신체에 붙은 듯 평면적이며, 양 손 역시 지나치게 작고 곧추 세운 검지도 마멸되어 위축된 모습이 역력하다.

뒷면에도 폭이 넓은 층단식의 옷주름이 얇게 새겨져 있다. 가부좌한 하체는 양 발바닥을 노출시켰는데 양 발이 좌우 직선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매우 도식적이며, 양 무릎 중앙에는 부채살 모양의 옷깃이 드리워져 있다.

원상을 많이 훼손한 불상에 비해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삼단대좌의 전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세부 조각은 힘이 넘치고 날카롭지만 곳곳에 깨진 자국이 많다. 2매석으로 구성된 地臺石을 제외하고는 下臺石, 覆蓮石, 괴임석, 中臺石, 上臺石 모두 각 1매석으로 결구되었다. 사각형의 지대석은 2매석으로 구성되었으나 향우측 부분은 3등분되어 있다. 윗면 중앙에 弧形과 角形의 낮은 2단 괴임대를 몰딩한 뒤 팔각의 하대석을 놓았다. 1매석으로 조각된 팔각 하대석의 각면에는 돌기가 많은 眼象무늬를 베풀고 그 속에 볼륨이 강한 사자를 양각하였다. 하대석의 윗면에는 1단의 角形 괴임대를 몰딩하고 그 위에 팔각의 覆蓮石을 올려 놓았다. 복련은 잎이 넓고 瓣心 좌우에 볼륨이 강한 複葉을 조각하고 꽃잎 사이사이에는 날카로운 間

葉을 배치하였는데, 각 꽃잎의 瓣端은 심하게 반전하여 귀꽃을 형성하였으나 현재는 8곳의 귀꽃 모두 결실된 상태이다.

복련석의 윗면에도 2단의 받침을 몰딩하고 윗면의 팔각 중대석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에 마치 옥개석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의 팔각 괴임석을 끼워 중대석을 받도록 하였다. 이처럼 석불이나 석탑에서 측면이 반전된 형태의 팔각 괴임석을 끼워 넣어 中臺石이나 塔身石을 받도록 한 형식은 통일신라 9세기부터 나타나 고려 초기에 이르러 크게 유행한다. 괴임석의 윗면에도 2단의 괴임대를 몰딩하여 상대석을 받도록 하였는데, 다른 부위의 몰딩과는 달리 각 모서리의 끝 부분을 열매 형태로 도톰하게 새긴 표현이 흥미롭다. 이 괴임석과 팔각의 중대석은 모서리가 서로 어긋나 있어 정확한 복원이 시급하다.

중대석의 각 면에는 양 隅柱를 刻出하고 그 내부를 龕室 형태로 얇게 파낸 다음 정면에서부터 7면에 걸쳐 頭□身光과 蓮華座를 갖춘 供養 人物坐像을, 뒷면 중앙면에는 香爐를 새겨 넣었다. 상대석은 원형의 仰蓮臺로, 꽃잎이 매우 넓고 큼직한 8잎 蓮瓣을 돌리고 그 사이에 또다른 소형의 仰蓮을 間葉처럼 배치하였다. 각 연판 내부에는 산머루 형태의 잔열매 무늬와 꽃무늬로 구성된 화려한 장식 무늬를 새겨 넣었는데, 이처럼 장식적인 蓮瓣 意匠 역시 통일신라 9세기부터 등장하는 특징적인 연꽃무늬 형식의 하나이다. 양련석과 중대석의 모서리 부분, 그리고 괴임석의 하단 부분에는 붉은 朱漆을 베풀었는데, 언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균형을 잃고 위축된 신체, 긴장감을 찾을 수 없는 옷주름 표현, 별석의 괴임석을 끼워넣은 삼단대좌의 구성, 장식성이 강조된 특징적인 仰蓮 형식, 불상에 비해 오히려 불륨이 강조된 대좌의 사자상과 인물좌상 표현 등에서 조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 9세기대로 추정된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석조비로자나불로 광배를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佛身은 덧칠이 심해 세부 특징이 불분명하고 옷주름도 힘을 잃은 모습이며, 특히 부자연스럽게 접합된 頭部로 인해 예배상으로서의 숭고미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智拳印을 맺은 양 손도 지나치게 작고 상체에 밀착된 평면적인 형태여서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석조비로자나불의 일반적인 형식에 비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光背도 결실된 상태이다.

대좌는 드물게 지대석까지 갖추고 있고 각 부분의 조각이 날카롭고 불륨도 강한 편이나, 上臺石 뒷면 일부가 결실되었고, 팔각 覆蓮石의 귀꽃도 모두 잘려진 상태이다. 복련석과 중대석 사이에 끼워넣은 별석의 괴임석으로 인해 이 대좌의 미술사적 가치를 높여준다고 하나, 이러한 형식은 통일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결쳐 석조대좌와 석탑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불상의 조형성과 대좌의 형식이 통일신라 9세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으나 작품의 완성도가 낮고, 부분적으로 결실된 부분이 많으며, 나아가 이 불상만이 지니고 있는 미술사적 특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불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준거가 되는 여러 요소(희소성, 조형미, 紀年銘, 특수한 圖像과 형식 등) 가운데 어느 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 내용 및 특징

동화사는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150번지 동화산 아래 절골에 있는 사찰로, 속칭 남수원절이라 전한다. 절의 창건연대를 알려주는 사료는 없으나, 조선후기 편찬된 『輿地圖書』(1757~1765)에 南水院佛堂'이라는 기록이 있어 본래의 사찰 이름은 南水院'으로 추정된다. 한편 절터 주변에서 통일신라이후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은 최근에 건립된 동화사 대적광전 내에 봉안하였는데, 높은 팔각연좌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智拳印의 비로자나불상이다.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불상의 頭部는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이고 졸렬한 모습으로 보수하여 종교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상실하였다.

착의형식은 간다라식 통견착의법으로 가슴부터 복부아래까지 U자형의 주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평행계단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굽힌 팔꿈치 주변으로 모여드는 주름의 여운이 제법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마멸이 심하다. 결가부좌한 다리에도 복부의 주름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의 평행사선주름이 표현되었고, 무릎 앞으로는 형식화된 부채꼴 주름이 자리 잡았다.

대좌는 사각의 지대석과 팔각의 하대□중대□상대석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복련과 중대석 사이에 둔 별도의 받침석이다. 하대석은 하대상석과 하대하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대하석의 각 面에는 안상을 마련하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은 8마리의 사자를 고부조로 조각하였다. 하대 복련 역시 이에 상응하게 매우 입체적이고 날렵하게 조각하여 역동적이며, 그 위에는 굽이 달린 팔각쟁반 모양의 큼직한 받침석을 두었다. 이러한 받침석은 9세기 전반경의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42호)에서 볼 수 있듯이 팔각 중대석을 받는 단순한 받침이었던 것이 대좌의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863년경)과 같이 높고 큼직한 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받침석은 이것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별도의 돌로 조성하고 아랫부분을 곡면 처리하여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듯한 느낌을 준다. 팔각 중대석의 각 면에도 향로를 비롯한 7구의 공양자상을 돈을 새김하였다. 상대 仰蓮은 꽃잎을 3겹으로 겹친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하대 복련의 입체적이고 간결함에서 오는 역동적인 힘에 비해 회화적이고 장식적이며 정적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전반적으로 중대 받침석을 별도로 조성하여 부각시킨 점이나 표면 장엄과 장식이 강조된 대좌의 형태는 9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불상의 대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이 비로자나불상은 지권인의 수인, 주름표현, 비례, 장식성과 장엄이 강조된 대좌 등에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으로 추정되어 나말여초 충청지역의 비로자나불 도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지만, 종교성과 예술성을 상실한 相好와 격식 없이 시행된 표면 개금, 마멸로 인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지권인의 수인, 법식에 벗어나 있는 배면 주름의 처리, 후대에 인위적으로 손질을 가한 옷 주름, 파손된 부위가 큰 대좌 등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원안 부결